



제가 7대 회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임기 중에 창립 20주년 행사를 주관하는 행운을 가지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20년 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편집)의 창립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편집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주도하신 지제근, 박찬규, 조승열, 박찬일, 함창곡, 임정기 교수님들은 모두 선각자이십니다. 그 당시 국내 의학학술지는 여기저기서 발행하기는 했지만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MEDLINE에 등재된 학술지는 5개가 전부였고, 그 외는 우리도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학술지는 학회 학술활동의 구색 갖추기, 승진이나 임용에 필요한 논문요건 맞추기, 전문의 고시용 논문출판 정도의 기능에 머물고 원래 고유 기능인 전문가 사이의 학술교류와 인용은 거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문발전이 요원하다는 인식이 의편집을 만들게 한 직접적인 동기입니다.

의편집은 국제규격에 맞추어 학술지를 편집하고 발행하여야 한다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편집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 학술지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인 검색이 가능한 회원학술지용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영문초록 검색시스템으로 KoreaMed, DOI를 연결하는 논문 전문 온라인출판 플랫폼인 SYNAPSE, 이를 토대로 산출하는 국내 학술지 간의 인용지수 KoMCI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회원 학술지들의 국제적인 인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국제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 대거 등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회원 학술지 34개가 Web of Science에 등재되고 올해는 6개 학술지가 ESCI에 등재되어 모두 40개 학술지가 톰슨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었습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MEDLINE에 21종,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에는 98종이, 엘스비어출판사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에는 79종이 등재되어 이제 국제적으로 검색되는 학술지가 괄목할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런 공로로 2015년에 범석의학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의편집 활동을 주도하신 조승열, 이춘실 교수님이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을 공동수상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 의학자들의 높은 안목과 국제적 학술교류 가치를 추구하는 열의

발간사

가 높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학술지 편집은 편집인이 건성으로 일해서는 이를 수 없고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야 향상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이 그동안 들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의편협을 이끄신 역대 회장님과 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창립 20주년을 맞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준비하시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노력을 통해 얻은 성취를 돌아보면서 내실을 기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숨을 잠시 고르면서 갈 길을 멀리 내다보고 올바른 방향을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편협이 어디로 갈 것인가, 특히 우리 의학학술지들이 무한 경쟁시대에 거대 국제출판사나 점점 공룡화 되는 외국 저명 학술지와 겨루면서 생존하는 길, 특히 장거리 경주에서 생존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편집)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하는 '의편집 20년사' 발간도 축하드립니다.



의편집은 1996년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현재는 의학을 넘어서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생명과학 등 의과학 분야의 245종의 학술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명실상부 의과학 학술지 편집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우뚝 섰습니다. 이처럼 외적 영역의 확대뿐 아니라, 의편집은 설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의학 학술지 편집인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의학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평가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 의학학술논문과 학술지의 윤리에 관한 사업도 진행하여 윤리적이며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의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중에서도 특별히 출판윤리를 위반하는 대표적 부정행위인 중복출판 방지를 위한 활동이 눈에 띕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중복출판을 개선하기 위해 의편집은 출판윤리위원회를 초기부터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중복출판 사례집 발간 등 캠페인 홍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학 학술 논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의편집의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식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소개되는 등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PubMed에 버금가는 KoreaMed와 KoreaMed Synapse 등의 훌륭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었기에 의학자들의 연구수준 향상과 출판윤리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세계 의학계와의 교류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별히 아시아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등의 의학정보와 지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의학정보 유통망 구축을 도움으로써 질병 퇴치와 인류

축사

건강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혁혁한 공로도 세웠습니다.

의편협의 20년간의 발자취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이번 '의편협 20년사' 발간을 통해 의학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섬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초심을 더욱 기억해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나라 의학의 바른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쪼록 의편협 20년사 발간을 위해 많은 열정을 쏟으신 홍성태 회장님과 여러 임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의편협의 20년을 함께 해온 존경하는 편집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1996년에 결성된 대한의학술지편집인협회(의편협)는 그동안 학술지 편집 체제 개선, 의학 논문의 국제 유통 그리고 출판 윤리 부문 등에서 의학학술지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의편협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 유수의 의학학술지들의 최신 경향을 국내 의학 학술지들에 전파하여, 국제화를 통해 국내 의학학술지들이 SCI를 비롯한 유명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대거 등재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구글(Google)과 같은 인터넷포털에서도 의편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KoreaMed와 KoreaMed Synapse의 한국 의학논문의 유통 경로로서의 가치와 수준을 매우 높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색인기관은 한국의 모든 보건의료 분야의 학술지를 포함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술지만을 선별하여 등재하고,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단체가 의학연구자와 국민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정교한 학술정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과학기술 분야의 학문 세계에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전문가 단체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 차원의 사업을 외부 예산 지원 없이 순수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주도하여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과 함께 의학 정보 기반

축사

시설 구축도 세계를 선도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편협은 우리 의학계의 자랑이며 이러한 단체가 의학회 산하 기구라는 점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의학학술지 편집인들과 의편협 임원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학술기여 활동과 헌신이 오늘날의 의편협을 이룬 원동력이었다고 확신합니다.

홍성태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 그리고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편협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학회 회장 이윤성

우리나라의 의학과 관련된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학술지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창설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편집)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며, 이를 맞이하여 의편집 2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전 회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동시에 지난 20년간 의편집의 편집인 여러분들이 한국의학지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며, 이러한 의편집 발전의 역사를 20년사에 모두 담아 현재를 있게 한 과거의 노력을 생각하고, 발전해야 할 미래를 계획하는 것 20년사를 발간하는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편집은 발족 초기부터 정보화가 의학학술지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술지 홈페이지를 구축을 시도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KoreaMed 서비스를 1997년부터 시작하였고, 2002년에는 KoreaMed Link out 서비스 그리고 2007년부터는 KoreaMed Synapse 서비스를 시작하여 한국의 의학 학술지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학술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으로 KoreaMed와 KoMCI라는 DB구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편집에 의한 국제수준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은 국내 다른 학술기관에서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작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초창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큰 업적을 이루어내신 조승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학술지 인용지수 산정에 등재된 국내발행 학술지의 수가 상위국가에 속하기는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의학지가 현재보다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편집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편집 20년사의 발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편집 2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남궁성은

축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편집)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학분야 학문발전을 위해 의편집이 기여한 큰 공적에 또한 찬사를 보냅니다.



2011년 6월 2일 처음 과학분야 학술지 편집인 모임을 조직하기 위하여 몇 분이 모였을 때, 우리는 의편집이 일하는 것을 잘 배워서 운영만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는 의편집이 그동안 워낙 많은 업적을 쌓았고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국제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편집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온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의편집에서 활동한 편집인 몇 분이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과편집)에도 참여하셨기 때문에 의편집의 축적된 경험이 과편집 창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편집과 과편집은 대상은 차이가 있지만 과학 학술지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있길 기대합니다. 국제회의 공동개최, 워크숍이나 세미나 강사진의 공유 등을 통하여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 조직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사업들을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편집인 모임이 할 수 있는 일은 국제 모임에서도 어느 정도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의편집은 그런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운영하여 회원 학술지 발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국내 어느 기관에서도 하지 못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20년 가까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국제수준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는 점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역대 의편집 관계자 여러분의 혜안과 역량, 그리고 봉사정신은 높이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편집인 훈련과정 역시 과거 내용을 지금 보아도 충분히 바로 적용 가능한 앞선 내용이고, 국제 학회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어서 우리 과편집 프로그램개발에도 늘 참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과학논문 생산에서 전 세계 10위 수준으로서 논문생산량이 4%를 차지하나 학술지에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술지 시장은 미국, 영국, 독일, 네델란드 등 구미지역의 상업출판사가 지배하고 있어서 후발국인 우리나라가 학술지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가 더욱 더 어렵게 보

축사

입니다. 또한 국제 과학 학술지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학술지 종수는 1/80 수준으로 과학 기술 수준 5위인 국력이나 논문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국제 상황에서도 의편협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출판과 편집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고 특히 우리나라 의학 분야 학문수준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의 하나가 90종의 의학분야 학술지가 PubMed Central에 등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의편협이 우리나라 의학분야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바는 이제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20년간 의편협의 성공적인 활동을 치하드리면서 창립 20주년이 의편협의 또 다른 도약의 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의편협 창립 20주년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하종규

Message of Congrat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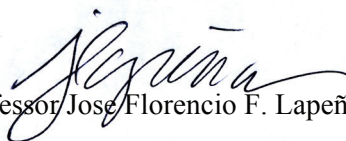


MESSAGE

On behalf of th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I am pleased to congratulate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on the auspicious occasion of its 20th anniversary in March 2016.

KAMJE was instrumental in the evolution of APAME, and is one of the leading associations of medical journal editor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as i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publishing environment of medical journals in Korea and in other Asian countries. Its regular education programs for editing, writing, publishing and evaluation of medical journals; publication of online databases of member journals on KoreaMed, Synapse, KoMCI, and KAMJE Press, and generous support for APAME journals through APAMED Central are invaluable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by enhancing the publication of high-quality medical journals in Korea and the Asia Pacific region.

| 18



Professor Jose Florencio F. Lapeña, Jr. MA, MD, FPCS
President of APAME

Message of Congratulations



On behalf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KAMJE on the occasion of their 20th anniversary. As biomedical research continues to expand and becomes increasingly complex, it is essential that journals and editors maintain high standards in all aspects of the reporting of this research. Editors' associations such as KAMJE are important players in setting these standards and helping editors to achieve them, for the benefit of researchers and, above all, patients.

Best wishes,

Joan

19 |

Joan Marsh MA PhD
President,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Deputy Editor, The Lancet Psychiatry

Message of Congratulation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Post Office Box 62
Oak Ridge, Tennessee 37831
<http://www.osti.gov>

February 29, 2016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33 Ichon-ro 46-gil, Yongsan-gu
Seoul 140-721, Korea

Dear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s Offic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OSTI),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KAMJE on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For the past 20 years, KAMJE has served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access to articles in Korean medical, dental, nursing, nutrition, and veterinary journals. These journals documen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of Korea's many fine scientists, and, through KAMJE's journals and databases, the information is made accessible to other scientists around the world.

My organization serves as the Operating Agent for the WorldWideScience Alliance, of which KAMJE is a valuable member. The Alliance deeply appreciates KAMJE's support and participation in this global partnership. KAMJE contributes its two excellent databases, KoreaMed and Synapse, to the WorldWideScience.org portal. WorldWideScience.org receives approximately 50,000-60,000 queries from users each month, and KoreaMed and Synapse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to these users about medical science and research in Korea.

As KAMJE celebrates its 20th anniversary, I wish you many more years of success. The WorldWideScience Alliance looks forward to continued collaboration with KAMJE, and we welcome new partnerships and initiatives between our organizations in the future. You have my best wishes for a productive annual meeting and anniversary celebration.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Brian G. Hitson".

Brian Hitson, Director
Offic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U.S. Department of Energy



Congratulations to KAMJE on its 20th anniversary! KAMJE has been a sponsoring member of Crossref since 2007 and helps 140 Korean medical journals participate in the Crossref system and services. As Executive Director of Crossref, a non-profi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ver 5,000 scholarly publishers, I can say that we have been lucky to have KAMJE as a member. Working with organizations like KAMJE is an important part of Crossref's strategy to provide support to small publishers and societies internationally and in their local language. KAMJE provides local Crossref support for the 140 journals that they host and it means that these journals can more easily implement best publishing practice and be connected to Crossref's international network. Without KAMJE's support we would have many fewer Korean journals participating in Crossref.

KAMJE has deposited metadata and DOIs for over 72,000 scholarly journal articles with Crossref, which means that the content is discoverable and citeable internationally and that the permanent DOI links take readers to the Synapse platform which provides a lot of functionality for readers. KAMJE has been an excellent Crossref member and I have always been impressed by their technical skills. KAMJE is always one of the first members to implement new services and features from Crossref. For example, KAMJE uses CrossCheck to scan manuscripts and check for originality and participates in CrossMark to provide additional metadata including notifications of corrections and retractions - a real benefit to researchers. Most recently, KAMJE has put in place support for Crossref's text and data mining functionality and is depositing funding information so that funding can be tied to publications.

KAMJE participates in Crossref's Annual Meeting each year and a few different Crossref staff have visited KAMJE and spoken at conferences and workshops arranged by KAMJE. So congratulations again to KAMJE on its 20th anniversary and Crossref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KAMJE for many year to come.

Edward Pentz
CEO, Crossref

Message of Congratulations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the Google Scholar team sends congratulations to KAMJE on its 20th year in furthering the worldwide visibility of Korean medical research. KAMJE has fulfilled an integral role within Korean scholarly communication to ensure that students, clinicians, medical staff and researchers in Korea--and far beyond--are able to find timely and much-needed medical information quickly and easily. We are grateful to KAMJE for our close, collaborative working relationship over the years (KAMJE was one of our earliest partners in Korea), and we applaud the Association's efforts to continue to advance discoverability of Korean medical research through the KoreaMed, KoMCI, and Synapse databases. We wish KAMJE another 20 years of success and look forward to future cooperation!



KoreaMed, KAMJE and Cochrane: a partnership to enhance access to Korean research

In a remarkably short space of time it has become possible to access vast repositories of research, all without leaving one's desk. In some cases, these repositories comprise a substantial part of a country's research output. In Korea, a resource like KoreaMed has alway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viding a single access point to the country's most important clinical journals and research papers. However, it's only with the advent of open access publication and digital object identifiers (DOIs) that the discoverability of this research has been revolutionised. Research that was previously largely only available to people in Korea, has now been thrown open to all. Greater research discoverability has many important consequences, not just for sharing techn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with the rest of the world, but also as a means of enhancing the profile and reputation of individual researchers and academic institutions.

Another important beneficiary of greater research discoverability is systematic review organisations, such as Cochrane, who rely on the availability of primary research studies to form the foundations of reliable syntheses of research evidence. When health policies,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individual clinical decis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incomplete evidence, there is the risk that we may overestimate the benefits of interventions and downplay their potential harms. We know from empirical research that studies with positive results, particularly that favour new interventions, are more likely to be published, more likely to be published in English and more likely to be published in journals that are indexed in the major bibliographic databases, such as Medline. The development of KoreaMed, especially the inclusion of DOIs and access to the full-text of a substantial archive of Korean journals indexed in KoreaMed, has an important bearing on systematic reviews.

Message of Congratulations

This potential distortion of the evidence base resulting from publication bias has pre-occupied systematic reviewers and methodologists for more than 30 years. It was what motivated many of the early contributors to become involved in Cochrane, and resulted in a huge effort to search the medical literature for reports of randomised trials. (Tracking down unpublished trials is a separate, but equally important endeavour.) Major databases, such as Medline and Embase, were screened first by an army of volunteers and yielded many thousands of trials that weren't previously indexed (and thus not easily identifiable) as trials. Nowadays, reports of trials that are indexed in both these databases are automatically fed into the Cochrane Register of Studies so that systematic reviewers have access to the very latest published trials. Just as impressive have been the efforts to search many smaller, specialist or regional/national databases for trials.

| 24

In 2013, we were joined at Cochrane Australia in Melbourne by Miyoung Kim, a medical information specialist from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One of the projects completed during this time was a retrospective search of several Korean scientific and medical databases to identify reports of randomised trials. Among the database searched, and by far the most important in terms of numbers of trials identified, was KoreaMed. The method we followed for identifying trials was to develop a highly sensitive search strategy that would retrieve citations likely to include reports of trials in which interventions were compared in two or more groups. From over 7,500 citations retrieved we identified 3,300 reports of randomised (or possibly randomised) trials. At the time this study was conducted, only about a fifth of these citations were indexed in KoreaMed with the Publication Type term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ll citations that we identified as reports of randomised trials were notified to KoreaMed and have now had the Publication Type term added to the records.

With the generous suppor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permission was granted for Cochrane to republish the citations from KoreaMed in the Cochrane Register of Studies (part of the Cochrane Library). Because nearly 3,000 (90%) of the trial citations we identified from KoreaMed were not included in the Cochrane Register of Studies or Medline, a substantial number of Korean trials are now much more easily accessible to systematic reviewers internationally. Wherever possible, digital object identifiers (DOIs) have been added to the KoreaMed citations in the Cochrane Register of Studies from Korean journals that have adopted DOIs. Providing links to the full-text of trial publications removes an important barrier by enabling access to these trials to people from outside Korea, thus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their inclusion in systematic reviews.

The partnership between KoreaMed and Cochrane is entering a new phase. Over the last two years, Cochrane has piloted and refined the use of crowd sourcing to screen citations from Embase for reports of trials. Volunteer contributors to the crowd have screened over 250,000 Embase records and helped identify almost 19,000 reports of randomised trials. From 2016, records from KoreaMed will be screened by members of the Cochrane Crowd and citations to randomised trials added to the Cochrane Register of Studies on a monthly basis.

On behalf of Cochrane Australia, I congratulate KAMJE on reaching their 20 year milestone, thank them for their collaboration on this important project, particularly acknowledging the support of Professor Choon Shil Lee, and wish KAMJE continued success in the next 20 years.

Steven McDonald
Co-Director, Cochrane Australia
Senior Research Fellow, Monash University
AUSTRALIA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

1996-201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사



Twenty-Year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사진으로 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

* 1996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진은 10년사에 수록됨.





2008 의편협 정기총회 / 임원



2008 의편협 정기총회 / 연자



2008 의편협 회원학술지 SCI 등재기념 워크숍



2008 APAME 사무실 헌판식



2008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



2008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



2008 WHO 실무자 파견 연수



2008 정보관리위원회 기술연구 워크숍



2008 제1회 편집인아카데미



2008 제7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09 정보관리위원회 워크숍



2010 학술지재평가회



2011 의편협 정기총회



2011 의편협 정기총회



2011 제4회 편집인아카데미



2011 제4회 편집인아카데미



2011 CrossCheck 설명회



2011 제6기 임원 워크숍



2011 제1차 APAME 서울 학술대회



2011 제1차 APAME 서울 학술대회



2012 의편협 정기총회



2012 의학학술지 DB의 이해와 활용 워크숍



2012 제5회 편집인아카데미



2012 제6회 편집인아카데미



2013 의면협 정기총회



2013 의학저널 selection 및 life science service 워크숍



2013 제1회 논문작성 워크숍



2014 의편집 워크숍



2014 의편집 정기총회



2014 Authorship Peer Review 워크숍



2014 ORCID 학술지편집인 워크숍



2014 Thomson Reuters 방문

을지재단 설립자 故 범석 박영하박사 추모 1주기 및 제17회 범석상 시상식

일시 : 2014. 5. 7(수) 17:30 장소 : 성남캠퍼스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 주관 : 범석학술장학재단 후원 : 연합뉴스TV



2014 제17회 범석상시상식

을지재단 설립자 故 범석 박영하박사 추모 1주기 및 제17회 범석상 시상식

일시 : 2014. 5. 7(수) 17:30 장소 : 성남캠퍼스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 주관 : 범석학술장학재단 후원 : 연합뉴스TV



2014 제17회 범석상시상식



2014 제8회 편집인아카데미



2014 제2회 논문작성 워크숍



2015 제9회 편집인아카데미



2016 제6회 논문작성 워크숍



제1장 **의편협** **시작, 현재, 미래**

1996-201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사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과 함께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사

Twenty-Year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의협 창립부터 제4기까지 활동

최인홍 (제7대 부회장)

의협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대한의학회의 의학학술지 평가기준 설정 사업(1994-1995년)에서 비롯한다. 1995년 대한의학회가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과 공동주최로 개최한 ‘의학학술논문의 작성과 심사’ 워크숍(3월, 6월 2차례 개최)에서 총 45명의 학술지편집인이 참석하여 토의과정에서 편집인 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5년 당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는 전문학술지 88종과 협회발간 학술지 19종, 의과대학 발간 학술지 및 논문집 31종, 군진의학학술지 3종 그리고 상업적 의학학술지 3종을 포함하여 총 224종이었다. 그러나 MEDLINE 등재학술지는 5종이었고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는 전무하였다. 이 시점에서 철저한 전문가 심사를 통과하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논문을 출판하는 수준 높은 학술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더불어 편집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지 편집과 논문심사 그리고 출판윤리 등에 관한 교육과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주체가 요구되었다.

워크숍을 마친 후 1995년 9월 대한의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지제근 교수, 서울의대)과 간행이사(박찬일 교수,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편집인, 연세의대)는 조승열 교수(가톨릭의대), 안윤옥 교수(서울의대), 서정욱 교수(서울의대)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인 협의체에서 다루어야 할 사업(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0년, P5의 표1)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1996년 2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대한의학회 김영명 회장, 지제근 부회장, 박찬일 간행이사 그리고 학술지 편집인 35명 등 총 51명(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0년, P16의 첨부2)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가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 제1대 회장으로 박찬규 교수(Yonsei Medical Journal 편집인, 연세의대), 부회장 오양효 교수(부산의대잡지, 부산의대)와 감사 조정삼 교수(대한내과학회지 편집인, 경희의대)가 선출되었다.

제1차 정기총회는 1996년 3월 28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51개 단체회원(학술지 편집인)과 개인회원 5명이 참석하였다. 1996-1997년도 사업계획으로 ① 학술지 homepage 제작사업 ② 학술지 평가기준 설정 ③ 논문투고규정/심사/편집 모델 개발 ④ 학술지 발간지용 절감 공동 노력 등 당면한 과제를 설정하였다.

제1기 회장단

1996년 창립 원년의 의편협은 박찬규 회장과 오양효 부회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일 교수, 연세의대, 간사 송경순 교수, 연세의대), 정보관리위원회(위원장 안윤옥 교수, 서울의대, 간사 허선 교수, 한림의대) 그리고 기획평가위원회(위원장 조승열 교수, 가톨릭의대, 간사 서정욱 교수, 서울의대)의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세칙을 보완하고, 의편협 로고를 제작하고 소식지 발간 사업(1-3호)을 진행하였다. 한편 국제적 활동을 위하여 WAM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에 가입하고 10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orkshop on Medical Writing & Editing에 참석하였다. 기획평가위원회는 9월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더불어 학술지 조사사업과 편집인 교육사업을 담당하면서 '의학학술지 homepage 제작'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1997년에는 학술지평가회 1회(1차), 워크숍 2회(① 학술지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국내학술지 현황조사, ② 의학학술지 평가사업, 한국메드라인 사업)을 진행하고 소식지(4-7호)를 발행하였다. 특히 KoreaMed를 구축하여 12월 31일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998년에는 학술지평가회 3회(2-4차), 소식지(8-10호)를 발행하였다. 1998년 3월 단체회원 113중, 개인회원 9명, 특별회원 3곳으로 회원 수가 증가하였다.

제2기 회장단

1999년에는 학술지평가회 3회(5-7차), 워크숍 3회(① 편집인과 논문심사위원의 역할, 학술지 평가결과 분석, ②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 도모, ③ KoreaMed 등재 양식과 MeSH 이용)을 진행하고 소식지(11-14호)를 발행하였다. 이 해에 교육연수위원회(위원장 민양기 교수, 서울의대, 간사 이철희 교수, 서울의대)를 신설하였다. 기획위원회에서는 학술지 평가항목을 개정 보완하였다.

2000년에는 학술지평가회 2회(8, 9차), 워크숍 3회(①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 현황 등 학술지 평가, ② 의학학술지 평가 개선, ③ KoreaMed 활성화 방안)을 진행하고 소식지(15호)를 발행하였다. 이 해에 KoreaMed 입력을 담당하던 회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의 협조를 얻어 2001년 4월부터 의편협이 자체적으로 KoreaMed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에는 학술지평가회 2회(10, 11차), 워크숍 2회(① 좋은 의학학술지 만들기 등, ② 디지털 자료 저작권 계약시 주의할 점 등)를 진행하고 소식지(15호)를 발행하였다. 국제활동으로는 함창곡 의편집 회장이 WAME 이사로 선임되고, 스페인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gress on Peer Review in Biomedical Publication에 의편집 대표가 참석하였다.

제2기 회장단의 함창곡 회장은 중단 위기에 처한 KoreaMed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을 가장 큰 활동으로 기억하고 있다. 2001년 KoreaMed의 서버를 정보관리위원회 간사인 허선 교수가 재직하는 한림대학교에 두고 숙명여대 이춘실 교수 팀이 입력을 담당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상적인 접속과 검색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여 2001년 말 입력 건수가 20,000건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제4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Peer Review in Biomedical Publication에 함창곡 회장과 김훈교 교수, 조수현 교수가 참석하여 출판논문의 이해관계, 편집권 독립문제, 저자역할의 정당성 등의 주제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파악하였으며 더불어 KoreaMed를 소개하였다.

제3기 회장단

53 |

2002년에는 학술지평가회 2회(12, 13차), 워크숍 4회(① KoreaMed 활용법, ② 논문 심사, 이증계재, authorship 등, ③ XML 작성, ④ LinkOut 설명회)를 진행하고 소식지(18-20호)를 발행하였다. 9월 KoreaMed LinkOut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학술지평가회 2회(14, 15차), 워크숍 4회(① 메드라인 등재 경험 등, ② 학술지 발전, ③ KoreaMed, MeSH 워크숍 2회, ④ PHP 실무워크숍)를 진행하고 소식지(18-20호)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2004년 2월 대한의학회 회원 가입 인준을 위한 학술지 평가를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학술지평가회 3회(16, 17차, 재평가회 1회), 워크숍 5회(① KoreaMed 현황 및 사업 계획 등, ② 의학연구의 설계와 수행, ③ 의학학술지 발전 세미나, ④ KoreaMed 실무 워크숍 2회, ⑤ 논문심사위원을 위한 워크숍)를 진행하고 소식지(18-20호)를 발행하였다. 이 해에 KoreaMed 등재학술지 재평가를 시작하였다. 국제활동으로 미국 NIH 주최 MeSH 워크숍에 참석하고 미국 Thompson ISI 사를 방문하였다. 제3기 조승열 회장단 시기에 의편집은 의협 건물에 KoreaMed 작업에 필요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KoreaMed 사무원 인건비를

대한의학회에서 승인받았다. 공간과 인력이 확보됨에 따라 KoreaMed LinkOut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논문 원본에 접속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이춘실 교수의 제의로 구축하였는데 의편협 단체회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원문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KoreaMed의 입력 수월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록 정보를 XML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XML 작업에 관련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의학 정보를 구축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2001년 대한의학회가 KoMCI를 개발하면서 색인 대상 학술지를 KoreaMed 등재학술지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은 의편협 학술지 평가 사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KoreaMed 등재 논문을 이용자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MeSH 색인어 입력 사업은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당시에는 MeSH 작업 가능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회원 학술지의 여건상 XML 파일 작업을 할 수 없는 학술지를 위하여 KoreaMed Central 사업을 시작하였다. 더불어 이 시기에 회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간호학, 수의학, 치의학 분야 학술지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 시기에 학술지 평가와 KoreaMed 구축 등으로 의편협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외부 기관과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학술지 평가에 대한 의편협과 학술진흥재단의 중복성 사안이고 둘째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의학연구정보센터(MEDRIC), 학술진흥재단 등의 학술정보기관이 그들 기관에게 원문 제공을 하도록 의편협이 회원 학술지에게 요청해달라는 것이었다. 의편협은 학술지 평가 단일화는 학술진흥재단의 체제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문 제공에 대해서는 의편협은 LinkOut 시스템 원칙이 있으므로 저작권 관련 사항은 각 학술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제4기 회장단

2005년에는 학술지평가회 4회(18, 19차, 재평가회 2, 3차), 워크숍 4회(① KoMCI Web 소개 등, ② Web 기반 투고관리 시스템 설명회, ③ 신입편집인을 위한 워크숍, ④ KoreaMed 통합 데이터베이스 실무)를 진행하고 소식지(27-30호)를 발행하였다.

2006년에는 학술지평가회 4회(20, 21차, 재평가회 4, 5차), 워크숍 2회(①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등재, Open Access 및 중복 출판, ② 의학학술지 출판윤리)를 진행하고 소식지(27-30호)를 발행하고 출판윤리위원회(위원장 함창곡 교수, 한양의대, 간사 배중우 교수, 경희의

대)를 신설하였다.

2007년에는 학술지평가회 2회(22차, 재평가회 6차), 워크숍 5회(① PubMed Central, DOI와 CrossRef, ② DOI/CrossRef, PMC XML, ③ 의학학술지의 국제 유통, ④의학학술지 편집인아카데미, ⑤ 의학학술지 ME 교육 과정)를 진행하고 소식지(27-30호)를 발행하고 KoreaMed Synapse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하였다.

제4기 박찬일 회장단 시기인 2007년 1월 의편집은 단체회원 159중, 개인회원 29명, 특별회원 10곳으로 회원 수가 늘어났으며 KoreaMed 등재 학술지는 119중, KoreaMed 입력 건수는 125,333, KoreaMed LinkOut 학술지는 40중, KoreaMed Retro 학술지는 83중(완료 27중)으로 사업 규모도 팽창하였다. 이 시점에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10년>을 편찬하여 의편집 10년사를 정리하고 의편집 설립 이전과 이후의 국내 의학학술지의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출판윤리에 대한 회원 학술지의 질의와 국내외적인 필요성 때문에 2006년 6월 출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워크숍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출판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편집 homepage에 게시하면서 더불어 <의학논문 출판윤리>를 책자로 발간하였다.

또한 KoreaMed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Naver와 Google에 자료를 개방하고 회원학술지의 PubMed 등재를 유도하였다. 국제협력사업으로 WPRIM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구축을 도와주기 위하여 마닐라의 WHO 서태평양지부를 방문하여 KoreaMed 시스템을 설치하고 실무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교육하였다. 또한 WPRIM 과 APAME (Asian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를 위한 WHO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Thompson Scientific Asia 담당자와 SCI와 KoMCI 간의 데이터베이스 교류 등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시기에 대한의학회가 신설학회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학술지 발행여부를 중시하면서 의편집의 학술지평가 사업은 더욱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구체적 사안으로는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위원 간의 점수 편차 조정과 재평가 심사결과 활용도를 검토하였다. 신규사업인 DOI 입력, 출판윤리, 발전사 편찬과 더불어 MeSH 입력 사업 재개도 고려하였고 2006년에는 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KoreaMed 운영에 사용하였다. 회원 범위에 대해서는 3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근거중심의 과학적 논문을 발행하는 학술지라면 의생명과학 학술지 전체 분야로 회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제5기 활동

(2008.4.1 ~ 2011.3.31): 정보화 국제화로의 도약

임정기 (제5대 회장)

서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편집)는 1996년 한국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태동한 이래, 학술지 평가 작업에 이어 KoreaMed와 KOMCI, KoreaMed Synapse DB를 구축하였고, 구축된 자료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첨단 정보 기술을 도입하여 회원 학술지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국제적 DB 등재 지원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여 왔다.

의편집 제5기의 회장직 임기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두드러진 특색은 정보관리의 혁신과 국제협력위원회의 창설에 이은 활동이다.

| 56

정보관리위원회의 활동

정보관리위원장(허선)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의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들을 벌였다. 정보관리 체제의 혁신적 발걸음은 2008년 3월말 의편집의 자회사로 XMLink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회사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당시 의편집이 임의기구로서 외부 연구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었고, 이들은 안정적으로 회원 학술지 자료의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및 PMC (PubMed Central) XML 가공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안정적 XML 데이터 제작은 회원 학술지의 염원인 미국국립도서관 DB에 등재하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미국국립도서관의 도서관성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가능하였던 PubMed (MEDLINE) 등재를 우회하여 PubMed Central (PMC) 에 등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국립도서관에서는 보다 많은 개방학술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XML 처리된 학술지 논문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만 통과하면 PMC 등재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008년 11월에 대한의학회지가 처음으로

PMC에 등재된 이후로 2011년 2월까지 38종이 등재되었으며(당시 세계 3위), 이 중 29종은 MEDLINE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였다. 2015년 7월 8일 현재는 98종의 학술지가 PMC에 등재되었다.

XML 제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여지면서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를 각 논문에 새겨 논문의 전문을 실시간으로 개별학술지에 연결하는 KoreaMed Synapse를 구축 운영하게 되었다. 2007년 7월 대한안과학회지를 시작으로 2011년 2월까지 83종의 회원학술지에 DOI를 새겨 연결(synapse)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보다 많은 논문에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여지고 결과적으로 회원학술지 논문의 보다 많은 인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제협력위원회의 활동

2008년 3월 25일 의편집 총회의 의결로 개정된 정관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임원회의를 거쳐 서정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국제협력위원회의 활동은 WHO의 Global Health Library 구축 사업의 일환인 West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 (WPRIM) 구축과,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서태평양지역 의학학술지편집인들의 상호 교류와 협조를 위한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의 주도적 창설이었다.

2007년 11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2회 WPRIM meeting에서 APAME의 창설이 배태되었고, 2008년 5월에 서울에서 APAME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으로 함창곡 의편집 2대 회장을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의편집은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WAME)와 견줄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구의 창설과 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동년 5월 8일에는 의협회관에서 APAME의 현판식을 가졌다. 이어서 2008년 11월에는 베이징에서 APAME와 WPRIM의 제1차 합동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신설된 양 기구는 지속가능한 단체로 궤도진입 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에는 싱가포르에서, 2010년에는 하노이에서 각각 2차 및 3차 합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의편집의 리더십으로 이룬 WPRIM의 구축과 APAME의 창설은 서태평양지역의 의학학술 정보의 공유와 의학학술지편집인들의 역량 강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는 의편집의 KoreaMed 구축과 회원학술지 편집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온 실천의 역사를 국제사회에

펼친 것이라 하겠다.

기획평가위원회의 활동

기획평가위원회의 활동은 의편협의 가장 근간이 되어 왔다. 홍성태 위원장이 이끄는 5기 기획평가위원회의 새로운 활동은 의편협에 가입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학문분야가 확대되면서 과학성 및 객관성 등의 기본사항에 관한 1단계 평가 과정을 신설한 것이었다. 특히 대한의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학회의 학술지 평가를 의편협에 의뢰하여 옴에 따라 이러한 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대한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영문 학술지에 대한 1단계 평가에서 합격 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하여 위원장은 개인적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출판윤리위원회의 활동

합창곡 위원장이 중심이 된 동 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2008년 1월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것은 의편협이 한국 의과학계에서 출판윤리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선언한 것이었고, 2009년 3월에 발간된 대한의학회의 <대한의학회 의학논문의 출판윤리준수 선언>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것은 의편협 역할의 실질적 인정이었다.

출판윤리위원회에서 ‘국내 의학학술지의 이중게재의 현황 -2004년도에 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을 조사하여 JKMS에 2008년 2월에 게재한 것은 의미 있는 업적이었다. 이 논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NEJM에서는 이를 요약 게재하기도 하였다. 2005년 및 그 이후에 출간된 논문의 이중게재 현황을 이어서 발표하였고 이중게재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교육연수위원회의 활동

제5기 교육연수위원회(위원장: 한동수)의 활동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편집인아카데미의 내실화가 두드러진다. 제2회(2009년 2월) 및 제3회(2010년 2월) 편집인아카데미는 “Desk to Publica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고, 제3회(2011년 2월)는 “Roads to Index”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 아카데미는 일관되고 수준 높은 정보를 전달하고 실습을 병행하여 충실한 양방향 및 다방향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석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강좌의 구성과 연자 선정, 전달 방식에 대한 사전회의를 통하여 최상의 아카데미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편집인아카데미는 학술지편집인의 필수적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수강인원도 2회의 66명에서 제4회에는 80명으로 증가하였다. 편집인을 위한 편집인아카데미의 운영과 함께 원고편집인(manuscript editor)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운영위원회의 활동

전술된 5개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은 김동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의 지원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결론

의편집은 태동부터 자발적이었듯이 그 발전의 역사도 구성원의 자발적 헌신에 기초한다. 구성원들은 자유로움 속에서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꽃피우고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의편집이 초경량의 임의조직으로서 빈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PubMed, Web of Science, IAMJE, WAME의 성공적 구축과 운영의 근원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헌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6기 활동

서창옥 (제6대 회장)

본인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회장을 맡아 일하였던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년의 기간은 많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국제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학술지를 영문화하고 KoreaMed Synapse와 Pubmed Central(PMC)에 등재하면서 SCI와 SCOPUS 등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였다. 의편협 회원이 아닌 의과학 관련 학술지들이 KoreaMed와 KoreaMed Synapse에 등재하기 위하여, 또는 PMC에 등재하기 위하여 의편협의 문을 두드리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2011년 3월 197종이던 의편협 학술지가 2014년 3월에는 234종으로 증가하였고 PMC 등재학술지도 38종에서 84종으로 늘었으며 SCOPUS에도 75종의 학술지가 등재되었다. 따라서 의편협 가입심사를 맡고 있는 운영위원회, 학술지 평가를 맡고 있는 기획평가위원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정보관리 위원회의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였고 의편협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회장으로 취임한 2011년 3월 30일 의편협 총회 전 개인회원 간담회 석상에서 전임 회장단의 마지막 행사로 의편협과 XMLink(주)와의 관계를 명문화한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다. XMLink(주)는 각 논문에 DOI를 부여하고 XML로 변환하여 Synapse에 올리고 Pubmed에 보내는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의편협의 자회사로 2008년도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 학술지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적인 상업출판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국제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양해각서에서 의편협과 XMLink는 의편협 회원 학술지의 학술정보 유통과 기술 개발 그리고 국제화를 돕는 등 공익적인 가치에 최우선의 운영목표를 두기로 합의하였다.

회장 취임 후 첫째 일은 사무국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었다. 그 전까지 사무국 직원들이 의편협의 일반 사무 업무와 KoreaMed 입력과 관리를 맡아 하였으나 모두 사직함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사무국에서는 일반적인 사무 업무만 하고 KoreaMed 업무는 XMLink에 이관하였다. 또한 Synapse와 PMC에 등재하기 위하여 의학 관련 많은 학술지들의 의편협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동시에 XML 파일 가공 요구가 중구난방으로 빗발쳤기

때문에 의편집 가입 절차와 심사, DOI 부여와 Synapse 등재와 관련한 절차와 비용 부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편집 회원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야 했다. 교육연수위원회의 워크숍, 편집인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읽히는 좋은 학술지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의편집이 하는 업무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홍보하였으나 자주 교체되는 각 학술지 편집인과 학회 임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았다. 급기야 학술지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On-line 출판업체를 옮기고 Synapse를 탈퇴하는 학술지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국가의 지원 없이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현 의편집 체제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음을 절감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의편집이 주도하여 2008년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한 아시아태평양편집인협회(Asia-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meeting을 매년 각 나라 대표 소수만 참가하여 WPRIM과의 joint meeting으로 베이징(2008년), 싱가포르(2009년), 하노이(2010년)에서 개최하였는데 2011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보다 많은 학술지 편집인들이 참가하도록 대회 규모를 키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The First Congress of APAME including the Fourth Joint Meeting of the APAME and WPRIM을 2011년 8월 28-31일 고려대학교 밀레니엄 삼성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의편집 2대 회장이자 APAME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함창곡 교수께서 대회장을 맡아주셨고 아시아 각국의 편집인, 구미 지역의 강사, 출판관계자 등 110명이 참석하였다.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의 미국국립의학도서관 Kathy Kwan의 강의와 DOI를 주관하는 CrossRef의 product manager인 Kirsty Meddings의 CrossCheck에 대한 영상 강의가 있었다. 이 APAME Congress는 그 후 개최국을 바꾸면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11년 봄 WHO 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에서 의편집 국제협력위원장에게 한국에서 인턴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이에 인턴이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았고 의편집 정보위원회의 위원인 이춘실 교수의 제안으로 APAME 학술지들의 full-text database를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선 "Synapse 2"라고 명명하여서 website를 구축하였고 2011년 6월-8월 3개월간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마닐라 WPRO에서 인턴 신분으로 일하면서 대상 학술지들을 Synapse 2에 올리는 작업을 하였고 한국의 XMLink에서는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을 계속하였다. 2012년 5월 31일 서정옥 국제협력위원장과 같이 필리핀 마닐라 WPRO를 방문, APAME 임원진들과 협의하여 "Synapse 2"를 "APAMED Central"로 명명하고 2012년 8월 31일-9월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APAME meeting에서 Launching ceremony를 하였다. 그 후에도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

용하여 인턴 학생들이 마닐라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27일에도 이춘실 교수와 마닐라 WPRO에 가서 APAMED Central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PAME에 포함되는 SEARO(South East Asia Regional Office) 국가들의 학술지들은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아서 등재하지 못하고 있다.

본업이 따로 있는 편집인들의 자원모임인 의편협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내 의학학술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어 2013년 17회 범석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천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의편협 회장으로서 마지막 행사로 2014년 3월 27일 의편협 총회 날 오전에 충북 오송에서 개관하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의편협에게 주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설립에 처음부터 의편협이 자문을 했었고 특히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서 추진하는 PMC International 유치가 의편협 학술지의 대거 PMC 등재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의편협이 KoreaMed 작업을 위해 납본받아서 소장하고 있었던 학술지들 190종 7800여 권을 2013년 11월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도서관에 기증한 바 있다.

의편협이 발족된 1996년에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단체회원으로 의편협에 참여하게 되었고 2기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3기와 4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5기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의편협의 학술지평가 사업, 교육연수 사업, 출판윤리 관련 조사와 책 발간 등 모든 활동과 KoreaMed와 Synapse의 태동과 발전, 우리나라 학술지들의 국제화 과정을 체험하였지만 의편협 회장으로서의 국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학술지 관련 환경과 그에 따른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회장으로서 '공'보다 '과'가 많았다고 생각되는 시간이었다. 각자 맡고 있는 본업이 따로 있어 의편협 일은 별개의 헌신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원들과 위원들, 열정을 가지고 학술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편집인 여러분들의 참여로 3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간의 활동으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실력있는 편집인들이 많아진 만큼 역량을 모으고 지혜를 나누어서 모든 의편협 학술지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의편집이 나아갈 길

홍성태(제7대 회장)

의편집이 2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 정신없이 단거리 경주하듯 달려온 지난 20년과 같은 속도로 앞으로도 계속 질주할 것인가? 더 빨리 달려야 하는가? 아니면 조금 쉬었다 천천히 가야 하는가? 쉬었다 더 빨리 가야 하는가?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렇지만 틀림없는 것은 지금에 머물고 있으면 낙오한다는 사실이다. 무한 경쟁에 돌입한 국제 학술지 출판계가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Nature, Lancet, JAMA 등의 학술지는 자매지를 계속 창간하면서 몸집불리기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늘어난 상위권 학술지들이 국제적으로 우수 논문을 스펀지처럼 더 많이 빨아들여 우리나라의 학술지들은 좋은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을 출판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 있다. 여기에 더해 국가적으로 연구자의 연구력을 평가하는 데에 논문보다 그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직도 톰슨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만 업적으로 인정하는 곳이 많다. 이래저래 국내 학술지가 고래 사이에서 등터지는 새우 신세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의편집의 비전인 '학술지의 질적 발전을 통한 국내 의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대명제 아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20년전 창립 당시와는 여러 면에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63 |

1) 학술지 출판의 현재

(1) 온라인출판 세상으로 변화

과거와 비교하여 지금 학술지 출판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출판이다. 이제 종이학술지는 그 역할이 아주 줄어들고 그 대신 온라인출판이 대세가 되었다. 거의 모든 학술지가 두 방법으로 출판하지만 아예 종이학술지를 만들지 않고 온라인출판만 하는 학술지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려면 온라인출판에 맞게 편집하고 온라인에서 독자가 편히 잘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학술지는 종이학술지 개념으로 디자인하고 편집한다.

물론 종이학술지의 장점도 있지만 온라인출판은 종이출판에 비하여 정말 장점이 많고 발전의 여지가 크다. 출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고, 다양한 색상과 모양으로 편집이 가능하며, 오디오나 동영상 출판까지도 가능하다. 의학학술지의 대표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나 JAMA의 온라인출판은 정말 화려하여 눈이 부실 지경이다. 온라인출판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형태의 학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뿌릴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국내 학술지들도 온라인출판을 위한 편집을 준비하여야 한다. 종이학술지 위주에서 온라인출판 위주로 편집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종이책이 얼마나 더 존재하게 될지 불확실하다. 다만 학술지가 온라인출판만 하게 되면 웹세상에만 존재하게 되므로 종이책에 비하여 책의 장서(archiving)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영구 보존되는 백업이 있어야 한다.

(2) Visibility의 증가

국내 회원 학술지 대부분은 종이출판과 온라인출판을 동시에 하고 있다. 종이책은 아무래도 독자에 접근이 아주 제한적이지만 온라인출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독자를 만날 수 있다. 현재 국내 학술지의 온라인 visibility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KoreaMed에 등재된 학술지가 221개 학술지이고 이들의 초록을 영문으로 전세계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Synapse 학술지는 136종으로 Open Access 온라인출판으로 전문을 제공하며 Crossref의 DOI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여기 등재된 학술지들은 visibility가 한층 향상되었고 동시에 KAMJE Press 서비스를 받는 학술지나 학술지 웹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여 DOI를 연결하는 여러 학술지들이 고유 웹사이트 온라인출판을 모두 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출판 시스템 구축과 향상은 학술지에 담긴 학술정보를 전세계 독자에게 잘 전달하여 국내 의학학술지 정보의 국제적인 인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덕분에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회원 학술지가 많이 늘고 있어 고무적이다. 계속 온라인출판의 visibility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 등재와 인용의 증가

의편집 회원 학술지는 톰슨사 Web of Science의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인 SCI(E)와 A&HCI에 34종, ESCI에 6종이 등재되어 있고, 미국 National Library of Medicine(NLM)의 MEDLINE

21종, PubMed에 98종, SCOPUS에 79종이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톱슨사 인용지수(Journal Impact Factor) (2014)가 가장 높은 회원 학술지는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발행하는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으로 3.446이다. 현재 30개 학술지의 인용지수가 산정 공표되었는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해당분야 중간이나 중간 아래에 위치하여 아직 등재 학술지 수도 미약하지만 인용도 많지 않은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의 임상 분야 진료와 연구 역량을 고려하면 발전 여지가 참으로 많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술지의 인용을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학술지가 다 함께 하여야 한다.

2) 국내 의학학술지 출판의 미래

(1) 전문편집인 제도 구축

학술지의 질적, 양적 수준은 편집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학술지를 더욱 도약시키려면 우수한 편집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지금 각 학회에서 외국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내거나 전문가심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한 우수 인재가 많이 있고, 또 젊은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편집인으로 키우고 있다. 그 인력들이 국제적인 안목과 경험을 가지도록 지원하여 전문편집인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하면 우리 학술지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현직 교수가 잠시 임기를 정하여 맡아서 겸무로 일을 처리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할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이 생기기 어렵다. 더욱이 연간 6회 이상 12회까지 발간하는 학술지는 연간 상시적으로 편집과 관련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겸무 편집인이 감당하기에는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러다보니 편집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출판되는 현실에 있다. 그래서 전문편집인을 초빙하여 편집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제도의 시행에서 어려운 점이 적절한 인물을 찾는 것과 예산 확보일 것이다. 인물은 학회에서 키웠다고 전제하고 만약 학회가 고용 개념으로 전문편집인을 영입한다면 연봉을 포함하여 학술지 발간 예산을 얼마나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편집관련 업무를 맡아 훈련된 원로 전문편집인이 정년 이후에 참여한다면 학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이 가능하고 준비된 편집인이 있는 학회부터 시행하면서 점차 확산되면 이상적일 것이다. 의편집이 이 제도의 정착을 이끄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편집, 출판에 대한 연구 활성화

ICMJE와 WAME가 주관하는 Peer Review Congress를 참석해서 보니 미국과 유럽 편집인들이 전세계 학술지 출판을 주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러 각도에서 출판과 편집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수행하고 있고 한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거듭하면서 까다로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그런 연구노력으로 계속 전세계 학술지 편집과 출판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뒤늦었지만 그리고 작은 수준이지만 우리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는 하다.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가 중복출판 실태조사를 5년간 지속하여 논문을 발표하였고 기획평가위원회가 학술지평가 결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의편협 차원에서 편집과 출판에 대한 연구를 더 활발하게 수행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회원 학술지가 더 발전된 출판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를 의무로 수행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한다.

(3) 온라인출판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개발 강화

온라인출판이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 학술지의 visibility를 높이고 국제적인 학술정보원으로 발돋움하는 데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이유이다. 의편협이 개발 운영하는 국내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도 계속 진화하고 향상되어야 국내 학술지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도 의편협 데이터베이스와 회원 학술지의 온라인출판에 매년 새로운 기능을 연구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을 키우고 연구팀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개별 학술지가 담당하기보다 의편협과 온라인출판사가 맡아야 할 일이다.

(4) 국내 표절방지시스템 구축

국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논문표절이나 중복출판을 검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학술정보가 많이 늘어나면서 현재 Crossref의 개발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 우리 자체 시스템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의편협의 다음 사업 항목으로 구상하기를 제안한다.

(5) 연구출판윤리의 강화

연구와 출판윤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항목이다. 의편협은 현재 회원을 대상으로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출판하여 제공하고, 학술지에서 의뢰하는 자문에 응하고 있다. 여러 학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하여 국내 출판윤리 수준을 국제 기준에 합당하도록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우리도 이제 상당히 국제수준 윤리를 지키고 있지만 유독 저자됨위반(authorship abuse)은 정말 취약하다. 전반적으로 논문 한 편에 저자수가 많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공동연구가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이보다 저자에 대한 개념이 느슨하여 공짜저자가 많은 우리 풍토에 기인하는 것이 더 크다. 각 학회, 대학, 병원이 저자실명제를 천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개인별 연구력을 평가할 수 있고 국내 학술지에 대한 폼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편협이 이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67 |

(6) 국내 학술지의 지위 향상과 연구업적 평가지수 개발

아직도 국내 대학, 연구기관, 병원, 연구비 지원 기관, 학술상 시상기관 등에서 연구업적 평가에 출판논문의 학술지 인용지수를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술지 인용지수는 학술지 평가에는 유용하지만 개별 연구자의 연구능력 평가에는 합당하지 않은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지수가 마땅하지 않아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내에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출판하는 우리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들이 연구업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이제 국내 학술지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고 국제인용도 늘어나고 있으니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 학술정보에 기반하는 우리 연구상황에 알맞는 지수를 개발하여 톱스사 인용지수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편협 회원 학술지간 인용지수인 KoMCI와 이를 보완하는 지수를 개발하여 실제 연구자의 연구력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의편협이 이러한 연구를 주도하기를 제안한다.

3) 국가차원의 역량강화 지원

(1) 의학학술정보 관련 국가의 역할

2013년도에 질병관리본부가 의과학지식센터를 개설한 일은 참 고무적이었다. 이제 우리도 국가가 나서서 미국의 NIH가 국가예산으로 NLM을 유지하고 그를 통하여 전세계에 PubMed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배워서 국내 의학 학술정보를 모으고 가공하여 전세계에 우리 의학을 알리는 구심체가 되리라 기대하였다. 이를 기획한 당시 책임자들도 같은 구상을 하였을 것으로 믿는다. 국가가 한다면 정말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개관식 이후 2년이 지나도록 변변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없고, 몇몇 학술지의 지나간 간행본을 디지털파일로 만들어 쌓아둔 것이 전부이다. 의편협이 지금 하고 있는 KoreaMed 사업은 사실 국가가 할 일이다. 여건상 국가가 하기 어려우면 이를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계속 잘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의편협과 상생하는 시스템이라도 구축한다면 현재 문제점을 해소할 여지는 많을 것이다. 아울러서 의편협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출판산업 활성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학술지는 대부분 국제적인 거대 출판사가 출판하고 이를 통하여 막대한 이윤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거대 출판사에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출판사는 사실 없다. 인력, 조직, 재정, 영업력, 지명도 등에서 모두 열세에 있다. 그런 점에서 국내 학술지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원천적인 어려움이 있다. 국내 학술지를 외국 저명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몇 사례가 있는데 모두 엄청난 출판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예측되지 않는다. 그런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술지는 국내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학술지를 여럿 만들어 내고 있음은 가히 기적과 같다. 경쟁력의 원천에 학술지가 제공하는 학술정보의 수준이 중요하지 출판사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출판산업의 경쟁력도 실제 출판에서 중요하다. 학술지가 국제적으로 일정 수준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 의학학술지는 대부분

Open Access 출판이므로 유료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 학술지 발전과 수준 유지는 Open Access 덕이 크다. 독자가 유료로 볼 만한 학술정보를 출판하는 것은 그 다음 목표가 될 것이고 그러려면 출판사가 지금처럼 조판, 인쇄, 디지털파일 가공만 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현재 의학학술지 출판사 대부분이 의편집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학술지 출판을 통하여 국내 출판사들이 역량을 키우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큰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의편집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

4) 제언

의편집은 국내 회원 의학학술지와 일심동체다. 우리 학술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지금 의편집이 할 일이 참 많다. 결국 다 함께 갈 길을 모색하여 방향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출판 위주로 편집 개념을 바꾸고 지속적으로 편집과 출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해야 하며, 온라인출판 개선을 통하여 학술지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편집과 출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저자실명제 캠페인을 통한 연구윤리 정착에도 노력해야 한다. 학술지 출판을 향상하기 위하여 출판사도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지금까지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우리나라 의학발전과 진흥을 이끌어야 한다.



제2장 **의편협** **주요활동**

1996-201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사

1. 국내 데이터베이스 현황

1) KoreaMed 운영 현황

(1) 2016년 2월 현재 227종의 학술지 234,662건의 초록 정보 레코드가 입력됨

(2) KoreaMed 연도별 access log

연도	Number of visits	Unique	Pages visitors	Hits	Bytes	1년 평균 접속횟수
2006	119,008	64,532	824,036	3,142,864	36.36 GB	326.05
2007	606,569	440,696	1,844,327	8,489,728	62.53 GB	1,661.83
2008	725,118	539,198	2,335,074	11,553,195	76.42 GB	1,986.62
2009	498,379	349,280	2,566,062	11,965,012	87.14 GB	1,365.42
2010	489,374	326,378	3,050,179	19,766,891	91.26 GB	1,340.75
2011	474,335	269,386	4,324,184	27,132,369	100.40 GB	1,299.54
2012	555,112	340,937	5,264,245	34,541,873	132.48 GB	1,520.85
2013	516,981	329,234	5,436,824	35,030,877	140.65 GB	1,416.39
2014	603,684	354,715	6,345,002	36,737,219	183.31 GB	1,653.93
2015	580,664	357,650	7,809,883	35,131,339	194.27 GB	1,590.86
평균	516,922	337,201	3,979,982	22,349,137	110.48 GB	1,416.22

(3) 2016년 2월 현재 전문 연결이 가능한 학술지 KoreaMed Linkout (총 201종)

KoreaMed Linkout 미설정 학술지(총 15종)

-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Journal of Dental Rehabilitation and Applied Science
-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
-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 Journal of Korean Orthopaedic Research Society
- Journal of Liver Cancer
- Journal of Metabolic and Bariatric Surgery
- Keimyung Medical Journal
- Kor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y
-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 Korean Journal of Urological Oncology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4) KoreaMed 학술지 현황

(2016년 2월 26일 현재)

학술지명	JID	창간년	KoreaMed 수록현황	LinkOut
Allergy Asthma Immunol Res	166	2009	2009-	설정
Allergy Asthma Respir Dis	206	2013	2013-	설정
Anat Cell Biol	049	1968	1991-1993, 1997-	설정
Anesth Pain Med	156	2006	2006-	설정
Ann Clin Microbiol	105	1998	1998-	설정
Ann Coloproctol	009	1985	1991-1993, 1997-	설정
Ann Dermatol	140	1989	2006-	설정
Ann Lab Med	039	1981	1991-1993, 1997-	설정
Ann Occup Environ Med	022	1989	1989-	
Ann Pediatr Endocrinol Metab	113	1996	1997-	설정
Ann Rehabil Med	041	1977	1991-1993, 1997-	설정
Ann Surg Treat Res	037	1959	1991-1993, 1997-	설정
Arch Aesthetic Plast Surg	014	1995	1997-	설정
Arch Craniofac Surg	099	2000	2000-	설정
Arch Plast Surg	023	1974	1991-1993, 1997-	설정
Arch Reconstr Microsurg	126	1992	2007-	설정
Asian Nurs Res	167	2007	2010-	설정
Asian Oncol Nurs	139	2001	2008-	설정
Asian Spine J	168	2007	2007-	설정
Blood Res	072	1966	1991-1993, 1997-	설정
Biomol Ther	213	1993	2013-	설정
Brain Neurorehabil	176	2008	2011-	설정

학술지명	JID	창간년	KoreaMed 수록현황	LinkOut
Brain Tumor Res Treat	212	2013	2013-	설정
Cancer Res Treat	036	1966	1991-1993, 1997-	설정
Child Health Nurs Res	095	1995	1997-	설정
Child Kidney Dis	026	1997	1997-	설정
Chonnam Med J	057	1964	1991, 1993, 1995-	설정
Clin Endosc	027	1981	1981-	설정
Clin Exp Otorhinolaryngol	141	2008	2008-	설정
Clin Exp Reprod Med	087	1974	1991-1993, 1997-	설정
Clin Exp Vaccine Res	209	2012	2012-	설정
Clin Hypertens	174	1995	2010-	설정
Clin Mol Hepatol	005	1995	1995-	설정
Clin Nutr Res	214	2012	2012-	설정
Clin Orthop Surg	157	2009	2009-	설정
Clin Pediatr Hematol-Oncol	093	1994	1997-	설정
Clin Psychopharmacol Neurosci	195	2003	2011-	설정
Clin Should Elbow	133	1998	2007-	설정
Dement Neurocognitive Disord	196	2002	2012-	설정
Diabetes Metab J	004	1972	1991-1993, 1997-	설정
Electrolyte Blood Press	158	2003	2005-	설정
Endocrinol Metab	008	1986	1991-1993, 1997-	설정
Environ Health Toxicol	177	2011	2011-	설정
Epidemiol Health	073	1979	1991-	설정
Ewha Med J	201	1978	1978-	설정
Exp Mol Med	061	1964	1997-	설정
Exp Neurobiol	142	1992	2008-	설정
Genomics Inform	117	2003	2003-	설정
Gut Liver	159	2007	2007-	설정
Hanyang Med Rev	130	1981	2005-	설정
Health Policy Manag	225	1991	2015-	설정
Healthc Inform Res	088	1995	2006-	설정
Hip Pelvis	147	1989	2006-	설정
Imaging Sci Dent	080	1971	1997-	설정
Immune Netw	078	2001	2001-	설정
Infect Chemother	086	2003	2003-	설정
Int J Oral Biol	173	1977	2010-	설정
Int J Stem Cells	202	2008	2012-	설정

학술지명	JID	창간년	KoreaMed 수록현황	LinkOut
Int J Thyroidol	186	2008	2011-	설정
Int Neurorol J	092	1997	1997-	설정
Intest Res	143	2003	2008-	설정
Investig Clin Urol	020	1960	1960-	설정
Investig Magn Reson Imaging	040	1997	1997-	설정
J Adv Prosthodont	170	2009	2009-	설정
J Agric Med Community Health	132	1976	2007-	설정
J Audiol Otol	180	1997	2011-	설정
J Bacteriol Virol	079	2001	2001-	설정
J Biomed Res	210	2000	2013-	설정
J Bone Metab	187	1994	2011-	설정
J Breast Cancer	096	1998	1998-	설정
J Cancer Prev	230	1996	2015-	
J Cardiovasc Ultrasound	059	1993	1993, 1997-	설정
J Cerebrovasc Endovasc Neurosurg	098	1999	1999-	설정
J Clin Neurol	145	2005	2005-	설정
J Clin Nutr	217	2007	2007-	설정
J Dent Rehabil Appl Sci	231	1980	2015-	
J Educ Eval Health Prof	144	2004	2004-	설정
J Gastric Cancer	100	2001	2001-	설정
J Genet Med	062	1997	1997-	설정
J Gynecol Oncol	114	1990	1990-	설정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35	1990	2007-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0	1989	1989-	설정
J Korean Acad Fundam Nurs	091	1994	1994-	설정
J Korean Acad Nurs	006	1970	1970-	설정
J Korean Acad Nurs Adm	163	1995	2010-	설정
J Korean Acad Oral Health	197	1967	2012-	설정
J Korean Acad Prosthodont	084	1960	1991-1993, 1997-	설정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99	1992	2010-	설정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18	1995	2014-	
J Korean Arthrosc Soc	207	1997	2013	
J Korean Assoc Oral Maxillofac Surg	070	1975	1991-1993, 1997-	설정
J Korean Assoc Pediatr Surg	053	1995	1997-	설정
J Korean Biol Nurs Sci	227	1999	2015-	

학술지명	JID	창간년	KoreaMed 수록현황	LinkOut
J Korean Bone Joint Tumor Soc	164	1995	2010-	설정
J Korean Burn Soc	151	1998	2009-	설정
J Korean Child Neurol Soc	025	1993	1993, 1997-	설정
J Korean Dent Sci	233	2008	2015-	설정
J Korean Diabetes	178	2000	2011-	설정
J Korean Diet Assoc	127	1995	1997-2005, 2007-	설정
J Korean Epilepsy Soc	103	1997	1999-2013	설정
J Korean Foot Ankle Soc	120	1997	2004-	설정
J Korean Fract Soc	104	1988	1991-1993, 1997-	설정
J Korean Geriatr Psychiatry	112	1997	1997-	
J Korean Geriatr Soc	111	1997	1997-	설정
J Korean Med Assoc	119	1958	1997, 2003-	설정
J Korean Med Sci	063	1986	1986-	설정
J Korean Neurol Assoc	031	1983	1983-	설정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055	1962	1991-1993, 1997-	설정
J Korean Neurosurg Soc	032	1972	1972-	설정
J Korean Ophthalmol Soc	035	1958	1958-	설정
J Korean Orthop Assoc	043	1966	1991-1993, 1997-	설정
J Korean Orthop Res Soc	076	1998	1998-	
J Korean Soc Clin Toxicol	137	2003	2008-	설정
J Korean Soc Emerg Med	082	1990	1991-1993, 1997-	설정
J Korean Soc Radiol	016	1964	1991-	설정
J Korean Soc Spine Surg	089	1994	1997-	설정
J Korean Soc Surg Hand	149	1996	2009-	설정
J Korean Soc Transplant	083	1987	1991-1993, 1997-	설정
J Lab Med Qual Assur	136	1979	1997-	설정
J Lipid Atheroscler	211	2012	2012-	설정
J Liver Cancer	232	2001	2015-	
J Lung Cancer	160	2002	2002-2012	설정
J Menopausal Med	165	1995	2010-	설정
J Metab Bariatr Surg	234	2012	2015-	
J Minim Invasive Surg	148	1998	2009-	설정
J Neurogastroenterol Motil	081	1994	1998-	설정
J Nutr Health	124	1968	2003-	설정
J Pathol Transl Med	019	1967	1985-	설정
J Periodontal Implant Sci	150	1971	1997-	설정

학술지명	JID	창간년	KoreaMed 수록현황	LinkOut
J Prev Med Public Health	056	1968	1968-	설정
J Reprod Endocrinol	205	2009	2012-2013	
J Rheum Dis	010	1994	1994-	설정
J Rhinol	131	1994	1997-	설정
J Severance Union Med Coll	9990	1933	1933-1937	설정
J Sleep Med	215	2004	2013-	설정
J Stroke	183	1999	2011-	설정
J Trauma Inj	122	1987	2006-	설정
J Vet Sci	118	2000	2000-	설정
Keimyung Med J	224	1982	2014-	
Kidney Res Clin Pract	034	1982	1991-1993, 1997-	설정
Knee Surg Relat Res	030	1989	1991-1993, 1997-	설정
Korean Circ J	054	1971	1971-	설정
Korean J Adult Nurs	094	1989	1991-1993, 1997-	설정
Korean J Anesthesiol	011	1968	1968-	설정
Korean J Asthma Allergy Clin Immunol	058	1981	1991-1995, 1997-2012	설정
Korean J Biol Psychiatry	108	1994	1997-	설정
Korean J Blood Transfus	029	1990	1991-	설정
Korean J Clin Neurophysiol	208	1999	2012-	설정
Korean J Clin Pharm	226	1991	2015-	
Korean J Community Nutr	106	1996	1997-	설정
Korean J Crit Care Med	045	1986	1991-1993, 1997-	설정
Korean J Dermatol	048	1960	1960-	설정
Korean J Endocr Surg	219	2001	2014-	설정
Korean J Fam Med	001	1980	1991-1993, 1997-	설정
Korean J Gastroenterol	028	1968	1991-1993, 1997-	설정
Korean J Gynecol Endosc Minim Invasive Surg	188	1989	2011-2012	설정
Korean J Health Promot	181	2001	2011-	설정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189	2001	2011-	설정
Korean J Hepatobiliary Pancreat Surg	110	1997	1997-	설정
Korean J Hosp Palliat Care	155	1998	2009-	설정
Korean J Intern Med	064	1986	1996-	설정
Korean J Leg Med	018	1977	1991-1993, 1997-	설정
Korean J Med	007	1949	1991-1993, 1997-	설정
Korean J Med Educ	097	1989	1989-	설정

학술지명	JID	창간년	KoreaMed 수록현황	LinkOut
Korean J Med Hist	085	1992	1992-	설정
Korean J Med Mycol	075	1996	1996-	설정
Korean J Neurotrauma	203	2005	2008-	설정
Korean J Nosocomial Infect Control	128	1996	1996-	설정
Korean J Obes	134	1992	2004-	설정
Korean J Occup Health Nurs	152	1991	2009-	설정
Korean J Ophthalmol	065	1987	1987-	설정
Korean J Orthod	123	1970	1970-	설정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038	1958	1991-1993, 1997-	설정
Korean J Pain	047	1988	1988-	설정
Korean J Pancreas Biliary Tract	220	1996	2014-	설정
Korean J Parasitol	066	1963	1963-	설정
Korean J Pediatr	052	1958	1977-	설정
Korean J Perinatol	044	1990	1991-1993, 1997-	설정
Korean J Phys Anthropol	107	1988	1991-1993, 1997-	설정
Korean J Physiol Pharmacol	067	1997	1997-	설정
Korean J Psychopharmacol	042	1990	1997-	설정
Korean J Psychosom Med	182	1993	2011-	
Korean J Radiol	068	2000	2000-	설정
Korean J Rehabil Nurs	116	1998	1998-	설정
Korean J Schizophr Res	198	1999	2012-	설정
Korean J Spine	146	2004	2008-	설정
Korean J Sports Med	171	1985	2010-	설정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051	1968	1991-1993, 1997-	설정
Korean J Urol Oncol	229	2003	2015-	
Korean J Vet Res	190	1961	2011-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2	1995	1995-	설정
Korean Lepr Bull	125	1960	1999-	설정
Kosin Med J	191	1985	2011-	설정
Lab Anim Res	169	1985	2010-	설정
Lab Med Online	192	2011	2011-	설정
Maxillofac Plast Reconstr Surg	071	1978	1991, 1993, 1997-	설정
Mycobiology	184	1973	2000-	설정
Nat Prod Sci	228	1995	2015-	설정
Neonatal Med	033	1994	1997-	설정

학술지명	JID	창간년	KoreaMed 수록현황	LinkOut
Neurointervention	172	2006	2006-	설정
Nucl Med Mol Imaging	050	1967	1991-1993, 1997-	설정
Nutr Res Pract	161	2007	2007-	설정
Obstet Gynecol Sci	021	1958	1991-1993, 1997-	설정
Osteoporosis	175	2003	2010-	설정
Pediatr Allergy Respir Dis	077	1991	1993, 1997-2012	설정
Pediatr Gastroenterol Hepatol Nutr	121	1998	1998-	설정
Pediatr Infect Vaccine	153	1994	2009-	설정
Perspect Nurs Sci	221	2004	2014-	설정
Prog Med Phys	129	1990	2005-	설정
Psychiatry Investig	162	2004	2008-	설정
Psychoanalysis	154	1990	2009-	설정
Radiat Oncol J	017	1983	1983-	설정
Res Vestib Sci	138	2002	2002-	설정
Restor Dent Endod	185	1975	2002-	설정
Saf Health Work	193	2010	2010-	설정
Sleep Med Psychophysiol	101	1994	1994-	설정
Soonchunhyang Med Sci	194	1995	2011-	설정
Toxicol Res	204	1985	2012-	설정
Transl Clin Pharmacol	179	1993	2011-	설정
Tuberc Respir Dis	003	1954	1991-	설정
Ultrasonography	046	1982	1991-1993, 1997-	설정
Urogenit Tract Infect	216	2006	2013-	설정
Vasc Spec Int	090	1985	1991-1993, 1997-	설정
World J Mens Health	074	1982	1982-	설정
Yeungnam Univ J Med	109	1984	1991-1993, 1995-	설정
Yonsei Med J	069	1960	1960-	설정

(5) MeSH 입력현황

연월	MeSH 입력 소스			MeSH 유형		총 레코드 수 (누 적)
	PubMed	KIM	KoreaMed	PubMed	Mesh Indexer	
2014. 3. 31	0	-	1,098	0	1,098	209,016
2014. 4. 30	335	-	1,199	335	1,199	210,550
2014. 5. 31	83	-	1,208	83	1,208	211,841
2014. 6. 30	205	-	905	205	905	212,951
2014. 7. 31	253	-	1,118	253	1,118	214,322
2014. 8. 31	155	-	1,190	155	1,190	215,667
2014. 9. 30	0	-	723	0	723	216,390
2014. 10. 31	176	-	1,337	176	1,337	217,903
2014. 11. 30	226	-	1,296	226	1,296	219,425
2014. 12. 31	49	-	1,203	49	1,203	220,677
2015. 1. 31	121	-	1,336	121	1,336	222,134
2015. 2. 28	39	-	688	39	688	222,861
2015. 3. 31	44	-	1,018	44	1,018	223,923
2015. 4. 30	530	-	1,120	530	1,120	225,573
2015. 5. 31	171	-	728	171	728	226,472
2015. 6. 30	153	-	878	153	878	227,503
2015. 7. 31	179	-	1,644	179	1,644	229,326
2015. 8. 31	160	-	1,468	160	1,468	230,954
2015. 9. 30	73	-	1,128	73	1,128	232,155
2015. 10. 31	182	-	931	182	931	233,268
2015. 11. 30	0	-	1,203	0	1,203	234,471
2015. 12. 31	145	-	973	145	973	235,589
2016. 1. 31	0	-	1,492	0	1,492	237,081
합계	21,471	(11,705)	215,610	178,533	215,610	237,081

Note: KIM은 Korean Index Medicus

2) KoreaMed Synapse 운영 현황

(1) 2016년 2월 26일 현재 137종의 학술지(PMC 학술지 69종 포함), 72,345건의 Full-text 레코드가 입력됨

(2) Synapse 연도별 access log

연도	Number of visits	Unique visitors	Pages	Hits	Bytes	1일평균 접속횟수
2007	569	291	9,216	90,654	344.60 MB	18.35
2008	90,355	66,670	217,795	1,527,212	50.84 GB	247.55
2009	420,563	308,606	1,065,269	7,002,009	251.58 GB	1,152.23
2010	1,021,330	698,742	2,286,882	14,535,463	908.54 GB	2,798.16
2011	480,690	327,129	1,690,662	23,676,922	1,941.42 GB	1,316.96
2012	615,316	383,917	3,086,040	29,228,207	3,712.50 GB	1,685.80
2013	881,251	588,413	5,393,656	53,971,233	5,455.17 GB	2,414.39
2014	1,729,760	1,064,768	10,655,122	104,617,651	9,726.91 GB	4,739.07
2015	2,478,211	1,593,288	10,866,754	131,799,384	14,298.61 GB	6,789.62
평균	857,561	559,092	3,919,044	40,716,526	4,543.20 GB	2,351.35

81 |

(3) 학술지 입력 및 DOI deposit 현황

(2016년 2월 26일 현재)

학술지명	JID	간기	시작호	원료 논문수	CrossRef Deposit
Allergy Asthma Immunol Res	166	6	2009v1n1	435	435
Allergy Asthma Respir Dis	206	6	2013v1n1	235	235
Anat Cell Biol	049	4	2010v43n1	248	248
Ann Clin Microbiol	105	4	2008v11n1	233	233
Ann Coloproctol	009	6	2007v23n1	634	634
Ann Dermatol	140	6	2006v18n1	1,227	1,227
Ann Lab Med	039	6	2006v26n1	951	951
Ann Pediatr Endocrinol Metab	113	4	2011v16n1	189	189
Ann Rehabil Med	041	6	2011v35n3	627	627
Ann Surg Treat Res	037	12	2009v76n1	989	989
Arch Aesthetic Plast Surg	014	3	2013v19n1	88	88
Arch Craniofac Surg	099	3	2012v13n1	119	119

학술지명	JID	간기	시작호	원료 논문수	CrossRef Deposit
Arch Plast Surg	023	6	2012v39n1	660	660
Asian Oncol Nurs	139	4	2010v10n2	190	190
Asian Spine J	168	6	2007v1n1	557	557
Blood Res	072	4	2005v40n1	655	655
Brain Neurorehabil	176	2	2011v4n1	94	94
Brain Tumor Res Treat	212	2	2013v1n1	78	78
Chonnam Med J	057	3	2008v44n1	254	254
Clin Exp Otorhinolaryngol	141	4	2008v1n1	420	420
Clin Exp Reprod Med	087	4	2011v38n1	163	163
Clin Exp Vaccine Res	209	2	2012v1n1	104	104
Clin Mol Hepatol	005	4	2007v13n3	484	484
Clin Nutr Res	214	4	2012v1n1	94	94
Clin Orthop Surg	157	4	2009v1n1	411	411
Dement Neurocognitive Disord	196	4	2012v11n1	94	94
Diabetes Metab J	004	6	2006v30n1	742	742
Electrolyte Blood Press	158	2	2006v4n1	124	124
Endocrinol Metab	008	4	2005v20n1	788	788
Ewha Med J	201	3	1978v1n1	1,338	1,338
Exp Neurobiol	142	4	2009v18n1	214	214
Genomics Inform	117	4	2012v10n1	162	162
Hanyang Med Rev	130	4	2009v29n3	244	244
Health Inform Res	088	4	2009v15n1	320	320
Hip Pelvis	147	4	2010v22n1	281	281
Imaging Sci Dent	080	4	2011v41n1	213	213
Immune Netw	078	6	2001v1n1	524	524
Infect Chemother	086	4	2008v40n1	525	525
Int J Thyroidol	186	2	2012v5n1	112	112
Intest Res	143	4	2010v8n1	325	325
Investig Clin Urol	020	12	2006v47n1	1,830	1,830
Investig Magn Reson Imaging	040	4	2010v14n1	206	206
J Adv Prosthodont	170	4	2009v1n1	359	359
J Audiol Otol	180	3	2012v16n1	129	129
J Bacteriol Virol	079	4	2006v36n1	377	377
J Bone Metab	187	4	2012v19n1	106	106

학술지명	JID	간기	시작호	원료 논문수	CrossRef Deposit
J Breast Cancer	096	4	1998v1n1	865	865
J Cardiovasc Ultrasound	059	4	2008v16n1	335	335
J Cerebrovasc Endovasc Neurosurg	098	4	2012v14n1	159	159
J Clin Neurol	145	4	2005v1n1	502	502
J Gastric Cancer	100	4	2010v10n2	242	242
J Gynecol Oncol	114	6	2008v19n1	482	482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0	4	2010v21n1	261	261
J Korean Acad Nurs	006	6	2008v38n1	726	726
J Korean Acad Nurs Adm	163	6	2010v16n1	316	316
J Korean Acad Oral Health	197	4	2012v36n4	136	136
J Korean Acad Prosthodont	084	4	2008v46n5	325	325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99	4	2010v19n1	222	222
J Korean Assoc Oral Maxillofac Surg	070	6	2010v36n1	416	416
J Korean Assoc Pediatr Surg	053	2	2012v18n1	54	54
J Korean Bone Joint Tumor Soc	164	2	2010v16n1	93	93
J Korean Diabetes	178	4	2011v12n1	232	232
J Korean Foot Ankle Soc	120	4	2014v18n1	84	84
J Korean Fract Soc	104	4	2008n21n1	440	440
J Korean Geriatr Soc	111	4	2009v13n1	218	218
J Korean Med Assoc	119	12	2003v46n1	1,715	1,715
J Korean Med Sci	063	12	1986v1n1	4,890	4,890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055	4	2012v51n1	221	221
J Korean Neurosurg Soc	032	12	2007v41n3	1,606	1,606
J Korean Ophthalmol Soc	035	12	2007v48n8	2,484	2,484
J Korean Orthop Assoc	043	6	2007v42n1	815	815
J Korean Soc Hypertens	174	4	2011v17n1	57	57
J Korean Soc Spine Surg	089	4	2001v8n1	641	641
J Korean Soc Radiol	016	12	2003v49n4	1,884	1,884
J Korean Soc Surg Hand	149	4	2012v17n4	106	106
J Korean Soc Transplant	083	4	2009v23n2	202	202
J Lipid Atheroscler	211	2	2012v1n1	57	57
J Lung Cancer	160	2	2006v5n1	106	106
J Menopausal Med	165	3	2011v17n3	112	112
J Minim Invasive Surg	148	4	2012v15n1	91	91

학술지명	JID	간기	시작호	원료 논문수	CrossRef Deposit
J Nutr Health	124	6	2009v42n2	386	386
J Periodontol Implant Sci	150	6	1997v27n1	1,175	1,175
J Rheum Dis	010	6	2007v14n1	594	594
J Rhinol	131	2	2015v22n1	24	24
J Severance Union Med Coll	-	1	1933v1n1	30	30
J Vet Sci	118	4	2006v7n1	672	672
Knee Surg Relat Res	030	4	2011v23n1	204	204
Korean Circ J	054	6	1971v1n1	4,206	4,206
Korean J Anesthesiol	011	6	2007v52n1	2,238	2,238
Korean J Clin Neurophysiol	208	2	2013v15n1	60	60
Korean J Community Nutr	106	6	2011v16n1	250	250
Korean J Crit Care Med	045	4	2008v23n1	411	411
Korean J Cytopathol	024	2	2008v19n1	30	30
Korean J Fam Med	001	6	2009v30n1	472	472
Korean J Gastroenterol	028	12	2009v53n5	954	954
Korean J Health Promot	181	4	2014v14n1	53	53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189	4	2011v11n1	244	244
Korean J Hepatobiliary Pancreat Surg	110	4	2011v15n2	165	165
Korean J Hosp Palliat Care	155	4	2013v16n1	78	78
Korean J Leg Med	018	4	2012v36n1	107	107
Korean J Neurotrauma	203	2	2008v4n1	224	224
Korean J Nosocomial Infect Control	128	2	2013v18n1	25	25
Korean J Ophthalmol	065	6	1987v1n1	1,186	1,186
Korean J Orthod	123	6	2008v38n1	346	346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038	12	2009v52n1	1,177	1,177
Korean J Pain	047	4	2004v17n1	674	674
Korean J Pediatr	052	12	2006v49n1	1,427	1,427
Korean J Perinatol	044	4	2013v24n1	118	118
Korean J Phys Anthropol	107	4	2012v25n4	77	77
Korean J Physiol Pharmacol	067	6	2008v12n1	553	553
Korean J Radiol	068	6	2000v1n1	1,399	1,399
Korean J Schizophr Res	198	2	2012v15n1	49	49
Korean J Spine	146	4	2011v8n1	289	289

학술지명	JID	간기	시작호	원료 논문수	CrossRef Deposit
Korean J Sports Med	171	2	2011v29n1	100	100
Korean J Women Health Nurs	102	4	2008v14n4	258	258
Kosin Med J	191	2	2012v27n1	98	98
Lab Anim Res	169	4	2010v26n1	247	247
Lab Med Online	192	4	2011v1n1	197	197
Mycobiology	184	4	2002v30n1	741	741
Nat Prod Sci	228	1	2015v21n4	14	14
Neonatal Med	033	4	2010v17n2	254	254
Neurointervention	172	2	2010v5n1	107	107
Nutr Res Pract	161	6	2007v1n1	655	655
Obstet Gynecol Sci	021	6	2010v53n1	762	762
Pediatr Allergy Respir Dis	077	4	2011v21n1	100	100
Pediatr Gastroenterol Hepatol Nutr	121	4	2010v13n1	252	252
Perspect Nurs Sci	221	2	2014v11n1	30	30
Prog Med Phys	129	4	2013v24n1	122	122
Psychiatry Investig	162	4	2008v5n1	511	511
Radiat Oncol J	017	4	2008v26n1	285	285
Restor Dent Endod	185	4	2002v27v1	740	740
Transl Clin Pharmacol	179	2	2012v20n1	67	67
Tuberc Respir Dis	003	6	2002v52n1	1,748	1,748
Urogenit Tract Infect	216	2	2013v8n1	67	67
World J Mens Health	074	3	2011v29n1	165	165
Yeungnam Univ J Med	109	2	1995v12n1	655	655
Yonsei Med J	069	6	1960v1n1	4,026	4,026
Total				72,345	72,345

(4) DOI resolution report 통계 현황

연도	월	DOI resolutions attempts Total	Handle Failures Total	Success Resolutions Total	error rate (%)*	DOI Prefix Total	DOI Prefix Handle Failures	Total DOIs	Resolution Rate (%)†
2016	1	174,728	4,570	170,158	2.62	129	95	71,536	2.38
2015	12	249,855	9,901	239,954	3.96	130	114	70,075	3.42
2015	11	114,381	3,709	110,672	3.24	129	94	67,835	1.63
2015	10	214,262	8,576	205,686	4.00	130	115	67,811	3.03
2015	9	97,055	6,516	90,539	6.71	131	89	67,261	1.35
2015	8	72,125	2,765	69,360	3.83	131	79	66,174	1.05
2015	7	85,868	2,241	83,627	2.61	132	95	66,075	1.27
2015	6	190,570	1,543	189,027	0.81	134	94	66,207	2.86
2015	5	250,030	2,412	247,618	0.96	134	85	65,101	3.80
2015	4	68,889	2,878	66,011	4.18	136	97	65,292	1.01
2015	3	72,158	3,675	68,483	5.09	136	91	64,414	1.06
2015	2	56,060	2,097	53,963	3.74	138	87	63,971	0.84
2015	1	121,386	3,132	118,254	2.58	138	98	65,358	1.81
2014	12	79,446	2,871	76,575	3.61	138	96	64,535	1.19
2014	11	73,000	2,109	70,891	2.89	138	101	62,840	1.13
2014	10	90,325	3,334	86,991	3.69	137	96	61,733	1.41
2014	9	81,980	3,431	78,549	4.19	135	95	60,975	1.29
2014	8	70,760	2,466	68,294	3.49	134	82	52,985	1.29
2014	7	394,453	2,611	391,842	0.66	134	96	52,397	7.48
2014	6	355,048	2,371	352,677	0.67	138	99	52,765	6.68
2014	5	389,732	3,313	386,419	0.85	140	94	53,092	7.28
2014	4	351,022	4,112	346,910	1.17	139	95	52,621	6.59
2014	3	376,018	5,151	370,867	1.37	141	101	52,146	7.11
2014	2	271,899	5,376	266,523	1.98	139	87	51,365	5.19
2014	1	323,069	3,176	319,893	0.98	136	85	50,350	6.35
2013	12	332,636	1,831	330,805	0.55	136	91	49,543	6.68
2013	11	322,420	2,239	320,181	0.69	134	91	48,388	6.62
2013	10	331,335	1,961	329,374	0.59	134	84	47,466	6.94
2013	9	282,116	3,064	279,052	1.09	133	83	46,816	5.96
2013	8	276,409	3,109	273,300	1.12	133	83	45,826	5.96
2013	7	252,610	4,167	248,443	1.65	131	95	45,117	5.51
2013	6	226,845	7,742	219,103	3.41	130	88	43,751	5.01
2013	5	247,285	1,374	245,911	0.56	129	77	43,225	5.69

연도	월	DOI resolutions attempts Total	Handle Failures Total	Success Resolutions Total	error rate (%)*	DOI Prefix Total	DOI Prefix Handle Failures	Total DOIs	Resolution Rate (%)†
2013	4	186,983	2,773	184,210	1.48	125	81	42,261	4.36
2013	3	180,981	1,991	178,990	1.10	124	77	41,383	4.33
2013	2	165,006	1,808	163,198	1.10	120	68	40,541	4.03
2013	1	212,304	7,129	205,175	3.36	117	77	39,836	5.15
2012	12	175,925	712	175,213	0.40	118	65	39,215	4.47
2012	11	138,105	666	137,439	0.48	117	69	38,588	3.56
2012	10	129,194	676	128,518	0.52	116	74	37,842	3.40
2012	9	121,329	1,284	120,045	1.06	113	74	37,082	3.24
2012	8	162,044	422	161,622	0.26	112	54	36,500	4.43
2012	7	157,410	439	156,971	0.28	112	70	35,967	4.36
2012	6	151,481	523	150,958	0.35	112	61	34,938	4.32
2012	5	149,543	569	148,974	0.38	108	60	-	-
2012	4	144,461	702	143,759	0.49	104	67	-	-
2012	3	110,132	507	109,625	0.46	103	58	-	-
2012	2	134,180	856	133,324	0.64	101	52	-	-
2012	1	102,333	580	101,753	0.57	99	61	-	-
2011	12	89,632	386	89,246	0.43	96	57	-	-
2011	11	30,720	1,116	29,604	3.63	95	48	-	-
2011	10	35,394	585	34,809	1.65	94	51	-	-
2011	9	77,979	491	77,488	0.63	92	43	-	-
2011	8	79,025	582	78,443	0.74	91	41	-	-
2011	7	44,428	505	43,923	1.14	89	42	-	-
2011	6	30,337	385	29,952	1.27	82	32	-	-
2011	5	21,889	289	21,600	1.32	79	28	-	-
2011	4	28,434	222	28,212	0.78	78	25	-	-
2011	3	28,004	216	27,788	0.77	77	23	-	-
2011	2	4,694	38	4,656	0.81	31	8	-	-
2011	1	-	-	-	-	-	-	-	-
2010	12	18,119	408	17,711	2.25	46	24	-	-
2010	11	20,804	428	20,376	2.06	48	25	-	-
2010	10	14,713	352	14,361	2.39	44	18	-	-
2010	9	17,436	427	17,009	2.45	46	16	-	-
2010	8	18,753	84	18,669	0.45	43	18	-	-
2010	7	25,595	303	25,292	1.18	47	21	-	-

연도	월	DOI resolutions attempts Total	Handle Failures Total	Success Resolutions Total	error rate (%)*	DOI Prefix Total	DOI Prefix Handle Failures	Total DOIs	Resolution Rate (%)†
2010	6	11,925	126	11,799	1.06	38	21	-	-
2010	5	7,613	107	7,506	1.41	26	10	-	-
2010	4	10,942	435	10,507	3.98	30	22	-	-
2010	3	9,531	128	9,403	1.34	29	20	-	-
2010	2	6,975	105	6,870	1.51	26	13	-	-
2010	1	6,172	299	5,873	4.84	20	16	-	-
2009	12	4,254	114	4,140	2.68	17	12	-	-
2009	11	4,646	113	4,533	2.43	15	11	-	-
2009	10	4,319	97	4,222	2.25	14	12	-	-
2009	9	4,092	100	3,992	2.44	12	7	-	-
2009	8	2,392	89	2,303	3.72	11	8	-	-
2009	7	3,267	245	3,022	7.50	10	9	-	-
2009	6	281	2	279	0.71	11	5	-	-
2009	5	5,478	624	4,854	11.39	11	10	-	-
2009	4	2,161	120	2,041	5.55	11	5	-	-
2009	3	1,012	27	985	2.67	9	8	-	-
2009	2	967	17	950	1.76	5	3	-	-
2009	1	501	48	453	9.58	5	4	-	-
2008	12	344	69	275	20.06	4	3	-	-
2008	11	727	208	519	28.61	4	3	-	-
2008	10	290	154	136	53.10	4	4	-	-
2008	9	228	141	87	61.84	2	2	-	-
2008	8	208	151	57	72.60	1	1	-	-
2008	7	115	83	32	72.17	2	2	-	-
2008	6	209	54	155	25.84	2	2	-	-
2008	5	452	273	179	60.40	3	3	-	-
2008	4	-	-	-	-	-	-	-	-
2008	3	-	-	-	-	-	-	-	-
2008	2	-	-	-	-	-	-	-	-
2008	1	-	-	-	-	-	-	-	-
2007	12	111	70	41	63.06	2	2	-	-

*DOI Resolution error rate = Handle Failures Total / DOI resolutions attempts Total X 100

†DOI Resolution rate = Success Resolutions Total / Total DOIs

2.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재 현황

1) 의편협 학술지의 주요 국제 DB 등재 현황

(2016년 2월 26일 현재)

학술지명	JID	MEDLINE	PMC	SCI	SCOPUS	EMbase	BIOSIS	CAS
Allergy Asthma Immunol Res	166		0	0	0	0		0
Anat Cell Biol	049		0					
Ann Coloproctol	009		0		0	0		
Ann Dermatol	140		0	0	0			0
Ann Lab Med	039	0	0	0	0	0		0
Ann Occup Environ Med	022		0					
Ann Pediatr Endocrinol Metab	113		0					
Ann Rehabil Med	041		0		0			
Ann Surg Treat Res	037		0	0	0			0
Arch Plast Surg	023		0		0	0		0
Asia Pac Allergy	-		0			0		
Asian Nurs Res	167	0		0*	0	0		
Asian Spine J	168		0		0			
Biomol Ther	213		0	0	0	0	0	0
Blood Res	072		0		0	0		0
Brain Tumor Res Treat	212		0					
Cancer Res Treat	036		0	0	0	0		0
Chonnam Med J	057		0					0
Chung-Ang J Med	-						0	0
Clin Endosc	027		0		0			
Clin Exp Otorhinolaryngol	141		0	0	0			0
Clin Exp Reprod Med	087		0		0			
Clin Exp Vaccin Res	209		0					0
Clin Mol Hepatol	005	0	0		0	0		
Clin Nutr Res	214		0					
Clin Orthop Surg	157	0	0		0	0		
Clin Psychopharmacol Neurosci	195		0	0	0	0	0	0
Diabetes Metab J	004		0		0	0		

학술지명	JID	MEDLINE	PMC	SCI	SCOPUS	EMbase	BIOSIS	CAS
Electrolyte Blood Press	158		0		0	0		0
Endocrinol Metab	008		0		0			
Environ Health Toxicol	177		0					
Epidemiol Health	073		0					
Ewha Med J	201					0		
Exp Mol Med	061	0	0	0	0	0	0	0
Exp Neurobiol	142		0					
Genomics Inform	117		0				0	
Gut Liver	159	0	0	0	0	0		0
Hanyang Med Rev	130							0
Healthc Inform Res	088		0		0			
Imaging Sci Dent	080		0		0			
Immune Netw	078		0					
Infect Chemother	086		0		0	0		0
Int J Stem Cells	202		0		0			0
Int Neurourol J	092		0	0	0	0		
Intest Res	143		0					
Investig Clin Urol	020	0	0		0	0		0
J Adv Prosthodont	170		0	0	0			
J Audiol Otol	180		0		0			
J Bacteriol Virol	079				0	0	0	0
J Bone Metab	187		0					
J Breast Cancer	096		0	0	0	0		
J Cancer Prev	230		0					
J Cardiovasc Ultrasound	059		0		0	0		
J Cerebrovasc Endovasc Neurosurg	098		0					
J Clin Neurol	145		0	0	0	0		
J Educ Eval Health Prof	144		0					
J Gastric Cancer	100		0		0	0		
J Gynecol Oncol	114	0	0	0	0	0		0
J Korean Acad Nurs	006	0		0*	0	0		
J Korean Assoc Oral Maxillofac Surg	070		0					
J Korean Med Assoc	119				0	0		0
J Korean Med Sci	063	0	0	0	0	0	0	0
J Korean Neurol Assoc	031							0

학술지명	JID	MEDLINE	PMC	SCI	SCOPUS	EMbase	BIOSIS	CAS
J Korean Neurosurg Soc	032		0	0	0	0		0
J Korean Ophthalmol Soc	035							0
J Lipid Atheroscler	211							0
J Menopausal Med	165		0					
J Mov Dis	-		0					
J Neurogastroenterol Motil	081		0	0	0	0		
J Nutr Health	124				0			0
J Pathol Transl Med	019		0		0			0
J Periodontal Implant Sci	150		0	0	0			0
J Prev Med Public Health	056	0	0		0	0		0
J Stroke	183		0	0	0			
J Vet Sci	118	0	0	0	0	0	0	
Kidney Res Clin Pract	034		0		0	0		
Knee Surg Relat Res	030		0					
Korean Circ J	054		0	0	0	0		0
Korean J Adult Nurs	094				0			
Korean J Anesthesiol	011		0		0	0		0
Korean J Community Nutr	106							0
Korean J Dermatol	048				0			0
Korean J Fam Med	001		0		0			
Korean J Hepatobiliary Pancreat Surg	110		0					
Korean J Gastroenterol	028	0			0	0		
Korean J Intern Med	064	0	0	0	0	0	0	0
Korean J Med	007							0
Korean J Med Educ	097	0						
Korean J Med Hist	085	0		0 †	0	0		
Korean J Med Mycol	075				0	0		
Korean J Ophthalmol	065	0	0		0	0		0
Korean J Orthod	123		0	0	0	0		
Korean J Pain	047		0		0	0		0
Korean J Parasitol	066	0	0	0	0	0	0	0
Korean J Pediatr	052		0		0	0		0
Korean J Physiol Pharmacol	067		0	0	0	0	0	0
Korean J Radiol	068	0	0	0	0	0		
Korean J Spine	146		0					

학술지명	JID	MEDLINE	PMC	SCI	SCOPUS	Embase	BIOSIS	CAS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051		0		0			
Korean J Vet Res	190				0			
Lab Anim Res	169		0					
Maxillofac Plast Reconstr Surg	071		0					
Mycobiology	184		0	0	0		0	0
Nat Prod Sci	228				0	0	0	0
Neurointervention	172		0					
Nucl Med Mol Imaging	050		0		0			0
Nutr Res Pract	161		0	0	0			0
Obstet Gynecol Sci	021		0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		0		0	0		
Pediatr Gastroenterol Hepatol Nutr	121		0					
Pediatr Infect Vaccine	153				0	0		
Psychiatry Investig	162		0	0*	0	0		0
Radiat Oncol J	017		0		0	0		
Restor Dent Endod	185		0					
Saf Health Work	193		0		0	0		0
Transl Clin Pharmacol	179				0	0		
Tuberc Respir Dis	003		0		0	0		0
Ultrasonography	046		0					
Vasc Spec Int	090		0					
World J Mens Health	074		0					
Yonsei Med J	069	0	0	0	0	0	0	0
Total		20	98	34	79	56	14	51

*SCI와 SSCI에 모두 등재

†A&HCI 등재

2) PubMed Central 등재 학술지

(2016년 2월 26일 현재)

학술지명	수록현황
Allergy Asthma Immunol Res	2009년 창간호-
Anat Cell Biol	2010년-
Ann Coloproctol	2010년-
Ann Dermatol	2009년-
Ann Lab Med	2011년-
Ann Occup Environ Med	2011년-
Ann Pediatr Endocrinol Metab	2013년-
Ann Rehabil Med	2012년 6월호-
Ann Surg Treat Res	2011년 4월호-
Arch Plast Surg	2012년-
Asia Pac Allergy	2011년 창간호-
Asian Spine J	2007년 창간호-
Biomol Ther	2012년 7월호-
Blood Res	2010년-
Brain Tumor Res Treat	2013년 창간호-
Cancer Res Treat	2004년-
Chonnam Med J	2011년-
Clin Endosc	2011년 9월호-
Clin Exp Otorhinolaryngol	2008년 창간호-
Clin Exp Reprod Med	2011년-
Clin Exp Vaccine Res	2012년 창간호-
Clin Mol Hepatol	2010년 9월호-
Clin Nutr Res	2012년 창간호-
Clin Orthop Surg	2009년 창간호-
Clin Psychopharmacol Neurosci	2011년-
Diabetes Metab J	2010년-
Electrolyte Blood Press	2009년-
Endocrinol Metab	2013년-
Environ Health Toxicol	2011년-
Epidemiol Health	2009년-
Exp Mol Med	2008년-
Exp Neurobiol	2010년-
Genomics Inform	2012년-
Gut Liver	2007년 창간호-
Healthc Inform Res	2010년-
Imaging Sci Dent	2011년-
Immune Netw	2009년-
Infect Chemother	2013년-
Int J Stem Cells	2008년-
Int Neurourol J	2010년-
Intest Res	2014년-

학술지명	수록현황
Investig Clin Urol	2010년-
J Adv Prosthodont	2009년 창간호-
J Audiol Otol	2012년-
J Bone Metab	2012년 11월호-
J Breast Cancer	2011년-
J Cancer Prev	2013년 6월호-
J Cardiovasc Ultrasound	2009년 9월호-
J Cerebrovasc Endovasc Neurosurg	2012년-
J Clin Neurol	2005년 창간호-
J Educ Eval Health Prof	2006년-
J Gastric Cancer	2010년 12월호-
J Gynecol Oncol	2008년 6월호-
J Korean Assoc Oral Maxillofac Surg	2013년-
J Korean Med Sci	1986년 창간호-
J Korean Neurosurg Soc	2007년 10월호-
J Menopausal Med	2013년 12월호-
J Mov Dis	2009년-
J Neurogastroenterol Motil	2010년-
J Pathol Transl Med	2012년-
J Periodontal Implant Sci	2007년-
J Prev Med Public Health	2011년 5월호-
J Stroke	2013년 1월호-
J Vet Sci	2010년 8월호-
Kidney Res Clin Pract	2012년-
Knee Surg Relat Res	2011년 9월호-
Korean Circ J	2009년 3월호-
Korean J Anesthesiol	2010년-
Korean J Fam Med	2011년 3월호-
Korean J Hepatobiliary Pancreat Surg	2011년 5월호-
Korean J Intern Med	2007년-
Korean J Ophthalmol	2006년-
Korean J Orthod	2012년-
Korean J Pain	2010년-
Korean J Parasitol	1998년 9월호-
Korean J Pediatr	2010년 5월호-
Korean J Physiol Pharmacol	2008년-
Korean J Radiol	2000년 창간호-
Korean J Spine	2011년 12월호-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11년-
Lab Anim Res	2011년-

학술지명	수록현황
Maxillofac Plast Reconstr Surg	2015년-
Mycobiology	2008년-
Neurointervention	2011년-
Nucl Med Mol Imaging	2010년-
Nutr Res Pract	2007년 창간호-
Obstet Gynecol Sci	2013년-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2010년 창간호-
Pediatr Gastroenterol Hepatol Nutr	2012년 12월호-

학술지명	수록현황
Psychiatry Investig	2008년-
Radiat Oncol J	2011년 9월호-
Restor Dent Endod	2012년 8월호-
Saf Health Work	2010년 창간호-
Tuberc Respir Dis	2012년 3월호-
Ultrasonography	2014년-
Vasc Spec Int	2014년-
World J Mens Health	2012년 8월호-
Yonsei Med J	2005년-

3) SCOPUS 등재 학술지

(2016년 2월 26일 현재)

학술지명	수록현황
Allergy Asthma Immunol Res	2009-
Ann Coloproctol	2013-
Ann Dermatol	2009-, 1989-1996
Ann Lab Med	2012-
Ann Rehabil Med	2012-
Ann Surg Treat Res	2014-
Arch Plast Surg	2012-
Asian Nurs Res	2007-
Asian Spine J	2011-
Biomol Ther	2008-
Blood Res	2013-
Cancer Res Treat	2011-
Clin Endosc	2011-
Clin Exp Otorhinolaryngol	2009-
Clin Exp Reprod Med	2011-
Clin Mol Hepatol	2012-
Clin Orthop Surg	2009-
Clin Psychopharmacol Neurosci	2005-
Diabetes Metab J	2011-
Electrolyte Blood Press	2006-
Endocrinol Metab	2015-
Exp Mol Med	1996-
Gut Liver	2009-
Healthc Inform Res	2010-

학술지명	수록현황
Imaging Sci Dent	2011-
Infect Chemother	2011-
Int J Stem Cells	2008-
Int Neurorol J	2010-
Investig Clin Urol	2009-
J Adv Prosthodont	2001-
J Audiol Otol	2011-
J Bacteriol Virol	2001-
J Breast Cancer	2008-
J Cardiovasc Ultrasound	2012-
J Clin Neurol	2008-
J Gastric Cancer	2010-
J Gynecol Oncol	2009-
J Korean Acad Nurs	2008-
J Korean Med Assoc	2008-
J Korean Med Sci	1986-
J Korean Neurosurg Soc	2008-
J Neurogastroenterol Motil	2011-
J Nutr Health	2013-
J Pathol Transl Med	2015-
J Periodontal Implant Sci	2010-
J Prev Med Public Health	2006-
J Stroke	2015-
J Vet Sci	2000-

학술지명	수록현황
Kidney Res Clin Pract	2012-
Korean Circ J	2006-
Korean J Adult Nurs	2012-
Korean J Anesthesiol	2010-
Korean J Dermatol	1974-, 1972
Korean J Fam Med	2009-
Korean J Gastroenterol	2003-
Korean J Intern Med	1986-, 1961-1963
Korean J Med Hist	1998-, 1992-1995
Korean J Med Mycol	2002-
Korean J Ophthalmol	1987-
Korean J Orthod	2008-
Korean J Pain	2011-
Korean J Parasitol	1977-
Korean J Pediatr	2010-
Korean J Physiol Pharmacol	1997-

학술지명	수록현황
Korean J Pediatr Infect Dis	2009-
Korean J Radiol	2000-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2011-
Korean J Vet Res	2011-
Mycobiology	2011-
Nat Prod Sci	1997-
Nucl Med Mol Imaging	2010-
Nutr Res Pract	2010-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2010-
Pediatr Infect Vaccine	2015-
Psychiatry Investig	2006-
Radiat Oncol J	2012-
Saf Health Work	2010-
Transl Clin Pharmacol	2015-
Tuberc Respir Dis	1980-
Yonsei Med J	1963-

4) Web of Science 등재 학술지

95 |

(2016년 2월 26일 현재)

학술지명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Coverage
Allergy Asthma Immunol Res	2009-
Ann Dermatol	2007-
Ann Lab Med	2012-
Ann Surg Treat Res	2014-
Asian Nurs Res*	2007-
Biomol Ther	2008-
Cancer Res Treat	2009-
Clin Exp Otorhinolaryngol	2008-
Clin Psychopharmacol Neurosci	2013-
Exp Mol Med	1996-
Gut Liver	2007-
Int Neurourol J	2012-
J Adv Prosthodont	2010-
J Breast Cancer	2006-
J Clin Neurol	2007-
J Gynecol Oncol	2009-
J Korean Acad Nurs*	2008-

학술지명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Coverage
J Korean Med Sci	1999-
J Korean Neurosurg Soc	2007-
J Neurogastroenterol Motil	2011-
J Periodontal Implant Sci	2011-
J Stroke	2013-
J Vet Sci	2006-
Korean Circ J	2011-
Korean J Intern Med	2012-
Korean J Med Hist †	2008-
Korean J Orthod	2008-
Korean J Parasitol	2008-
Korean J Physiol Pharmacol	2008-
Korean J Radiol	2001-
Mycobiology	2013-
Nutr Res Pract	2009-
Psychiatry Investig*	2008-
Yonsei Med J	1998-

*SCI와 SSCI에 모두 등재

† A&HCI 등재

3. 국내 의학학술지의 SCI 등재 현황과 영향력지표 분석

김병호(제7대 부회장)

1) 서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편집)가 1996년 창립 당시 단체회원은 전문학술지, 의과 대학 및 협회 발간 학술지를 포함하여 105종이었으나, 이 중에 MEDLINE 등재지는 5종에 불과하였으며 톰슨로이터스 과학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 SCI)에 포함된 학술지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의편집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의학학술지의 질 향상을 통한 SCI 및 MEDLINE 등재를 위한 공동 노력이 포함되었다.

2016년 2월, 창립 20주년이 되는데 2015년 10월 현재 회원학술지는 254종으로 늘었으며, 영역도 의학, 치의학, 간호학뿐만 아니라 수의학, 영양학, 생명과학으로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MEDLINE 등재 학술지는 21종으로 증가하였고, PubMed Central (PMC) 93종, SCOPUS 79종, SCI 35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명실상부하게 협회 설립목적에 맞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중 편집인들의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는 SCI-E 등재 현황과 학술지 영향력지표(journal impact factor, 이하 IF로 약함)에 대해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SCI-E 등재에 성공한 학술지들이 IF 제고 방편으로 인쇄본 발간 전에 온라인 조기발행을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도 알아보았다.

2) 의편집 회원학술지의 SCI-E 등재 현황과 인용지수의 변화

의편집 회원학술지의 SCI-E 등재는 1996년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EMM), 1998년 Yonsei Medical Journal (YMJ), 1999년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KMS)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종에 불과하였다(그림1). 그러나 2008년에 11종, 2009년에 7종이 한

꺼번에 등재되었고 2013년까지 6종이 추가되었으며 2014년 한 해에 다시 6종이 추가됨으로써 현재 총 35종의 회원학술지가 등재되었다. 한편 SCI-E와 SCI의 차이점은 전자가 온라인으로만 발표되며 후자는 저장 공간 문제로 일부만 발췌되어 별도 CD/DVD로 출간된다는 점만 다를 뿐 질적인 차등은 없다고 하는데, 회원학술지 중 SCI에 포함된 것은 EMM, YMJ, JKMS 등 3종이다.

SCI-E 등재 회원학술지의 IF 변화를 보면, EMM의 최초 IF는 0.13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2005년 4종의 평균이 1.2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 IF는 0.6으로 곤두박질 쳤고 이후 다시 서서히 증가하여 2014년 31종의 평균 IF가 1.45를 넘어 최초로 비해 10배가 넘는 성과를 나타냈다(그림 1). 2009년과 2010년 IF 평균이 급락한 것은 2008년과 2009년에 18종이 한꺼번에 등재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하는데, 당시 톰슨로이터스사에서 지역 선발 정책에 따라 대거 등재되었던 학술지들의 IF가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이전 및 이후에 등재된 학술지로 나누어 보면, 전체적으로 IF 평균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 이후 등재 학술지들이 가파른 약진을 나타냈다(그림 2). 이것은 최근 학술지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 사전준비를 한 상태에서 등재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도별 IF 최고치를 살펴보면, 최초 등재되었던 EMM이 최고치를 주도하면서 평균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2014년 IF 산정에 포함된 회원학술지는 31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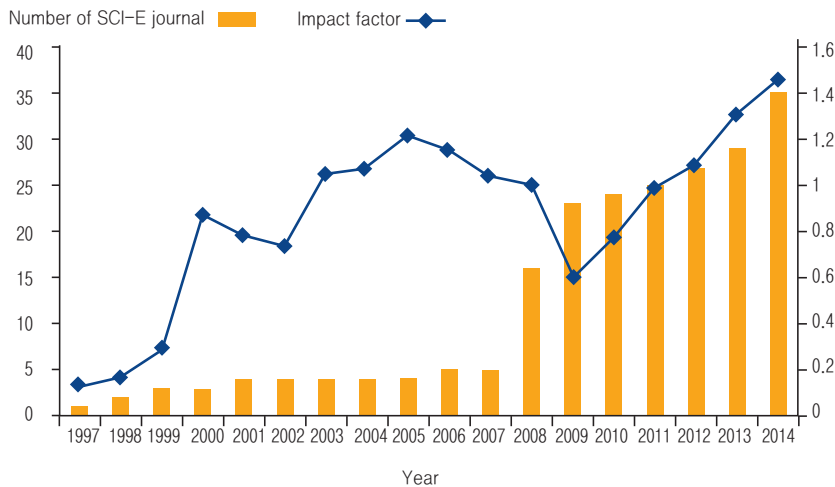


그림 1. 의편협 회원학술지의 SCI-E 등재 현황과 평균 영향력지표(impact factor)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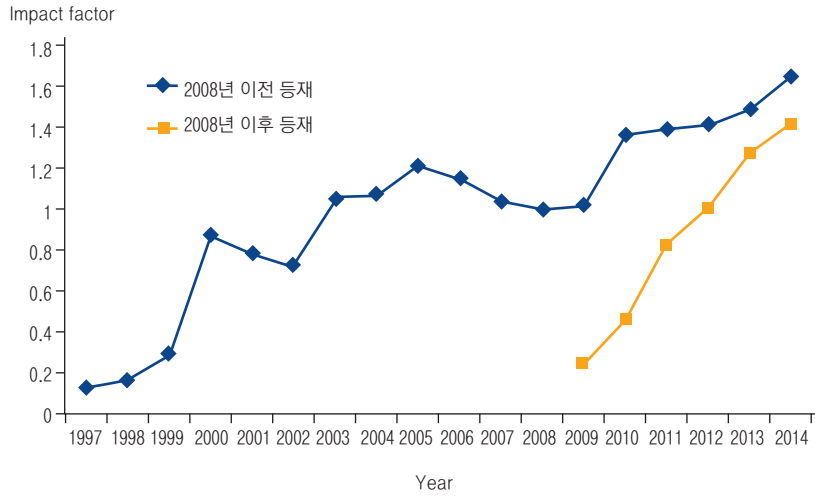


그림 2. 2008년 이전 SCI 등재 회원학술지와 2008년부터 그 이후 등재 학술지의 평균 IF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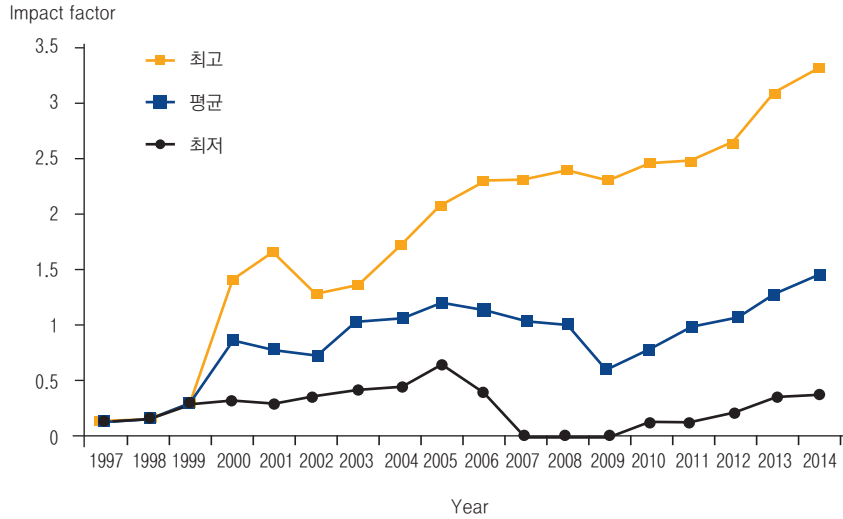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의학학술지 평균 IF 변화와 연도별 최고치와 최저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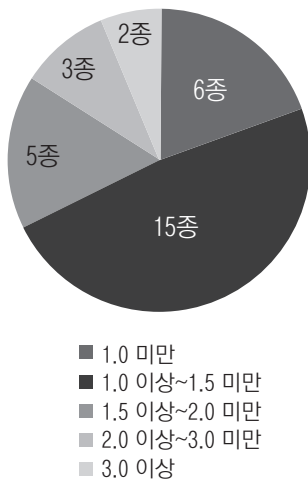


그림 4. SCI-E 등재 회원학술지 31종의 2014년 IF 분포

으로 3종은 등재 되지 얼마 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한의사학회는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A&HCI)에 포함되어 SCI 산정 대상이 아니다. 이들 31종의 IF 분포를 보면, 반 정도인 15종이 1 이상~1.5 미만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전체 평균 1.452에 근접하고 있다(그림 4). 1.5를 넘는 학술지는 10종으로, 그중 2.0~3.0 사이가 3종이며(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 Research,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3.0이 넘는 학술지는 EMM과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2종뿐이다.

2014년도 IF 변화를 보면, 2013년 IF 산정에 포함되었던 27종 중 5종만 소폭 하락하였을 뿐 나머지 22종은 상승하였다. 0.5 이상 증가한 학술지로는 EMM이 2.462에서 3.446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Journal of Gynecological Oncology가 1.6에서 2.494로, Biomolecules & Therapeutics가 0.841에서 1.727로,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가 0.37에서 1.173으로, Asian Nursing Research가 0.418에서 1.0으로 약진하는 성과를 보였다.

3) 논문의 온라인 조기노출(early view)이 IF 상승에 미치는 효과

국내 여러 학술지 편집인들은 SCI-E 등재만큼 IF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IF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질 좋은 논문을 적절한 시기에 출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공자 수나 학문영역 등의 논문 외적 요소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학술지의 상당수는 아직 IF가 낮은 편이므로 외국의 유명학자들을 초빙하여 좋은 종설을 게재하는 것도 IF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저자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편집인으로 있던 대한내과학회지(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KJIM)는 SCI-E 진입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석학들에게 종설을 초빙하였

다. KJIM은 등재 전부터 Web of Science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피인용 횟수를 분석하여 IF를 추정하여 왔는데, 2009년까지 0.4 아래를 맴돌던 지수가 각고의 노력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등재 직전인 2012년에는 1.3을 상회하였다. 당시 논문유형별 피인용 분석을 하였는데, 원저는 연간 1.5회, 증례는 0.7회 정도 피인용된 반면, 종설은 연간 5.5회 피인용됨으로써 종설 초빙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SCI-E 등재 직후 2014년에 발표된 KJIM의 공식 IF는 1.426이었다.

최근 여러 편집인들이 논문의 조기노출을 통하여 IF 제고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IF 산정에 최근 2년간 발표된 논문의 피인용 빈도가 이용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기에 온라인 출판하여 노출 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1). 사실 조기출판은 유명 학술지들이 적체된 논문을 온라인으로 우선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이며, 논문의 선취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최근 일부 대형 학술지들은 아예 온라인 출판만 하는데, 이는 온라인에 올라가는 날짜가 바로 출판일이 되기 때문에 조기출판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EMM이 2013년부터 온라인으로만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게재 승인된 논문은 매주 올려서 발행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있다.

| 100

조기출판 방법으로는 인쇄본이 나오기 전에 자체 홈페이지에 온라인 게재하거나 (forthcoming issue, online early publication 등), 좀더 영향력이 큰 PubMed에 미리 올리는 방법이 있다. PubMed electronic publication ahead of print (E-pub AOP)는 인쇄본이 나오기 전에 발행자가 요청하여 PubMed에 논문초록을 미리 올리는 방법이다. AOP 초록들은 논문 전문(full text)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업출판사에서 자체 구독자 또는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전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Open access인 경우는 해당 사이트로 링크하여 전문을 구할 수 있으나, doi, 발행일, 권, 호, 쪽수 등은 없을 수도 있다.

의편집 회원학술지의 조기출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SCI-E 등재지 35종의 편집인에게 설문조사하여 29종으로부터 답신을 받아 분석하였다(그림 5). 자체 홈페이지에 온라인 조기출판을 하는 학술지는 12종이었으며 5종은 현재 계획 중으로 반 이상이 조기출판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PubMed E-pub AOP를 이미 시행하는 학술지는 8종이었으며 계획 중인 학술지가 8종으로 역시 반 이상이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자체 홈페이지 조기출판이 2003년 1종, 2009년 1종, 2010년 2종이었고, 나머지 8종은 2012년 이후에 시작하였다. PubMed E-pub AOP도 1종만 2007년도에 시작하였을 뿐 나머지 7개 학술지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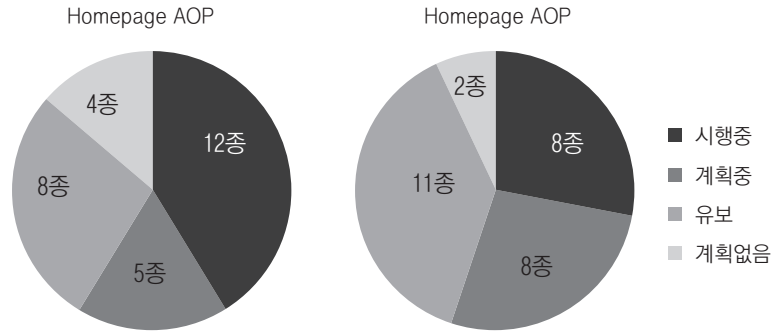


그림 5. SCI-E 등재 회원학술지 29종의 조기출판 현황

따라서 조기출판이 SCI IF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적고 시행 기간도 짧아서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2001년 SCI-E에 등재된 Korean Journal of Radiology (KJR)는 2009년부터 자체 홈페이지서 조기출판을 시작하였다. KJR은 SCI-E 등재 직후인 2001년 1.78이었던 IF가 오히려 하락하여 2008년 1.05로 최하점을 찍고 2009년 이후 1.5를 약간 상회한 상태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조기출판이 IF 상승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치 않다(그림 6). SCI 등재 후 IF가 오히려 감소했던 것은, 연간 논문 게재 편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거의 2배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YMJ의 경우 1998년에 SCI 등재되었고 자체 온라인 조기출판은 2010년부터 시작하였는데, PubMed E-pub AOP는 아니지만 인쇄본 출판 1개월 전에 PubMed에 올리고 있다. YMJ는 SCI 등재 이후 인용지수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으나 전체 학술지 평균 상승 정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조기출판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그림 6).

회원학술지 중 PubMed E-pub AOP 역사가 가장 긴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JKNS로)는 2007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 SCI-E에 등재되었다. 등재 직후인 2009년 JKNS의 IF는 0.155에서 0.607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등재된 다른 학술지들의 평균 IF 상승에 비해 증가 속도가 오히려 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SCI-E 의학학술지의 IF를 주도하고 있는 EMM은 PubMed E-pub AOP는 시행치 않고 2013년 1월부터 온라인으로만 출판하고 있다. EMM은 SCI 등재 이래 IF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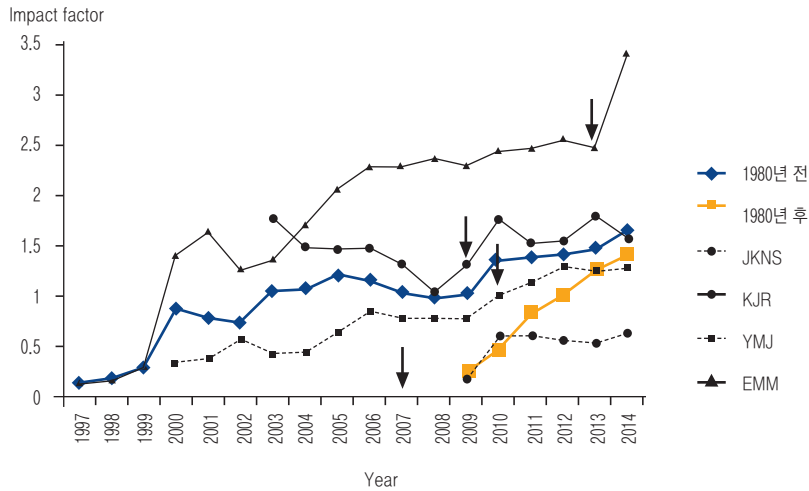


그림 6. 사례별로 본 조기출판과 IF 변화와의 관계. 검은색 화살표는 JKNS의 PubMed e-publication ahead of print 시작 연도, 흰색 화살표는 KJR 및 YMJ의 자체 홈페이지 조기출판 연도, 사선 화살표는 EMM의 온라인만으로 출판을 시작한 연도. EMM,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KJR, Korean Journal of Radiology; YMJ, Yonsei Medical Journal; JKNS,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출판만으로 변경한 다음 해인 2014년 IF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출판일이 바로 논문 출판일이 되므로 적어도 조기출판 효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014년 EMM의 IF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10년 연간 게재논문이 80편을 넘었던 데 반해 2013년 이후 연간 60편 내외로 감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IF가 반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2014년 IF 약진 폭이 컸던 EMM,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Biomolecules & Therapeutics,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 Asian Nursing Research 등은 온라인 조기출판은 시행치 않는 학술지들이다.

4) 요약

1996년 의편집 창립 이후 지난 20년간 회원학술지는 105종에서 250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창립 당시 SCI-E 학술지는 한 종도 없었으나 현재 35종이 등재되었고, MEDLINE 등재 학술지는 5종에서 21종으로 증가하였다. SCI IF도 최초 0.13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평균 10배가 넘는 1.45를 상회함으로써 명실 공히 양과 질 모두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회원학술지의 SCI IF 분포는 반 정도가 1에서 1.5 사이이며 3.0을 넘는 학술지는 2종이었고,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다.

SCI 등재 이후 많은 편집인들이 IF 제고의 한 방편으로 조기출판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회원학술지의 반 이상이 자체 온라인 조기출판 또는 PubMed E-pub AOP를 시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초기 단계로 조기출판의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려웠다. 조기노출이 IF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으나(1), Academic and Professional Publishing에서는 조기노출의 효과 판정을 위한 비교연구는 거의 불가능하며 적어도 IF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2). 조기노출이 IF 제고에 영향을 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많은 유명 학술지들이 조기출판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으로 논문을 최대한 빨리 노출시킨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의편집 회원학술지 사례로 볼 때 조기출판이 SCI IF 향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좀더 많은 학술지를 대상으로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03 |

1. Henk F. Moed. The effect of "Open Access" upon citation impact: An analysis of ArXive's Condensed Matter Section. J Am Soc Inf Sci Technol 2007;58:2047-54.
2. Campbell R, Pentz E, Borthwick I. The 'early view' effect. In: Campbell R, editor. Academic and professional publishing, 1st Edition. 2012, p259-260.

4.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 용역사업

오세정(제7대 기획평가위원장)

1) 개요

대한의학회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의과학지식센터가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사업 “의과학분야 디지털화 대상 학술지 지원 및 선정기준 개발”을 수주하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회(의편집)에 이 사업을 위탁하였다. 연구기간은 2014년 9월 18일부터 2015년 1월 17일까지였으며, 총연구비는 1,400만원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5명, 연구보조원 2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내용은 국내 의학학술지의 발행 현황과 학술지 편집인의 학술지 평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의과학지식센터가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학술지 편집인의 의견을 참조하여 장차 의과학지식센터가 구축하고자 하는 국내 의학논문의 데이터베이스화에 필요한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104

2) 연구 방법

(1) 학술지 발행 현황과 편집인의 학술지 평가에 대한 인식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가 의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모든 분야의 국내 학술지의 발행 현황을 파악하고, 학술지 발행 현황, 학술지 평가에 대한 인식, 학술지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대한 설문조사지를 협조공문과 함께 발송하였고, 회수율은 51%였다.

(2) 학술지 평가기준의 개발

국내외적으로 학술지 평가기준을 갖고 있는 기관의 평가기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의편집,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이 포함되었고, 국외에서는 Thomson Reuters사의 SCI, Elsevier사의 SCOPUS,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MEDLINE의 학술지 평가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평가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중시되는 요소를 토대로 기본적인 평가기준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학술지 편집인들도 중시하는 요소에는 가중치를 두었다. 국내 학술지 편집인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 즉 국내 출판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였다. 평가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편집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최종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하였고, 객관성과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편집에서 이미 평가를 받은 학술지 가운데 10종을 선별하여 시범평가를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3) 연구 결과

(1) 편집인들의 학술지 평가에 대한 인식

정시발행, 전문가심사, 웹기반 투고 시스템, 온라인출판 관련 사항, DOI 부여, 게재논문의 인용도(SCI, KoMCI), 연구출판윤리 관련 사항, 학술지편집 관련 사항 등이 5점 만점에 평균 4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 가운데 정시발행, 전문가심사, DOI 부여, 온라인출판, 연구출판윤리 관련 사항 등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서 5점을 획득하였다. 게재논문 인용도와 원고채택률은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는데, 이는 이들 항목이 국내 학술지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5 |

(2) 평가기준

- 설문조사에서 학술지 편집인들의 절반 이상에서 5점을 획득한 정시발행, 전문가심사, DOI 부여, 온라인출판, 연구출판윤리 관련 사항은 가중치를 두었다.
- 인용도와 원고채택률은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의과학지식센터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사항인 학술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여서 포함시켰다.
- 평가항목은 1부 편집 정책, 2부 학술지 편집, 3부 학술지 출판과 학술적 기여도의 세 부

분으로 구성하였다.

- 1부 편집 정책에서는 편집위원회(또는 간행위원회)의 운영과 편집관련 지원업무, 전문가심사제도 운영, 출판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하고, 2부 학술지 편집에서는 학술지 실물(또는 온라인)의 편집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3부 학술지 출판에 대해서는 정시발행, 학술지 온라인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학술적 기여도는 투고논문 배척률(rejection rate), 게재논문의 인용도 등으로 평가하였다.
- 세부평가항목은 1부 3개 항목, 2부 7개 항목, 3부 5개 항목으로 총 15개 항목으로서 각 항목의 배점은 5점이며, 가중치를 갖는 항목이 포함되어 총점은 150으로 구성하였다(표 1).

표 1. 학술지 선정기준(평가항목) 일람표

대항목	소항목	배점	가중치
편집 정책	1-1. 편집위원회(또는 간행위원회)의 운영과 편집관련 지원업무 사항	5	
	1-2. 전문가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2
	1-3. 출판, 연구윤리 관련 조항	5	3
	소계	15	30
학술지 편집	2-1.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 학술지의 기본적인 사항	5	
	2-2.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 원고 작성에 관한 사항	5	
	2-3. 논문 제목, 저자명 및 소속기관 표기(목적차란 포함)와 본문의 체재 및 오류 유무	5	2
	2-4. 영문(또는 국문)초록의 체재와 오류 유무	5	2
	2-5. 참고문헌 인용과 기술 방식	5	3
	2-6. 표(table)의 설명 문안과 배치	5	
	2-7. 사진 또는 도형그림(line drawing)의 선명도, 설명 및 배치	5	
	소계	35	55
학술지 출판과 학술적 기여도	3-1. 발행 일자 준수 여부	5	5
	3-2. 학술지 논문의 온라인 이용 가능성	5	3
	3-3. 투고 논문 배척률(rejection rate)	5	2
	3-4. 게재논문의 국내학술지 인용 비율 (Korean Journal Citation Rate)	5	
	3-5. SCl impact factor	5	2
	소계	25	65
총점		75	150

(3) 시범평가

2013, 2014년도에 의편협의 학술지 평가(신규평가 또는 재평가)를 받은 학술지 가운데 평가 점수대 별로 상, 중, 하 2종씩 선정하고, 그 외에 국제 데이터베이스(SCI, SCOPUS, PubMed)에 등재된 학술지 2종, 국내 Synapse 등재 학술지 1종, KoreaMed 미등재 학술지 1종을 선정하였다.

대상 학술지의 시범평가 득점은 예상치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3부 학술적 기여도의 배점이 커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범평가 학술지 선정의 비플립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적 질적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편협 평가회 평점이 상, 중인 학술지와 국제 데이터베이스 또는 Synapse 등재 학술지의 득점 평균과 나머지 학술지의 득점 평균이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고, 시범평가 대상 학술지가 과거 의편협 평가회에서 얻은 평점과 비교했을 때 편차범위 $-0.62 \sim 0.25$ 로 $\pm 5.3\%$ 의 오차를 보여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유사성을 보여서 개발된 평가항목은 학술지 평가에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다.

4) 맺음말

대한의학회가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을 수주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용역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체는 의편협이었으며, 이는 의편협이 학술지 평가에서 보여준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번 용역사업을 통하여 국내 의학학술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의편협 활동에 필요한 좋은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의학학술지 발행 환경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정부기관에 이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5. 수상경력

의편협은 지난 20년간 의학학술지를 통한 의학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학학술지의 국제화를 선도하여 왔다. 이러한 업적이 인정을 받아 이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 명의로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대한의학회 제2회 의학공헌상 수상소감

조승열 (성균관대 명예교수, 가천의대 초빙교수, 제3대 회장)

1996년 2월 당시 대한의학회(의학회) 김영명 회장님은 간행이사 박찬일 교수에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편협)를 조직하여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를 장기적으로 발전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때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였고 정부가 의학분야에도 연구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 정책으로 SCI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장려하던 때였다. 그리고 의과대학 등 각 대학에서는 교수 승진 요건으로 SCI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수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던 시기였다. 또 의학 각 분야에서 외국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험자가 임계수치(critical mass)를 넘어서고 있어서 외국 편집인과 논문 편집에 관련하여 경험을 축적한 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그런 경험을 가진 젊은 교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의학학술지를 발간하는 각 학회에서는 회원들이 학회 발행 학술지를 SCI 등재 학술지로 만들라고 학회 임원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의편협은 의학학술지를 직접 발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학회에 학술지를 잘 만들라고 보조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의편협이 의학학술지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의편협이 한 일은 의학학술지의 가치를 높이는 편집방법을 편집인에게 교육하고, 학술지를 평가하여 결점을 보완하도록 하며, 발행인에게는 훌륭한 편집인을 선택하고 오래 일하도록 하고 동시에 원고편집인(manuscript editor)을 포함한 보조인력을 고용하는 등 투자하여 편집인을 돕고 또 급속히 변화하는 학술정보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태도를 갖도록 설득하였다. 또

편집대행 출판사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의학학술지 환경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내용을 외국인 독자에게 노출시켜 인용을 유도하고 영향력을 차츰 높이려면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논문 내용을 영문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한림의대 허선 교수의 의견을 의편집 집행부는 받아들였고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이춘실 교수가 2000년 KoreaMed를 완성하여 지금까지 논문 약 22만 건의 영문초록을 PubMed와 같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초록으로부터 원문에 연결시키는 Link-out을 각 발행기관에 권장하였다. 의편집은 그 이후에도 외국인이 접근할 수 있는 Synapse, KoMCI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였고 Google과도 연계시켰으며 mobile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검색 엔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표제어(MeSH)를 반자동으로 생성하는 체계도 구축하였다. NLM, CrossRef 등 의학 학술정보 기관이 칭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비영리 자원 봉사 단체인 의편집이 지난 15년에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인생을 걸고 노력한 이춘실 교수가 있었다. 이번에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가 되어 기쁘다. 의편집 활동으로 MEDLINE, PubMed Central, SCI, SCOPUS 등 세계적인 의학/과학 데이터베이스에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많이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의학공헌상은 의편집이 받은 것이다.

조승열이 의학학술지 편집 분야에서 일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들이 많았다. 은사 서병설 교수는 기생충학잡지 편집을 오래 맡도록 하였고, 지제근 교수는 의학회 회장으로서 조승열을 의학회 발간 JKMS의 편집과 학술정보 분야를 맡도록 지원하셨다. 김영명 교수, 김광우 교수, 고윤웅 교수, 김건상 교수 등 대한의학회의 역대 회장님이 모두 간행업무를 격려하고 지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조승열과 이춘실 교수가 이번에 의편집을 대신하여 수상하였지만 같이 일한 의편집 역대 회장인 연세의대 박찬규 교수, 한양의대 함창곡 교수, 연세의대 박찬일 교수, 서울의대 임정기 교수, 연세의대 서창옥 교수와 서울의대 홍성태 교수에게도 의학공헌상을 나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세의대 송경순 교수, 가톨릭의대 조성훈 교수, 유문간 교수 등이 편집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봉급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받고 의학회 일만 한다고 자책하는 조승열에 대하여 괜찮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격려하신 성균관의대 서정돈 당시 학장과 후임 임대용 학장에게 깊이 감사한다.

의편협 여러분의 vision과 leadership에 감사드립니다

이춘실 (제7대 정보관리위원,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지난 20여년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기획평가위원과 정보관리위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의학연구수준평가 위원, 대한의학회 KoMCI 사업단 위원 그리고 대한의학회 간행위원으로서 두 가지 줄기의 일을 해 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계량정보학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의학 연구 수준을 평가하고, 의학 연구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 그리고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에 계량지표를 활용하여 객관적 시각으로 학술지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의학 학술 논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KoreaMed, Synapse, KoMCI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구축, 관리 하는 일을 주도한 것입니다. 국제 표준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철저한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의학 정보가 국제적으로 소통되는 통로를 확보하고,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일조하였고,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정보화의 이정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Quality work”와 “Sustainable system”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임해 왔습니다.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최고급 수준, 품격 있는 정보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는 제대로 되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 계속 발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의학계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에는 없는 우리나라 의학계의 큰 보배인 KoreaMed, Synapse 그리고 KoMCI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의학정보와 깊은 인연을 맺도록 영향을 주신 두 분, 고 윤덕선 한림대학교 이사장님과 제1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이신 고 지제근 교수님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억합니다. 그리고 공동 수상자이신 조승열 교수님을 비롯한 역대 의편협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랜 세월 절취부심 동고동락한 의편협의 모든 정보관리위원장님과 정보관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온 모든 일들이, 이 분들의 vision과 leadership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였습니다.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의학연구자가 아닌 저에게 같이 해 보자고 말씀하시고, 문헌정보학의 전문성을 인정하시고, 의학문헌 정보의 처리, 계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좋은 기회와 토대를 제공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오랜 기간 동안 동반자로 만들어 주신 의학계에, 그리고 의편협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7회 범석의학상 수상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가 1996년 2월에 발족한 이후 우리나라 의학논문 세계화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범석학술장학재단이 수여하는 범석의학상을 수상했다. 2014년 5월 7일(수)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을지관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의편협 외에도 범석논문상에 신전수 연세대 교수, 범석언론·정책상에 심재익 서울신문 의학전문기자, 범석봉사상에 사랑나눔의사회가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의편협 홍성태 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의편협에서 활동하며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해 애쓴 의학, 문헌정보학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범석학술장학재단은 을지재단 설립자 고(故) 박영하 박사가 1997년에 기업이윤 사회환원이라는 신념을 펼치고자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매년 의학, 논문, 언론·정책, 봉사(2014년 신설) 분야에서 의료 및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 인사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범석상을 수여하고 있다.



WHO/WPRO로부터 감사패 받음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구(WHO/WPRO, 사무처장 신영수)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APAME) 학술대회장에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에 아시아지역의 의학지식 정보 유통망 구축 및 의학학술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감사패를 증정했다.

서태평양지역의 의학정보 유통망 구축을 추진해온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의편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oreaMed를 벤치마킹하여 2006년에 서태평양지역 인덱스메디쿠스(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를 구축했으며, 의편집에서는 WPRIM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술정보를 비롯한 운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지역의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의 정보교류 및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아시아지역의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의 학술정보 교류의 장인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Asia-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APAME) 설립을 의편집이 주도하여 2008년 5월에 한국에서 창립총회(초대회장 함창곡, 사무총장 서정욱)를 개최한 바 있다.



대한의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 받음

본 협의회에서는 2008년 7월 3일(목) 올해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대거 SCI에 등재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SCI 등재 학술지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장에서는 봉사과 희생으로 의학학술지의 국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에 감사하며 대한의학회 회장(김건상)이 허선(의편협 정보관리위원장, 한림대대 기생충학), 이춘실(의편협 정보관리위원,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제2008-901호

감 사 패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이 춘 실

지난 10여년간에 걸친 선생님의 봉사과 희생 덕분에 국내 의학학술지가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수준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7종의 의학학술지가 SCI에 대거 등재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통한 선생님의 희생적인 기여에 감사드리고자 이 패를 전합니다.

2008년 7월 3일

대 한 의 학 회
회장 김 건 상

제2008-902호

감 사 패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수 허 선

지난 10여년간에 걸친 선생님의 봉사과 희생 덕분에 국내 의학학술지가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수준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7종의 의학학술지가 SCI에 대거 등재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통한 선생님의 희생적인 기여에 감사드리고자 이 패를 전합니다.

2008년 7월 3일

대 한 의 학 회
회장 김 건 상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6년도 학술상 수상

배종우 교수(출판윤리위 위원장, 경희의대 소아청소년과)가 2016년 1월 22일 개최된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집) 정기 총회에서 과편집 제정 2016년도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2년간 과학 편집 분야에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과학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학술상을 수여받았다.

대상논문은 2014년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한 "Duplicate publication rate decline in Korean medical journals" 논문 (저자 김수영, 배종우, 함창곡, 조혜민) 으로 2004년부터 2009년 동안 한국에서 발행한 의학논문에서 중복출판의 빈도, 유형, 감소추세, 감소이유를 조사한 연구로서, 2006년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출판윤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서 그 전에 비해서 현저한 감소를 보인 점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 의학 논문에서 출판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향후 의학논문 작성에 과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115 |



수상 장면, 오른쪽이 배종우 교수



제3장 **의편협** **위원회 활동**

1996-201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사

1. 기획평가위원회

오세정 (제7대 기획평가위원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1) 개요

의편협이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를 질적으로 우수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으로 의학학술지 평가사업은 의편협이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전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획한 의편협의 핵심사업이다. 평가사업의 목표가 학술지의 장기적인 수준 향상이므로 회원 학회와 학술지 편집인이 스스로 노력하여 수준 높은 학술지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평가 결과를 학회 지원금과 연결시키지 않고, 단지 의편협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학술지를 의편협이 구축한 초록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에 등재하는 것을 정책기조로 삼아(1) 평가사업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항목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점수화 하는 과정을 거쳐 1997년 8월 18일 평가기준을 확정하였다(2). 이후 평가기준은 변화하는 학계 동향,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표 1).

표 1. 평가항목 제정 및 개정

평가항목 변화	주요 내용	일자
제정	자체평가(I) 13개, 실물평가 항목(II) 10개, 협의회 평가항목(III) 6개, 총 29항목.	1997.8.18.
제1차 개정	학술지 편집과 관련된 항목을 강화, 투고규정과 체재의 일관성을 강화. I-14, II-13, III-6, 총 33항목.	1997.9.23.
제2차 개정	일부 문구 수정, 실물평가 세분화, 도서관 소장율과 인용 관련 항목 보강. I-14, II-12, III-6, 총 32항목.	1999.7.5.
제3차 개정	투고규정 비중 상향, 인용 관련 항목 조정. I-13, II-12, III-4, 총 29항목.	2001.3.26.
제4차 개정(재평가용)	재평가용, 기 심사 후 등재된 학술지용 III 항목 위주 조정(인용지수, 디지털화 등).	2004.3.30.
제4차 개정(신규용)	발행간기와 전문가심사 시행을 선결요건으로 조정. I-11, II-13, III-6, 총 30항목.	2006.3.28.
제5차 개정	1부 자체조사 항목에서 논문 배척률 상향 조정(I-6), 정식발행 항목(I-8)을 3부 협의회 조사 항목으로 이동, index 작성 조정(II-11) 삭제. 실물평가항목에서 일부 비현실적인 문구 수정. 협의회 조사 항목에서 국내 도서관 비치율(III-1), SCI 저널 인용 건수(III-5) 삭제. 참고문헌 관리 조항(III-5) 추가.	2009.3.27.
제6차 개정	실물평가항목에서 일부 비현실적인 문구 수정.	2011.9.9.
제7차 개정	협의회 조사항목에 보너스 항목(h-index, DOI) 추가	2013.7.5.
제8차 개정	14년차 재평가 면제 기준, 온라인 학술지 정시성 평가 기준 마련. 신규평가에서 배척률 계산을 위한 증빙자료는 최근 1년치에만 적용하기로 수정(I-6).	2014.9.16.
제9차 개정	학술지 납본일을 우편 배달일에서 PDF 파일 업로드 일자로 변경.	2015.5.14.

2) 학술지 평가의 종류

(1) 일단계 평가

운영위원회가 시행하는 의편집 회원 가입을 원하는 학술지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항목은 과학성, 학술성, 객관성, 윤리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회원 가입을 전후한 1년간의 학술지 발행 실적이 정시발행 요건이 충족하면 KoreaMed 등재를 위한 이단계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KoreaMed 등재를 위한 신규평가 (이단계 평가)

학술지 평가도구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항목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자체평가로 이루어지고, 2부는 전문가 심사(peer review)에 의한 학술지 실물평가이며, 3부는 학술지의 정시발간과 배포, 게재논문의 피인용 정도, PubMed와 같은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재 여부 등의 자료를 의편집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으로서 평가도구의 원문이 의편집 웹사이트(<http://www.kamje.or.kr/intro.php?body=evalcriteria7>)에 게시되어 있다. 각각의 항목은 5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2011년까지는 평균 2.5점 이상을 등재 기준으로 하였다가 국내 학술지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2012년부터 3.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등재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 1년 후 다시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의편집의 학술지 평가 목적은 개개의 학술지를 평가하여 등급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2부 실물평가는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단순 통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평가자와 평가대상 학술지 편집인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인 방식은 상호 간에 감정적인 대립을 조장하거나, 반대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평가사업을 수행해 오는 동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 이처럼 쌍방향적인 학술지 실물평가는 평가대상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인을 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의편집은 이름 그대로 편집인들의 협의체인 만큼 평가자와 평가 대상 편집인이 모두 학술지 편집인으로서 의편집 학술지 평가의 기본 개념은 편집인 간의 상호심의라는 것이며, 의편집 고유의 시스템으로 잘 정착되었다.

(3) KoreaMed 등재 후 재평가

학술지가 KoreaMed에 등재된 후 7년 주기로 재평가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탈락하는 경우 1년 뒤 재심사를 받게 된다. 2년 연속 재평가에서 탈락하거나 2년 연속 재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규평가를 받아야 하며 통과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KoreaMed에 초록 등재가 중단된다. 이는 학술지에 대하여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벌칙의 개념이 아니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학술지 자료는 계속 보존된다. 평가항목은 신규평가 때와 거의 유사하나 몇 가지 추가된 항목이 있다. 두 번째 재평가(등재 14년차)부터는 표 2와 같은 실물평가 면제기준이 적용된다.

표 2. 등재 14년차 학술지의 실물평가 면제 기준

1. 등재 7년차 재평가에서 평점 3.5 이상을 받았거나, MEDLINE, SCI, SCOPUS 중에서 1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
2.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의편협 Synapse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는 평가 대상에 포함.
3.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 실물평가 면제 대상이 되더라도 정시성은 평가함.

(4) 대한의학회 가입을 위한 학술지 평가

대한의학회는 회원 가입을 원하는 학회에 대한 2단계 심사인 학술지 평가를 의편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의편협 회원 가입을 위한 일단계 평가와 동일하다.

3) 학술지 평가 현황과 결과

신규평가회는 1997년 11월 5일 제1차 평가회를 시작으로 2015년 6월까지 총 34회의 신규평가회가 열렸으며(표 3), 등재 7년차 재평가회는 2004년 9월 23일 제1차 평가회를 시작으로 총 13회(표 4), 등재 14년차 재평가회는 2013년 5월 9일 제1차 평가회를 시작으로 총 3회 열렸다(표 5).

등재 7년차 재평가회의 경우, 기준 평점이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2012년 이전까지는 평가 대상 학술지 모두가 통과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탈락하는 학술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등재 14년차 재평가회의 경우, 제1차 평가회에서 18종, 제2차 평가회에서 12종, 제3회

평가회에서 5종의 학술지가 실물평가를 면제 받고 정시성 평가만 받았다. 정시성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표 3. 신규평가회 현황과 결과

평가 차수	평가 대상 학술지(종)	KoreaMed 등재 학술지(종)	일자
1	12	9 (+5 MEDLINE 학술지)	1997.11.5
2	9	6	1998.5.27
3	11	10	1998.9.2
4	8	8	1998.11.4
5	10	9	1999.9.1
6	14	10	1999.10.6
7	12	1	1999.11.17
8	3	1	2000.2.14
9	13	10	2000.11.22
10	11	4	2001.7.6
11	8	5	2001.11.14
12	9	6	2002.9.25
13	8	4	2003.2.21
14	12	7	2003.9.19
15	5	0	2004.2.19
16	5	2	2004.6.22
17	8	8	2004.11.24
18	8	8	2005.6.24
19	3	2	2006.2.14
20	8	4	2006.6.27
21	10	7	2007.2.14
22	9	5	2007.6.27
23	10	9	2008.7.17
24	14	14	2009.6.25
25	10	7	2010.5.12
26	5	5	2010.11.12
27	9	9	2011.6.23
28	10	10	2011.12.8
29	6	3	2012.6.14
30	9	8	2012.11.22
31	6	5	2013.6.13
32	6	5	2013.12.12
33	10	5	2014.7.10
34	6	5	2015.6.25

표 4. 등재 7년차 재평가회 현황과 결과

평가 차수	평가 대상 학술지(종)	통과 학술지(종)	일자
1	12	12	2004.9.23
2	8	8	2005.10.14
3	11	11	2006.2.28
4	5	5	2006.10.19
5	11	11	2007.2.28
6	12	12	2007.10.31
7	8	8	2008.10.23
8	6	6	2009.12.18
9	14	14	2010.10.20
10	12	12	2011.10.20
11	8	6	2012.12.8
12	7	4	2013.11.8
13	5	5	2014.11.13

표 5. 등재 14년차 재평가회 현황과 결과

평가 차수	평가 대상 학술지(종)	통과 학술지(종)	일자
1	13	13	2013.5.9
2	14	10	2014.5.29
3	7	7	2015.5.14

평가사업 초기에는 학술지의 평균 평점이 2.3-2.8점이었던 것이 2008년 이후에는 거의 3점 가까이에 이르렀으며(그림 1), 등재율도 초기에 50-70%였던 것이 2008년 이후에는 90-100%까지 증가하여 2012년부터 등재 기준 평점을 3.0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현재는 80%대의 등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향상의 근본적인 요인은 3부 평가항목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 즉, 국내 학술지들의 게재논문의 인용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SCI나 PubMed와 같은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등재가 되고 있으며, 학술지 발간과 질 관리 측면에서 크게 향상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평가를 받은 동일한 학술지에서도 학술지의 질적 수준이 등재 초기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평가를 받은 모든 학술지가 평점 2.5를 상회한 것은 물론 신규평가와 재평가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던 100종의 학술지 가운데 신규평가 때 평점 평균이 2.92였던 것이 재평가에서는 평균 3.49로 향상되었고, 신규평가 때보다 평점이 1점 이상 상승한 학술지는 19종이었으며, 반대로 평점이 하락한 학술지는 11종에 불과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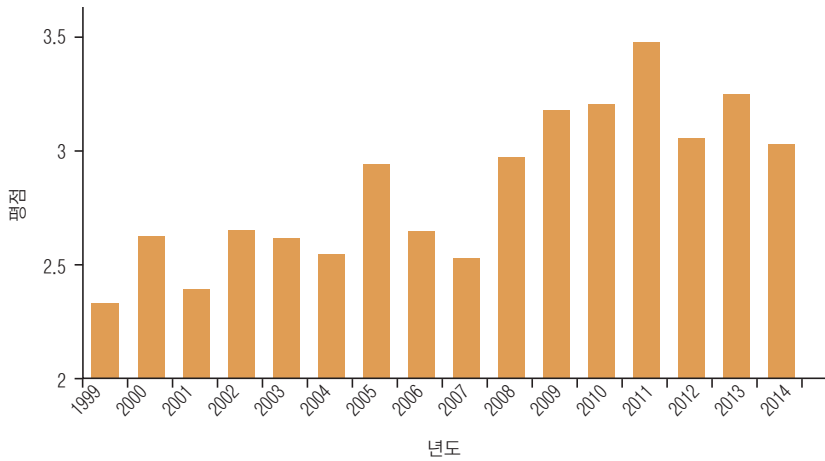


그림 1. 신규평가 평균 평점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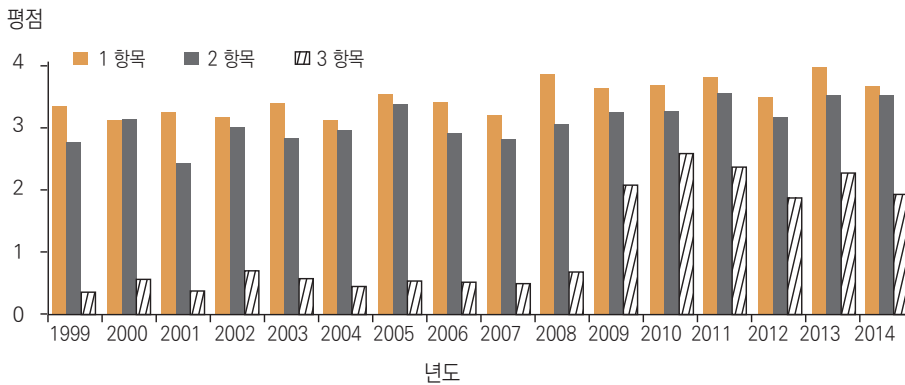


그림 2. 신규평가 항목별 평점 연도별 추이

4) 결어

의협협의 의학학술지 평가사업의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성과 외에도 KoreaMed에 등재된 의학학술지 가운데 2008년 이전까지는 SCI에 등재된 학술지가 5종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까지 34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현재 SCOPUS 등재 학술지는 77종, PubMed Central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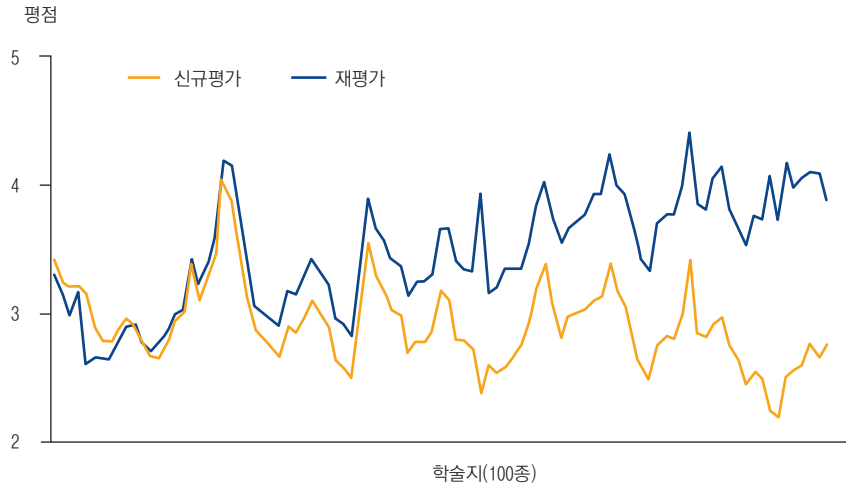


그림 3. 신규평가와 재평가 간 평점 변화

학술지는 95종에 달하고 있는 점은 의편협의 의학학술지 평가사업이 국내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 학회와 편집진의 노력과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 전반적으로 학술지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학술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의편협과 학술지 편집인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정부기관의 지원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조승열. 의학학술지 평가사업. 대한의사협회지 1999;42:331-7.
2.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0년(1996-2006). 서울: 아카데미아; 2008. p.53.

2. 운영위원회

김재원 (제7대 운영위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운영위원회는 의편협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의편협 사업과 관련된총무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주로 재무, 회원자격 심사, 소식지, 회원 상호 간의 협력 증진, 그 밖에 다른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등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의편협 각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분들은, 박찬일(1기), 송경순(2기), 서창옥(3기, 4기), 김동규(5기), 나은우(6기), 김재원(7기) 교수로서 의편협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회원현황

125 |

의편협의 회원은 창립년도인 1996년에 단체회원 105개, 개인회원 8명, 특별회원 2개로 출발 하였으며 2015년(10월 현재)에는 단체회원 254개, 개인회원 43명, 특별회원 18개로 증가되었다. 단체회원은 의편협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고 학술지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진행중인 학술지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단체회원은 전체 254종 중에서, 학문 성격에 따라 의학(학회) 186종, 의과대학 11동, 치의학 15종, 간호학 19종, 약학 6종, 수의학 4종, 보건학 4종, 영양학 6종, 생명과학 3종의 학술지가 있다. 개인회원은 편집과 심사 그리고 학술지 정보화 부문에 전문성을 띤 분들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고 있다. 특별회원은 의편협의 활동과 목적에 도움을 주는 출판사 및 인쇄소, 전자출판, 번역 관련 회사들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그림1,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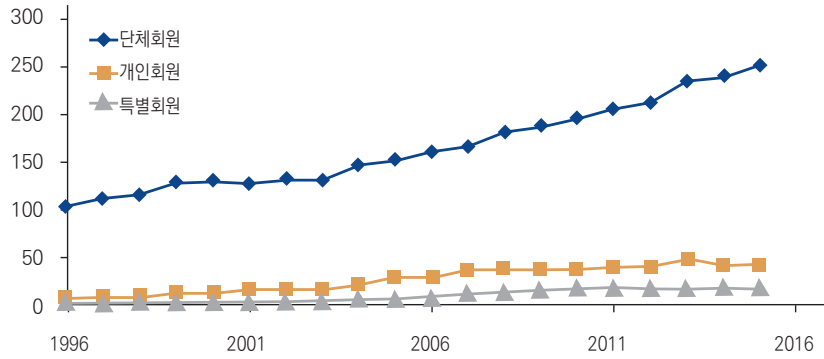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회원 변동 현황(1996-2015)

표. 연도별 회원 수

연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단체	105	113	116	129	132	128	133	132	148	154	161	168	182	188	197	206	213	234	242	254
개인	8	9	9	13	13	17	17	17	23	29	29	38	38	38	38	41	41	48	44	43
특별	2	3	3	3	3	3	4	6	6	8	9	13	14	16	18	20	19	17	19	18

홈페이지 및 소식지

의편협의 주요활동은 홈페이지(www.kamje.or.kr)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서 널리 소개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의편협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행사에 따른 모든 강의 파일을 열람할 수 있고 학술지 편집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식지는 1996년 8월 의편협 발족을 알리며 첫 호가 발간되었으며 회원현황, 의편협의 각종 행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소식지에는 학술지 발전을 위해서 회원 단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고가 포함되는데, 회원가입 안내, 학술지 평가 결과, 워크숍 및 심포지움 안내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업을 소개함과 아울러 국제 학술지의 최근 동향과 출판윤리에 관한 최신 규정을 소개하여 왔다. 이러한 내용들은 학술지 발전 방향에 대한 안내, 연구 윤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회원 학술지 발전을 지향하는 의편협의 목적을 이루는데 일조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를 잘 알리기 위해 창간호부터 2009년 4월 발간

된 37호까지의 소식지 합본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으며, 그 이후의 자료도 PDF로 가공하여 의편협 홈페이지에서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다.

재무관련

1996년도 창립 초기의 의편협 예산은 총 31,530,000원으로서 대한의학회로부터의 지원금 1,000만원, 단체회원 연회비(학회당 10만원), 워크숍 등록비로 충당하였다. 의편협 활동범위가 늘어나면서 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는 논문편수에 따른 차등 연회비, 코리아메드 등재학술지 레코더 처리비(편당 3,000원), Crossref deposit 실비(1달러/편) 등이 추가되어 2015년도에는 총 302,697,228원의 예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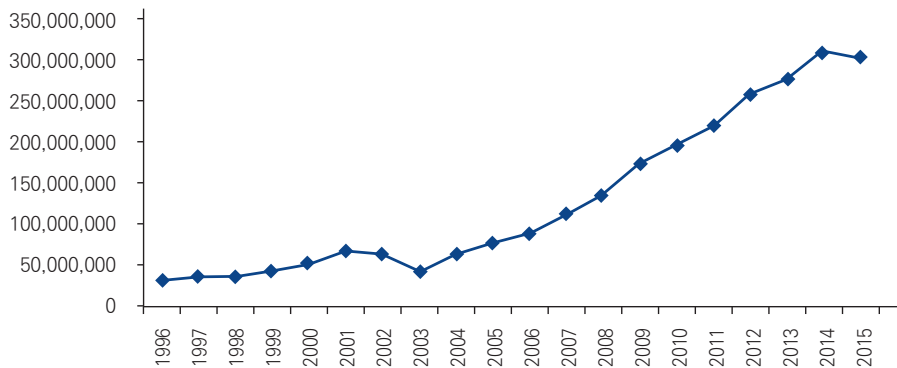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예산 현황(1996-2015)

3. 정보관리위원회

권오훈(제7대 정보관리위원장, 한술병원 내과)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발전과 함께 한 처음 10년 간 기초를 다듬고 또 다듬어 KoreaMed를 탄생시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록색인 의학 데이터베이스로 자리 잡았다. 이런 튼튼한 기초 위에 여러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골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나중 10년 동안 있어 왔다.

KoreaMed에서 KAMJE Press까지

의편협은 학술지가 회원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학술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은 학술지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내부적으로 Journal DB라고도 부르고 있고 미국 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NLM Catalog에 대응한다. 의편협 웹사이트 회원 학술지 메뉴에서 들어갈 수도 있으며 KoreaMed, KoreaMed Synapse (이후 Synapse), KoMCI 및 KAMJE Press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2009년부터 3년 간격으로 발간하고 있는 <KAMJE Journals>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기초로 편찬 발행한 것이며 2015년 판에는 2015

년 1월 30일 현재 의편협 회원 학술지 241종에 대한 자세한 서지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KoreaMed는 지속적인 양적 팽창을 이룬 것 외에도 Synapse의 탄생 이후 서로 영향을 주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를 가진 논문들은 모두 DOI를 표시하고 있고 KoreaMed LinkOut 배너를 통하여 각 학술지, Synapse, KoMCI 그리고 PubReader의 full text 논문으로 연결된다. Synapse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들은 그 논문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해 주고 있

Chang-Kok Hahm, MD, hahmck@hanyang.ac.kr
 Prof of Radiology, Hanyang Univ Hosp, Seoul, KOREA



Honorary President(2002-2005)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www.kamje.or.kr)



Director(2001-2003)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www.wame.org)

KoreaMed
 powered by KAMJE

English Abstracts of Korean Medical Journals

click! <http://koreamed.org>

코리아메드 홍보를 위해 함창곡 전 회장이 사용한 명함

다. KoreaMed에 적용한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자동 색인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KoreaMed MeSH Indexer를 이용하여 MeSH 부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MeSH 부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운영하여 온 MeSH TFT 활동의 산물이었고 물질명(Substance) MeSH 용어 부여, MeSH 용어 및 MeSH Entry terms 자동 완성/자동 추천 기능, MeSH 용어로 자동 변환 검색 기능, Substances/Supplementary Concepts 검색 기능 등 수 없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저자명의 약자로 검색하는 기능 이외에도 저자명의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각 논문에 표시된 full name을 모두 찾아 KoreaMed 기록에 추가하는 작업을 하여 색인함으로써 저자 full name 검색이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근본적인 처방이라 할 수 있는 ORCID 검색을 적용하였다. 출판일, 언어, 종, 성별 외에 KoMCI 인용, Synapse 및 CrossRef (최근 Crossref로 브랜드 변경) 인용 논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술지 분야, 암 및 독성학의 주제, 연령, 논문 타입 등 더욱 풍부해진 Limits 기능으로 검색기능이 강력해졌다.

이러한 내적 발전에 발맞추어 해외 협력이 함께 이루어졌다. 전세계 많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ExLibris사의 SFX에 포함되어 검색되기 시작하였고 Google과의 협력을 통하여 Google 및 Google Scholar에서 우선 검색되고 있다. ICSTI 및 World Wide Science Alliance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주관하고 다국어 검색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WorldWideScience.org에 포함이 되었다. 이는 우리 학술지들의 가시성(Visibility)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KoreaMed에 있는 3,300여 개의 RCT 논문이 Cochrane Library의 Cochrane Trials Register에 re-publish되는 쾌거를 이루게 하였다. 이후 KoreaMed RCT 논문이 자동으로 Cochrane Library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노력이 진행 중이다.

KoreaMed는 WPRIM 데이터베이스 창설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KISTI의 초록색인 데이터베이스의 모태가 되었다. KISTI와의 MOU로 의협에서는 KISTI에 KoreaMed자료 1만여 건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의협 자회사인 XMLink를 창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Synapse가 탄생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

Synapse 탄생 무렵 우리 학술지들은 Crossref에 참여하고 DOI를 부여해야 하는 현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럴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Crossref 참여 조건으로 기본적인 온라인 학술지 전문 서비스 외에 외부로부터의 연결(Inbound link)을 수용하는 Crossref DOI와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했고, 참고문헌을 통한 외부 연결(Outbound link)의 의무가 있었다. DOI landing 플랫폼으로 시작한 Synapse는 Crossref와의 관계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실로 엄청난 횟수의 국제회의, 국내 초청 미팅을 통해서 Crossref에서 주도하고 개발한 initiative를 모두 Synapse에 적용시키고 최적화 하는데 힘을 쏟았다. Crossref DOI 서비스 이외 Cited-by Linking, CrossCheck, CrossMark, FundRef (Funding Information) 등을 거쳐 Text and Data Mining 서비스를 Synapse에 적용하였다. Text and Data Mining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Synapse 학술지들은 단지 참여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되었지만 의편협/XMLink에서는 6만 5천여 건의 모든 Synapse 논문 Crossref XML을 수정해서 제공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다. 이러한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의편협은 많은 연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Synapse에 적용을 하였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거나 참여 학술지와 함께 나누는 정책을 펼쳐왔다.

PubMed가 미국 의학도서관에서 정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규격으로 작성되었고 이후 PubMed Central이 확장된 XML 규격을 사용하게 된 것에 자극을 받아 KoreaMed와 Synapse는 모두 이와 동일한 규격의 XML로 구축하게 되었다. PMC XML은 현재 NISO 표준이 되었으며 JATS (Journal Article Tag Suite)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영문으로 발행하고 있는 Synapse 학술지의 경우 과학적 우수성만 증명된다면 PMC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2015년 말 현재 7만편에 가까운 논문이 Synapse에 실려 있으며,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중 PMC에 참여하고 있는 학술지 논문의 대부분은 의편협/XMLink를 통하여 처리되었다. XML 파일이 처음 만들어지면 제작 과정보다 더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진다. 의편협/XMLink는 매년 미국 NCBI에서 개최하는 JATS-Con에 참석하여 최신 정보를 교환할 뿐 아니라 PMC 실무팀과의 기술회의를 통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PMC에 업로드한 파일은 보통 24시간 이내, 심지어는 밤 사이에 PMC에 공개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PMC에 보낸 파일은 PMC에서 정한 규칙대로 처리가 되고 Synapse XML 파일은 여러 단계의 Crossref 서비스의 적용, KoreaMed 및 KoMCI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들과의 연결 처리 등을 거쳐서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된다.

Synapse는 단순한 full text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Synapse의 모든 논문은 살아 있는 허브로 작동하며 보통 100여개의 작동하는 링크를 가지고 있다. CrossMark의 풍성한 Record 데이터는 Crossref로부터 청송받는 단골 메뉴 중 하나이다. 각각의 포맷으로 연결되는 감각적인 아이콘, 그 아래 선보이는 MeSH Terms 중 하나를 클릭하면 바로 KoreaMed의 MeSH 용어 검색으로 연결된다. 그 오른 편 푸른 색 압정을 클릭하면 붉은 색으로 바뀌면서 그 논문에 적절하지 않은 MeSH 용어로 신고가 된다. MeSH TFT는 이들 신고 항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수정 조치를 하고 있다. Synapse의 검색 엔진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DOI나 ORCID 검색뿐 아니라 Synapse 및 Crossref, KoMCI 그리고 PubMed Central에서 인용을 받고 있는 논문을 검색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ynapse에서 적용하고 있는 통일된 인터페이스 덕분에 Synapse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Synapse의 많은 변화를 감지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ynapse가 ExLibris Primo Central, ProQuest사의 The Summon Service 제공 범위에 들어감으로써 전세계 많은 도서관에서 Synapse 논문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KoreaMed에 이어 WorldWideScience.org, Google Scholar에 포함됨으로써 가시성을 더욱 넓히게 되었다. Synapse는 KoreaMed와 함께 대한민국 의학 학술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여러 국제회의에서 최신 기술을 훌륭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통일되고 세련된 화면에서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보이는 모바일 웹의 미려한 모습이 해외 거대 출판사와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강인한 Synapse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2001년 3월 22일 지금은 고인이 되신 당시 의학회 회장 지제근 교수께서 간담회를 주선하여 ‘한국종합의학학술지 색인지 발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6월 14일에 열린 ‘(가칭) 한국의학학술지종합정보 개발사업 회의’라는 긴 이름의 두 번째 회의에서 ‘KoMCI Project’의 윤곽이 잡혔는데 정보개발 사업 주체를 대한의학회로 하고 그 산하에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정보 개발사업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단장에는 간행이사 조승열, 부단장에 의료정보이사 이영성이 맡기로 하였다.(1)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은 사업 목표를 한국 의학학술지의 한국 학술지 인용색인정보 개발로 한 것이었고, ISI사의 Science Citation Index (SCI)와 같은 한국 의학논문 만의 인용정보를 구축하여 의편협의 KoreaMed 사업과 짝을 이루어 서로 보완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대한의학회 사업에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도협), 의편협, Medric 등이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게 되었다.

2011년 의편협 전회장 조승열 교수의 글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KoMCI)의 발전과정’에 의하면 “KoMCI Project는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의 자금을 의학회가 받아 투입하는 사업이었지만 문헌정보학 분야가 열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즉 이춘실 교수는 SCI에 대한 연구로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므로 이와 유사한 인용색인정보인 KoMCI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완벽한 전문가였고, 김호배 가톨릭의대 도서관 사서과장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창설 주역이

고 Korea Index Medicus를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제작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KoMCI는 시작부터 각 학술지 논문에서 저자가 인용한 참고문헌의 학술지 명을 컴퓨터가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 관리하는 통제 체계인 전거통제(authority control)를 도입하였고, 참고문헌 오류를 그대로 입력하는 SCI와 달리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참고문헌 오류를 수정하여 수록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학술지 자료를 XML 파일로 처리하여 제출 받은 자료를 KoreaMed 편집에도 활용하였으며 이는 한국 의학학술지가 MEDLINE(PubMed) 학술지로 등재될 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의편협 회원 학술지 중 여력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입력하였다.

입력한 자료는 KoMCI 2000부터 시작하여 JCR (Journal Citation Reports)에 해당하는 단행본과 CD-ROM으로 제작되어 배포하였다. SCI에서와 같은 개인별, 논문별, 연도별, 주제어별 인용검색이 가능하지 않았지만 2005년 1월부터 KoMCI Web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고, KoMCI JCR이라고 할 수 있는 KoMCI Journal Web은 2006년 9월 28일 개통되었다. 2007년에 시작된 Synapse는 KoMCI와 KoreaMed의 경험이 많이 도움 되었으며 Synapse에 입력된 참고문헌은 KoMCI에 그대로 활용되었다.

| 132

탄탄 대로를 걷던 KoMCI 사업은 초기 의학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후 줄기 시작하면서 이곳 저곳에서 마찰음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는 KoMCI 사업의 유지가 힘들어졌고 밀린 작업을 의편협/XMLink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일이 많아졌다. 급기야는 KoMCI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8,000여 건의 미입력 참고문헌을 의편협/XMLink에서 떠 안을 수 밖에 없었고 결국 KoMCI는 의편협 사업으로 들어 오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의편협/XMLink는 KoreaMed와 Synapse, KoMCI 그리고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적인 통합을 이루었고 이를 통하여 Synapse 학술지 논문이 인용하는 한국 의학 문헌이 쉽게 KoMCI로 수록될 수 있었다. 이것은 KoMCI의 범위가 KoreaMed 등재 학술지에서 Synapse 등재 학술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만 이것은 또한 여력이 있을 경우 Synapse 미등재 학술지의 경우도 손으로 입력할 계획이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데이터베이스 간의 통합 작업은 학술지 논문이 Synapse에 올려지는 순간 거의 동시에 KoMCI 웹에서 검색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SCI에서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편협의 최근 브랜드는 KAMJE Press이다. 초기부터 있었던 KoreaMed Central 학술지의 개념이 바뀌면서 Central 학술지로 불리우다가 2015년 1월 KAMJE Press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KAMJE Press는 KoreaMed 및 Synapse 등재 학술지 중 희망하는 학술지에 대하여 제공하는 e-journal 서비스로 Synapse의 골격에 각 학술지 고유 디자인의 옷을 입힌 것과 같다. Synapse 대부분의 서비스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 이외에 등재 학술지에 한하기는 하지만 Synapse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Cited by Web of Science, Cited by SCOPU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Web of Science나 SCOPUS를 구독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들 데이터베이스에서의 Citation Metrics를 쉽게 알 수 있다. 의편협 가입 후 KoreaMed나 Synapse 등재 전이라도 미리 Crossref 서비스를 받기 위해 KAMJE Press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의편협의 통합된 모든 브랜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최신 트렌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KAMJE Press에 속해 있으면서 통합 관리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업그레이드 되지만, 주어진 고유 영역이 너무 클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도태되는 현상을 겪을 수도 있어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편협/XMLLink는 위에 언급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수월성(Excellence), 지속성(Sustainability), 무결성(Integrity)을 유지하기 위해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국내외 기술 모임 및 연구개발에 몰두 하였으며 아래 첨부한 과거 정기총회 보고사항을 참고로 하면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KoreaMed 초기부터 모든 영역에 깊이 관여하여 정보관리위원으로 수고해 오신 이춘실 교수의 헌신과 그 분신과도 같은 XMLLink의 기여 덕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춘실 교수의 헌신은 2015년 3월 17일 제2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을 조승열 교수와 공동 수상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된다.

XMLLink와 함께

Synapse 탄생 전후 몇 년간 의편협에서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KoreaMed 등재 학술지 종수의 증가에 따른 KoreaMed XML 작업, 새로 시작한 Synapse XML 작업뿐 아니라 DOI와 연관된 Crossref XML 작업 그리고 PubMed Central에 등재된 학술지 작업 및 이들과 연관된 모든 행정 업무에 이르기까지 의편협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한

계에 도달하였다. 2004년 의편집 예산 중 KoreaMed 운영비가 2,500만원에서 2008년 7,400만원까지 급증을 하게 된 것도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량의 폭증 외에도 비현실적인 서비스료, 영수증 발행의 어려움 등이 과연 의편집이 Synapse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을 고조시켰고 2008년 3월 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2008년 4월 7일 XMLink가 탄생하게 된다(2). 의편집 임원 혹은 개인회원이 주주로 참여하여 초기 자본금을 준비하기는 하였지만 실제적인 사업자금은 KoreaMed와 관련한 KISTI와의 MOU에서 마련할 수 있었다. 숙명여대 이춘실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직원들은 숙명여대와 가까운 주택가의 한 건물을 임대하여 작지만 위대한 의편집과 XMLink 동반 시대를 열게 된다.

XMLink 창문 쪽에 업무지침의 성격으로 붙여놓은 ARS라는 것이 있다. Accurate, Reliable, Speedy가 바로 그것이다. 의편집 사무국 시절 파일을 제작하고 처리하는데 급급했던 것에서 벗어나 정확하고 믿을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기초를 닦고자 하였다. 의편집의 기대와 이상은 하늘을 날고 있었고 XMLink는 이제 겨우 기초를 다지고 있어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아무 것도 내다 볼 수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대한민국 의학학술지를 위해 일한다는 명분으로 묵묵히 견디어 냈다. 우리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력 있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였고 이들을 키우거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보금자리가 있어야 했다. 많은 우여 곡절을 겪은 후 2011년 2월 24일 드디어 현재의 마포 사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많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했다.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가기 위해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수시로 열었다. 내부 강사를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업무 개선 및 능률 향상의 기회로 삼았다. 특히 의편집과 관련하여 서울을 방문한 주요 인사들과의 수많은 Technical Meeting은 의편집/XMLink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들 중에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MeSH Section의 Head였던 Dr. Stuart J. Nelson, ICSTI 전회장 Dr. Roberta Shaffer,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Staff Scientist인 Ms. Kathy Kwan (PMC), Mr. Geoffrey Bilder (Director of Strategic Initiatives, Crossref), Ms. Carol Anne Meyer (Business Development and Marketing Manager, Crossref), Dr. James Testa (Vice President, Thomson Reuters), Ms. Rachael Lammey (Product Manager, Crossref), Dr. Laurel Haak (Executive Director of ORCID), Ms. Marie Villemin Partow (WHO WPRO Publications Officer), Mr. Steve McDonald (Australasian Cochrane Centre) 그리고 Ms. Nobuko Miyairi (ORCID Regional Director of Asia-Pacific) 등이 포함되

어 있으며 이들의 도움으로 의편협/XMLink의 사업은 그 이름에 걸맞는 무게와 깊이를 갖추게 된다.

Technical Meeting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굵직한 국제회의를 전후하여 기술 회의를 열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현장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즉시 해결하였다. Ms. Jo McEntyre (Europe PMC staff), Thomson Reuters 및 ORCID와의 기술 회의 외에 Crossref 및 NLM PMC Production Team과는 매년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다.

사무실에는 워싱턴, 런던 그리고 서울의 시간을 표시하는 세 개의 벽시계가 걸려 있다. 이것은 XMLink가 주로 관계하는 외국 기관들과 관계가 있다. 해마다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국내의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편협/XMLink가 하고 있고 이루어 놓은 것을 부지런히 세계에 알리고 깊이 각인시킴으로써 우리 학술지들의 수준 및 visibility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다.

출판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Crossref의 연례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하여 DOI를 기반으로 한 학술지 논문의 무한한 연결 및 소통의 꿈을 이루어 오고 있으며, 인류의 문화 유산을 디지털화하여 1000년 이상 보관할 계획의 하나로 선택된 XML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 NLM NCBI에서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JATS-Con에도 빠짐없이 참석함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진보를 따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CSTI 및 World Wide Science Alliance, 또 그와 함께 열리는 여러 워크숍을 통해서 출판 이외 과학 기술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왔고, 이들과 병행해서 열린 NFAIS Annual Conference, APE (Academic Publishing in Europe) Conference, ALPSP International Conference 등을 통하여 학술지 및 학술지 논문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했다.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APAME)의 full text database인 APAMED Central은 당시 WHO WPRO 소속 Charles Raby의 인턴 파견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실은 인력을 제공하였고 의편협/XMLink는 이들 인턴에 대한 교육 및 제반 비용을 담당하였다. WHO WPRO는 마닐라에 파견된 인턴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기간 중 APAMED Central 학술지 논문들에 대한 XML 작업이 이루어졌다. 작업 결과물은 모두 의편협/XMLink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처리되었고 Synapse를 model database로 사용하였기에 Synapse2 System으로 불리웠다가 이후 WHO WPR Journals Database를 거쳐 APAMED Central이란 이름으로 2012년 9월 1일 말레이시아

open. inviting. transparent.



JATS
Journal Article Tag Suite



Find Journals



KAMJE

KoMCI

KoreaMed Synapse KAMCI PubReader ePUB



OPEN ACCESS

DESTROY ARTICLES PDF PUBLISHED EPUB PUBLISHED REFERENCE



Find Articles

PubMed



KoreaMed
koreamedu.org



Synapse



Synapse
synapse.koreamedu.org



KoMCI
komci.org



KoreaMed

Search Go Clear Limits

xmlink



KoreaMed
journals.koreamedu.org

KAMJE
kamje.or.kr

@xmlink
xmlink.kr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식으로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PAMED Central은 2014년 10월 19일부터 worldwidescience.org database에 포함 되어 검색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의학학술지의 전문이 세계로 보급되는 관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들 작업의 기본을 전수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다. APAME 회원국의 사서들을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로 초청하여 교류하고 있고 여러 워크숍에 참여하여 이제까지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AME 2015 Conference의 parallel session으로 “MAHLAP Workshop on e-journal platform”을 필리핀 의학사서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여 JATS, ORCID, DOI, Funding information 등 e-journal 플랫폼을 위한 표준 정보기술을 공유하였으며, JATS 1.0 XML 1대1 태깅 연습을 통하여 실제적인 지식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XMLink 사무실 한쪽 벽에는 XMLink에서 구축 운영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로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아이콘과 배너,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국제 표준 그리고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들로 가득차 있다. “XMLink’s Database Ecosystem”을 상징하는 Image Wall에 같이 표현되어 있는 “Open, inviting, and transparent”라는 XMLink의 핵심가치는 이들 생태계를 대하는 XMLink의 마음가짐을 잘 보여준다.

XMLink는 기술 및 연구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해 왔다. 지금 보이는 KoreaMed, Synapse, KoMCI,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 및 KAMJE Press의 모습은 수없이 많은 기술회의, 자문회의, 분석회의 등의 결과로 얻은 것이다.

지금은 거의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KoreaMed MeSH도 처음에는 특정 단어를 검색하여 그에 해당하는 MeSH Check Tags를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단계적으로 MeSH를 부여하다가 KoreaMed MeSH Indexer의 개발로 KoreaMed 전 레코드에 대한 MeSH 부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휴대폰 및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일반화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가 요구되었고 초기 모바일 앱 개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손쉽게 적용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면서 매우 효율적인 모바일 웹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의학회에서 넘겨 받은 KoMCI 부문을 KoreaMed, Synapse와 통합하여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기 위해 KoMCI 개량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래밍을 새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KoreaMed, Synapse 그리고 KoMCI의 모든 레코드에 Author, Affiliation, E-mail 등의 meta data를 추가 부여하여 Google Scholar를 비롯한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쉽게 검색되게 함으로써 우리 학술지들의 Visibility 향상에 기여하였다.

KoreaMed와 Synapse 단어자동완성(auto completion) 기능에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 5집>을 적용하였고, 학술지 발행주기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갱신되던 “Cited by Synapse/Crossref” 피인용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지금까지 full text를 보기 위해 Synapse에서 제공되던 text (XML) 형식과 PDF 형식 외에 모바일 기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PubReader 및 ePUB 형식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특히 미국 NLM/NCBI에서 개발한 PubReader는 최신의 HTML5, CSS3가 적용된 Viewer로서, 논문의 본문 내용 읽기에 편리한 여러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PubReader를 통하여 display 되는 논문 초기 화면에는 ‘학술지 banner’를 삽입하여, 각 학술지의 고유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부터 PMC XML과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였지만 2013년 5월 23일부터는 모든 논문의 full text XML 파일을 NISO 국제 표준이 된 JATS 1.0으로 제작하여 Synapse와 KAMJE Press에 구현하였으며 2016년 1월부터는 새로운 표준인 JATS 1.1로 처리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연구 개발에 유난히 많은 투자를 하였다. 부분적으로 적용되던 자동화 작업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출판 프로세스를 변경함으로써 논문 투고에서부터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모든 준비를 마쳤다. 실제로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가 e-Journal only로 전환하면서 KAMJE Press 학술지 중 첫번째로 학술지 편집, 제작, 출판 과정(Journal Editing, Production and Publication workflow)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우수한 국제 학술지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한 개의 JATS XML에서 온라인 full text 및 조판 PDF 파일을 동시 구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e-Journal publication에 소요되는 시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다(Next day service). 또한 이렇게 제작된 PDF 파일에는 Bookmark 및 여러 가지 hypertext 링크가 삽입되어 있어서, 명실공히 Interactive PDF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의편집 혼자서는 이루지 못했을 많은 것들이 XMLink와 함께 함으로써 현실이 되었다.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의 내용을 기초로 2009년 184종, 2012년 206종 그리고 2015년에는 241종 회원 학술지에 대한 서지사항, 학술지의 목적(Aims & Scope), 편집인, 주제 분야 (MEDLINE MeSH, SCI Subject Category), 학술지 변경 이력, 발행 학회 정보 등을 최근호의 커버 이미지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영문 디렉토리인 <KAMJE Journals>를 발행하였다. 2011년부터 XMLink 송년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구세군을 비롯한 몇몇 사회기관에 기탁하여 왔으며, 역시 2011년을 시작으로 매년 제작 배포하고 있는

탁상 달력은 작지만 의편협/XMLink가 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의편협은 XMLink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부모이자 멘토이면서 동반자로 함께해 왔으며 XMLink는 의편협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것을 담당하여 대한민국 의학학술지의 앞날을 위하여 밤낮없이 헌신하여 왔다. XMLink 없는 의편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XMLink의 미래는 곧 의편협의 미래이다. 지난 수년 간 정보관리위원장으로 혹은 부회장으로 이춘실 교수와 더불어 XMLink와 함께한 순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지제근. 격려사. KoMCI 2000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대한의학회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정보 개발사업단. 2002; vii, 서울.
2. 서창옥. XMLink 설립배경과 의편협과의 관계. 의편협. 2008; Available from: www.kamje.or.kr/workshop/2008/1021/2.pdf

2007년 정기총회 보고사항

1. KoreaMed 진행 상황

- 1) 2007년 3월 23일 현재 126종의 학술지 127,950 건의 초록 정보 레코드가 수록되어 있음.
- 2) 2007년 3월 19일 현재 전문 연결이 가능한 학술지 KoreaMed LinkOut (총 40종)
- 3) KoreaMed Retro 학술지 (총 83종)
- 4) KoreaMed Central 5종

2. 워크숍 및 기타의 건

- 1) WHO에서 파견한 실무자 훈련
 - 기간 및 장소: 2006년 6월 25일-7월 7일, 의학회 3층 의학문헌정보센터

- 방문자: Mark Bendo, Wilfred Nael, B. Villaruz
- 결과: 방문자 모두 KoreaMed 내용 및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입력도 수행함.

2) PubMed Central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2006년 8월 11일, 숙명여대 도서관
- 참석: 허선, 이춘실, 정소나, 이선희, 공효순, 이상은, 김우현
- 주제: PubMed Central XML 및 XSLT processor 이해

3) Conference for the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J-stage and KoreaMed

- 일시 및 장소: 2006년 8월 23일, 숙명여대 도서관
- 참석: 일본 소이치 토키자네 교수, 허선, 이춘실, 정소나, 이선희, 공효순, 이상은, 김우현, 이윤혜, 이남영
- 주제: 일본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J-stage와 KoreaMed의 정보교류를 위한 회의

4) 국가생물자원정보센터에 사업 공모 및 선정

5) DOI/CrossRef 관련 실무회의

- 일시 및 장소: 2007년 1월 3일 의협 사석홀
- 참석: 이춘실, 허선, 장현도, 이선희, 공효순
- 내용: 참고문헌에서 다른 DOI 번호 있는 참고 문헌을 연결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임을 알고, 실무 토의. 소요 경비 추가 발생 필요

6) KoreaMed 새 로고

- KoreaMed 로고타입은 국제적인 온라인 학술정보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색조는 왕의 일상복 중 홍룡포에서 톤을 가져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무리 없이 사용하도록 조정하였음.
- 각 학회 및 도서관 등에서 새 로고 이미지를 이용하여 KoreaMed로 연결하도록 의편협 홈페이지에 공지. 경우에 따라 outline 있는 로고, 없는 로고 두 종류를 사용할 수 있음.



2008년도 정기총회 보고사항

1. KoreaMed 진행 상황

- 1) 2008년 3월 현재 131종의 학술지 약 139,000여 건의 초록 정보 레코드가 입력됨.
- 2) 2007년 3월 현재 전문 연결이 가능한 학술지 KoreaMed LinkOut (총 54종)
- 3) KoreaMed Retro 학술지 (총 83종)
- 4) KoreaMed Central (6종)

2. 워크숍 및 관련회의

- 1) 일본 WPRIM symposium 참석 및 JST 방문
 - 일시: 2007년 5월 17-19일
 - 참석: 조수현, 이춘실, 서정욱, 이선희, 공효순
 - 내용: 일본 International Symposium 참석 및 JST 관련자 미팅
- 2) DOI/CrossRef, PMC XML Workshop
 - 일시: 2007년 7월 25일
 -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순현관 2층 문헌정보학 실습실
 - 내용
 - DOI, CrossRef, PMC and KoreaMed Synapse: Why? How? - 이춘실 (의편집 정보 관리위원)
 - PMC 작업 Processing에 대하여 - 허선 (의편집 정보관리위원장)
 - PMC XML 작성 설명 (한 논문을 예로) - 이선희 (의편집)
 - PMC XML coding 및 validation 실습
 - KoreaMed Synapse XML - 공효순 (의편집)
 - DOI/CrossRef XML 실습
- 3) 제 4-3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07년 9월 4일
 - 장소: 대한의학회 1층 회의실
 - 내용: 2008년 5월 2-4일 Asian Conference of Medical Journal Editors를 COEX Mall에서

의협 10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 [추후 APAME 창립 총회로 이름을 바꾸고 5월 4-5일 열기로 함]

4) CrossRef 가입,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표기

- 의협이 CrossRef에 Sponsoring Member로 가입하고 학회별로 DOI의 Prefix를 부여받음.
- 2007년 8월 대한안과학회지를 시작으로 각 학회 학술지에 DOI를 표기 함.

5) KoreaMed Synapse (<http://Synapse.koreamed.org/>) 개통

- 한국 의학학술지의 전자 출판 및 참고문헌 연결 기반 (digital archive and reference-linking platform of Korean medical journals) 데이터베이스
- 미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PubMed Central (PMC) XML을 이용하여 영문 학술지 전문 (full-text)을 제공하고, 한글 학술지인 경우에는 서지사항, 영문초록, 표, 그림 및 참고문헌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고문헌에서 DOI를 통해 바로 전문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
- PMC에 학술지를 등재할 때 같은 XML을 사용하여 사전에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DOI를 제공하는 학술지의 Landing page (response page) 역할을 하여 끊임없이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를 전 세계의 학술지와 연결시켜 줌.
- 대상 학술지 현황(2008년 3월 현재 17종)
 - Journal of Korean Endocrine Society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 Journal of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Nephrology
 - Korean Journal of Cytopathology
 - Korean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 Korean Journal of Hepatology
 - The Korean Journal of Laboratory Medicine
 -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 Korean Journal of Otolaryngology
 - Head and Neck Surgery
 - The Korean Journal of Pain

-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 Yonsei Medical Journal

6) KoreaMed Synapse 실무회의 & 워크숍

| 주요 토의내용 |

- KoreaMed Synapse의 OpenURL 구축의 건
- KoreaMed Synapse을 위한 XML DTD
- DOI 추출 및 형태 결정
- PMC XML을 통한 CrossRef Deposit, DOI Query 자동 변환 프로그램 분석
- KoreaMed Synapse 웹 Interface
- KoreaMed Synapse XML의 CrossRef deposit XML 자동 추출, DOI 자동 쿼리, html 변환 출력 기능
- CrossRef Deposit을 위한 사전 작업
- CrossRef deposit XML의 태그의 정규화 결정 사항
- KoreaMed Synapse 기능 개선 및 추가 요청사항
- KoreaMed Synapse에 등재되지 않는 학술지 웹의 구현 및 관리 방안
- KoreaMed Synapse 미 구현 작업에 대한 작업진행을 위한 결정사항 논의
- KoreaMed, KoMCI, KoreaMed Synapse 오류 점검 및 개선사항

143 |

7) 제 4-4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08년 1월 8일
- 장소: 이화 한정식
- 내용: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및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 준비의 건, 총회 이후 Wiley-Blackwell 세미나 준비의 건, 제 4기 정보관리위원회 업무, 2008년도 정보관리위원회 사업, 2008년도 정보관리위원회 예산 안 검토 등

8)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 기간: 2008년 2월 18-20일
-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순현관

- 결과: 학술지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술지 편집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
총 62명 참석, 3일간 진행.

9) 의학학술지 Manuscript Editor 교육 지원

- 기간: 2008년 2월 18-22일
-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순헌관

2009년도 정기총회 보고사항

1. KoreaMed 및 Synapse 진행 상황

- 1) 2009년 3월 현재 142종의 학술지 약 149,000여 건의 초록 정보 레코드가 입력됨.
- 2) 2009년 3월 현재 전문 연결이 가능한 학술지 KoreaMed LinkOut (총 73종)
- 3) KoreaMed Retro
 - 완료 학술지 (28종)
 - 1997년 이후에 창간된 학술지 (31종)
 - Korean Index Medicus를 활용해서 가공한 학술지 (50종)
- 4) 2009년 3월 현재 45종의 학술지(PMC 학술지 7종 포함) 약 5,500여 건의 full-text 레코드가 입력됨.
- 5) MEDLINE/PubMed Journals (총 16종)
- 6) SCI/SSCI Journals (총 17종)

2.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 1) 제5-1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08년 6월 20일
 - 장소: 조선히텔 Ninth Gate
 - 토의사항

(1) KoreaMed 개선

- 작성된 Bug Report를 참고하여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함.

(2) 의협협 홈페이지 개선

-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논의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단, FAQ 기능은 사무국에서 작업하여 추가하기로 함.

(3) 실무회의 명칭 변경

- 앞으로 그 명칭을 '기술연구회의'로 변경하기로 함.

(4) 워크숍 및 편집인 아카데미 건

- 지금까지 정보위원회에서 주관했던 워크숍, 아카데미 등 교육 관련 사업은 앞으로 교육연수위원회로 이관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함.

(5) Google Scholar Print Project

- Google에서는 의협협 단체회원 학술지의 'Google Print Project' 참여를 제안함. 과거에 출판된 인쇄본 또는 파일을 자체 기술을 통해 digital format화하여 Google내 Full-Text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프로젝트임.

2) 5-1차 정보관리위원회 기술연구 워크숍

- 일시: 2008년 7월 31일
- 장소: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실습실
- 주제: Open Journal System

3) 정보관리위원회 위원 워크숍

- 일시: 2008년 8월 9일
- 장소: 이화여대 목동병원 회의실
- 주제: 정보위원회 50과제, 국내외 관련 기관, 데이터베이스 운영, XMLink

4) 제5-2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08년 10월 21일
- 장소: 이화여대 목동병원 회의실
- 토의사항

(1) 기술연구 워크숍 개최 예정

(2) 외부에서 작성되는 KoreaMed XML

- 2008년부터 의협협에서 작성하는 KoreaMed XML에 대한 가공비를 학회에 청구함에 따라 학회, 출판사에서 XML을 작성하겠다는 학술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XML의 오류를 점검하는 비용이 발생함. 학회, 출판사 등에서 XML을 보내주더라도 '점검 및 관리 명목으로 학회에 가공비를 청구하는 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임원회의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함.

(3) KoreaMed에 MSN robot 접근 허용 요청 건

-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전제로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로 함.

(4) 누리미디어의 KoreaMed 메타데이터 사용 허락 건

- KoreaMed 학술지의 접근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기는 하나, 누리미디어의 수익 사업의 홍보로 이용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도 같은 종류의 요청이 이어질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류하기로 함.

5) 5-2 차 의협협 정보관리위원회 기술연구 워크숍

- 일시: 2008년 11월 10일
- 장소: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실습실
- 주제: EndNote 응용 및 분석

6) 5-3차 정보관리위원회 기술연구 워크숍

- 일시: 2008년 12월 15일
- 장소: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505호
- 내용: PubMed Central 에러 리포트 검토, 특수문자가 사라지는 문제, KISTI 사업 보고, Cited-by Linking

7) 정보관리 및 기획평가위원 능력개발 워크숍

- 일시: 2008년 12월 20일
- 장소: 이대 목동병원 의학연구동 B동 7층 컴퓨터 교육실
- 주제: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 심사 과정

8) 5-4차 정보관리위원회 기술연구 워크숍

- 일시: 2009년 2월 9일

- 장소: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실습실
- 내용: SFX KnowledgeBase

3. 의학학술지 온라인 개방에 대한 심포지엄 – Synapse를 중심으로

- 일시: 2008년 10월 21일
- 장소: 이화여대 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
- 프로그램
 - 인 사 말: 임정기(의편집 회장)
 - KoreaMed Synapse의 유용성: 함창곡(의편집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 XMLink 설립 배경 및 의편집과의 관계: 서창욱(의편집 부회장)
 - 온라인학술지 개방에서 XML 파일 변환의 중요성: 공효순(대한의학회)
 - KoreaMed의 포털사이트 개방의 현황과 비전: 박명재 (의편집 정보관리위원)
 - KoreaMed Synapse 작성 이미지 요청사항: 이남영 (XMLink 연구개발팀장)

4. 특별회원 인준의 건

147 |

(주)XMLink

- 대표자: 최수주
- 설립년: 2008년
- 업무내용: Synapse XML / PMC XML, Central Services (학회 e-journal DB구축 관련 업무)

2010년도 정기총회 보고사항

1. KoreaMed 및 Synapse 진행 상황

- 1) 2010년 3월 현재 156종의 학술지 159,300여건의 초록 정보 레코드가 입력됨.
- 2) 2010년 3월 현재 전문 연결이 가능한 KoreaMed LinkOut 학술지; 총 96종
- 3) KoreaMed Retro 학술지 (총 102종)
- 4) 2010년 3월 현재 67종의 학술지(PMC 학술지 21종 포함), 15,500여건의 Full-text 레코드가 입력됨.

2.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1) 정보관리위원회 워크숍

- 일시: 2009년 4월 18일
- 장소: 이화의대 회의실 701호
- 참석: 정보관리위원, 의편집 직원, XMLink 직원
- 주제: 의학학술지의 국제적 개방, 공유, 참여 전략
 - ExLibris의 SFX 서비스 통한 세계 도서관에 전자 학술지 등록 방안
 - 보고와 관련된 권장 지침 (Reporting Guidelines)
 - NLM과 KAMJE 정보관리위원회 업무 협의 현안 토의

2) 제 5-3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09년 4월 18일
- 장소: 이화의대 회의실 701호
- 내용: 정보관리위원회 사업 검토 및 워크숍 일정 검토

3) Synapse 참여 그룹 워크숍

- 일시: 2009년 5월 19일
- 장소: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제 1관 지하 한림홀
- 참석: 시냅스 참여 학술지 및 2009년도 참여 예정 학술지 편집인 50여명
- 주제
 - Synapse 학술지로서 PMC, PubMed 및 SCIE 등재 경험
 -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의 Synapse 참여를 위한 학회 설득 전략
 - 학술지의 국제적 배포를 위한 Synapse 활용 전략
 - Synapse XML 경비 인상: 어떻게 국제수준의 1/5에서 1/25 수준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가?

4) 임상시험 국가 등록 워크숍

- 일시: 2009년 9월 29일
- 장소: 서울대학병원 임상의학연구소
- 주제: 임상시험 등록 및 국가 차원 지원 결과물 관리

5) 'Symposium on User Experience with the NLM Tag Sets'에 위원 2인 참석

- 일시: 2009년 4월 27일-5월 1일

- 장소: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8600 Rockville Pike, Bethesda, MD, USA
- 6) CrossRef Annual Meeting & Election 위원 2인 참석
- 일시: 2009년 11월 9-12일
 - 장소: Boston, MA, USA

3. KAMJE Journals 2009 발간

2011년도 정기총회 보고사항

1. KoreaMed 및 Synapse 진행 상황

- 1) 2011년 3월 현재 170종의 학술지 172,045여건의 초록 정보 레코드가 입력됨.
- 2) 2011년 3월 현재 전문 연결이 가능한 학술지 KoreaMed LinkOut (총 119종)
- 3) KoreaMed Retro 학술지 (총 110종)
- 4) 2011년 3월 현재 84 종의 학술지 (PMC 학술지 38종 포함), 23,124여건의 Full-text 레코드가 입력됨.

149 |

2.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 1) 제 5-4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11년 3월 18일
 - 장소: 한일관(압구정동)
 - 내용: 제 5기 정보관리위원회 사업 정리 및 제 6기 사업 검토
- 2) Workshop and Launching Ceremony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 Platform 참석
 - 일시: 2010년 5월 6-7일
 - 장소: Beijing, China
 - 참석: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 자문내용: 새 WPRIM Platform 에 대한 technical consulting/feedback

3) ICSTI General Assembly & 2010 Annual Conference 참석

- 일시: 2010년 6월 8-11일
- 장소: Helsinki, Finland
- 참석자: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이상은(XMLink), 장혜숙(XMLink)
- 발표내용: STI Adaptations to Mobile Web Devices/Usage: KoreaMed & Synapse Efforts
(ICSTI의 Technical Activities Coordinating Committee (TACC) 2010 Project)

4) Journal Article Tag Set Conference 참석

- 일시: 2010년 11월 1-2일
- 장소: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8600 Rockville Pike, Bethesda, MD, USA
- 참석: 허선 (정보관리위원장)
- 발표 내용: 새 tag로 저널의 국가별 코드 및 DOI validation check 추가

5) Third Joint Meeting of th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and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

- 일시: 2010년 11월 3-5일
- 장소: Hanoi, Vietnam
- 참석: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 발표내용: Publishing Resources and Models in the Region and Beyond: KoreaMed & Synapse Approaches

6) CrossRef Annual Meeting과 CrossRef Workshops 참석

- 일시: 2010년 11월 15-16일
- 장소: London, UK
- 참석: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윤선정 (XMLink 직원)

7) CENDI-NFAIS Workshop 참석

- 일시: 2010년 11월 18일
- 장소: Washington DC, USA
- 참석: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 발표내용: KoreaMed & Synapse Mobile 개발

8) KoreaMed 기능 개선

- KoreaMed Mobile Web 서비스 (2010.09.13)
- 2010년 8월 16일부터 Mobile Phone에서 KoreaMed Mobile Web 서비스 제공
 - KoreaMed와 Synapse에 “Cited by KoMCI 기능” 적용 (2010.10.06)
 - 단어자동완성기능 (Auto completion)에 의학용어 5집 적용 (2010.10.26)
- 2010년 11월 KoreaMed와 Synapse의 단어자동완성기능 (Auto completion)에 “의학용어 5집(대한의사협회 발간)” 적용 개시
 - KoreaMed 초록 화면에 “Figures/Tables 보기” 기능 추가 (2010.12.31)

2012년도 정기총회 보고사항

1. KoreaMed 및 Synapse 진행 상황

- 2012년 3월 현재 187종의 학술지 184,301건의 초록 정보 레코드가 입력됨.
- 2012년 3월 현재 전문 연결이 가능한 학술지 KoreaMed LinkOut(총 152종)
- 2012년 3월 17일 현재 108종의 학술지(PMC 학술지 53종 포함), 31,922건의 Full-text 레코드가 입력됨.

151 |

1) 제 6-1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11년 5월 18일
- 장소: XMLink 회의실
- 내용: KoreaMed, Synapse 현황 검토
CrossCheck 가입 및 이용 대책 논의,
학술지 편집 에러사항, 특히 참고문헌 에러사항에 대한 대책 논의
학술지 발행 주체 변경(주요 서지사항)에 따른 처리의 건
WHO intern 파견(Synapse II (WPRIM Synapse) platform 구축)

2) 제 6-2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11년 10월 4일
- 장소: XMLink 회의실

- 내용: KoreaMed, Synapse 현황 검토, CrossCheck 진행상황 검토
 Synapse II (WPRIM Synapse) platform 구축 진행 현황 검토
 SCOPUS, Springer, EBSCO, CINAHL 관련 사항 논의
 iThenticate 메일 건 논의, 의편협 자료 보안강화
 worldwidescience.org에 KoreaMed Synapse 포함 논의
 KAMJE Facebook, Twitter 계정 개설, KAMJE 웹사이트 업데이트
 논리적 모순을 가진 학술지 웹사이트, 학술지 웹사이트의 무단 복제 문제 논의

3) 제 6-3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11년 12월 23일
- 장소: 샷뽀로 잠원점
- 내용: KoreaMed, Synapse 현황 검토, CrossCheck 진행상황 검토
 DOI resolution 현황 검토, Synapse로 DOI를 옮기는 실무 대책 논의

2. 정보관리위원회 주요 활동

- 1) 국내의학학술지 EndNote Output Style 제공
- 2) KoreaMed/Synapse: DOI display 방식 변경
- 3) Synapse2 (또는 WPR/Synapse) 관련
 - 총 8종 저널, 478편 구축
 - WHO WPRO 요청으로 Synapse 2 디자인 수정
 (<http://Synapse2.koreamed.org>)
- 4) KAMJE Journals 2012 발간
 - 국내외 주요 데이터베이스 등재 기관 70여곳에 발송
- 5) WorldWideScience.Org에 Synapse 등재 (KoreaMed는 2010년부터 등재)
- 6) ICSTI 회장 Dr. Roberta Shaffer와 간담회
 - 일시: 2011년 4월 5일
 - 장소: 신사동 한일관

- 참석자: Roberta Shaffer 부부, 서창욱 (회장), 홍성태 (부회장),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정소나 (정보관리위원)

7) ICSTI Summer Meeting

- 일시: 2011년 6월 7-일
- 장소: Beijing, China
- 참석자: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정소나 (정보관리위원), 류주연(XMLink 직원)
- 협의사항:
 - worldwidescience.org에 Synapse도 포함하도록 요청함
 - ICSTI회장 Roberta Shaeffer가 2015년 ICSTI annual meeting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함.

8) APAME Conference

- 일시: 2011년 8월 28-31일
- 장소: 고려대학교
- 발표: CrossRef, CrossCheck, Synapse2

153 |

9) PMC Kathy Kwan Technical meeting, 간담회

- 일시: 2011년 8월 31일
- 장소: XMLink 회의실
- 발표: Synapse XML, PMC XML production workflow
- 참석자: Kathy Kwan (NLM Staff Scientist), 서창욱, 권오훈, 이춘실, 정소나 (KAMJE), XMLink 직원

10) ALPSP Conference

- 일시: 2011년 9월 14-16일
- 장소: Oxfordshire, UK
- 참석자: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정소나 (정보관리위원), 장혜숙 (XMLink)
- 발표: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ALPSP에서 초청, 전액 지원) "Publishing innovations in Korea: KoreaMed & Synapse approaches" All four corners: worldwide scholarly publishing (2011년 9월 15일)

11) NLM Conference (Journal Article Tag Suite Conference)

- 일시: 2011년 9월 26-27일
- 장소: Bethesda, MD, USA
- 참석자: 이보영(XMLink), 류주연(XMLink)

12) WHO Training Workshop

- 일시: 2011년 10월 27-29일
- 장소: Civil Aviation Hotel, Chengdu, China
- 참석자: 이춘실(정보관리위원), 장혜숙, 이보영(XMLink)
- 발표 및 교육: “Synapse 2: Future Plans”, “KoreaMed XML and Synapse XML”

13) 2011 CrossRef Workshops & Annual Member Meeting

- 일시: 2011년 11월 14-15일
- 장소: Charles Hotel, Boston, MA, USA
- 참석자: 김태일(정보관리위원), 정지선(XMLink)

| 154

14) SCOPUS Meeting

- 일시: 2012년 2월 23일
- 장소: Hyatt Hotel Business Center
- 참석자: 홍성태 부회장, 권오훈(정보관리위원장), 이춘실(정보관리위원)
- 협의 내용: Cited by SCOPUS partnership, Data exchange between Synapse and SCOPUS

15) Google Meeting

- 일시: 2012년 3월 22일
- 장소: Renaissance Hotel
- 참석자: Darcy J. Dapra (Google Scholar partnership manager)
 권오훈(정보관리위원장), 이춘실(정보관리위원)
- 협의 내용: Google Scholar's new initiatives Author affiliation & email addresses meta tags

16) Ex Libris Meeting

- 일시: 2012년 3월 23일
- 장소: XMLink 회의실

- 참석자: 홍준표(Ex Libris Korea 사장) 외 1인
이춘실, 정소나(정보관리위원), XMLink 직원
- 협의 내용: SFX와 Primo Central의 new linking methods

2013년도 정기총회 보고사항

1. KoreaMed 및 Synapse 진행 상황

- 1) 2013년 3월 현재 198종의 학술지 196,131건의 초록 정보 레코드가 입력됨.
- 2) 2013년 3월 현재 전문 연결이 가능한 학술지 KoreaMed Linkout(총 181종)
- 3) 2013년 3월 20일 현재 131종의 학술지 (PMC 학술지 67종 포함), 41,231건의 Full-text 레코드가 입력됨.

2.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155 |

1) 제6-4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12년 6월 5일
- 장소: XMLink 회의실
- 내용: 운영위원회 단체 회원 가입심사 결과 검토,
12월 의편협 아카데미 프로그램(안) 확인,
Online only journal에 대한 정시성 문제 및 기준 검토,
7월 17일(화) 의학학술지 DB 관련 Workshop 확인,
APAME Congress 2012 Synapse 2 launching 준비

2) 제6-5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12년 12월 7일
- 장소: XMLink 회의실
- 내용: 학술지 평가 작업 실무를 XMLink에서 맡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산정 문제,
KoMCI 작업의 의편협 이관 후 의편협의 역할 (정보관리위원회/XMLink의 역할은 추후 다시 의논), Synapse 탈퇴에 대한 대처 문제

3. 정보관리위원회 주요 활동

- 1) Retraction, Erratum 관련 레코드 처리 및 KoreaMed 검색 시스템 개선
- 2) KoreaMed Limits 기능 개선
- 3) KoreaMed Advanced Search에 Author Full Name Search 기능 추가
- 4) KAMJE 웹사이트 수정 보완
- 5) KoreaMed: Author Full Name Search 기능 구현
- 6) KoreaMed: Journal Categories Limit 기능 추가
- 7) KoreaMed: Subject Subsets Limit 기능 추가
- 8) KoreaMed: Corporate Author Name Search 기능 추가
- 9) Synapse: Supplementary Material 처리
- 10) Synapse: “Document type”, “Open Access”, “Language” 표시
- 11) Synapse: NLM PubReader 적용
- 12) KoreaMed, Synapse: “Cited by Synapse/CrossRef” (피인용 정보) 실시간 반영
- 13) 의편협 웹사이트 검색 기능 신설 및 유지 보수
- 14) 학술지 평가 협의회 조사 항목 작성
- 15) APAMED Central launching을 위한 Manila 미팅
 - 일시: 2012년 7월 5- 6일
 - 장소: WPRO/WHO Manila office, Manila, The Philippines
 - 참석자: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Alma Prosperoso, Dr Manju Rani
- 16) CrossRef & KAMJE/XMLink Technical Meeting
 - 일시: 2012년 7월 16일
 - 장소: (주)XMLink 회의실
 - 참석자: Geoffrey Bilder (Director of Strategic Initiatives, CrossRef), 권오훈(정보관리 위원장), 이춘실(의편협정보관리위원), XMLink Staff
- 17) APAMED Central launching
 - 일시: 2012년 9월 1일
 - 장소: Kuala Lumpur, Malaysia

- 참석자: 서창욱 회장, 홍성태 부회장,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함창곡 출판윤리위원장, 서정욱 국제협력위원장, 김혜원 국제협력위원회 간사, XMLink 장혜숙 대표 외 직원, 인턴
 - 발표자
 -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APAMED Central: An introduction
 -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Opening the World of APAMED Central
- 18) ICSTI 2012 TACC and WWSA meeting
- 일시: 2012년 10월 14일
 - 장소: Capitol Hill Suites, Washington D.C., USA
 - 참석자: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이춘실, 김태일 정보관리위원, XMLink 직원 4명
- 19) NLM JATS-Con 2012
- 일시: 2012년 10월 15-17일
 - 장소: Lister Hill Center,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
 - 참석자: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김태일 정보관리위원, XMLink 직원 4명
- 20) KAMJE Meeting with NCBI director Dr. David Lipman
- 일시: 2012년 10월 15일
 - 장소: Lister Hill Center,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
 - 참석자: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김태일 정보관리위원, Dr. David Lipman, Kathy Kwan
- 21) KAMJE-PMC Production Team Technical Meeting
- 일시: 2012년 10월 18일
 - 장소: Natcher Building,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
 - 참석자: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김태일 정보관리위원, XMLink 직원 4명, Chris Kelly, Jack Logue, Sarah Post Calhoun, Rachael Carter
- 22) Europe PMC Meeting
- 일시: 2012년 11월 12일

- 장소: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 Wellcome Trust Genome Campus, Hinxton, Cambridge, UK
- 참석자: 이춘실, 김태일(정보관리위원), 류주연, 이현지 (XMLink 직원), Jo McEntyre, Jee-Hyub Kim, Andrew Morrison (Europe PMC staff)
- 발표자
 -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KAMJE and PMC

23) CrossRef Workshops & Annual Member Meeting

- 일정: 2012년 11월 13-14일
- 장소: The Royal Society, London, UK
- 참석자: 이춘실, 김태일 정보관리위원, XMLink 직원 2명
- 발표자
 -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초청 발표: Global Publishing Panel

24) 제6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발표

- 일시: 2012년 12월 7일
-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1층 컨벤션홀
- 발표자:
 - 김태일 정보관리위원: Usability of Korean Medical Journals for Harvard-MIT researchers
 -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학회가 의편협에 질의한 대표적인 질문 10가지
 - XMLink 이보영, 장혜숙: Erratum과 Retraction
 - 김상현 정보관리위 간사: KoreaMed와 Synapse의 숨겨진 기능, 새로운 기능
 -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KoreaMed와 Synapse 학술지의 피인용 자가 진단법
 - 정소나 정보관리위원: KoreaMed의 MeSH 색인 현황과 검색법

2014년도 정기총회 보고사항

1. KoreaMed 및 Synapse 진행 상황

- 1) 2014년 3월 현재 206종의 학술지 208,308건의 초록 정보 레코드가 입력됨.

- 2) 2013년 3월 현재 전문 연결이 가능한 학술지 KoreaMed Linkout(총 192종)
- 3) 2014년 3월 24일 현재 148종의 학술지(PMC 학술지 77종 포함), 51,589건의 Full-text 레코드가 입력됨.

2.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1) 제6-6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13년 5월 22일
- 장소: XMLink 회의실
- 내용: KoreaMed, KoreaMed Synapse 현황, CrossRef & KAMJE/XMLink Technical Meeting, Synapse & Central DOI Search 기능 추가, Synapse & Central 원문 보기 링크 변경, KoreaMed MeSH Indexer 개발, Thomson Reuters & KAMJE Technical Meeting, 국제 학회 참석 내역, 의학학술지 평가항목 3-1에 대한 검토, KoreaMed/Synapse database Archiving 문제, CrossMark 서비스 가격에 대한 논의 등

2) 제6-7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13년 12월 6일
- 장소: 석란 한식당
- 내용: KoreaMed, KoreaMed Synapse 현황 검토, CrossCheck, PubMed Central 진행 상황 검토, MeSH TFT 활동 보고, Synapse 논문 보기 화면 상단과 Navigation sidebar에 새로운 아이콘 적용, KoreaMed: 물질명 (Substance) MeSH 용어 부여, Synapse: ORCID (연구자/저자 고유 식별번호) 표기, KoreaMed: MeSH 용어 및 MeSH Entry terms 자동 완성/자동 추천 기능 추가, KoreaMed: Substances/Supplementary Concepts 검색, KoreaMed: PubReader LinkOut 추가, 국제 학회 참석 내역 등

159 |

3. 정보관리위원회 주요 활동

1) 정보관리 관련 국내·외 회의 개최 및 참석

(1) CrossRef & KAMJE/XMLink Technical Meeting

- 일시 및 장소: 2013년 3월 26일, XMLink 회의실

- 참석자: 권오훈, 이춘실, 서창욱, XMLink 직원(장혜숙 외 7인), Carol Anne Meyer (Business Development and Marketing Manager, CrossRef)

(2) 2013년도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2013년 3월 28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1강의실
- 발표: CrossMark Initiative and introducing FundRef; Carol Anne Meyer (CrossRef), PubReader & CrossMark in Synapse;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3) Thomson Reuters & KAMJE Technical Meeting

- 일시: 2013년 4월 16일
- 참석자: James Testa (Vice President, Thomson Reuters), 서창욱(회장), 최인홍(교육연수위원장), 김정호(교육연수위 간사), 이춘실(정보관리위원), Thomson Reuters 한국지사장 포함 한국지사 4인

- SCI 등재 학술지의 Full text 링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점 제기 및 해결 방안 검토
- 의편협 회원 학술지의 '학술지별 등재 데이터베이스 현황' 및 '2012년도 발간 논문수 통계' 자료 제공
- 의편협 회원 학술지 중 SCI 등재 후보 학술지 선별에 의편협의 전문성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James Testa) 하였으므로 추후 추천 기준을 논의할 필요는 있음.

(4) 제1차 KoreaMed 등재 14주년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 일시 및 장소: 2013년 5월 9일, 서울의대 본관 2층 교수회의실
- 참석자: 권오훈
- 14주년 재평가 대상 학술지 16종, 2012년 논문 1,294편
 - Synapse: 6종, 740편(2012년 당시 Synapse였던 EMM 83편 포함)
 - Non-Synapse: 10종, 554편(피부과학회지 홀수달 발행 132편 제외)

(5) APAME Convention 2013에 참석함.

- 일시 및 장소: 2013년 8월 2-4일, Tokyo, Japan
- 참석자: 서창욱, 홍성태, 오세정, 권오훈, 함창곡, 배종우, 서정욱, 김혜원, 김정호, XMLink 직원, 인턴

(6) MeSH, Substance 전문가 회의

- 일시 및 장소: 2013년 9월 9일, 일식당 이즈미
- 참석자: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정소나 정보관리위원, XMLink 직원(장혜숙, 박지영, 최동민)

(7) CrossRef Workshops & Annual Member Meeting

- 일시 및 장소: 2013년 11월 12-13일, Cambridge, MA, USA
- 참석자: XMLink 직원 2명

(8) ICSTI 2014 Annual Members' Meeting 참석

- 일시 및 장소: 2014년 2월 22일, Hyatt Hotel Bellevue, Philadelphia, PA, USA
- 참석자: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김태일 정보관리위원, XMLink 직원(장혜숙, 이현지)

(9) 2014 NFAIS Annual Conference 참석

- 일시 및 장소: 2014년 2월 23-25일, Hyatt Hotel Bellevue, PA, USA
- 참석자: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김태일 정보관리위원, XMLink 직원(장혜숙, 이현지)

(10) Thomson Reuters(Philadelphia) 방문 및 업무 협의

- 일시 및 장소: 2014년 2월 26일, Thomson Reuters, Philadelphia, PA, USA
- 참석자: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김태일 정보관리위원, XMLink 직원 (장혜숙, 이현지)

2) KoreaMed MeSH Indexer를 이용한 MeSH 자동 색인 시스템 구축

(1) KoreaMed MeSH Indexer 개발

- KoreaMed 레코드에 MeSH 용어를 반자동으로 부여/색인/추천하는 시스템

(2) KoreaMed MeSH Indexer를 이용한 MeSH 자동 색인 시스템 구축

- KoreaMed MeSH 부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MeSH 부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
- 2013년 1월 1일 이후 처리한 모든 KoreaMed 논문은 KoreaMed MeSH Indexer를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MeSH를 부여함.

(3) KoreaMed: MeSH 색인

- 총 138,346편(2000년-2014년 3월말 현재) MeSH 부여 완료
- 미색인 논문 69,916편

3) KoreaMed, Synapse, KoMCI 기능 개선

(1) Synapse & Central DOI Search 기능 추가

(2) JATS 1.0 full text XML 파일 사용

(3) Synapse: navigation 기능 개선 및 다양한 access points 제공

(4) Synapse: PubReader에 학술지 고유 banner 표시

- (5) Synapse: “Article” 화면으로 DOI landing
- (6) Synapse: “Articles with Supplementary Materials” 검색 기능 추가
- (7) Synapse 논문 보기 화면 상단과 Navigation sidebar에 새로운 아이콘을 적용함.
- (8) Synapse: Thumbnail Video(Supplementary Materials)
- (9) Synapse: ORCID (연구자/저자 고유 식별 번호) 표기
- (10) KoreaMed: MeSH 용어 및 MeSH Entry terms 자동 완성/자동 추천 기능 추가
- (11) KoreaMed: MeSH 용어로 자동 변환 검색
- (12) KoreaMed: Substances/Supplementary Concepts 검색
- (13) Synapse: Figures와 Tables를 본문에서 언급한 문단 바로 뒤에 배열
- (14) Synapse: Synapse 논문 레코드에서 PubMed와 PubMed Central의 해당 레코드로 연결
- (15) Synapse: PubReader 본문 검색 (full text Search) 기능 추가
- (16) KoMCI: PubReader LinkOut 추가
- (17) Synapse Mobile web
- (18) Synapse: 학술지 배너에 ISSN 표기
- (19) Synapse: FundRef (연구비 지원 기관) 정보 표기
- (20) KoreaMed: 2014 MeSH 용어로 색인
- (21) KoreaMed, Synapse: Mobile web으로 이동하는 QR 코드 삽입

4) CrossMark 도입 및 적용

- (1) CrossMark 도입
- (2) Synapse: CrossMark 적용
- (3) 논문 PDF에 CrossMark logo 삽입 안내

5) Synapse 운영 관련 사항

- (1) Synapse 탈퇴 의사 통보 및 탈퇴
 - Safety and Health at Work
- (2) KoreaMed/Synapse database Archiving 문제
 - Portico와 CLOCKSS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CLOCKSS 참여를 우선 검토하기로 함.
- (3) 기존 XML 관련 서비스 적정 비용에 대한 논의 결과
 - 기본 XML 제작 비용에는 XML 제작에 관련된 비용 뿐 아니라 KoreaMed Synapse 데이

터베이스의 유지 보수, R/D 비용, CrossMark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작업 비용 등이 들어 있는 것이므로 영문 논문은 30만원, 한글 논문의 경우는 15만원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내림. PMC XML 제작 비용 및 Cited by 비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6) 의편협 회원 학술지 현황 정보 제공

2015년도 정기총회 보고사항

1. KoreaMed 및 Synapse 진행 상황

- 1) 2015년 3월 현재 215종의 학술지 221,247건의 초록 정보 레코드가 입력됨.
- 2) 2015년 3월 현재 전문 연결이 가능한 학술지 KoreaMed Linkout (총 197종)
- 3) 2015년 3월 16일 현재 145종의 학술지(PMC 학술지 74종 포함), 64,214건의 Full-text 레코드가 입력됨.

2.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163 |

1) 제7-1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14년 4월 21일
- 장소: 노보텔 강남 더 스퀘어

2) 제7-2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14년 6월 18일
- 장소: 압구정 한일관
- 내용: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의편협 회원 학술지 DB 등재 상황, KoreaMed Synapse 작업 현황, 2014 국제회의 일정, KoreaMed 등재 14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개최, WHO 인턴 파견, Synapse 탈퇴 학술지, 2014 사업 계획 보고 및 논의

3) CrossRef & KAMJE/XMLink Technical Meeting 개최

- 일시: 2014년 6월 30일
- 장소: XMLink 회의실

- 참석자: Rachael Lammey (Product Manager, CrossRef), 장혜숙, 정지선, 이현지, 최동민, 박지영, 오선화, 양희원 (XMLink staff)

4) 제7-3차 정보관리위원회

- 일시: 2015년 2월 25일
- 장소: 대학로 카페 장
- 내용: 새 위원 위촉, 2015 국제회의 일정 보고, WHO 인턴 파견 보고, 의편협 파일 서버 관련 안내 보고, 제2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시상 보고, 코리아메드 및 코리아메드 시냅스 운영 규정 검토 및 수정, KoreaMed, KoreaMed Synapse 월말 보고서 (연말 보고서) 작성 논의, KoreaMed 및 KoreaMed Synapse 영문 표현 검토 및 update 논의

3. 정보관리위원회 주요 활동 및 소식

| 164

1) WHO 인턴 파견

- 하계 인턴: 권현지, 유혜린 (2014년 6월 9일부터 12주)
- 동계 인턴: 백유미 학생 (2014년 12월-2015년 2월)

2) Synapse 탈퇴 학술지 13종

3) 2014 국제 회의 참석 및 발표

- APAME Conference
 - 일정: 2014년 8월 15-17일
 - 장소: Ulaanbaatar, Mongolia
 - Registration fee: \$200
 - 참석자: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APAMED Central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 ICSTI 2014 General Assembly and Annual Conference
 - 일정: 2014년 10월 18-21일
 - 장소: Tokyo, Japan
 - Registration fee: JPY 38,500

- 참석자: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이춘실 교수, 정소나 박사, 장혜숙, 정지선, 이현지, 박지영, 최동민, 양희원 (XMLink)
 - ORCID Outreach Meeting (<http://orcid.org/content/tokyo2014>)
 - 일시: 2014년 11월 4일
 - 장소: Tokyo, Japan
 - 발표자: 이춘실 교수
 - 발표 제목: “Korean Author Names and ORCID: a Case Report of KoreaMed & Synapse Databases”
 - CrossRef Workshops & Annual Member Meeting
 - 일시: 2014년 11월 11-12일
 - 장소: London, UK
 - Registration fee: 없음
 - 참석자: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이춘실 교수, 장혜숙, 최동민, 양희원 (XMLink)
 - ICSTI 2015 Annual Members' Meeting and APE (Academic Publishing in Europe) 2015 Conference
 - 일시: 2015년 1월 19-21일
 - 장소: Berlin, Germany
 - 참석자: 이춘실 교수, 정소나 박사, 장혜숙, 이현지 (XMLink)
- 4) 의편협/XMLink에서 구축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의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공식 Full text 데이터베이스인 APAMED Central이 worldwidescience.org에 포함 됨.
- 5) Inclusion of KoreaMed abstracts in the Cochrane Trials Register 및 후속 조치
- 2014년 12월 3일, The Cochrane Library로부터 KoreaMed에 있는 3300여개의 RCT 논문을 Cochrane Trials Register에 re-publish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받음.
 - 2014년 12월 14일, 의편협에서 허가 및 감사 이메일 보냄
 - 2015년 1월 19일, The Cochrane Library 연구자인 김미영 씨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총 3,319편의 KoreaMed 논문 리스트 중 이미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 입력되어 있는 671편을 제외한 2,648편의 논문에 대한 KoreaM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Publication Type) 추가 입력 작업을 완료함.

6) 의편협 파일 서버 관련 안내

- 2015년 3월 19일까지 의편협 회원학술지 242종 (신규 학술지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포함) 중 총 225종의 의편협 파일 서버 접속 계정 및 파일 uploading 방법 안내를 완료함.

7) 제2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시상식

- 일시 : 2015년 3월 17일
- 장소 : 조선히텔 2층 오키드룸
- 수상자 : 이춘실 위원

8) KAMJE Journals 2015 발간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편협, KAMJE) 회원 학술지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KAMJE Journals 2015가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15년 1월 30일 현재 의편협 회원 학술지 241종에 대한 자세한 서지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KAMJE Journals는, 의편협에서 구축하여 그 동안 꾸준히 관리하여 오고 있는 Korean Medical Journal Database (<http://journals.koreamed.org>)의 내용을 기초로 3년마다 편찬 발행하는, 의편협 회원 학술지 directory입니다.
- <http://dx.doi.org/10.3335/KAMJE.Journals.2015>
 ISBN 978-89-963367-2-3
 pISSN 2092-8254
 eISSN 2092-8262

9) 2015년 3월 10일 코리아메드 및 코리아메드 시냅스 운영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소유권 조항을 추가하여 다시 개정할 예정임.

- <http://kamje.or.kr/intro.php?body=bylaws#law3>

4. 의편협 데이터베이스 주요 기능 개선 사항

- 1) KoreaMed Synapse: ORCID 검색
- 2) KoreaMed Synapse: 저자명 검색(ORCID로 구분)
- 3) IDC 내 설치된 서버들의 개선 작업

- 기간: 9월 6일부터 9월 10일 까지
- (1) 최신 운영체제로 교체
- (2) 가상화 운영체제 도입으로 확장성 강화. XMLink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매함.
- (3) 보안성 강화
- 4) KoreaMed에 KoMCI LinkOut 기능 추가
KoMCI에 KoreaMed LinkOut 기능 추가
Synapse에 KoMCI LinkOut 기능 추가
Central에 KoMCI LinkOut 기능 추가
- 5) Synapse: “MeSH terms” 부여 및 KoreaMed 검색 연동
- 6) Synapse: Cited by PubMed Central 기능 추가
- 7) Synapse: “Articles Cited by PubMed Central Articles” 검색 기능 추가
- 8) Synapse: MeSH terms 검토 요청 (“Mark as inappropriate”) 기능
- 9) Synapse: “Related citations in PubMed” 기능
- 10) Journal DB: NLM Catalog 링크 추가 됨
- 11) Synapse: Figure Options 추가됨
- 12) Synapse: Table Options 추가됨

4. 교육연수위원회

이은소(제7대 교육연수위원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1) 개요

교육연수위원회는 제2기 집행부가 시작한 1999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 이전에 협의회 출범과 더불어 워크숍은 매년 개최되어 왔다. 즉, 협의회가 출범한 첫 해인 1996년은 학회지 누리집(homepage)만들기 워크숍을, 1997년은 “의학 학술지 평가 사업’과 ‘한국 메드라인 사업 추진 방향’ 워크숍을, 1998년에는 학술 논문 심사에 관한 panel토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 1999년부터는 해마다 의학학술지 편집인과 심사위원을 위한 정기 워크숍을 연 1회 개최해 왔다. 제1회 정기 워크숍은 1999년 11월 19일 한일그룹빌딩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150명이 참석하였고, 강사로 조승열, 임정기, 이광선, 동현중, 김희진, 이철희 그리고 민양기 교수가 수고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매년 정기총회에서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특히 정기 워크숍을 2008년에는 확대 개편하여 ‘의편집 편집인 아카데미’로 명칭을 바꾸고 개최 일자도 2일 이상으로 늘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하였고, 전문 편집인(manuscript editor)을 위한 교육 과정을 2009년까지 2회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015년 현재 의편집 편집인 아카데미는 제9회 째로 매년 150명가량의 회원 학술지의 편집인, 편집실무위원, manuscript editor 등이 참석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회원 학술지 편집위원, 강사, 전공의 등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논문 작성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여 2015년 현재 모두 5회가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매회 250명가량의 참석자가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참가자 신청 마감일 신청 시작 후 불과 며칠 만에 끝나는 등 참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에는 지방 참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충남대병원에서도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정기적인 워크숍 외에도 비정기적인 워크숍을 다양하게 개최하였는데, 2003년 KoreaMed MeSH 워크숍, 2004년 국내 의학학술지의 SCI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향상을 기념하는 의학학술지 발전 세미나, 2008년 의편집 회원 학술지 SCI 등재기념 워크숍과 의학학술지 온라인 개방에 대한 심포지엄-Synapse를 중심으로, 2009년 임상 시험국가등록 워크

숍, 2011년 CrossCheck 설명회, 2012년 의학학술지 DB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워크숍, 2013년 ‘한국 의학 분야의 연구 성과 비교’, ‘Life Science Service 소개’, ‘Journal Selection’ 워크숍, 2014년 Authorship & Peer review 워크숍, CrossCheck and Plagiarism Screening’, CrossCheck 사용 경험 공유’ 워크숍, ORCID in the authoring workflow’, ‘Understanding journal metrics’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2) 역대 교육연수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간사	위원
1기	1999. 4 - 2002. 3	민양기/이철희	이광선, 김상준, 김주한, 최명식, 박해심, 동헌중, 고영관, 윤덕미
2기	2002. 4 - 2005. 3	김훈교/이경수	이원상, 정영복, 김학제, 박성학, 김상윤, 류경남, 문동언, 배중우, 박병주, 이순남
3기	2005. 4 - 2008. 3	서연림/정희진	박병주, 이순남, 배중우, 이종원, 한동수, 유은실
4기	2008. 4 - 2011. 3	한동수/명승재	구자국, 박명재, 이상오, 조혜민
5기	2011. 4 - 2014. 3	최인홍/김정호	김정목, 이경수, 이은소, 이상암
6기	2014. 4 - 2017. 3	이은소/박중원	김재원, 박광성, 윤상웅, 이선영, 정용식, 홍순원

3)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날짜	장소	강사
제1회	2008년 2월 18-20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허 선, 호원수, 민양기, 조승열, 김수녕, 김수영, 주영수, 조혜민, 정희경, 윤해정, 최윤배, 이춘실, 박재원, 정소나, 이흥식
제2회	2009년 2월 12-13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조승열, 함창국, 홍성태, 서정욱, 정희경, 강은지, 박명재, 한동수, 명승재, 이상오, 구자국, 정소나, 이춘실, 김수녕, 오세정, 천정은, 이성규, 허 선
제3회	2010년 2월 4-5일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 (HIT) 606호	함창국, 한동수, 류지간, 장윤정, 홍해미, 정소나, 이현정, 이춘실, 황인권, 이남영, 이상은, 이윤혜, 김은경, 김수영, 조혜민, 허 선, 배중우, 홍성태
제4회	2011년 2월 10-11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6층 대회의실	이춘실, 한동수, 이미영, 윤호식, 허 선, 김형순, 박현영, 박민수, 구중억, 조혜민, 이준행, 김수영, 이선영, 홍성태, 배중우, 김동규
제5회	2012년 2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서정욱, 나은우, 김재원, 김문선, 남정모, 김수녕, 홍성태, 배중우, 김옥주, 권오훈, 남순호, 조경자, 김정호
제6회	2012년 12월 7일	백범김구기념관	최인홍, 서정욱, 김태일, 권오훈, 이보영, 장혜숙, 김상현, 이춘실, 정소나, 오세정
제7회	2013년 12월 5-6일	연세의대 예비스의생명연구원 유일한홀	서정욱, 나은우, 김문선, 오세정, 최인홍, 홍성태, 이선영, 이은소, 김명진, 김수영, 조승열, 정소나, 권오훈, 김태일, 이춘실, 이현지, 권오훈, 장혜숙
제8회	2014년 12월 5일	연세의대 예비스의생명연구원 유일한홀	홍성태, 나은우, 오세정, 김현철, 이은소, 황호정, 김형순, 이춘실, 김태일, 노재환
제9회	2015년 12월 4-5일	연세의대 1층 강당	김혜연, 권오훈, 김병호, 최인홍, 이혜연, 차정열, 박종원, 이춘실, Nobuko Miyairi, 이윤석, 배중우, 장현주, 김현철, Liz Wager

4) 논문작성 워크숍

	날짜	장소	강사
제1회	2013년 9월 7일	서울의대 본관 3층 대강당	홍성태, 정소나, 이춘실, 김명진, 김정호, 정소나, 최인홍
제2회	2014년 1월 18일	연세대학교 에비슨의생명연구소 1층 유일한홀	홍성태, 정소나, 이춘실, 김명진, 김정호, 정소나, 최인홍
제3회	2014년 8월 23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1강의실	이은소, 홍성태, 배중우, 정소나, 황진복, 이준행, 장기홍, 최인홍, 이은소
제4회	2015년 1월 31일	충남대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강당	이은소, 홍성태, 이준행, 김재원, 이선영, 정소나, 장기홍, John McDonald, Jocelyn Graf, 박중원
제5회	2015년 8월 29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1강의실	이은소, 홍성태, 장기홍, 노주원, 황건, 정소나, 문건웅, 이준행, 최인홍

5) 교육연수위 주최 정기 및 특별 Workshop

	날짜	장소	강사
제1회	1999년 11월 19일	한일그룹빌딩	조승열, 임정기, 이광선, 동현중, 김희진, 이철희, 민양기
제2회	2001년 7월 6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함창국, 임정기, 허 선, Effie Baoutis
제3회	2002년 11월 27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함창국, 민양기, 임정기, 황성수, 홍성태, 권길화
제4회	2003년 7월 8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김훈교, 이소남, 이경수, 배중우, 박병주
제5회	2004년 5월 19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안윤옥, 정우경, 최보을, 윤병우, 김순덕, 박병주
제6회	2005년 11월 30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조승열, 한동수, 홍성태, 송영빈, 황 건, 박병주
제7회	2006년 9월 6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홍성태, 황성수, 김옥주, 김수영, 함창국, 이춘실
제8회	2007년 7월 10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공효순, 정소나, 허 선, 서황옥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	2009년 7월 13-14일	한림국제대학원 지하 한림홀	Manuscript editor 27명
CrossCheck 설명회	2011년 6월 14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	
2012 workshop	2012년 7월 17일	연세의대 본관 2층 243호	Geoffrey Bilder, Wim Meester, Darcy Dapra
2013 workshop	2013년 4월 16일	연세의대 종합관 337호	이승재, 심진한, James Testa
AUTHORSHIP & PEER REVIEW	2014년 1월 10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Liz Wager
2014 workshop	2014년 7월 1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Rachael Lammey, 이윤석, 송정환, 이장현
ORCID workshop	2014년 10월 31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337호	Laurel L. Haak, Liz Wager

6) 의협협 정기총회 심포지엄

날짜	장소	주제
1997년 3월 26일	서울중앙병원 소강당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학술지 누리집 운용 시범 학회 발표 김성권(서울의대) 허선(대한기생충학회)
1999년 3월 30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국내의학 학술지 평가 결과 학술지 평가정책 및 방법 코리아메드 등재현황 조승열 한상완(연세대 문헌정보학과) 허선(대한기생충학회)
2000년 3월 28일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사업, '서지 정보를 이용한 한국의학학술지 평가', '국내의학학술지 발행 및 편집실무현황'
2001년 3월 27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좋은 의학학술지 만들기 국제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기 SCI 등재 경험 심사위원의 기능과 한계 의학논문심사 학술지 간행업무 전산화프로그램 개발 함창곡 이춘실 조승열 홍성태 민양기 김수녕
2002년 3월 26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정보관리위원회 Workshop Koreamed 활용법 Xml 활용법 Mesh 활용법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김수영 교수
2003년 3월 25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정보관리위원회 Workshop 대한간학회지 메드라인 등재 경험 온라인 학술지가 갖추어야 할 조건 코리아메드 소개 -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 코리아메드 자료 입력 절차 학회가 코리아메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유 권(대한간학회지 편집위원장) 함창곡 김수녕 이남영(KoreaMed 정보관리팀) 이춘실
2004년 3월 30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정보관리위원회 Workshop KoreaMed 현황 및 사업 계획 대한소화기학회지 MEDLINE 등재 경험 Korean J Radiol의 SCI 등재 경험 콤시 웹(Komci Web) 소개 KoreaMed와 Komci Web 데이터베이스 통합 이윤혜(코리아메드 관리자) 김병호(대한소화기학회) 임정기(대한방사선의학회) 이선희(인용색인개발사업단 관리자) 조승열
2005년 3월 29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정보관리위원회 Workshop 필라델피아의 톰슨 ISI(SCI 주관기관) 방문기 베트남 MeSH 워킹샵 참가기 KoMCI Web 개통의 의의 및 발전 방향 Proquest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를 전세계에 소개할 수 있을 까? Proquest 한국지사 허선 김수영 공효순(KoMCI 관리자)
2006년 3월 28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 연구소 강당	정보관리위원회 Workshop WPRO/WHO의 Regional Index Medicus 사업 PubMed 등재 전 준비 경험 PubMed 등재 후 학술지 변화 Open access와 open archives 이중계재와 이차계재 서정욱 박병주 조동숙(대한간호학회지) 이춘실 홍성태

2007년 3월 27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 연구소 강당	정보관리위원회 Workshop WPRO/WHO의 Regional Index Medicus 사업 Korea PubM Central Project 보고 DOI와 CrossRef 서정욱 허선 이춘실
2008년 3월 25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 연구소 강당	정보관리위원회 세미나 Publishing Academic Journals for the International Audience KAMJE presentation : KoreaMed Synapse : The digital archive and reference linking platform of Korean medical journals 이춘실 Guardianship of a journal from inception onwards Dr. Samuel KWOK, ex-President, College of Surgeons of Hong Kong & ex-Editor-in-Chief, Surgical Practice Medical Journals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Mark ROBERTSON, Publishing Director, Wiley-Blackwell, Asia Pacific Extending the reach : Marketing Journals Globally David FISHER, Director of Marketing, Wiley-Blackwell, Asia Pacific Journals and Citations : How Citation Analysis can Help your Publishing Strategy Ms. Nobuko MIYARI, Senior Information Analyst, Thomson Scientific Strategic Journal Development (Wrap up) Neil Blair Christensen, Medical Editorial Director, Wiley-Blackwell, Asia-Pacific
2009년 3월 27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 연구소 강당	특강: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 심사 과정 김형순(인하공대) 의학논문 연구출판윤리 심포지엄 연구출판윤리의 중요성, 중복출판 함창국 연구 부정 행위 : 날조, 변조, 표절 김수영 생명윤리와 동의 - 김옥주 자료의 분석과 표현 박병주 저자됨과 이해관계 홍성태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 조승열 연구와 출판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이춘실
2010년 3월 30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 연구소 강당	특강 과총 소개 및 학술지 지원 정책 윤호식(과총 학술지원팀장) 임상시험 등록과 논문게재 박현영(질병관리본부 보건연구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과 함께 한 의편협 : 현황과 전망 워크숍 회원자격과 범위 김동규(운영위원장) 학술지 평가의 방향 홍성태(기획평가위원장) KoreaMed Synapse의 새로운 기능 이춘실(정보관리위원) KoreaMed와 국제색인기관 등재 허선(정보관리위원장) 편집인을 위한 교육 한동수(교육연수위원장) 출판윤리의 최신 경향 함창국(출판윤리위원장) 국제협력(WPRIM/APAME) 서정욱(국제협력위원장)

2011년 3월 30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	의편집과 학술지 편집인 의편집 15년과 국내 의학학술지 발전 서정욱(부회장) 학술지 편집인의 역할 김동규(운영위원장) 특별보고 의편집의 국제협력사업 (WPRIM & APAME) 서정욱(국제협력위원장)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학술지 국제화 KoreaMed Synapse의 새로운 발전 이춘실(정보관리위원) 학술지 국제화의 최신 경향 허신(정보관리위원장) 국내 학술지의 발전 사례 국제 색인 DB 등재를 위한 노력과 성과 이춘기(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편집위원장) 영문학술지로의 전환과 학술지 변화 김태일(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편집위원장)
2012년 3월 27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	의학논문의 저자됨(Authorship)과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저자(author), 저자됨(authorship) 배종우(출판윤리위 간사) 공동연구의 저자됨 홍성태 (부회장) 이해 관계, 이해 상충 김수영 (출판윤리위원) Conflict of Interest(COI) 제출과 표기 한동수 (출판윤리위원)
2013년 3월 2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입상1강의실	의학학술지 편집인의 역할 의학학술지에서 편집인의 역할(Role of Editor in Scholarly Journal) 홍성태(부회장)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SCIE) 잡지의 Final Editing 경험 박명희(서울의대 검사의학교실) 최근 약진하는 KAMJE 학술지(1) Cancer Research & Treatment 김일한(대한암학회 편집위원장) 최근 약진하는 KAMJE 학술지(2)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 Motility 김나영(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편집위원장, 의편집 기획평가위원) CrossMark Initiative: and introducing FundRe Carol Anne Meyer(CrossRef) PubReader & CrossMark in Synapse 권오훈(정보관리위원장)
2014년 3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입상1강의실	Peer review Peer Reviewer 제도 김재원(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Editor-in-Chief, 기획평가위원) YMJ의 Peer Review 경험 박중원(Yonsei Medical Journal, Executive Editor, 운영위 간사) Cascade Review 홍성태(부회장) e-journal Korean Journal of Urology 경험 박광성(Korean Journal of Urology, 편집위원장) CrossMark & ORCID 적용 권오훈(정보관리위원장) 효율적인 논문투고 시스템 ScholarOne 임애리 (Thomson Reuters 한국지사 과장)
2015년 3월 26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 구원 강당	학술지 평가와 출판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에 대한 편집인들의 인식 - 설문조사 결과 양희진(기획평가위원회 간사)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의 개선 방향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오세정(기획평가위원장) Creative commons 의 철학, 의미와 적용 방법, 우리나라 저작권법과의 관계 서정욱(국제협력위원장) 의학연구 윤리와 보고지침 편집인과 심사자가 알아야 할 의학연구윤리 김우주(서울의대) Clinical Trials와 보고지침/입상시험등록과 논문게재 박현영(국립보건연구원)

7) 각 프로그램

□ 교육연수위 주최 정기 및 특별 Workshop

의편협 아카데미 이전 정기 워크숍 개최 실적

1. 1999년 회원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일시 : 1999년 11월 19일(금) 08:00-18:00

장소 : 한일그룹빌딩 회의실

참석인원 : 150명

프로그램

		사회 : 이철희(교육연수위원회 간사)
08:00 - 08:30	등록	
08:30 - 08:50	인사말	함창곡(협의회 회장)
	격려사	지제근(대한의학회 회장)
제1부		좌장 : 민양기(협의회 교육연수위원장)
08:50 - 09:20	학술지편집인의 역할	조승열(협의회 부회장)
09:20 - 09:50	학술지평가 결과분석	임정기(협의회 기획평가위원장)
09:50 - 10:20	휴식	
제2부		좌장 : 함창곡(협의회 회장)
10:20 - 10:50	논문심사위원의 역할	이광선(울산의대)
10:50 - 11:20	논문심사 사례 분석	동헌중(대한비과학회지 편집인)
11:20 - 12:00	우리글 논문바로쓰기	김희진(국립국어연구원학예연구관)
12:00 - 13:00	중식	
제3부		좌장 : 조승열(협의회 부회장)
13:00 - 13:30	논문출판의 윤리적문제	이철희(서울의대)
13:30 - 14:10	의학논문의 심사평가	민양기(협의회 교육연수위원장)
14:10 - 14:40	휴식	
제4부		진행 : 민양기(협의회 교육연수위원장)
14:40 - 16:10	논문심사 분임토의	
16:10 - 18:00	분임토의 결과 발표	

2. 2002년 정기 워크숍

일시: 2002년 11월 27일 (수) 오후 2시

장소: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프로그램

시간	내용	강사
1:30-1:50	등록	사회: 이경수 교육연수위원회 간사 (성균관의대)
1:50-2:00	인사말	조승열 회장 (성균관의대)
2:00-2:30	국제색인지가 요구하는 좋은 학술지	함창곡 명예회장 (한양의대)
2:30-3:00	논문심사의 기본 원칙	민양기 (서울의대)
3:00-3:30	이중게재(double publication)의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임정기 (서울의대)
3:30-3:45	휴식	
3:45-4:15	Authorship에 대한 분석	황성수 (가톨릭의대)
4:15-4:45	의학학술지 평가현황-의편집의 평가사업	홍성태 평가위원장 (서울의대)
4:45-5:15	의학학술지 평가현황-한국학술진흥재단의 평가사업	권길화 (연구기반조성부, 학술진흥재단)
5:15-5:40	종합토의 및 폐회	

175 |

3. 2003년 정기 워크숍

일시: 2003년 7월 8일 (화) 오후 2시

장소: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프로그램

편집인의 역할	김훈교 (암학회지 편집인, 가톨릭의대)
저자의 자격	이순남 (혈액학회지 편집인, 이화의대)
논문발표의 윤리적 문제	이경수 교육연수위 간사 (성균관의대)
올바른 논문 작성법	배종우 (소아과학회지 편집인, 경희의대)
심사위원의 역할	박병주 (예방의학회지 편집인, 서울의대)

4. 2004년 정기 워크숍

일시: 2004년 5월 19일 (수) 오후 2시

장소: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주제: 의학연구의 설계와 수행

참석대상: 의편집 회원 학술지 관계자

프로그램

시간	내용	강사
오후		
2:00-2:10	회장 인사	조승열 회장
2:10-2:40	의학연구에서의 비둘림	안윤옥 (서울의대 예방의학)
2:40-3:10	의사연구자들의 연구과제 선정 방법	정우경 (가천의대 내과학)
3:10-3:40	지역사회 유병률 조사의 수행사례	최보물 (한양의대 예방의학)
3:40-3:55	휴식	
3:55-4:25	환자-대조군 연구의 설계와 수행	윤병우 (서울의대 신경과학)
4:25-4:55	코호트연구의 설계와 수행	김순덕 (고려의대 예방의학)
4:55-5:25	비교 임상시험의 설계와 수행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5. 2005년 정기 워크숍

일시 : 2005년 11월 30일 (수),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

주제 : 신임 편집인(위원)을 위한 Workshop

프로그램

시간	내용	강사
오후	사회	서연림 교육연수위원장
2:00-2:10	회장 인사	박찬일 회장
2:10-2:40	편집인의 역할	조승열 (JKMS 편집인, 성균관의대)
2:40-3:10	심사위원의 역할	한동수(한양의대, 내과학)
3:10-3:40	의학학술지 평가 기준	홍성태(서울의대, 기생충학)
3:40-3:55	휴식	
3:55-4:25	우리말 논문 바로 쓰기	송영빈(이화의대, 인문과학부)
4:25-4:55	우리말 의학용어의 기본 원칙	황건(의협용어위원장, 인하의대)
4:55-5:35	편집인이 알아야 할 통계 처리에 대한 검증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6. 2006년 정기 워크숍

일시 : 2006년 9월 6일 (수), 오후2시

장소 :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

주제 : 의학 논문의 출판 윤리

프로그램

시간	내용	강사
오후	사회	서연림 교육연수위원장
2:00-2:10	개회사	박찬일 회장
	격려사	김건상 (대한의학회 회장)
		좌장 : 박찬일 회장 (연세의대)
2:10-2:40	이중계재와 이차계재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2:40-3:10	Authorship	황성수 (가톨릭의대, 영상의학)
3:10-3:40	IRB의 출판 윤리	김옥주 (서울의대, 의사학)
3:40-4:00	휴식	
		좌장 : 조승열 (성균관의대, 기생충학)
4:00-4:20	이중계재- 국내.외 현황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4:20-4:40	이중계재의 사례	함창곡 (한양의대, 영상의학)
4:40-5:00	PubMed와 KoreaMed의 취소논문 레코드 처리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177 |

7. 2007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

일시 : 2007년 7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

주제 : 학술지 국제 유통 실천 방안

프로그램

시간	내용	강사
오후	사회	서연림 교육연수위원장
14:00-14:20	등록	
14:20-14:25	회장 인사말	박찬일 회장
14:25-14:30	격려사	김건상 (대한의학회 회장)
제 1 부 의학학술지의 국제 유통 구현		좌장 : 임정기 부회장
14:30-14:50	KoMCI 7년을 통하여 본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영향력	공효순 (의학회)
14:50-15:00	질의 응답	

15:00-15:20	Biosis, CINAHL, Chemical Abstracts, EMBASE, PsycINFO, Tropical Diseases Bulletin에 등재된 국내 의학학술지 및 등재 절차	
		정소나 (가톨릭의대 도서관)
15:20-15:30	질의응답	
15:30-15:50	휴식	
제 2 부 PMC, CrossRef 및 Google Scholar		좌장 : 서창욱 운영위원장
15:50-16:10	PubMed Central International in Korea, CrossRef/DOI, Google 시대의 학술지 형식 요건	허 선 정보관리위원장
16:10-16:25	질의응답	
16:25-17:15	Google Scholar의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색인 및 전산화 제안	
		서황욱 (구글 코리아)
17:15-17:50	질의응답	
17:50	폐회	

	날짜	장소		강사
제 1회	1999년 11월 19일	한일그룹빌딩	학술지 평가분석, '논문 출판의 윤리적 문제', '논문 심사위원의 역할'	조승열, 임정기, 이광선, 동현중, 김희진, 이철희, 민양기
제 2회	2001년 7월 6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디지털 자료 저작권 계약시 주의할 점', 'Writing for International Journals'	함창곡, 임정기, 허 선, Effie Baoutis
제 3회	2002년 11월 27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국제색인 데이터베이스가 요구하는 좋은 학술지', '이중게재(double publication)의 문제', 'Authorship에 대한 분석'	함창곡, 민양기, 임정기, 황성수, 홍성태, 권길화
제 4회	2003년 7월 8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편집인의 역할', '저자의 자격', '논문발표의 윤리적 문제'	김훈교, 이순남, 이경수, 배종우, 박병주
제 5회	2004년 5월 19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의학연구의 설계와 수행'	안윤옥, 정우경, 최보율, 윤병우, 김순덕, 박병주
제 6회	2005년 11월 30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편집인의 역할', '우리말 논문 바로 쓰기'	조승열, 한동수, 홍성태, 송영빈, 황 건, 박병주
제 7회	2006년 9월 6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이차게재와 이중 게재', IRB와 출판 윤리	홍성태, 황성수, 김옥주, 김수영, 함창곡, 이춘실
제 8회	2007년 7월 10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의학학술지의 국제 유통 구현', 'PMCI, CrossRef 및 Google Scholar'	공효순, 정소나, 허 선, 서황욱,

□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 제1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일시 : 2008년 2월 18일(월)-20일(수)

장소 : 숙명여대 진리관, 순헌관

결과 : 학술지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술지 편집에 관한 최신 정보 제공. 총 62명 참석, 3일간 진행.

| 프로그램 |

제1일 2008년 2월 18일(월)

시간	내용	강사
09:00-09:20	등록	
09:20-09:50	과정 소개, 참석자 소개 및 참석자의 기대 측정	허선
09:50-10:00	휴식	
10:00-10:50	좋은 의학논문을 위한 몇 가지 제언	호원숙
10:50-11:00	휴식	
11:00-11:50	Non-native speaker of English를 위한 영문의학논문 작성요령	민양기
12:00-13:00	점심식사	
13:00-13:50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따른 편집인의 역할	조승열
13:50-14:00	휴식	
14:00-14:50	의학학술지에서 볼 수 있는 통계 오류	김수녕
14:50-15:00	휴식	
15:00-17:00	(가) [TBL] 연구출판윤리 (나) [실습] manuscript editor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학술지 편집에 필요한 정보검색	진행 : 김수영, 주영수 진행 : 조혜민

179 |

제2일 2008년 2월 19일(화)

시간	내용	강사
09:00-10:50	(가) [실습] manuscript editor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학술지 편집에 필요한 정보검색	진행 : 조혜민 허선
	(나) [TBL] 연구출판윤리	진행 : 허선, 김수영
10:50-11:00	휴식	호원숙
11:00-11:50	(가) [TBL] 여러가지 참고문헌 작성 양식 및 단위 표기 (나) [실습] 학술지 계량 지표 값 측정	진행 : 조혜민, 정희경 진행 : 허선
12:00-13:00	점심식사	
13:00-13:50	보존용지의 이해	윤혜정

13:50-14:00	휴식	
14:00-14:50	판형, 종이의 종류, 레이아웃, 그림파일, PDF 파일 전자출판	최윤배
14:50-15:00	휴식	
15:00-15:50	(가) [TBL]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진행 : 허선, 김수영
	(나) [실습] 여러 색인 데이터베이스 편지 쓰기	진행 : 이춘실
15:50-16:00	휴식	
16:00-17:00	전자투고체계(Manuscript management system)	허선, 박재원

제3일 2008년 2월 20일(수)

시간	내용	강사
09:00-09:50	의학 학술 논문 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 KoreaMed, Synapse, KoMCI, PubMed, PMC, Web of Science, LinkOut, DOI, CrossRef	이춘실
09:50-10:00	휴식	허선
10:00-10:50	(가) [실습] 학술지 게랑 지표 값 측정	진행 : 이춘실
	(나) [TBL] 여러가지 참고문헌 작성 양식 및 단위 표기법	진행 : 조혜민, 정희경
10:50-11:00	휴식	진행 : 조혜민, 정희경
11:00-11:50	(가) [실습] 여러 색인 데이터베이스 편지 쓰기	진행 : 이춘실
	(나) [TBL]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진행 : 허선, 김수영
12:00-13:00	점심식사	윤혜정
13:00-13:50	여러 색인 데이터베이스 indexing 절차	정소나
13:50-14:00	휴식	최윤배
14:00-14:50	J Vet Sci는 이렇게 SCIE에 등재되었다	이흥식
14:50-15:00	휴식	진행 : 허선, 김수영
15:00-15:50	Open Access Journal(개방잡지) 및 학술지 진화	허선
15:50-16:00	휴식	
16:00-16:40	종합 토의, 편집인 아카데미 평가	진행 : 허선
16:40-17:00	수료증 수여 및 폐회	임정기

• 제2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일시 : 2009년 2월 12일(목) - 13일(금)

장소 :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내용 : 회원 단체 학술지 편집인이 학술지를 국제 수준에 맞추어 편집할 수 있고 또한 국제 유통망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총 66명의 편집인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2일간 개최하였음.

| 프로그램 |

제1일 2009년 2월 12일(목)

시간	내용	강사
08:30 - 09:00	등록	이춘실
09:00 - 09:10	인사말 및 과정 소개	임정기(의편집 회장)
09:10 - 09:40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에 따른 편집인의 역할	조승열(성균관대의대 기생충학)
09:40 - 10:10	출판 윤리	함창곡(한양대의대 영상의학)
10:10 - 10:40	전문가 심사와 심사자	홍성태(서울의대 기생충학)
10:40 - 10:50	휴식	진행 : 이춘실
10:50 - 11:20	해외 편집인 활동	서정욱(서울의대 병리학)
11:20 - 12:20	영문 초록 작성법	Jocelyn Graf
12:20 - 13:30	점심식사	정소나
13:30 - 15:30	[A조] 백주년 기념관 401호	정희경(Manuscript Editor)
	학술지 편집에 필요한 정보 검색	이흥식
	: MeSH, 참S고문헌, 이중게재검색을 중심으로 계량서지학	진행 : 허선, 김수영
	[B조] 순현관 211호	강은지(고려의대 도서관)
	논문 작성을 위한 EndNote 활용법	
15:30 - 15:40	휴식	진행 : 허선
15:40 - 16:10	의학논문의 적절한 구조와 심사 답변서	박명재(경희의대 호흡기내과학)
16:10 - 16:40	Manuscript Editor의 역할	조혜민(Manuscript Editor)
16:40 - 17:10	단위표기	한동수(한양대의대 내과학)
17:10 - 17:20	휴식	
17:20 - 17:50	표와 그림, PDF 파일의 이해	명승재(울산의대 내과학)
17:50 - 18:20	참고문헌 작성법	이상오(울산의대 내과학)

181 |

제2일 2009년 2월 13일(금)

시간	내용	강사
09:00 - 09:30	학술지 출판과정	구자국(인제의대 소아청소년과학)
09:30 - 10:00	해외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학술지 선정과 등재기준	정소나가톨릭의대 도서관
10:00 - 10:30	의학 학술논문 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이춘실(숙명여대 문헌정보학)
10:30 - 10:40	휴식	
10:40 - 11:10	의학 학술지에서 볼 수 있는 통계 오류	김수녕(건국의대 산부인과학)
11:10 - 11:35	학술지 SCIE 등재경험- Journal of Breast Cancer	오세정(가톨릭의대 외과학)
11:35 - 12:00	Korean Journal of Radiology의 운영	천정은(서울의대 영상의학)
12:00 - 13:10	점심식사	

13:10 - 15:10	[A조] 순환관 211호 논문 작성을 위한 EndNote 활용법	강은지(고려의대 도서관)
	[B조] 백주년기념관 401호 학술지 편집에 필요한 정보검색 : MeSH, 참S고문헌, 이중게재 검색을 중심으로 계량서지학	정희경(Manuscript Editor)
15:10 - 15:30	휴식	
15:30 - 16:00	학술지 평가 : 의편집, 학진을 중심으로	이성구(울산의대 내과학)
16:00 - 17:10	분임토의	(가) 함창곡(한양의대 영상의학) (나) 홍성태(서울의대 기생충학) (다) 허선(한림의대 기생충학)
17:10 - 17:20	평가	
17:20 - 17:40	수료증 수여 및 폐회	함창곡(의편집前 회장)

• 제3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일시 : 2010년 2월 4-5일(목-금)

장소 :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06호

주제 : Desk to Publication

| 프로그램 |

제1일 2010년 2월 4일(목)

시간	내용	강사
08:30-09:00	등록	
09:00-09:10	인사말 및 과정소개	임정기(의편집 회장)
09:10-10:00	논문 출판/연구 윤리	함창곡(한양의대)
10:00-10:50	편집인/심사자의 역할	한동수(한양의대)
10:50-11:00	휴식	
11:00-12:00	Tables & Figures	류지간(인하의대)
12:00-13:20	점심식사	
13:20-14:10	임상시험등록과 논문게재	장윤정(국립암센터)
14:10-14:40	학술지 출판과정	홍혜미(ML communications)
14:40-15:00	휴식	
15:00-18:00	(A) 논문편집/심사에 필요한 정보검색 (B) EndNote 이현정 (한양의대 도서관)	정소나 (가톨릭의대 도서관)

제2일 2010년 2월 5일(금)

시간	내용	강사
09:00-09:30	Journal Publication의 새로운 방향	이춘실(숙명여대)
09:30-10:00	학술지 Identity 정립과 Brand화 전략	황인권(Inkwon & Partners)
10:00-10:30	학술지의 Visibility 확대 방안	이남영/이상은(XMLink)
10:30-11:00	e-Journal Publication의 요건	이윤희/김은경(XMLink)
11:00-11:10	휴식	
11:10-12:00	권장보고지침에 따른 논문심사법	김수영(한림의대)
12:00-13:20	점심식사	
13:20-15:00	학술지 Manuscript Editing 실습	조혜민(Manuscript Editor)
15:00-15:20	휴식	
15:20-17:20	(A) 해외 DB 등재 관련	허 선(한림의대)
	(B) Disclosure Statement	배종우(경희의대)
	(C) 학술지 평가	홍성태(서울의대)

• 제4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일시: 2011년 2월 10일-11일(목-금)

장소: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6층 대회의실

주제: Road to index

| 프로그램 |

제1일 2011년 2월 10일(목)

시간	내용	강사
08:30-09:00	등록	
09:00-09:10	인사말	임정기(의편집 회장, 서울의대)
09:10-10:00	Journal Publication의 새로운 방향	이춘실(의편집 정보관리위원, 숙명여대)
10:00-10:30	올바른 단위 표기	한동수(의편집 교육연수위원장, 한양의대)
10:30-10:45	휴식	
10:45-11:15	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해	이미영(Creative Commons Korea)
11:15-11:55	과중의 학술지 운영방침	윤호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1:55-13:10	점심식사	
13:10-14:10	PubMed Central 등재하기	허선(의편집 정보관리위원장, 한림의대)
14:10-15:00	SCOPUS 등재하기	김형순(인하대)
15:00-15:20	휴식	
15:20-15:50	Clinical Trials와 보고지침	박현영(국립보건연구원)
15:50-16:20	학술지 지표 관리	박민순(Thomson Reuters)
16:20-17:00	의학분야 소셜 북마크 서비스 사례 분석 및 활용방안	구중억(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2일 2011년 2월 11일(금)

시간	내용	강사
09:00-09:50	과제풀이	조혜민(의편협 교육연수/정보관리위원)
09:50-10:20	Figure Handling	이준형(성균관의대)
10:20-10:40	휴식	
10:40-12:00	권장보고지침에 따른 논문심사법	김수영 (의편협 교육연수/정보관리/출판윤리위원, 한림의대)
12:00-13:20	점심식사	
13:20-14:00	영문초록 다듬기	이선영(건국의대)
14:00-15:10	통일 양식의 이해	홍성태(의편협 기획평가위원장, 서울의대)
15:10-15:30	휴식	
15:30-16:00	Disclosure Statement	배종우(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간사, 경희의대)
16:00-16:30	학술지관리경험(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김동규(의편협 운영위원장, 서울의대)
16:30	폐회	

• 제5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일시: 2012년 2월 16일(목) 오전8시30분 - 오후5시30분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참가인원: 150명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08:30-09:00	등록	
09:00-09:10	인사말	서창욱 회장(연세대)
	학술지 출판의 전략	
09:10-09:30	국내 의학 학술지 현황과 수준	서창욱 회장(연세대)
09:30-09:50	의편협의 업무 소개	나은우 운영위원장(아주대)
09:50-10:10	아시아학회 학술지로의 진입경험(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김재원 교수(서울대)
10:10-10:40	SCI 등재 및 Impact Factor 올리기	김문선 차장(Thomson Reuters)
10:40-11:00	휴식	
11:00-11:40	의학학술지에서 흔히 보는 통계 오류	남정모 교수(연세대)
11:40-12:10	의학연구 설계와 연구 결과의 치우침 (사례분석)	김수영 교수(건국대)
12:10-13:10	점심식사	
	학술지 출판 과정 윤리 및 사례	
13:10-13:50	논문 심사 과정 및 전문가 심사	홍성태 부회장

13:50-14:20	의편집 출판윤리 활동: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중복출판사례집> 중심으로	배 중우 출판윤리위 간사(경희대)
14:20-14:50	편집인과 심사자가 알아야 할 의학연구윤리	김옥주 교수(서울대)
14:50-15:10	휴식	
15:10-15:30	CrossRef &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김태일 정보관리위원(서울대)
15:30-16:10	Cross-Check이란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16:10-17:00	Cross-Check의 사용 사례 남순호(연세대), 조경재(울산의대), 김정호(연세대) 교수 (각15-20분)	
17:00-17:30	학술지 편집 Q&A	
	수료증 수여 및 폐회	

• 제6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일시: 2012년 12월 7일(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참가인원: 147명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08:30-09:00	등록	
09:00-09:10	인사말 및 과정소개	최인홍 교육연수위원장
09:10-09:30	KAMJE의 현재	서창욱 회장
09:30-11:20	1. Improving peer review performance 2. The role of editors in cases of suspected misconduct Liz Wager - the chair of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2009-2012)	
11:20-11:40	휴식	
	학술지 정보 관리 및 평가	
11:40-12:10	Usability of KAMJE Journals for Harvard-MIT researchers	김태일 기획평가위원-정보관리위원
12:10-13:10	점심	
13:10-14:00	학회가 의편집에 질의한 대표적인 질문 10가지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14:00-14:30	Erratum & Retraction	이보영 정혜숙 - ㈜XMLink
14:30-15:00	KoreaMed와 Synapse의 숨겨진 기능, 새로운 기능	김상현 정보관리위원
15:00-15:20	휴식	
15:20-15:50	KoreaMed와Synapse 학술지의 피인용 자가 진단법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15:50-16:20	KoreaMed의 MeSH 색인 현황과 검색	정소나 정보관리위원
16:20-16:50	의편집 의학학술지 평가	오세정 기획평가위원장
16:50-17:20	질의 및 평가	
17:20	수료증 수여 및 폐회	

• 제7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일시: 2013년 12월 5일(목)-6일(금)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연세대학교 에비슨의생명연구소센터 1층 유일한홀
 참가인원: 115명

| 프로그램 |

제1일 2013년 12월 5일(목)

시간	내용	강사
08:30-09:00	등록	
09:00-09:10	인사말	서창욱 회장
	국내 학술지 현황 및 평가	
09:10-09:30	국내의학 학술지 현황	서창욱 회장
09:30-10:00	의편집 업무 소개	나은우 운영위원장
10:00-10:20	휴식	
10:20-11:00	SCI 등재와 학술지 평가 지표	김문선 부장(Thomson Reuters)
11:00-11:40	의편집 학술지 평가	오세정 기획평가위원장
11:40-12:00	Self-citation의 문제점	최인홍 교육연수위원장
12:00-13:00	점심식사	
	투고 논문 다듬기	
13:00-13:40	Ten keeps of writing medical articles	홍성태 부회장
13:40-14:20	제목 및 초록다듬기	이선영 교수(건국대)
14:20-14:40	휴식	
14:40-16:20	Table, figure 및 결과 다듬기	이은소 교육연수위원
16:20-17:00	서론, 재료 및 방법 고찰 다듬기	김명진 교수(연세대)
17:00-17:20	Case report template for authors	홍성태 부회장
17:20-18:00	질의 및 토의	

제2일 2013년 12월 6일(금)

시간	내용	강사
09:00-09:50	의학논문의 전문가 심사 Peer Review	홍성태 부회장
09:50-10:40	의편집 출판윤리 활동	김수영 출판윤리위원/운영위원
10:40-11:00	휴식	
11:00-11:15	MeSH: 왜 중요한가?	조승열 교수(가천의대 의편집 전 회장)
11:15-11:45	저자 Keywords와 MeSH	정소나 정보관리위원
11:45-12:00	Abstracts & MeSH: How to apply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3:30	The Sting in Open Access Journals	김태일 정보관리위원/기획평가위원
13:30-14:20	Supplemental materials in dynamic e-journals: Video, audio, big data sets, etc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14:20-14:40	올바른 참고문헌 작성을 위한 검색	정소나 정보관리위원
14:40-15:00	휴식	
15:00-15:20	Overview on CrossMark & FundRef	이현지(XMLink),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15:20-15:40	ORCID: What to prepare and how to do	장해숙대표(XMLink),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15:40-16:30	Updates on KoreaMed and Synapse	권오훈 정보관리위원장
16:30-17:00	질의 및 토의 수료증 수여	

• 제8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일시: 2014년 12월 5일(금)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장소: 연세의대 에비슨의생명연구소센터 유일한홀

참가인원: 94명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09:00-09:10	개회	
09:10-09:30	국내 의학학술지 현황	홍성태(의편집 회장)
09:30-09:50	의편집 업무 소개	나은우(의편집 감사)
09:50-10:30	국내학술지평가 1	
	의편집(의편집) KoreaMed, KoMCI 소개	오세정(의편집 기획평가위원장)
10:30-11:10	국내학술지평가 2	
	국내학술지 등재제도 및 KCI 현황소개	김현철(연구재단)
11:10-11:30	휴식	
11:30-12:10	국내학술지평가비교	이은소(의편집 교육연수위원장)
12:10-12:50	해외학술지평가 1	
	Web of Science와 SCI 등재	황호정(Thompson Reuters)
12:50-14:00	점심	
14:00-14:40	해외학술지평가 2	
	SCOPUS	김형순(인하대)
14:40-15:30	Updates on KoreaMed and Synapse: MeSH, Cited by Metrics, ORCID, FundRef, CrossMark, and TDM	이춘실(숙명여대)
15:30-15:50	휴식	
15:50-16:20	How to write a good reviewers' comment	John McDonald (Editage)
16:20-16:50	Global Publishing for KAMJE Journals	김태일(의편집 기획평가위원)
16:50-17:10	On-line submission system Scholar One 소개	노재환(Thompson Reuters)
17:10-17:30	종합토론과 폐회	

• 제9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일 시: 2015년 12월 4일(금)-5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장 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층 강당

참가인원: 94명

| 프로그램 |

제1일 12월 4일(금)

시간	내용	강사
09:00 - 09:10	개회	이은소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09:10 - 09:30	의편협 업무 소개	김혜원(의편협 운영간사)
09:30 - 10:00	KoreaMed, Synapse, KAMJE press 및 XMLink 소개	권오훈(의편협 정보관리위원장)
10:00 - 10:40	국내 의학학술지 현황	김병호(의편협 부회장)
10:40 - 11:00	휴식	
11:00 - 11:40	Indexed to SCIE/MEDLINE: what is next step?	최인홍(의편협 부회장, YMJ 전 편집장)
11:40 - 12:40	How to manage the editorial board?	
	1. 대한의사협회지	1. 이혜연(연세시대)
	2.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	2. 차정열(연세시대)
12:40 - 14:00	점심	
14:00 - 14:40	학술지 편집인의 역할	박종원(의편협 교육연수위원)
14:40 - 15:20	How to change smoothly my journal to online only	김재원(의편협 운영위원장)
15:20 - 15:40	휴식	
15:40 - 15:50	Ambiguities in Korean author names	이춘실(의편협 정보관리위원)
15:50 - 16:30	ORCID updates: connecting research and researchers	Nobuko Miyairi(Asia Pacific Regional Director, ORCID)
16:30 - 16:40	CRedit: 저자 역할 구분하기	이춘실(의편협 정보관리위원)
16:40 - 17:00	종합토론	이은소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17:00 - 17:10	폐회	

제2일 12월 5일(토)

시간	내용	강사
09:00 - 09:10	개회	이은소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09:10 - 09:50	편집인이 알아야 할 의학통계: NEJM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이윤석(동국시대)
09:50 - 10:30	편집인이 알아야 할 출판윤리	배종우(의편협 출판윤리위원장)
10:30 - 10:50	휴식	
10:50 - 11:30	SCOPUS 등재	장현주(엘스비어 코리아)
11:30 - 12:10	국내학술지 등재제도 및 KCI 현황 소개	김현철(한국연구재단)

12:10 - 13:40	점심	
13:40 - 14:20	The problem of publication bias	Liz Wager (Publications Consultant, Sideview, Princes Risborough, UK)
14:20 - 15:00	GPP3 (Good publication practice)	Liz Wager (Publications Consultant, Sideview, Princes Risborough, UK)
15:00 - 15:20	휴식	
15:20 - 16:40	GPP3 (Good publication practice) workshop	Liz Wager (Publications Consultant, Sideview, Princes Risborough, UK)
16:40 - 16:50	종합토론	이은소(의편집 교육연수위원장)
16:50 - 17:00	폐회	

	날짜	장소	강사
제 1회	2008년 2월 18-20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허 선, 호원수, 민양기, 조승열, 김수녕, 김수영, 주영수, 조혜민, 정희경, 윤혜정, 최운배, 이춘실, 박재원, 정소나, 이홍식
제 2회	2009년 2월 12-13일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조승렬, 함창곡, 홍성태, 서정옥, 정희경, 강은지, 박명재, 한동수, 명승재, 이상오, 구지국, 정소나, 이춘실, 김수녕, 오세정, 천정은, 이성구, 허 선
제 3회	2010년 2월 4-5일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06호	함창곡, 한동수, 류지간, 장윤정, 홍혜미, 정소나, 이현정, 이춘실, 황인권, 이남영, 이상은, 이윤혜, 김은경, 김수영, 조혜민, 허 선, 배중우, 홍성태
제 4회	2011년 2월 10-11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6층 대회의실	이춘실, 한동수, 이미영, 윤호식, 허 선, 김형순, 박현영, 박민순, 구중억조혜민, 이준행, 김수영, 이선영, 홍성태, 배중우, 김동규
제 5회	2012년 2월 16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서창욱, 나은우, 김재원 김문선, 남정모, 김수녕, 홍성태, 배중우, 김옥주, 권오훈, 남순호, 조경자, 김정호,
제 6회	2012년 12월 7일	백범김구기념관	최인홍, 서창욱, 김태일, 권오훈, 이보영, 장혜숙, 김상현, 이춘실, 정소나, 오세정
제 7회	2013년 12월 5-6일	연세의대 에비슨의생명연구원 유일한홀	서창욱, 나은우, 김문선, 오세정, 최인홍, 홍성태, 이선영, 이은소, 김명진, 김수영, 조승열, 정소나, 권오훈, 김태일, 이춘실, 이현지, 권오훈, 장혜숙
제 8회	2014년 12월 5일	연세의대 에비슨의생명연구원 유일한홀	홍성태, 나은우, 오세정, 김현철, 이은소, 황호정, 김형순, 이춘실, 김태일, 노재환
제9회	2015년 12월 4-5일	연세의대 1층 강당	김혜원, 권오훈, 김병호, 최인홍, 이혜연, 차정열, 박종원, 이춘실, Nobuko Miyairi, 이윤석, 배중우, 장현주, 김현철, Liz Wager

□ 회원 학술지에 대한 워크숍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

1999년

정신약물학회 - 제1차 정신약물학회지 논문심사 워크숍에 강사 추천

2003년

- 대한방사선학회지 - 학회지편집위원회 워크숍 (2003. 2.21, 서울대병원)에 강사 파송.
- 대한성형외과학회지 - 「학회지 편집위원회 워크숍 (2003. 4. 25, 분당서울대병원)」에 강사(함창곡, 조승열, 홍성태) 파송.
- 대한안과학회지 - 「90회 추계학술대회 (2003. 10. 10, 힐튼호텔)」에 강사(함창곡, 임정기) 파송.
- 한국간담체외과학회지 - 「학회지 편집위원회 워크숍 (2003. 10. 10, 한국프레스센터)에 강사 (조승열) 파송.

| 190

2004년

1)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행사명: 「논문 심사위원을 위한 워크숍 (2004. 10. 28, 가톨릭의대)」

제목: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의 현황 및 문제점(김인식)

논문심사방법과 심사자의 역할(함창곡)

SCI 등재를 위한 접근(임정기)

메쉬 구조와 메쉬 색인(김수영)

논문에서 범하기 쉬운 통계적 오류(김호)

2) 대한흉부외과학회지

행사명: 「학회지 편집위원회 워크숍 (2004. 12. 20, 서울역사T원)」

제목: SCI/MEDLINE 등재를 위한 학술지의 준비

강사: 임정기

2006년

1) 대한간학회

행사명 : 대한간학회지 발전을 위한 간행위원회 워크숍

(2006. 2. 19, 부산 조선비치호텔)

제목 : · 대한간학회지의 평가

· 학회지 질적 향상을 위한 심사위원의 역할

파송강사 : 홍성태(서울의대 기생충학)

2)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행사명 : 제21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학술지 발전 세미나

(2006. 4. 21, 경주힐튼호텔)

제목 : ·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역할

· 학회지의 MEDLINE 및 SCI 진입을 위한 전략

파송강사 : 함창곡(한양의대 영상의학), 홍성태(서울의대 기생충학)

3) 대한재활의학학회

행사명 : 논문심사 및 논문작성 워크숍(2006. 5. 19, 이대부속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

강의 : · 논문심사의 기본 원칙 : 홍성태. 논문게재의 윤리적 측면 : 함창곡

4) 대한생물정신의학회

행사명 : 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2006. 7. 11, 서울 팔레스호텔)

강의 : · 학술지 발전을 위한 양질의 논문평가(함창곡)

2007년

1) 대한통증학회

· 행사명 : 국제색인 초록 데이터베이스 등재를 위한 전략

· 일시 : 2007년 5월 9일(수)

· 장소 : 대한통증학회 사무실

· 강사파송(이춘실 정보관리위원)

2) 대한피부과학회

· 행사명 : 학회지 심사위원 워크숍

· 일시 : 2008년 4월 16일(수) - 17일(목)

· 장소 :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

· 강사파송 : 함창곡(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 논문작성 워크숍

• 제1회 논문작성 워크숍

일시: 2013년 9월 7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의대 본관 3층 대강당

참가인원: 275명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09:20-10:00	Ten keeps of writing medical articles	홍성태 부회장
10:00-10:30	표지, 제목, 초록 작성	홍성태 부회장
10:30-10:50	휴식	
10:50-11:20	논문작성과 문헌검색: Author keywords & MeSH	정소나 정보관리위원
11:20-12:00	Supplemental materials in dynamic e-journals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12:00-13:00	점심식사	
13:00-13:50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고찰	김명진 연세의대 영상의학과
13:50-14:30	Table, figure 및 결과 작성요령	김정호 교육연수위 간사
14:30-15:10	참고문헌 작성	정소나 정보관리위원
15:10-15:30	휴식	
15:30-16:20	의학논문 작성에서 보는 흔한 영문 오류	홍성태 부회장
16:20-17:00	저자로서 편집자 및 심사자와 소통하기	최인홍 교육연수위원장

| 192

• 제2회 논문작성 워크숍

일시: 2014년 1월 18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장소: 연세대학교 예비스의생명연구센터 1층 유일한홀

참가인원: 188명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09:20-10:00	Ten keeps of writing medical articles	홍성태 부회장
10:00-10:30	표지, 제목, 초록 작성	홍성태 부회장
10:30-10:50	휴식	
10:50-11:20	논문작성과 문헌검색: Author keywords & MeSH	정소나 정보관리위원
11:20-12:00	Supplemental materials in dynamic e-journals	이춘실 정보관리위원

12:00-13:00	점심식사	
13:00-13:50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고찰	김명진 연세의료대 영상의학과
13:50-14:30	Table, figure 및 결과 작성요령	김정호 교육연수위 간사
14:30-15:10	참고문헌 작성	정소나 정보관리위원
15:10-15:30	휴식	
15:30-16:20	의학논문 작성에서 보는 흔한 영문 오류	홍성태 부회장
16:20-17:00	저자로서 편집자 및 심사자와 소통하기	최인홍 교육연수위원장

• 제3회 논문작성 워크숍

일시: 2014년 8월 23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1강의실

참가인원: 235명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09:00-09:10	인사말	홍성태 (의편집 회장)
09:10-09:20	과정 소개	이은소 (의편집 교육연수위원장)
09:20-10:00	Ten keeps in writing medical articles	홍성태 (의편집 회장)
10:00-10:30	표지, 제목, 초록 작성	홍성태 (의편집 회장)
10:30-10:50	휴식	
10:50-11:30	사례로 본 표절과 대책	배중우 (의편집 출판윤리위원장)
11:30-12:30	논문작성과 문헌검색, 참고문헌 작성	정소나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도서관)
	Author keywords & MeSH	
12:30-13:40	점심식사	
13:40-14:30	글쓰기의 어려움, 이유와 극복 방안	황진복 (계명의료대 소아청소년과)
	효과적인 논문 작성의 순서와 이유	
14:30-15:10	Table, figure 작성요령	이준행 (성균관의료대 소화기내과)
	논문 제출을 위한 그래픽 이미지 관리	
15:10-15:30	휴식	
15:30-16:20	의학논문 작성에서 보는 흔한 영문 오류	장기홍 (아주의료대 산부인과)
16:20-17:00	심사자는 논문 심사에서 어떤 것을 보는지	최인홍 (의편집 부회장)
17:00-17:30	종합 토론 및 수료식	이은소 (의편집 교육연수위원장)

• 제4회 논문작성 워크숍

일시: 2015년 1월 31일(토)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40분

장소: 충남대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강당

참가인원: 189명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09:30-09:35	인사말	홍성태 (의편협 회장)
09:35-09:40	과정 소개	이은소(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09:40-10:20	Ten keeps in writing medical articles	홍성태 (의편협 회장)
	논문 작성의 원칙과 기본 요령	
10:20-11:00	Table, figure 및 결과 다듬기	이준행(성균관대의대 소화기내과)
11:00-11:20	휴식	
11:20-12:00	서론, 재료 및 방법, 고찰 다듬기	김재원 (의편협 운영위원장)
12:00-12:40	표지, 제목, 초록 다듬기	이선영(의편협 교육연수위원)
12:40-13:50	점심식사	
13:50-15:10	논문작성과 문헌검색, 참고문헌 작성	정소나(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도서관)
	Author keywords & MeSH	
15:10-15:50	의학논문 작성에서 보는 흔한 영문 오류	장기홍 (아주의대 산부인과)
15:50-16:10	휴식	
16:10-16:40	Trends in research writing	John McDonald (Editage)
16:40-17:00	How to express the appropriate level of confidence when reporting research results	Jocelyn Graf (Proficia)
17:00-17:30	저자로서 편집자 및 심사자와 소통하기	박중원(의편협 교육연수위원회 간사)
17:30-17:40	종합 토론 및 수료식	이은소(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 제5회 논문작성 워크숍

일시 : 2015년 8월 29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10분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1강의실

참가인원: 271명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09:00-09:05	인사말	홍성태 (의편집 회장)
09:05-09:10	과정 소개	이은소 (의편집 교육연수위원장)
09:10-09:50	Ten tips in writing medical articles 논문 작성의 원칙과 기본 요령	홍성태 (의편집 회장)
09:50-10:30	Writing English Medical Papers: Errors and Recommended Expressions	장기홍 (아주의대)
10:30-10:50	휴식	
10:50-11:30	재료 및 방법, 결과 다듬기	노주원 (동국의대)
11:30-12:10	표지, 제목, 서론, 및 초록 다듬기	황건 (인하의대)
12:10-13:30	점심식사	
13:30-14:20	논문작성과 문헌검색, 참고문헌 작성	정소나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도서관)
14:20-15:00	의학논문 작성을 위한 R 통계	문건웅 (가톨릭의대)
15:00-15:40	Table, figure 정리	이준행 (성균관의대)
15:40-16:00	휴식	
16:00-16:30	투고된 논문의 표절 검사	이윤석 (동국의대)
16:30-17:00	저자로서 편집자 및 심사자와 소통하기	최인홍 (의편집 부회장)
17:00-17:10	종합 토론 및 수료식	이은소 (의편집 교육연수위원장)

■ 기타 워크숍 및 심포지엄

1997년 8월 27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의학 학술지 평가 사업'과 '한국 메드라인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로 .의편집 워크숍 시행하였다.

• 1997년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Workshop

일시: 1997년 8월 27일(수)

장소: 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내용	강사
의학 학술지 평가사업의 배경 및 취지	조승열(편집인협의회, 기획평가위원장)
국내 의학 학술지 시범평가	기획평가위원회
한국 메드라인 사업 추진 방향	허 선(편집인협의회, 정보관리위원)
퍼브메드 가입 추진 방향	허 선(편집인협의회, 정보관리위원)

| 196

1998년 2월 7일에는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술 논문 심사에 관한 panel토의가 개최되었다.

• 학술논문 심사에 관한 panel 토의

일시: 1998년 2월 7일(토)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

| 프로그램 |

내용	강사
논문심사 제도 및 운영	조승열
심사위원 및 편집인의 역할	함창국
의학논문의 심사평가	민양기
통계 심사	김동기
게재거부된 논문의 특징	임정기
심사위원으로서의 경험(전문의학학술지)	홍성태
심사위원으로서의 경험(종합학술지)	이민걸
편집인으로서의 경험(종합의학학술지)	지제근
편집인으로서의 경험(전문의학 학술지)	조경삼

2001년 2월 23일, KoreaMed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편집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7월 6일에는 서울대 임상의학연구소 강당에서 '디지털 자료 저작권 계약시 주의할 점', 'Writing for International Journals' 등의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Workshop

일시: 2001년 7월 6일(금)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 프로그램 |

내용	강사
코리아메드 영문초록 입력을 위한 회원 학회의 자료 전달 방법	허 선(정보위원회 간사)
디지털 자료 저작권 계약시 주의할 점	안효질(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법학 박사)
Writing for International Journals	Effie Baoutis

2008년 2월 18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제 1회 의학학술지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을 진행하였고 7월 3일 의편집 회원 학술지 SCI 등재기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197 |

• 의편집 회원 학술지 SCI 등재기념 워크숍

일시 : 2008년 7월 3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주최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후원 : 대한의학회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사회 : 김동규(의편집 운영위원장)	
2:00 - 2:10	회장 인사 및 축사	
	제1부 SCIE 등재를 위한 학회의 노력	
2:10 - 2:30	대한신경외과학회	이경석(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편집인)
2:30 - 2:50	대한병리학회	서정욱(Korean Journal of Pathology 편집인)
2:50 - 3:00	질의응답	
	제 2 부 SCI Core를 향한 학회의 전략	
3:00 - 3:20	대한기생충학회	홍성종(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부편집인)

3:20 - 3:40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김정호(Korean Journal of Laboratory Medicine 편집인)
3:40 - 3:50	질의 응답	
3:50 - 4:10	휴식	
	제 3 부 의편집 및 학술진흥재단이 도울 수 있는 일	
4:10 - 4:40	SCI 등재 학술지의 Impact Factor 관리	이춘실(의편집 정보관리위원)
	KoreaMed Synapse 활용 : DOI/CrossRef, PMC	
4:40 - 5:00	학진의 국제학술지협의회 및 국제 학술지 발행비 지원 사업 소개	고영만(학술진흥재단 지식정보센터장)
5:00 - 5:30	종합토의 및 폐회	

2009년 7월 13일 제2회 의학학술지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이 한림국제대학원에서 진행되었고, 9월 29일 임상시험 국가 등록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 제 2회 의학학술지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

일시 : 2009년 7월 13-14일(월-화)

장소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지하 한림홀

참가인원: 27명

내용 : 'Scientific Style And Format : The CSE Manual for Authors, Editors, And Publishers'를 교재로 공부하여 각 참석자가 발표하는 자율학습 및 실습

• 임상시험 국가 등록 워크숍

일시: 2009년 9월 29일(화) 오후 6시-8시

장소: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사회: 이영아(이화의대 외과, 의편집 정보위 간사)
6:00-6:30	등록 및 식사	
6:30	개회	
6:30-6:35	인사말	임정기(서울의대 영상의학과, 의편집 회장)
6:35-6:45	격려사	김형래(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장)
	제 1부 임상시험 등록	좌장: 조수현(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의편집 감사)
6:45-7:15	임상시험 등록의 필요성 및 절차	박현영(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회귀질환팀장)
7:15-7:30	휴식	

	제 2부 토론	좌장: 서창욱(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의편집 부회장)
7:30-8:00	종합 토의 및 질의 응답	박현영(질병관리본부), 장윤정(국립암센터)
8:00	폐회	

2011년 6월 14일 CrossCheck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CrossCheck 설명회

일시: 2011년 6월 14일 (화) 오후 5시 - 7시 30분

장소: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

참석인원: 110명

2012년 7월 17일 '의학학술지 DB의 이해와 활용'의 주제를 놓고 의편집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 2012 의편집 Workshop

일시: 2012년 7월 17일(화) 오후 2시 30분 - 5시 40분

장소: 연세의대 본관 2층 243호

참가인원: 140명

주제: 의학학술지 DB의 이해와 활용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2:30-3:20	CrossRef's New Strategic Developments	Geoffrey Bilder(CrossRef)
3:20-4:10	Synergy between SCOPUS and KoreaMed & Synapse	Wim Meester(SCOPUS)
4:10-4:30	휴식	
4:30-5:20	Collaboration of KAMJE & Google Scholar for Better International Visibility	Darcy Dapra (Google Scholar)
5:20-5:40	질문 및 토의	

2013년 4월 16일 '한국 의학 분야의 연구 성과 비교', 'Life Science Service 소개', 'Journal Selection' 등의 주제로 Thompson Reuters사의 의편집 워크숍이 연세의대 종합관 337호에서 개최되었다.

• **2013 의편집 워크숍**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5시 20분

장소: 연세의대 종합관 337호

참가인원: 110명

주제: 의학저널 Selection 및 Life Science Service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13:30-13:50	한국 의학 분야의 연구 성과 비교	이승재 부장
13:50-14:10	Life Science Service 소개	심진한 부장
14:10-14:50	Journal Selection	James Testa(Vice President)
14:50-15:20	토론	

2014년 1월 10일 Authorship & Peer review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7월 1일 ‘CrossCheck and Plagiarism Screening’, CrossCheck 사용 경험 공유’ 등의 주제로 의편집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또한 10월 31일 ‘ORCID in the authoring workflow’, ‘Understanding journal metrics’ 등의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 **AUTHORSHIP & PEER REVIEW 워크숍**

일시: 2014년 1월 10일(금) 오후 2시-3시 50분

장소: 서울의대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참가인원: 41명

주제 1. Authorship and contributorship? what are journals doing now?
 2. Alternative peer review systems

• **2014 의편집 워크숍**

일시: 2014년 7월 1일(화) 오후 3시 30분-6시

장소: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참가인원: 120명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15:30-15:40	개회, 워크숍 소개	
15:40-16:20	CrossCheck and Plagiarism Screening: How to and What to Look for, and future plans for iThenticate developments.	Rachael Lammey (CrossCheck product manager)
16:20-16:35	CrossCheck 사용 경험 공유 1	이윤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편집위원장)
16:35-16:50	CrossCheck 사용 경험 공유 2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학과,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편집위원장)
16:50-17:05	CrossCheck 사용 경험 공유 3	이장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성형외과, Archives of Plastic Surgery 편집간사)
17:05-17:45	Current CrossRef services and what's coming next.	Rachael Lammey (CrossCheck product manager)
17:45-18:00	종합 토론	

• 2014 ORCID, 학술지 편집인 워크숍

일시: 2014년 10월 31일(금) 오후 3시-6시 10분

장소: 신촌 연세의료원 종합관 3층 337호

참가인원: 61명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15:00-15:10	개회, 워크숍 소개	이은소(의편집 교육연수위원장)
15:10-16:10	ORCID in the authoring workflow	Laurel L. Haak (ORCID Executive Director)
16:10-16:20	질의 및 응답	
16:20-16:40	휴식	
16:40-17:25	Can we make peer review and medical publishing more efficient?	Liz Wager (Sideview)
17:25-18:10	Understanding journal metrics	Liz Wager (Sideview)

날짜	장소	주제	강사
1996년 8월 12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학회지 누리집(homepage)만들기 워크숍	
1997년 8월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의학 학술지 평가 사업과 한국 메드라인 사업 추진 방향 발표	
1998년 2월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학술 논문 심사에 관한 panel토의	

2000년 5월 16일		의학학술지 평가 개선 워크숍	함창국, 임정기, 허 선, Effie Baoutis
2001년 2월 23일		KoreaMed 활성화 방안	
2008년 7월 3일		의편협 회원 학술지 SCI 등재기념 워크숍	
2009년 9월 29일		임상 시험국가등록 워크숍	
2011년 6월 14일		CrossCheck 설명회	
2012년 7월 17일	연세의대 본관 2층 243호	'의학학술지 DB의 이해와 활용'	Geoffrey Bilder, Wim Meester, Darcy Dapra
2013년 4월 16일	연세의대 종합관 337호	'한국 의학 분야의 연구 성과 비교', 'Life Science Service 소개', 'Journal Selection'	이승재, 심진한, James Testa
2014년 1월 10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Authorship & Peer review 워크숍	Liz Wager
2014년 7월 1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CrossCheck and Plagiarism Screening', CrossCheck 사용 경험 공유'	Rachael Lammey, 이윤석, 송정환, 이장현
2014년 10월 31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337호	'ORCID in the authoring workflow', 'Understanding journal metrics'	Laurel L. Haak, Liz Wager

	날짜	장소	강사
Manuscript Editor 교육 과정	2009년 7월 13 - 14일	한림국제대학원 지하 한림홀	Manuscript editor 27명
CrossCheck 설명회	2011년 6월 14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	
2012 workshop	2012년 7월 17일	연세의대 본관 2층 243호	Geoffrey Bilder, Wim Meester, Darcy Dapra
2013 workshop	2013년 4월 16일	연세의대 종합관 337호	이승재, 심진한, James Testa
AUTHORSHIP & PEER REVIEW	2014년 1월 10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Liz Wager
2014 workshop	2014년 7월 1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Rachael Lammey, 이윤석, 송정환, 이장현
ORCID workshop	2014년 10월 31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337호	Laurel L. Haak, Liz Wager

2014년 7월 1일(화) 오후 3시 30분-6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의편협 회원 학술지 편집인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CrossRef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약 120명이 참가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CrossRef Product Manager인 Rachael Lammey가 CrossCheck and Plagiarism Screening: How to and What to Look for, and Future Plans for iThenticate developments, Current CrossRef Services and What's Coming Next의 주제로 CrossRef 서비스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CrossRef Text와 Data Mining

Services를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CrossCheck 사용 경험이 풍부한 의편협 단체회원 학술지 중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편집위원장(이윤석 교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편집위원장(송정한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Archive of Plastic Surgery 편집간사 (이장현 교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성형외과)로부터 각 학술지에서 CrossCheck을 활용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발표한 학술지에서는 모두 CrossCheck 사용이 논문 심사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CrossCheck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2014 CrossRef Workshop

일시 : 2014년 7월 1일(화) 오후 3시 30분-6시

장소 :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참가인원: 120명

| 프로그램 |

시간	강의
15:30-15:40	개회, 워크숍 소개
15:40-16:20	CrossCheck and Plagiarism Screening: How to and What to Look for, and Future Plans for iThenticate Developments Rachael Lammey (CrossCheck Product Manager)
16:20-16:35	CrossCheck 사용 경험 공유 1 이윤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편집위원장)
16:35-16:50	CrossCheck 사용 경험 공유 2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편집위원장)
16:50-17:05	CrossCheck 사용 경험 공유 3 이장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성형외과, Archives of Plastic Surgery 편집간사)
17:05-17:45	Current CrossRef Services and What's Coming Next Rachael Lammey (CrossCheck Product Manager)
17:45-18:00	종합 토론

• 2014년 ORCID, 학술지 편집인 워크숍 프로그램

일시 : 2014년 10월 31일(금) 오후 3시-6시 10분

장소 : 연세의대 종합관 3층 337호

참가인원: 61명

| 프로그램 |

시간	내용	강사
15:00-15:10	개회, 워크숍 소개	이은소(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15:10-16:10	ORCID in the authoring workflow	Laurel L. Haak (ORCID Executive Director)
16:10-16:20	질의 및 응답	
16:20-16:40	휴식	
16:40-17:25	Can we make peer review and medical publishing more efficient?	Liz Wager(Sideview)
17:25-18:10	Understanding journal metrics	Liz Wager(Sideview)

5. 출판윤리위원회

배중우(제7대 출판윤리위원장,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1) 제4기 (2006. 7. - 2008. 3. 31) 활동 요약

(1) 의편협 내에 출판윤리위 구성의 필요성 대두

2006년 4월 의편협은 이중게재에 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데, 이중게재에 관한 첫 번째 조치로서, 편집인들에게 이중게재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 대책위원회(출판윤리위)를 구성해서, KoreaMed 등재학술지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조사와 아울러 제재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을 회원학회 편집인에게 공문(2006년 4월 3일)으로 통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oreaMed DB에 이미 등재된 이중게재 논문의 처리방안에 관한 의견으로 1) 의편협 내에 출판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회원학회 편집인이 해당 학술지의 이중게재 논문에 관한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KoreaMed에 철회요청을 하도록 권고한다. 자체조사가 어려운 학회는 의편협에서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복출판 문제는 저자 개인과 해당 학술지의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국내 의학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중요사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기로 한다.

3) 이중게재와 관련된 출판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학회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고, 의학계 전체가 이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의편협 차원에서 이중게재에 관한 정의를 설정한다. 이중게재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사례를 소개하여 회원학술지가 빠르게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며, 이 작업은 김수영 교수(정보위 간사)가 6월 임원회의 전까지 초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 작업을 위해 참고자료로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2006년 2월 개정)>, COPE, WAME 등의 자료를 텍스트로 활용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의편협 내에 출판윤리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2) 초기 의협협의 출판윤리에 관한 각종 공지사항 모음

가. 대한의학편집인협의회 회보 2005년 9월

기고 중복출판과 이차출판의 차이와 학문윤리

홍성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평가위원장)

전 세계에서 인간존엄이져 나오는 백만 편 수준의 의학논문은 일일이 다 읽어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논문을 뒤져보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비슷한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여럿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같은 결론을 기술하는 논문의 경우에 있어서 우선권은 먼저 출간된 논문이 갖는다는 선취권 원칙이 있다.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정보제공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여 의학분야의 국제 논문의 제목과 영문초록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검색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학술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좋은 논문이라도 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인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검색정보망에 등재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주요 국제적인 학술지들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PubMed와 미국 ISI Thomson사에서 제공하는 SCI를 통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KoreaMed를 통하여 영문초록과 저자 서지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전문을 제공하는 국내 학술지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국문으로 발표되는 논문을 외국에서도 쉽게 검색하여 영문초록 뿐만 아니라 도표까지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동안 국내 학술지가 대부분의 논문을 국문으로 발표하면서도 영문초록과 영문 도표를 작성하여 외국인들도 최소한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국문 논문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적인 색인정보망인 PubMed나 SCI에 영어가 아닌 언어로 발표하는 학술지를 등재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므로 국제 색인망에 등재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과학자들 중에서 국내 학술지에 원저 논문을 내고 이를 다시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국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스스로 그러한 행위가 아주 능력있는 학자로서의 자질로 생각하고 이를 자랑스러워 하거나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의 의학술지 편집인협의회는 생의학 학술논문의 통일양식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여기에 중복출판을 금지하고 이차출판의 요건을 명시하여 원저논문의 선취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분명하게 하였다.

즉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원저일 것을 요구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복출판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한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다시 다른 학술지에 출판하는 이차출판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1) 일차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은 일차출판 논문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 2) 일차출판된 학술지의 선취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이차출판은 축약판으로 출판한다

4) 이차출판은 일차출판의 자료와 해석을 가감없이 성실하게 기술한다

5) 이차출판된 논문의 표지에 이 논문이 이차출판임을 명기하고 원전을 밝혀서 독자 상호심의회, 색인자 등이 알도록 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출판은 이차출판이 아니라 중복출판에 해당한다. 저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음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중복출판을 하게 되면 학문윤리에 어긋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쉽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가 가지므로 일차출판된 학술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 이차출판 학술지의 경우 모든 학술지가 투고 시에 원고와 함께 요구하는 서식, 즉 '이 논문을 타지에 게재한 적이 없고 게재 거부되지 않는 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거짓말이 되고 만다.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이 선취권과 저작권이 다른 학술지에 있는 논문을 알지 못하고 출판하였다면 아무리 독자층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다고 하여도 독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다. 사전 상호심의회가 부실하였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거짓말에 속은 것이 된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계속 승인하였다면 원천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논문을 출판하여 학술지의 격이 떨어지고 편집권을 포기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우리 나라 일부 학자들이 관행처럼 국내 학술지와 외국 학술지에 이차출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같은 논문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모두 온라인으로 웬만한 국내 학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중복출판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제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낙인되는 경우 외국 학술지 논문 한 편으로 생기는 이득에 비할 수 없는 크고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쉽다.



나. 대한의학회 회보 2005년 9월

시론

최근들어 국내 잡지에 게재된 논문을 영적하여 외국 저명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이와 반대로 외국 학술지에 게재된 후 국문으로 바꾸어 국내 잡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연구자로서 치명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이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본다.

중복출판과 이차출판의 차이와 학문윤리

홍 성 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평가위원장)



전 세계에서 연간 쏟아져 나오는 백만 편 수준의 의학논문을 인원이 다 읽어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논문을 뒤져 보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비슷한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여럿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같은 결론을 기술하는 논문의 경우 우선권을 먼저 출간된 논문이 갖는다는 선취권 원칙이 있다.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정보제공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여 의학분야의 국제 논문을 제목과 영문초록으로 온라인상에서 검색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검색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학술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좋은 논문이라도 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인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검색정보망에 등재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주요 국제적인 학술지들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PubMed와 미국 ISI Thomson사에서 제공하는 SCI를 통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KoreaMed를 통하여 영문초록과 저자, 서지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전문을 제공하는 국내 학술지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국문으로 발표되는 논문을 외국에서도 쉽게 검색하여 영문초록 뿐만 아니라 도표까지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동안 국내 학술지가 대부분의 논문을 국문으로 발표하면서도 영문초록과 영문 도표를 작성하여 외국인들도 최소한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문 논문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적인 색인정보망인 PubMed나 SCI에 영어가 아닌 언어로 발표되는 학술지를 등재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므로 국제색인망에 등재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과학자들 중에서 국내 학술지에 원저 논문을 내고 이를 다시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국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스스로 그러한 행위가 아주 능력이 있는 학자로서의 자질을 생각하고 이를 자랑스러워하거나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협회는 생의학 학술논문의 통일양식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여기에 중복출판을 금지하고 이차출판의 요건을 명시하여 원저 논문의 선취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본

명하게 하였다. 즉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원저일 것을 요구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복출판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한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다시 다른 학술지에 출판하는 이차출판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1) 일차,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은 일차출판 논문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 2) 일차출판된 학술지의 선취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3)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이차출판은 속임만으로 충분하다.
- 4) 이차출판은 일차출판의 자료와 해석을 가깝게 성실하게 기술한다.
- 5) 이차출판될 논문의 표지에 이 논문이 이차출판임을 명기하고 원전을 밝혀서 독자, 상호심의자, 색인자 등이 알도록 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출판은 이차출판이 아니라 중복출판에 해당한다. 저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음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중복출판을 하게 되면 학문윤리에 어긋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쉽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가 가지므로 일차 출판된 학술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차출판 학술지의 경우 모든 학술지가 투고 시에 원고와 함께 요구하는 서식, 즉 '이 논문을 타지에 게재한 적이 없고 게재 거부되지 않은 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거짓말이 되고 만다.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이 선취권과 저작권이 다른 학술지에 있는 논문을 알지 못하고 출판하였다면 아무리 독자층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다고 하여도 독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다. 사전 상호심의가 부실하였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거짓말에 속은 것이 된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게재 승인하였다면 원천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논문을 출판하여 학술지의 격이 떨어지고 편집권을 포기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이 관행처럼 국내 학술지와 외국 학술지에 이차출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같은 논문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모두 온라인으로 웬만한 국내 학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중복출판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제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낙인되는 경우 외국 학술지 논문 한 편으로 생기는 이득에 비할 수 없는 크고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쉽다. 끝

다. 중복출판(이중게재)에 관한 의편협의 입장 (2006년 4월 3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우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 전화 798-3807 / 팩스 794-3148 / hbear@kams.or.kr

문서번호 의편협 제 2006-01 호
시행일자 2006. 4. 3
수 신 각 회원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
참 조
제 목 중복출판(이중게재)에 관한 의편협의 입장

1. 귀 학술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 28일 의편협(이하 의편협으로 약칭)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정기총회에 이어 개최된 workshop 에서 중복출판에 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으며, 토의석상에서 KoreaMed 논문입력이 본 권도에 이른 현재에도 이중게재 가능성이 있는 논문이 발견된다는 사실이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3. 의편협은 이중게재가 학자의 윤리적인 문제인 동시에 국내 의학에 대한 국제적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라는데 동의하고, 의편협 모든 회원에게 사안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도록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의편협은 우선 회원학술지에 이중게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하였으며, 조속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KoreaMed 등재학술지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조사와 아울러 제재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임을 공지합니다.
5. 회원학회 학술지 편집인께서도 중복출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술 논문의 접수와 심사 및 편집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회장 박 찬 일

라. 이중게재 논문 철회(Retraction)에 관한 건 (의편집) (2006년 6월 19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우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 전화 798-3807 / 팩스 794-3148 / hbear@kams.or.kr

문서번호 의편집 제 2006-09 호

시행일자 2006. 6. 19

수 신 각 회원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장

참 조

제 목 이중게재 논문 철회(Retraction)에 관한 건

1. 귀 학술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3일자 회원학술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논문의 중복출판/이중게재의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 이 사안을 국내 의학학술지의 중요한 현안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본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대책회의와 임원회의를 거쳐 의편집 내에 '출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의 이중게재 여부 판단의 근거제시, 자문 등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KoreaMed에서의 이중게재 논문 처리는 아래와 같이 PubMed 방식을 따를 예정이오니 회원학술지 편집인께서는 관련 절차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KoreaMed에서의 이중게재 논문 처리 절차

- ① 먼저 해당 학술지에서 논문 게재 철회 (Retraction) 사실을 논문 게재 형태로 학술지에 게재(예시: 별첨 1).
- ② KoreaMed에 철회가 발표된 논문이 입력됨으로써 철회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이미 등재되었던 논문에는 'Retraction of Publication' field를 추가해서 두 개의 논문을 Link 개념으로 처리(예시: 별첨2).

※ 해당 학술지의 논문 철회(Retraction) 발표 없이 일방적으로 KoreaMed에서 논문을 삭제하는 것은 KoreaMed DB 품질 관리나 국제적인 표준 처리 절차에 맞지 않아 PubMed 방식을 준용하기로 함. 끝.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회장 박 찬 일

[별첨 1] 논문 게재 철회 (Retraction) 사실을 논문 게재 형태로 실은 학술지.

nature
medicine
REGISTER >
SUBSCRIBE >

PUBLICATIONS A-Z INDEX > BROWSE BY SUBJECT > SEARCH
This journal

ADVERTISEMENT
Move Quickly from Biomarker Discovery

Journal home > Archive > Table of Contents > Retraction > Full text

Journal home

Advance online publication

Current issue

Archive

Supplementary info

Press releases

Supplements

Focuses

For authors

Online submission

Permissions

For referees

Free online issue

About the journal

Contact the journal

Subscribe

Advertising

work@npg

RETRACTION

Nature Medicine **11**, 691 (2005)
doi:10.1038/nm0605-691a

RETRACTION: Enhanced insulin sensitivity, energy expenditure and thermogenesis in adipose-specific Pten suppression in mice

N Komazawa, M Matsuda, G Kondoh, W Mizunoya, M Iwaki, T Takagi, Y Sumikawa, K Inoue, A Suzuki, T W Mak, T Nakano, T Fushiki, J Takeda & I Shimomura

Nat. Med. **10**, 1208–1215 (2004)

In the process of following up the findings reported in this study, we were unable to reproduce the original results. By carefully examining the first author's notebook, we found that some of the primary data were erroneously or artificially presented in the paper. Under these circumstances, all authors unanimously wish to retract this paper as soon as possible. We deeply apologize to the readers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by this retraction.

마.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대한의학회 공식 입장 (2006년 7월 11일)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대한의학회 공식 입장

1997년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www.icmje.org>)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통해 논문의 이중게재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N Engl J Med, Lancet, JAMA, BMJ 등 저명한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심이 되어 의학 논문 작성과 편집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정하는 권위있는 기구로서 본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협협, <http://www.kamje.or.kr>)에서도 회원학회에게 이 『통일양식』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지킬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 (MEDLINE/Index Medicus, <http://www.pubmed.org>)와 국내 주요학술지 115종에 게재한 논문 12만 건이 등재되어 있는 의협협의 KoreaMed (<http://www.koreamed.org>)의 동시 검색이 가능하게 된 이래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논문 이중게재에 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논문의 이중게재 문제에 대해 의협협이 최근에 마련한 권고 사항을 존중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하오니 회원학회에 소속된 의학 연구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이 사안에 대해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11 |

----- 아 래 -----

1.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 규정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에 따라 연구 윤리의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한다.
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 발행인이 가지므로 이중게재 논문은 선행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3. 논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중게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후행 학술지는 부실한 상호심의회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 이중게재 논문이 외국 저명 학술지와 연관이 되었을 경우 저자는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낙인될 수 있으며 국내 의학계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다.
5. 이중게재의 명예를 면하기 위해, 저자는 관련 조건이 충족될 경우 『통일양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차출판의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6. 현 시점부터 회원학회 대표와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며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논문 철회 (Retraction of Publication)'의 공고 형식으로 신속하게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2006년 7월 11일 대한 의 학 회 장

(3) 각종 교육 연수의 연자 제공

- 가. 2006년 12월 22일,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편집위원회 워크숍 연자 추천 안내
- 나. 2007년 10월 8일, 서울대 과학사 홍성욱 교수 주관: 번담체 연구출판윤리 모임에 함창곡 위원장, 배중우 간사 참석
- 다. 2007년 11월 20일, 의학회 주최 임원 아카데미에 <의학논문작성 및 출판윤리> 제목으로 강의 (간사 배중우)

(4) 의편협 주관 <의학논문 출판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준비 시작

2006년 7월 6일 출판윤리위에서는 의편협 주관 <의학논문 출판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5) 학술진흥재단 공모: 07년 대학 학회 윤리 활동 계획 공모에 <의학계열 논문 출판윤리 지침서 발간> 사업 채택

2007년 09월 19 학술진흥재단 공모: 2007년 대학 학회 윤리 활동 계획에 공모하여 <의학계열 논문 출판윤리 지침서발간> 사업이 채택되었고, 2007년 12월 7일 학진 공모 과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최종보고서 내용은 1) 의학계열 의학논문 출판윤리 지침서, 2) 이중게재 현황 보고 등이다.

(6) 2004년도 KoreaMed 논문에 대한 이중게재 조사 사업 시작

학진 보고사항 중의 하나였던 <2004년도 KoreaMed 논문의 이중게재 현황> 조사 부분을 Korean J Med Sci에 Duplicate Publications in the Korean literature indexed in KoreaMed (저자: 김수영, 함창곡, 배중우, 조혜민) 으로 해서 제출하기로 하였다.

(7) 각종 질의에 대한 답신

분야	건수
저자되기	3
중복출판	4
표절	1

2) 제5기 (2008. 4. 1 - 2011. 3. 31) 활동 요약

(1) 국내 이중게재 현황 조사

국내 KoreaMed 등재학술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이중게재 현황 조사를 3회 실시하였다. 2004, 2005, 2006년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하여 2004년 내용을 <Kim SY, Hahm CK, Bae CW, Cho HM: Duplicate Publications in Korean Medical Journals Indexed in KoreaMed. Korean Med Sci. 2008;23:131-133> 논문으로 발표하였고, 이 기간의 이중게재율은 5.93%이었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최초로 이중게재의 현황을 조사한 의미 있는 작업으로서, 한국에서 의학논문의 이중게재 방지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한 2006년도 이전 한국의 이중게재 실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결과였다. 이 논문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N Engl J Med에서는 상기 논문을 요약하여 게재하기도 하였다. 2005, 2006년도 분에 대해서도 제5기 동안에 조사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한국에서 이중게재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2007년도 이후에서의 변화를 비교 보고할 것이다.

213 |

(2)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발간에 이은 홍보, 사용 확대

제4기 임기인 2008년 1월에 의편집 출판윤리위원회에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초판>을 발간하였다. 한국 최초로 의학논문의 출판윤리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출판물로서,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과 CDPE의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지침을 제공하는 실무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학술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채택하여, 투고규정 등에서 준수를 밝히고 있고, 각종학술지의 평가 항목에 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의편집 홈페이지를 통



Duplicate Publications in Korean Medical Journals Indexed in KoreaMed

Duplicate publication is considered unethical. It has several negative impacts. To estimate the frequency and characteristics of duplicate publications in Korean medical journals, we reviewed some portion of Korean journal articles. Among 9,030 articles that are original articles indexed in KoreaMed from January to December 2004, 455 articles (5%) were chosen by random sampling. PubMed, Google scholar, Kbase, and KoreaMed were searched by two librarians. Three authors reviewed titles, abstracts, and full text of index articles and suspected articles independently. Point of disagreement were reconciled by discussion. Criteria for a duplicate publication defined by editors of cardiothoracic journals and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were used. A total of 455 articles were evaluated, of which 27 (5.93%) index articles were identified with 29 duplicate articles. Among 27 index articles, 1 was quadruple publication and 26 were double publications. Of 29 duplicated articles, 19 were classified as copy, 4 as fragmentation, and 6 as disaggregation. The proportion of duplicate publications in Korean medical journals appears to be higher than expected. Education on publication ethics to researchers is needed.

Key Words : Duplicate Publication as Topics; Korea; Periodicals as Topic; Publishing

Soo Young Kim¹, Chang Kok Hahm^{2,3},
Chong-Woo Bae^{4,5}, Hye Min Cho⁶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allym University Medical College and Kangdong Sacred Hospital,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Committee for Publication Ethics, Department of Radiology¹,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ediatrics², College of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⁴,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

Received : 20 December 2007
Accepted : 25 January 2008

Address for correspondence

Soo Young Kim,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allym University Medical College,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445 Gil-dong, Gangdong-gu, Seoul 134-814, Korea
Tel : +82-2-2224-2406, Fax : +82-2-2224-2409
E-mail : pcolove@hallym.or.kr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Research Ethics Grant of Korean Research Center.



Abstract from Medline: [return to Search Results](#)

J Korean Med Sci, February 1, 2008; 23(1): 131-3.

Duplicate Publications in Korean medical journals indexed in KoreaMed.

SY Kim, CK Hahm, CW Bae, and HM Cho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allym University Medical College and Kangdong Sacred Hospital, Seoul, Korea. pcolove@hallym.or.kr

MEDLINE ABSTRACT

Duplicate publication is considered unethical. It has several negative impacts. To estimate the frequency and characteristics of duplicate publications in Korean medical journals, we reviewed some portion of Korean journal articles. Among 9,030 articles that are original articles indexed in KoreaMed from January to December 2004, 455 articles (5%) were chosen by random sampling. PubMed, Google scholar, Kbase, and KoreaMed were searched by two librarians. Three authors reviewed titles, abstracts, and full text of index articles and suspected articles independently. Point of disagreement were reconciled by discussion. Criteria for a duplicate publication defined by editors of cardiothoracic journals and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were used. A total of 455 articles were evaluated, of which 27 (5.93%) index articles were identified with 29 duplicate articles. Among 27 index articles, 1 was quadruple publication and 26 were double publications. Of 29 duplicated articles, 19 were classified as copy, 4 as fragmentation, and 6 as disaggregation. The proportion of duplicate publications in Korean medical journals appears to be higher than expected. Education on publication ethics to researchers is needed.

SERVICES

- Add to Personal Archive
 - Download to Citation Manager
- MEDLINE**
- Related Articles in Medline

Articles in Medline by Author:

- Kim, SY
- Hahm, CK
- Bae, CW
- Cho, HM

한 홍보로, 그 사용이 널리 활용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2007년도 연구재단(구 학진) 연구윤리 과제에 채택되어 연구 후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2008년 1월에 발간된 이후, 본 임기 기간 중에 각 각회들이 사용하도록 활발히 홍보하여,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참고가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의계신문 2008년 3월 20일

의편협,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출간

박찬일 회장, 의학윤리 고취 좋은 길잡이 될 것

최근 학계에서 연구논문의 중복출판 및 이중게재, 표절 등으로 연구와 관련된 윤리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의편협(회장 박찬일, 연세의대)가 1년여 작업 끝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책자로 발간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찬일 회장은 연구자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윤리 문제에 휘말리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개념에서부터 위반행위의 원인과 위반에 대한 처리까지 상세히 수록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은 의학자들이 확실한 연구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편협이 심혈을 기울여 발간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은 ▲서론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위반행위의 원인 ▲연구윤리(날조 변조 표절, 생명윤리와 동의서, 자료의 분석과 표현 ▲출판윤리(저자됨, 이해관계, 중복출판,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 ▲연구와 출판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위반자에 대한 처리, 위반 논문의 처리, 연구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등으로 편집됐다.

(3) 각종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및 지원

각 학회에서 개최되는 의학논문출판윤리에 대한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에 본 의편협 출판윤리 위원이 강사로 참석하여, 올바른 출판윤리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는데 노력하였다. 2008년도 연구재단(구 학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과제에 <의학논문 연구출판윤리 심포지엄 개최>가 채택되어, 2009년 3월 27일 의편협 정기총회 심포지엄으로 <의학논문 연구출판윤리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출판윤리의 각종 제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0년 2월에 개최된 의편협 주최 편집인 아카데미에서 disclosure statement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심포지엄: 의학논문 연구출판윤리 심포지엄

시간	강의
	사회: 배종우 (의편협 출판윤리위 간사, 경희의대)
14:40-14:45	개회사 임정기 (의편협 회장, 서울의대)
	좌장: 서창옥 (의편협 회장, 서울의대)
14:45-15:15	연구출판윤리의 중요성, 중복출판 함창곡(한양의대)
15:15-15:40	날조, 변조, 표절 김수영(한림의대)
15:40-16:05	생명윤리와 동의 김옥주(서울의대)
16:05-16:30	자료의 분석과 표현 박병주(서울의대)
16:30-16:40	휴식
	좌장: 박찬일 (의편협 전회장, 연세의대)
16:40-17:05	저자됨, 이해관계 홍성태(서울의대)
17:05-17:30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 조승열(성균관의대)
17:30-17:55	연구와 출판윤리 위반 논문에 대한 정보 처리 이춘실(숙명여대)
17:55-18:10	종합토의

(4) 이중게재 사례집 발간 준비

2010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활동 지원 사업 과제로 의편협 출판윤리위에서 제출한 (책임연구자: 함창곡) <의학논문 이중게재 사례집 발간>이 채택되어, 2011년도 상반기 발간을 목표로 하였다. 한국에서 의학학술지 논문에서 이중게재의 유형을 분석하여, 이중게재의 위반사례를 제공하여, 향후 위반의 방지를 위한 실무 지침을 제공할 중요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아래 목차에서 유형 별로 대표적인 예를 2 사례씩 게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수록하였다.

(5)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수행

제5기 기간 중 2건의 한국 연구재단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2008년도 연구과제인 <의학논문 연구출판윤리 심포지움 개최>를 2009년 3월 27일 개최하였다. 2010년 연구과제인 <의학논문 이중게재 사례집 발간>을 2011년 초에 발간하였다. 2010년 연구재단의 우수성과사례 발표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포스터 전시를 하였다.

(6) 대한의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2009년 3월에 공포된 대한의학회의 <대한의학회 의학논문의 출판윤리준수 선언>에서 의편집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준수 내용을 포함하였다.

(7) 출판윤리에 관한 각종 질의응답

한국 내의 여러 학회, 대학, 검찰, 법원 등에서 출판윤리의 위배, 출판윤리의 판단, 출판윤리의 적용 등에 대한 판단과 의견을 구하는 각종 질의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내 의학계열의 학술지의 출판윤리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의편집 제5기(2008.04-2011.03) 동안 이중게재 및 기타 출판윤리에 관한 질의 접수 및 답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범위	건수
저자되기됨	5
중복출판	17
표절	3
가이드라인 사용	2
초록	3
이차게재	1
논문취소	2
저작권, 특허	1

(8) 각종 홍보, 발표

- 일간지, 각종 의학전문지, 전문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출판윤리의 현안에 대한 기사를 발표하여, 홍보하였다. 2010년 7월에 발표된 ICMJE의 ICMJE Form for Disclosure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개정판 공포의 선언문과 sample을 의편집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홍보하였다. ICMJ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2010년 4월 개정판)을 의편집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배종우, 함창곡: 의학논문에서 저자와 저자됨. 대한의사협회지 51(4):294-297, 2008
- 배종우, 함창곡. 의학학술지 및 종합 데이터베이스 누리집 이용에서 새로운 개변과 출판윤리의 이해 대한의사협회지 53(8):685-694, 2010
- 배종우. 연구자가 주의하여야 할 연구 출판 윤리, 녹십자 의보 2010년 4월호
- 김수영.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의 국내외 현황, 녹십자 의보 2010년 4월호

3) 6기 (2011. 4. - 2014. 3. 31) 활동 요약

(1) 발간 사업

가. 의편협 제정 <중복출판 사례집, Sample cases of Duplicate Publication> 발간

2011년 8월 25일 <중복출판 사례집, Sample cases of Duplicate Publication> (저자: 배종우, 김수영, 허선, 함창곡)을 발간 완료하였고, 이를 의편협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2011년 9월 30일 의협신문에 <의학논문 중복출판 사례집>에 관한 서평이 게재되었다.

나. 의편협 제정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판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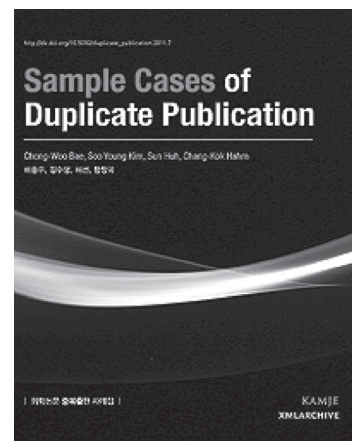
2013년 3월 28일 의편협 제정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저자: 함창곡, 권오훈, 김수영, 김옥주, 박영주, 박현영, 배종우, 서창욱, 이춘실, 최인홍, 한동수, 홍성태, 황인홍) 2판이 발간 배포되고, 의편협 웹사이트 누리집에 등재하였다.

다. COPE의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한글판 번역 완료 및 COPE의 허락 취득

2012년 11월에 COPE의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한글판 번역 완료 및 COPE의 허락 취득하여 의편협 웹사이트 누리집에 등재하였다.

라. 의편협 출판윤리위 정리: 한국의 2004년에서 2009년까지의 중복출판 감소 추이 논문

2014년 2월 15일 의편협 출판윤리위가 정리한 한국의 2004년에서 2009년까지의 중복출판 감소 추이 논



문(Kim SY, Bae CW, Hahm CK, Cho HM. Duplicate publication rate decline in Korean medical journals. *J Korean Med Sci* 2014;29(2):172-175)이 JKMS에 발표되었다. 또한 이 내용은 의편집 웹사이트의 “KAMJE Publication”에 등재되었다. 이 내용의 요약은 의협신문, 디지털보사, 메디포뉴스, 메디팜뉴스, 청년의사, 후생일보, 데일리메디 등 각종 의학전문지에 기사로 게재되었고, 조선일보에 서창욱 회장님 기고 기사(조선일보 발언대 140305: 정확한 논문 DB 시스템이 표절 막는다)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의 월간 뉴스레터에 소개되었다.



<http://dx.doi.org/10.3346/jkms.2014.29.2.172> • *J Korean Med Sci* 2014; 29: 172-175

JKMS

219 |

Duplicate Publication Rate Decline in Korean Medical Journals

Soo Young Kim,^{1,*} Chong-Woo Bae,^{2,*}
Chang Kok Hahm,^{3,*} and Hye Min Cho⁴

¹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andong Sacred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²Department of Pediatrics,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³Health Promotion Center,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⁴Infomul Co, Seongnam; *Committee for Publication Eth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Seoul, Korea

Received: 8 September 2013
Accepted: 18 November 2013

Address for Correspondence:
Chong-Woo Bae, MD
Department of Pediatrics,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892 Dongnam-ro, Gangdong-gu, Seoul 134-727, Korea
Tel: +82-2-440-6130, Fax: +82-2-440-7175
E-mail: baecw@khmc.or.k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rends in duplicate publication in Korean medical articles indexed in the KoreaMed database from 2004 to 2009, before and after a campaign against scientific misconduct launch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in 2006. The study covered period from 2007 to 2012; and 5% of the articles indexed in KoreaMed were retrieved by random sampling. Three authors reviewed full texts of the retrieved articles. The pattern of duplicate publication, such as copy, salami slicing (fragmentation), and aggregation (imalas), was also determined. Before the launching ethics campaign, the national duplication rate in medical journals was relatively high: 5.9% in 2004, 6.0% in 2005, and 7.2% in 2006. However, duplication rate steadily declined to 4.5% in 2007, 2.8% in 2008, and 1.2% in 2009. Of all duplicated articles, 53.4% were classified as copies, 27.8% as salami slicing, and 18.8% as aggregation (imalas). The decline in duplicate publication rate took place as a result of nationwide campaigns and monitoring by KoreaMed and KoreaMed Synapse, starting from 2006.

Keywords: Publishing Ethics; Duplicate Publication as Topic; Periodicals as Topic; Trends; Korea



배종우·김수영·허선·함창곡 지음/의편협 펴냄

서창옥(학술지편집인협회장)

의협신문 2011년 9월 30일
의학논문 중복출판 사례집

의편협가 의학논문의 중복출판 논문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 <의학논문 중복출판 사례집>(저자:배종우·김수영·허선·함창곡)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아래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중복출판 관련 국내 전문가가 작업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에서 중복출판 사례를 분류해 편집인과 편집위원·투고자·전문가심사자·원고편집인·발행인·의학 분야 대학원생 및 전공의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안내서로 국내·외에서 이런 종류의 교재는 처음이다.

이 작업은 국내 의학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미 잘 알려진 중복출판의 세 가지 유형 즉, 복제(copy)·분절 출판(salami)·덧붙이기 출판(imalas)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했고 각각 경우에 해당하는 논문을 찾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사례 형식으로 만들어 정리했다.

이 때 논문은 주제나 날짜를 모두 변경하고 문장을 바꾸어 해당 논문이 어느 것인지 찾는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폐암이면 간암으로, 고혈압이면 당뇨로 사례를 변경했다.

또 이 사례들을 분석해 저자와 소속·가설·대상·방법·결과·새로운 정보·투고일·원 논문 인용 여부·표·그림·참고문헌·연구비 등을 정리한 뒤 중복 출판으로 판정한 이유와 유형 그리고 중복출판 이외의 다른 출판윤리 문제를 기술해 일목요연하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100례를 분석해 그 중에 32례를 교재에 소개했다. 또 그동안 출판윤리위에 질의 응답한 내용을 정리해 흔한 궁금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고찰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복출판을 피할 수 있는지 기술했고, 주요 해결책으로 공개(disclosure)를 제시했다. 즉 저자가 미리 이 자료는 어느 논문의 자료와 같은 것을 사용했다고 밝히면 편집인이 그 논문의 가치를 판단해 수록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또 부록에 중복 출판관련 선언문과 발생할 때 처치 흐름도를 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마지막에 용어 정리를 통해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의학 학술지 편집인의 필독서로 손색이 없다. 교재는 Open Access 이며 의편협 누리집(<http://kamje.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의협신문 2014년 3월 1일

국내 의학학술지 중복출판 비율 확 줄었다 중복출판 방지 캠페인 및 온라인 논문 검색기능 강화 덕분

국내에서 발행되는 의학학술지의 중복출판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SCI 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14년 2월호에는 국내 의학학술지에 대한 이중게재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배종우 경희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와 김수영 한림의대 교수(가정의학)가 각각 책임저자와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논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에 걸쳐 한국의학 학술지의 중복출판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진행된 전국규모의 조사이다.

중복출판이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출판윤리의 부정행위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중복출판이 만연했는데, 이것의 방지를 위해 의협협(KAMJE)는 2006년 출판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복출판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 1997년부터 시작된 영문 초록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와 2007년도부터 시작된 'KoreaMed Synapse(full-text 데이터베이스)'의 개설 등으로 국내외 논문 검색기능이 확립된 것도 중복출판의 감소에 기여했다.

221 |

Table 2. Duplicate publication rates in Korean medical journals (2004-2009)

Parameters	Screened articles by year						Total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Screened articles*	455	467	460	462	466	505	2,815
Suspicious articles [†]	49	46	43	38	19	23	218
Duplicate articles [‡]	27	28	33	21	13	6	12.8
Duplicate publication rates (%)	5.9	6.0	7.2	4.5	2.8	1.2	4.5

*5% of articles were chosen by random sampling from original articles indexed in KoreaMed. [†]According to at least one expert (librarian). [‡]Finally confirmed as duplicates.

2004-2009년 국내의학 학술지의 중복출판 비율

이번 배종우·김수영 교수의 논문은 2004년-2009년의 한국의 KoreaMed에 등재된 논문 가운데 심의를 통해 이들의 중복출판 여부를 연도별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중복출판 비율은 2004년 5.9%, 2005년 6.0%, 2006년 7.2%, 2007년 4.5%, 2008년 2.8%, 2009년 1.2%로 현저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KAMJE의 중복출판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2006년을 기점으로 2004년-2006년인 캠페인 전에 비해 2007년-2009년인 후에서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 중복출판의 유형은 복사 53.4%, 분할출판 19.6%, 덧붙이기 출판 27.1%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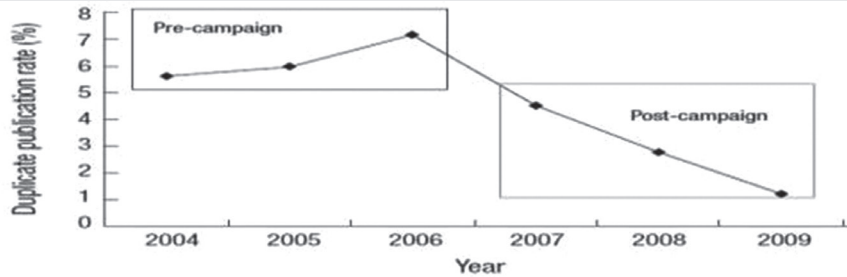


Fig. 2. The campaign for preventing duplicate publications started in 2006, and the duplication rate decreased from 2007-2009 as compared to 2004-2006. KAMJ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2006년 중복출판 캠페인 이후의 중복출판 감소 추세**

배종우·김수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중복출판의 현황에 관한 국내 최초의 전국 규모조사여서 의미가 크며, 현황 파악 및 자료 제공의 의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창욱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회장은 "열악한 재정 지원하에서 6년간 조사사업을 진행한 출판윤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하고, 이번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미국의 PubMed에 버금가는 KoreaMed와 KoreaMed Synapse 등의 훌륭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또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내 의학학술지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 그룹과 국내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발언대 2014 3. 5

정확한 논문 DB 시스템이 표절 막는다

서창욱 연세대 의대 교수

정확한 논문 DB 시스템이 표절 막는다

유명인의 논문 표절 문제가 잇을 만하면 불거진다. 얼마 전 한 무소속 국회의원을 여당이 영입하려는 과정에서 표절 문제가 거론됐다.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황우석 사건'은 지난 10년간 국내외에 큰 파문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한 달 전 일본 이화학연구소 연구자들이 'STAP 줄기세포 분화' 논문을 '네이처'지에 발표한 뒤로 세계적으로 치열한 검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구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을 보면 공공 연구비 지원액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등 공공기관의 연구비가 1990년대 초반부터 눈에 띄게 늘면서 이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결과가 기대대로 나오지 않으면 속이 탄다. 데이터를 위조·조작하거나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연구가 잘돼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난 뒤에도 유혹은 계속될 수 있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뒤 그대로 번역해 외국 학술지에 실는, 중복 게재다.

과거 중복 게재는 '적어도 낱조·변조·표절 같은 사기 행위는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에 대충 넘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엄연한 부정행위다. 하나의 연구 실적을 별 힘 안 들이고 두 배, 세 배로 부풀리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행위 실적 공표는 추후 연구비 신청이나 승진과 연결되기도 한다.

이런 부정을 막기 위해 여러 나라가 '진실성 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연구 부정행위 방지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의학 논문 영문 초록 데이터베이스(KoreaMed) 구축 사업은 시사점이 있다. 자율적인 KoreaMed 구축 이후 중복 게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2006년에 7.2%에 달했던 중복 게재율이 2009년에는 1.2%로 떨어졌다. 최근 데이터는 취합되지 않았으나, 1% 이하로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부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남들이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연구 결과와 논문에 대한 정보를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선 이것이 유능한 연구자를 부질없는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길일 수도 있다.

(2) 한국연구재단에 성과물 제출함

2011년 11월 4일 한국연구재단에 성과물 제출하였다. 한국연구재단에서 2010년 연구윤리 활동지원사업 결과물 (연구책임자: 함창곡, 과제명: 의학논문의 중복출판 분석 사례집 발간 사업)에 2011년 12월 2일에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제2차 연구윤리포럼에 포스터 전시를 위해서 성과물 제출요망 건에 대해서 성과물을 제출하였다.

(3) 각종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및 지원

가. 2012년 의편집 정기총회 (3월 27일) 심포지엄 실시

2012년 3월 27일에 개최된 2012년 의편집 정기총회에서 출판윤리에 관한 심포지엄을 실시하였다.

심포지엄

주제: 의학논문의 저자됨(Authorship)과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시간	강의	
15:00-15:40	저자됨이란?	배중우 (의편집 출판윤리위 간사)
15:40-16:00	다기관 공동연구 논문, 여러 학술지 공동게재에서 저자됨	홍성태 (의편집 부회장)
16:00-16:30	이해관계란:	김수영 (의편집 출판윤리위원)
16:30-17:00	COI의 제출과 표기	한동수 (의편집 출판윤리위원)

나. 2012년 6월 20일 개최된 대한심장학회에서 연구출판윤리심포지엄에 연자 지원

강의	
연구출판윤리 overview, 중요성	홍성태 (서울의대)
표절, 표절의 검색	권오훈 (한술병원)
중복출판	김수영 (한림의대)
저자되기, 이해관계	한동수 (한양의대)

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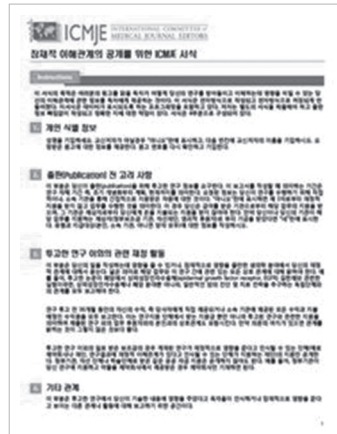
- 2011년 6월 14일 의편집 주최: Crosscheck 설명회에서 김수영위원이 표절에 관한 강의 함
- 2011년 12월 3일 의편집 워크숍 (롯데호텔)에 참석: 함창곡, 배중우
- 2012년 12월 7일 가톨릭의대 연구진실성회의에 의편집 1명 추천의뢰가 와서, 배중우 위원을 추천함
- 2013년 3월 20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출판부정행위 심사위원회 의편집 출판윤리위 위원 1명을 추천해달라는 공식 문서 접수 ==> 김수영 위원을 추천함
- 2013년 9월 13일 연구개발인력교육원(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연구재단부설 기관)에서 개최하

는 한국의학물리학회 연구윤리 특강에 연구출판윤리(위조, 변조, 표절, 출판윤리) 강의자 1명 추천 요청이 있어서 배중우 간사를 추천함.

- 2013년 10월 31일 의편협 12월 개최 7회 아카데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사례집> 부분의 연자로 김수영 교수를 추천함

(4) ICMJE COI Uniform 한글판 번역작업 완료

2012년 8월 10일 ICMJE COI Uniform 한글판 번역작업(한동수 교수님 작성)을 완료하여, 의편협 누리집에 게재하고, 각 학회에서 사용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ICMJE에 한글판에 대해서 허락을 득하였다.



(5)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 라인 2판의 내용 수정

가. 28쪽의 표 2와 중복출판 사례집 16쪽의 표 3-1 내용을 변경

2013년 9월 13일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2판 28쪽의 표 2와 중복출판 사례집 16쪽의 표 3-1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항목	설명
1) 유사한 가설	가설 중 인구집단 관련, 독립, 종속 변수가 거의 동일
2) 유사한 표본 수	연구 재료, 실험동물, 대상자의 90% 이상이 동일
3)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방법	자료 수집, 분석, 제시 방법이 같거나 거의 같음
4) 유사한 결과	결과가 양이나 질 측면에서 거의 동일
5)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제1, 제2, 마지막 저자가 PubMed에 이름이 있는 경우→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6) 새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	추가적인 지식이 거의 추가되지 않은 경우

나. 2014년 2월 6일에 가이드라인 2판 27쪽 한 귀절 (분절출판의 정의)에 대한 변경 처리하였다.

(6) 각종 홍보, 발표

- 2013년 9월 25일에 의편협 <2013년 2월 전면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IRB 관련 안내>을 각 학회에 공문 발송하여 안내하였다.
- 2012년 6월 10일 허선 교수가 EASE학회(에스토니아 탈린)에서 New classification of duplicate publication (Sun Huh, Chong-Woo Bae, Soo Young Kim, Chang-Kok Hahm)을 연제를 발표하였다.

(7) 질의 응답

범위	건수
중복출판	13
표절, 인용	11
저자됨	10
저작권	3
가이드라인	2
취소	1
이차게재	1
기타	13

4) 제7기 (2014. 4. 1- 2015. 7. 30) 활동 요약

(1) 의편협 발행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 발간

2014년 4월 20일 의편협 발행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 제작을 완료하고 의편협 누리집에 업로드하였다.

(2)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자문관련 업무 내규 확정

2014년 5월 9일에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자문관련 업무 내규 확정 (201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였다.



출판윤리위 자문관련 업무내규

1) 질문에 대한 답신 작성의 절차

(1) 공식 질문에 대한 답신 절차

- 절차: 공문으로 접수 → 출판윤리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통보 → 간사는 다음 순서에 의해서 의편협 출판윤리위 위원 중에서 심의자를 선정하여 의뢰 → 의뢰받은 심의자는 심의초안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송부 → 간사는 의편협 출판윤리위 전체 위원에게 회람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심의안을 작성 → 최종심의안을 출판윤리위 위원장과 회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취득 → 답신 송부
- 답신 작성자 순서

(A팀) 권오훈, 김재원 → (B팀) 배종우, 김혜원 → (C팀) 김수영, 이현정 → (D팀) 한동수, 홍정 → (E팀) 박병주, 진보형

- 각 답신 팀이 돌아가면서 답변안을 마련하되, 해당 답신 팀과 접수된 질문의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다음 팀이 답신을 마련하도록 함.
- 답신 작성자는 질문을 받고 3일 안에 답변안을 마무리하여 한동수 간사에게 회신하고, 모든 위원이 검토한 후 질문자에게 답변서를 발송하기로 결정함. 출판윤리위원회 카톡방을 개설하여 질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답신 작성자에게 질문을 전달했음을 알려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함.
- 공식 질문이 접수되면 심의비 20만 원을 청구하고,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회의 실비를 청구하기로 함. 이러한 사항은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함.

(2) 비공식 질문에 대한 답신 절차

- 의편협 홈페이지의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및 Q&A 사례분석을 참고하도록 권유하기로 함. 더 논의가 필요한 경우 전체 위원에게 회람하지 않고 위원장과 간사가 논의하여 개인 차원 수준에서 답신하기로 함.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식 질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3) <중복출판에서 선취권 문제>에 관한 의편협의 견해 게재

2015년 6월 15일 의편협 소식지 55호에 <중복출판에서 선취권 문제>에 관한 의편협의 견해를 게재하였다.

중복출판에서 선취권 문제>에 관한 의편협의 견해

편집인은 논문의 과학적 진실성이 의심스럽고, 표절이나 이미 발표된 내용이 적절한 허락이나 인용없이 출간되었을 때 논문취소를 고려해야 하며 논문을 취소할 때는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때는 취소논문의 저자와 제목을 모두 포함하여 논문취소사유를 알리고 학술지 인쇄본과 웹사이트에 모두 공지해야 하며 서지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동시에 중복출

판을 시도한 경우 어느 학술지가 논문게재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A 학술지에 투고하여 출판되었는데 유사한 내용을 언어를 달리해서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B 학술지에 게재한 중복출판의 경우 시차를 두고 투고, 출판되었기에 A 학술지 논문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중복출판에 따른 논문취소는 B 학술지 논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래 사례의 경우 어느 학술지가 논문게재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까?

유사한 내용의 원고가 언어가 다른 두 학술지(A, B)에 거의 동시에 투고되었다. A 학술지는 투고일과 e-pub 출판일이 앞서고, B 학술지는 투고도 늦고 e-pub 출판도 없지만 인쇄본 출판은 빠르다.

논문을 동시에 중복투고하여 중복출판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출판윤리 위반이다. 편집인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만 투고자가 의도적으로 출판을 노린 경우 이를 발견하긴 매우 어렵다. 일단 출판이 된 경우 중복출판이 확인된 논문을 취소할 때 여러 기관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논문취소 가이드라인,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가이드라인,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행 <중복출판 사례집> 등이 있다. 2009년 발표된 COPE 논문취소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시에 투고되어 동시에 출판이 결정된 경우 게재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저자가 학술지에 출판권 또는 저작권을 양도를 서명한 날을 근거로 삼는 것(precedence may be determined by the date on which a licence to publish or a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was signed by the authors.)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2011년 발행된 <중복출판 사례집>을 판단 근거로 널리 사용해왔고 이 책자에는 논문을 취소할 때 선취권(priority)은 접수일이 우선한다고 기록하고 있다(http://www.kamje.or.kr/intro.php?body=publishing_sample_cases). <중복출판 사례집>에선 저자가 특정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이 그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접수한 것을 저작권의 선취권이라는 개념을 함유한다. 이번 사례에서 COPE 논문취소 가이드라인이나 <중복출판사례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도 논문 게재의 우선권은 A학술지가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에 따라 상충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COPE가 명시하고 있는 동시에 투고된 논문의 개념이 해석하는 이마다 다를 수 있다. 투고된 원고가 전문가심사를 통해 과학적 의미를 가진 학술논문이 된다는 점에서 동시에 투고되어 중복출판된 논문을 취소할 때 우선권은 COPE의 기준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논문게재의 우선권은 COPE가 제시하는 판단기준을 분쟁이 있는 두 양 학술지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e-pub도 출판이므로 A학술지가 먼저 출판된 것은 맞지만 출판일보다 두 학술지에서 저작권 양도 서명 일자를 비교하여 그 일자가 빠른 학술지가 우선권을 가진다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B학술지 편집인은 저자와, A학술지 편집인에게 논문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두 학술지에서 각각 서명일자를 비교하여 그 일자가 늦은 학술지가 COPE 가이드라인에 있는 논문취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질의 · 응답

범위	건수
중복출판	10
표절, 인용	6
저자됨	2
이차게재	1
저작권	4
취소	3
가이드라인	1
기타	4

(5) 발표, 교육, 워크숍

- 2014년 연구윤리국제포럼 (International Forum on Research Ethics 2014) (2014년 10월 30일-31일)에 배종우 출판윤리위원장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출판윤리 활동과 과제, Outstanding activities and tasks for operation of publication ethics conducted by KAMJE (1996-2014)>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2014년 8월 23일 의편협 제3회 논문작성 워크숍에 배종우 출판윤리위원장이 <사례로 본 표절과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6. 국제협력위원회

서정욱(제7대 국제협력위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1) 위원회 주요 활동

국제협력위원회는 의편집가 중심이 되어 창설한 WHO의 WPRIM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와 APAM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WHO에서 발간한 회의 보고서(표 1)와 의편집 소식지(표 2)를 참조할 수 있다.

표 1. WPRIM/ APAME 회의 및 WHO 발간 보고서 목록 (<http://iris.wpro.who.int/>)

WHO-Western Pacific Region (2005). Regional workshop of national focal point librarians on the Global Health Library. Kuala Lumpur, Malaysia. (23-25 May, 2005)
WHO-Western Pacific Region (2006). Informal consult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Manila, Philippines. (30-31 March, 2006)
WHO-Western Pacific Region (2006).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and the Global Health Library with China collaboration. Beijing, China. (11-12 December, 2006)
WHO-Western Pacific Region (2007). Second Informal Consult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Tokyo, Japan. (17-18 May, 2007)
WHO-Western Pacific Region (2007). Second meeting on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Seoul, Korea. (21-23 November, 2007)
WHO-Western Pacific Region (2008). First meeting of th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Seoul, Korea. (4-5 May, 2008)
WHO-Western Pacific Region (2008). Joint meeting of th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nd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Beijing, China. (18-21 November, 2008)
WHO-Western Pacific Region (2009). Informal consultation on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and the Global Health Library. Manila, Philippines. (17 June, 2009)
WHO-Western Pacific Region (2009). Second joint meeting of th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nd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Singapore. (4-5 November, 2009) / Singapore Declaration on Equitable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WHO-Western Pacific Region (2010). Third Joint Meeting of the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nd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and the APAME Forum on Medical Journal Publishing. Hanoi, Vietnam. (3-5 November, 2010)
APAME 2011. The First Congress of APAME. Seoul, Korea (28-31 August, 2011) China- Korea Joint Conference on WPRIM (28 August – 3 September, 2011)
APAME 2012.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Convention 2012. Kuala Lumpur, Malaysia. (31 August – 2 September, 2012) / Kuala Lumpur Declaration on Promotion of Scholarly Writing Skills and Standards in the Asia Pacific Region

APAME 2013.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Convention 2013. Tokyo, Japan. (2-4 August, 2013) / Tokyo Declaration on Equitable and Ethical Publication in Science and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APAME 2014. APAME Convention 2014. Ulanbatar, Mongolia. (August, 2014)
APAME 2015. APAME Convention 2015. Advancing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and Publication: Shifting Paradigms, Trends and Innovations. Manila, Philippines. (24-26 August, 2015) / Manila Declaration on the Availability and Use of Health Research Information In and For Low-and-middle-income Countri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표 2. 의편집 소식지 기사 목록

2006년 7월 (31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31.pdf
KoreaMed: 우리 학술지 MEDLINE 등재의 꿈 세계보건기구에서 꽃을 피우다.
WPRIM 실무자 교육
2007년 12월 (34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34.pdf
WPRIM 서울 미팅 성공리에 개최
2007년 1월 (32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32.pdf
WPRIM 북경회의 참가보고
2008년 11월 (36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36.pdf
WHO Fellowship 중국 연수생 방문
2008년 5월 (35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35.pdf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창립 총회 보고
2009년 4월 (37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37.pdf
[논문소개] 중동 아랍 국가 22개국의 학술지 408종 index medicus 구축
Najeeb Al-Shorbaji. Index Medicus for 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 Emerg Themes Epidemiol 2008;5;14.
2010년 12월 (41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41.pdf
학술정보 공유 사업 WPRIM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
2011년 10월 (43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43.pdf
제1회 APAME 학술대회 성황리에 열려
2012년 6월 (45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45.pdf
제2회 APAME Congress 안내
2012년 10월 (46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46.pdf
APAME Convention 2012 개최
APAMED Central launching
2014년 9월 (52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52.pdf
APAME Convention 2014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
2015년: 9월 (56호) http://www.kamje.or.kr/newsletter/issue56.pdf
APAME 참관기
WPRIM APAME 회의

2) WPRIM 창설 및 현황, 발전 방향

(1) WPRIM 창설의 배경(2006):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Health Library와 Global Index Medicus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정보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 목적에 맞는 특성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면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Global Health Library (GHL: <http://www.who.int/ghl>)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Access to reliable health information for those who need it.*)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개념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GHL의 3대 목표는 1) 일반인, 환자, 보건의료전문가, 정부의 의료정책 입안자 등 각 정보 소비자 계층에게 차별화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2) 의료기관, 사회, 국가, 회사 등 다양한 정보 생산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3)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정보 환경에 따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출판 방식으로 보급한다.

GHL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Global Index Medicus(GIM: <http://www.who.int/ghl/medicus>) 이다. 세계 6개 지역에 따른 특성있는 Index Medicus를 만드는 것이다. MEDLINE이 선진국 중심의 문헌 정보시스템이라면 GIM은 개발도상국의 문헌을 색인하여 정보의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GIM은 WHO의 6개 지역별로 구축하여 통합 검색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기학술지 문헌뿐 아니라 비정기 간행물의 색인을 통하여 국가별 특성이 수용된 자료가 검색되도록 하고 있다.

WHO의 6개 지역 중 4개 지역은 이미 지역별 Index Medicus를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와 함께 주요 저자가 아프리카 지역인 MEDLINE 등재 학술지 논문을 색인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미주 지역기구에서는 MEDLINE 자료에 지역 학술지 자료를 통합하여 검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지중해 지역 국가들은 지역 학술지 편집인협의회를 활성화하면서 학술지 색인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국가 학술지 색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를 제외한 나라의 색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 동부지중해지역(East Mediterranean Region: <http://www.emro.who.int/his/vhsl>)
- 아프리카지역(African Region: <http://afrolib.afro.who.int>)
- 판아메리카지역(Pan American Region: <http://www.bireme.br/bvs/l/ihome.htm>)
- 동남아시아지역(South East Asian Region: <http://library.searo.who.int>)

유럽지역(Regional Office for Europe)과 한국이 속한 서태평양지역(Western Pacific Region)은 구축 준비상태이다.

(인용: 의편협 소식지 2006년 7월 (31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31.pdf>)

(2) WHO 서태평양지역기구의

WPRIM(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 (2006)

WHO 서태평양지역기구는 다른 지역기구보다 늦게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5년 5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각 국가지정 의학도서관(focal point library) 대표자 회의를 열고 WHO 본부, 동남아시아지역기구, 서태평양지역기구가 함께 모여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월에는 서정욱, 조수현, 허선, 김수영, 이춘실 교수가 마닐라 WHO 서태평양지역기구를 방문하여 업무 협의를 하였다. 2006년 3월에는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자문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준비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서태평양지역기구의 전통의학 분야 지역 책임자인 최승훈 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회의를 통해서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학술지 단위로 문헌 색인을 하고 학술지 선정 기준은 상호심사가 이루어지는 잡지로 하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정한다.
- 학술지 논문을 색인하는 Index Medicus 뿐 아니라 학술지 평가 사업을 병행하여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의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Regional Index Medicus에 우선적으로 올려서 Index Medicus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 한국의 KoreaMed와 Komci 프로그램을 의편협(KAMJE)로부터 제공받아 WPRIM을 구축하고 컴퓨터서버는 마닐라 서태평양지역기구의 전산실 장비를 이용한다.
- 서태평양지역기구와 필리핀정부에서 각 1명을 2006년 6월 한국에 파견하여 KoreaMed 및

Komci 운영 기술을 전수받는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WHO 서태평양지역은 한국, 일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나라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등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서태평양의 작은 나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볼 때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의 자료를 우선 통합하여 검색되도록 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Regional Index Medicus를 조기에 출범시킬 수가 있다. 더구나 한국의 KoreaMed를 이 지역 Index Medicus의 토대로 하기로 하였다라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인용: 의편집 소식지 2006년 7월 (31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31.pdf>)

(3) WPRIM(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의 미래 전망 (2006)

WPRIM 구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며 WPRIM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WHO 본부 및 서태평양지역기구 관계자, 그리고 WHO 회의에 참석한 일본, 중국, 필리핀 대표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협력에서 각 국가의 보편적인 협조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주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동료 회원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회의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대표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자국내 협의에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

다음 회의는 2006년 10월에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WHO가 주최하여 각 국가 문헌정보 전문가들이 모이게 되며 중국의 의학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베이징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Asian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APAME)를 결성할 예정이다.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되 다른 회원국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WHO 서태평양지역기구 차원의 사업 자금 마련도 과제이다. KoreaMed의 재정이 대한의학회의 지원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와 무료봉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자랑이기도 하지만 재정적으로 취약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규모있는 살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적절한 시점에 투입해야 한다. KoreaMed만을 운영하는데도 현재의 재정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 WHO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 자금뿐 아니라 Gates foundation (빌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렇지

만 한국 정부와 한국 단체의 출연금이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WHO에 출연금을 내고 그 자금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WHO 사업에 투입되도록 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국제기구 사업방식임을 생각하면 재원 마련에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에 WPRIM의 공식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출범 시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과 일부 국가가 추가되어 약 100개 학술지가 참여하는 모습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WPRIM의 시작일 뿐이며 2010년까지 한국의 100개, 일본의 1,000개, 중국의 1,500개 등 3,000개 학술지가 색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발행되는 모든 학술지를 색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술지의 1/2 수준을 색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나라를 돕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WPRIM 사업을 주도하고 의편협가 아시아태평양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용: 의편협 소식지 2006년 7월 (31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31.pdf>)

(4) WPRIM 실무자 교육 (2006)

235 |

지난 2006년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간 WPRIM 필리핀 실무자 2명(Mark Bendo, Wilfred Manuel B, Villarruz)이 본 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WPRIM 관련 실무교육을 받았다. 교육의 내용은 1) KoreaMed 와 KoMCI Web XML 파일의 작성법, 2) KoreaMed의 KoMCI Web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작성법, 3) XML DTD 작성법, 4) XML Data 업로드 방법, 5) 의학학술지 평가 방법등이 있었다.

(인용: 의편협 소식지 2006년 7월 (31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31.pdf>)

(5) WPRIM 북경회의 참가 보고 (2007)

2006년 12월 10-13일 북경에서 개최된 WPRIM 북경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수현, 홍성태, 서정욱, 장현도, 이명중(한의학)이 참가하였다.

회의명: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and the Global Health Library with China Collaboration.

장소: 중국중의과학원 (CACMS)

참석 현황: 한국(5명), 중국(19명), 일본(3명), 필리핀(3명), 베트남(1명), WHO/WPRO 관계자(6명)

회의 배경 및 진행

- 이번 Beijing meeting의 주요 목적은 WHO/WPRO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WPRIM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다.
- 각 나라의 대표단들은 자국 학술지 발행과 DB 구축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브라질의 Abel Packer가 중남미 지역의 구축 사례를 설명하였다.
- 각 나라의 대표단들은 이번 미팅에서 WPRIM 학술지의 기본 조건과 국가별 학술지 선정위원회 구성 그리고 학술지 평가 과정, 학술지 파일 전송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결정 사항

- WPRIM을 측면 지원하고 아시아지역의 학술지 수준 행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 및 지식 공유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편집인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WPRIM 학술지의 선정을 위해 각 나라에 국가별 학술지 선정 위원회(National Journal Selection Committee)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다. 2007년초에 WPRIM이 개통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 WPRIM에 등재되는 학술지는 반드시 자국내 학술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한 후 등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국내 사정으로 인해 국가별 학술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술지 편집인이 직접 Regional Journal Selection Committee에 학술지 등재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 내년도 회의는 역시 2007년 10월에 중국에서 개최하며 이번 미팅에 참가하지 않은 WPR 내 다른 나라의 참여를 초청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얻은 결론은 국제화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해 국제교류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야하고, WPRIM과 아시아 지역의 의학지식의 공유와 유통의 허브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이 사업의 취지를 정부 기관에 알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인용: 의편집 소식지 2007년 1월 (32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32.pdf>)

3) APAME 창설 및 발전

(1)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창립 총회 보고 (2008)

2008년 5월 4-5일 COEX에서 APAME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학술활동, 인적 교류, 교육사업, 학술지 평가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세계보건기구 (WHO)와의 협력을 통하여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학술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었다. 12개국으로 출범한 APAME의 초대회장으로는 합창곡 교수(전 의편협 회장)가 그리고 부회장은 John Arokiasamy (말레이시아)가 선출되었고 사무총장은 서정욱 교수(서울의대 병리학)가 선임되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APAME의 사무국을 회장이 있는 한국에 두기로 결정하였고 5월 6일 주수호 의협회장, 김진상 의학회장, 임정기 의편협 회장, 합창곡 APAME초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 현관에서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인용: 의편협 소식지 2008년 5월 (35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35.pdf>)

(2) 학술정보 공유사업 (WPRIM)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 (2010)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질병이 많고 수명이 짧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건강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며 돈을 적게 들고도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학술정보가 없다면 온갖 추측과 비과학적 의료가 판을 칠 것이고 건강한 세상은 만들어질 수 없다.

인터넷에 널려 있는 것이 건강정보인데도 학술정보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건강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때로는 잘못 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때로는 의료인들조차 어떤 정보가 옳은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확성과 과학성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학술 논문에 대한 상호심사 제도이다. 전문가들이 스스로 심사 평가하고 선별한 정보를 학술지에 게재하여 올바른 정보만 실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호심사를 통하여 논문이 선정되어 출판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라면 (현재의 지식에 입각해서 볼 때) 과학적이고 유익한 정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각 나라에서 발간하는 보건의료분야 학술지 편집인은,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경험하는 보건의료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들을 수록하려고 노력한다. 국제적인 학술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나라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는 그 지역을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국제적인 정보 색인 시스템은 정보 수용 분량의 한계성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 학술지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있는데도 그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런 전문학술정보의 생산과 활용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를 6개 광역으로 나누고 광역별 의학정보색인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 지역의 의학정보색인이 WPRIM(서태평양의학색인: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이며 사업의 초창기부터 우리나라 편집인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편협, KAMJE)는 KoreaMed, Komci, KoreaMed Synapse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 공개하여 우리나라 학술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여 왔다. 2005년부터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문학술정보를 색인하는 사업 WPRIM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에는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를 창설하여 합창곡 회장을 중심으로 편집인 활동을 주도해 왔다. 2010년 5월에는 중국에서 WPRIM 데이터베이스를 공식 개통하였다.

2010년 11월 3-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3차 APAME-WPRIM 합동회의, eHealth 회의 및 APAME forum 등의 행사는 WPRIM 및 편집인 활동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회의였다. WHO, 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고,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에서는 합창곡, 서창욱, 조수현, 이춘실, 서정욱 교수가 참석하였다.

성공적인 WPRIM 개통이후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발표 등이 있었고 이들 자료의 활용 사례 등에 대하여 이춘실 교수 등의 강의가 호평을 받았다. 또한 WPRIM 사업의 확대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WPRIM이 서지정보 중심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WPRIM Center Library Network를 구축하여 각국의 중심 도서관에서 원문제공 서비스를 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통한 색인 활용도 증대를 위하

여 각국의 주요 포털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그 시범사례로 한국에서 NHN 과 Content Provider Agreement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APAME 임원을 개선하였다. 함창곡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새 회장으로 말레이시아의 John Arokiasamy를 선출하였고, 서창욱 교수는 사업 담당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Committee for editorial policy and ethics 의장으로 서정욱 교수가 임명되었다. 2011년 8월 28-31일 서울에서 APAME congress를 KAMJE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KoreaMed, KoMCI, KoreaMed Synapse 사업이 성숙된 모습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 각국에 소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의 개발도상국의 학술정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2011년 8월 제1차 APAME 국제학술대회를 서울에서 치르면서 국제적인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인용: 의편집 소식지 2010년 12월 (41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41.pdf>)

(3) 제1회 APAME 학술대회 성황리에 열려 (2011)

239 |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Asia-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APAME) 학술대회가 2011년 8월 28-31일 고려대학교 밀레니엄 삼성관에서 개최되었다. 나흘에 걸쳐 진행된 학술대회에는 한국·일본·중국·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영국·네덜란드에서 온 의학학술지 편집인 1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문작성법·저자되기·PubMed 정책소개·크로스 체크·표절방지·출판윤리 등 다양한 주제의 최신정보가 제공됐다.

이 자리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구(WPRO)는 의편집에, 아시아지역의 의학 지식 정보 유통망 구축 및 의학학술지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서창욱 의편집 회장(연세의대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의학학술지 수준향상 및 의학정보 유통망 구축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아시아 저개발국과 개도국의 의학정보와 지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의학정보 유통망 구축을 통해 질병 퇴치와 인류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태평양지역의 의학정보 유통망 구축을 추진해 온 WHO는 의편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oreaMed'를 벤치마킹해 2006년 서태평양지역 인덱스메디쿠스(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를 구축했으며, 의편집은 WPRIM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기술정보를 비롯한 운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또 이 과정에서 아시아지역의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의 정보교류 및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APAME 설립을 주도해 2008년 5월 한국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시켰다.

(인용: 의편집 소식지 2011년 10월 (43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43.pdf>)

(4) APAME Convention 2012개최 (2012)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Convention 2012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WPRIM회의가 진행되었는데 WPRIM(WPRIM) journal selection process의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 심사 사이트가 제안되었다.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학술지의 심사 방법 개선이 결정되었다. 또한 각국의 National Journal Selection Committee의 기준과 결정을 존중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학술지 선정과정에서 후보학술지로 한국(13개), 일본(4개), 말레이시아(4개), 필리핀(1개), 캄보디아(1개) 학술지가 심사를 통과하였다. 한편 WPRIM의 활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WPRIM steering committee를 조직화하기로 하였으며 WPRIM journal selection committee의 새 위원장으로 서정욱 국제협력위원장이 선출되었다.

APAME회의에서는 SEARO 국가의 참여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서창욱 의편집 회장이 APAMED Central 추진 경과와 사업 내용을 소개하였고 APAMED Central이 APAME의 공식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APAME 총회에서는 신입 회장에 Kiyoshi Kitamura (동경대), 부회장에 서창욱 의편집 회장과 Wilfred Peh(싱가포르 국립대), Dai Tao(중국의학회 정보연구원장)가 임명되었고,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y Committee 위원장으로 서정욱 국제협력위원장이 임명되었다.

이번 APAME 학술대회에서는 WAME 회장의 강의를 비롯하여 Journal networks and policies, Publishing: direction and evolution, Journal Management, Ethical issues in publishing, Institutional repositories and libraries,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관련 주제

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Kuala Lumpur 선언이 공포되었다.

(인용: 의편협 소식지 2012년 10월 (46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46.pdf>)

(5) APAME Convention 2014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 (2014)

APAME Convention 2014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4 학술대회)와 제1차 몽골 의학논문작성 워크숍이 2014년 8월 13-17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었다. 모두 16개국 8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몽골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MAMJE, 회장: P. Nymadawa)가 주최하고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와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SEARO) 및 몽골 사무소가 후원하였다. 한국에서는 의편협 임원을 중심으로 12명이 참가하였다.

회의 학술세션에서 총 24개 구연과 10개의 포스터가 발표되었고 한국 참가자가 7편 구연과 3편의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학술세션은 지식공유, 의학학술지 출판, 학술논문의 질적 향상, 학술지의 평가, 세계보건 학술문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하였다. APAME 초대 회장 함창곡 교수와 현 회장 Kiyoshi Kitamura 교수, 차기 회장 Jose Lapena 교수, MAMJE 회장 Nymadawa 교수 등이 적극적으로 연제를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였다. 대회 전인 13-14일에 있었던 의학논문작성 워크숍에서는 국내에서 홍성태 의편협 회장이 연자로 참여하였고 40명의 학술지 편집인이 교수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19개의 강의와 4회의 그룹토의로 진행되었다.

15일 열린 WPRIM 학술지 선정위원회에서는 한국의 학술지 10편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Fiji, 일본의 학술지 각 1편 등 14편의 새로운 학술지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WPRIM은 575개 학술지, 521,367편의 논문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로 성장하였다. 이어 열린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필리핀의 Jose Florencio Lapena, 부회장 서정욱(한국), Kiichiro Tsutani(일본), Dai Tao (중국), 사무총장 Wilfred Peh (싱가포르)을 선임하였다. Editorial policy and ethics 위원회는 Looi Lai Meng (Malaysia), Sirajul Islam Molla (Bangladesh); IT and Library 위원회는 Chinmay Shah (India), Fang An (중국); Education 위원회는 Merlita Opena (Philippines) Rajeev Kumar (India) 를 각각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새로 Ad hoc committee for APAMED Central을 만들어 권오훈 (한국), Amit Joshi (Nepal)를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APAMED Central은 APAME의 한 기능으로 권오훈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끌게 정리되었다.

2015년에는 APAME 학술대회가 8월 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WAME 학술대회가 10월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용: 의편협 소식지 2014년 9월 (52호) <http://kamje.or.kr/newsletter/issue52.pdf>)

(6) 2015년 WPRIM APAME 회의 (2015)

저개발국가에서 발표하는 학술 논문의 활용과 색인을 촉구하는 마닐라 선언(MANILA DECLARATION ON THE AVAILABILITY AND USE OF HEALTH RESEARCH INFORMATION IN AND FOR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IN THE ASIA PACIFIC REGION)이 발표되었다. 선진국 중심의 학술정보 발표와 유통만으로는 저개발국가의 건강증진에 충분하지 않으며 저개발국가에서 일어나는 질병정보가 선진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저개발국가의 논문 발표를 촉진하고 발표되는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발표된 논문이 더 많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APAME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지 편집인의 협력과 서태평양지역의학인덱스(WPRIM)와 같은 지역 논문 색인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WPR)에서 발행하는 의학 분야 학술 논문을 색인하는 서태평양지역 의학 인덱스(WPRIM) 회의와 APAME 2015년 학술대회에서 2015년 8월 26일 공개되었다.

WPRIM 회의에는 8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호주, 브루나이, 몽고, 파푸아뉴기니, 피지 그리고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가 참석하였고 옵서버로 인도, 타이, 미얀마, 네팔, 부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WHO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소 등이 참석하여 총 20개국과 WHO의 2개 지역 사무소가 참석하였다. WPRIM 회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현황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의 Marie Villemin과 중국 의학과학원 의학정보연구소 (IMICAMS)의 Fang An은 현황보고를 통하여 “WPRIM 데이터베이스는 2006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현재 12개국의 의학분야 논문 553,176건을 색인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성장하였다”고 하였다. 이번 학술지 선정위원회는 22개의 신규학술지를 추가 선정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토론이 있었다. 서정욱 WPRIM 학술지선정위원회 의장(APAME 수석부회장)은 “WPRIM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2016년 WPRIM 회의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품질 개선 방안으로 “학술지 선정을 위한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편집위원장, 행정 책임자의 연락처, 데이터베이스의 생산과 제출에 대한 예상 자료 그리고 메타데이터 작성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하는 신청 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존 학술지에 대하여는 학술지 현황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APAME 회의는 각국 대표자회의(8월 24일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와 학술대회(8월 25-26일, 마닐라 소피텔호텔)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APAME 각국 대표자회의에서는 APAMED Central 분과(분과장 권오훈 교수) 외 3개 분과(편집정책 분과, 정보기술 및 도서관 분과, 교육분과)의 분과 토론에 이어서 활동보고가 있었다. APAME는 2008년 서울에서 의편협(회장 홍성태 대한의학회 간행이사)의 주도하에 창설되었으며 한국 등 2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APAME 학술대회는 COHRED / Global Forum on Research and Innovation for Health 2015(이하 Forum 2015)와 함께 진행되어 역대 최대 행사로 진행되었다. Forum 2015에서는 국제보건과 저개발국가의 의학 연구에 대한 다양한 세션이 열렸다.

APAME 주관으로 저개발국가에서의 학술 지식 전파 전략에 대한 세션도 열렸으며,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권오훈 부회장이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Marie Villemin, WHO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Charles Raby, BMJ Open(영국의학저널)의 Trish Grove 편집위원장, Nature 저널출판부 Martin Delahunty 대표와 나란히 토론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서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위원회 홍성태 회장, 권오훈 부회장, 오세정 기획평가위원장, 서정욱 국제협력위원장, 이춘실 교수 등 총 28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홍성태 교수 등 3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1개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인용: 의편협 소식지 2015년: 9월 (56호) <http://www.kamje.or.kr/newsletter/issue56.pdf>)

단체회원



KJIM의 SCIE등재를 위한 긴 여정

양철우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편집위원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서론

대한내과학회 영문학술지(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KJIM)는 1986년 1월에 첫 호가 발간되었다. 그 당시 영문학술지를 발간한 대한내과학회는 상당히 깨어 있었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임원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원대한 시작과는 달리 KJIM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20여 년간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그 사이 국내학술지들이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SCIE)에 하나둘씩 등재되면서 상대적으로 KJIM에 투고되는 논문은 점차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KJIM 간행위원들 사이에서 극단의 조치 없이는 학회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KJIM의 SCIE등재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SCIE등재를 준비하였으며 2014년 2월 SCIE에 등재되었다. KJIM 창간 28년만이며 SCIE등재를 본격적으로 준비한지 7년 만의 일이다. 이 글을 통하여 KJIM의 SCIE등재 준비과정 및 KJIM의 진화하는 모습을 정리하여 보았다. 국제학술지로 발전을 준비하는 다른 학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47 |

KJIM의 SCIE등재를 위한 준비작업과 첫 번째 도전

KJIM이 SCIE등재를 계획한 것은 2007년부터였다. 당시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대한내과학회의 발전 방향 중 하나로 KJIM의 SCIE등재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하

여 제도적인 지원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발맞추어 대한내과학회 간행위원회도 변화를 시도하였다. 우선 간행위원회를 국문과 영문으로 분리하고 SCIE등재를 위한 task force team (TFT)을 구성하였다. TFT는 준비작업으로 기존의 KJIM의 투고규정 및 홈페이지를 새로이 정비하고 peer review system을 개선하였다. 무엇보다도 editorial board member수를 늘리고 국제화하는데 노력하였다.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7월 첫 번째 SCIE등재 신청을 하였다. SCIE등재 신청을 할 당시 KJIM의 impact factor (IF)는 0.41이었으며 Web of Science에 등재된 내과계 학술지 133개 중 111위였다. 2년간 열심히 준비하였다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등재 신청 1년 후인 2010년 9월 Thomson Reuters로부터 KJIM의 impact factor(IF)가 낮아서 탈락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다행이었던 점은 Thomson Reuters에서 KJIM을 Biosis prereviews와 Biological abstract에 계속 유지시켜 주었으며 이는 IF를 높이면 SCIE에 등재시키겠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었다.

첫 번째 SCIE등재 도전 실패 후 KJIM의 변화

등재 실패 후 간행위원들이 얻은 교훈은 IF의 향상 없이는 SCIE에 등재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분기에서 격월로 출판 횟수를 늘리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회원들에게 투고를 권고하는 홍보와 연구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또한 학회에서는 학회 연구비 지원 규정과 전문의 시험자격 논문제출 기준을 개정하여 KJIM에 원저를 게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전문의 시험자격을 인정하였다. 간행위원회에서는 국문 원저(original article) 중 우수한 논문을 선별하여 영역 논문으로 전환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번역료, 논문 교정비, 게재료, 별책비를 면제하여 주었다. 또한 간행위원들의 적극적인 KJIM 논문투고를 권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원저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격월로 출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 학회지의 구성을 다양화시키는 것이었다. 원저와 증례의 두 가지로 구성된 현재의 내용으로는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자체 평가 하에 다양한 구성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원저와 증례 이외에 Review, editorial, letter to the editors, images of

interest, guidelin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다 재미있는 학회지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우수한 review article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10년과 2011년에 게재된 분야별 논문의 인용 횟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review article이 편당 인용 횟수는 6.92로 original article(1.91), case report(0.61)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review article을 투고할 우수한 연사를 간행위원들로부터 추천 받아 연사 목록을 작성하고 투고요청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바쁜 연사들로부터 review article을 받는 것은 몹시도 어려운 일로 투고 승락률은 4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청탁 편지를 보내어 한 개의 review article이라도 더 받으려 노력하였다.

네 번째, 독자들의 KJIM의 인용 접근로를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Thomson Reuters, SCOPUS, MEDLINE 등 색인할 기관의 주소를 정리하고 각 기관에 편지를 보내고 색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PubMed에 색인되면서 KJIM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PubMed Central에 논문전문이 실리면서 인용지수는 탄력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249 |

다섯 번째, 회원들과 간행위원들의 KJIM 인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우선 회원들에게 수시로 KJIM의 IF 상승을 메일로 보내고 아울러 논문 인용 협조 편지를 보냈다. 아울러 간행위원의 KJIM 논문 SCI 인용 리스트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행위원들의 KJIM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역량 있는 간행위원들은 KJIM에 review article을 게재하고 인용함으로써 인용지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KJIM을 인용한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편지도 정기적으로 보내어 회원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KJIM 인용지수의 상승과 KJIM의 진화

IF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KJIM의 인용지수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IF는 0.36이었으나 2009년 0.41, 2010년 0.64, 2011년 1.1로 비로소 1.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2012년에는 1.3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KJIM을 인용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많고 세계 유수기관 및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에서 KJIM

을 인용한다는 점에서 KJIM이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F의 상승과 더불어 KJIM은 Cover page, Character, English correction, Abstract format, Original article의 Key message 도입, Table과 Figure format을 독자들이 읽기 쉽고 국제적인 수준이 되도록 세련되게 수정하였다. 홈페이지는 Original article의 Main content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구성하였으며 Ahead of print, Current issue, Archive, Most read, Most cited의 5가지 제목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특히 KJIM의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모두 PDF file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쉽게 원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KJIM은 SCIE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어교정, 논문교정, 출판회사, 홈페이지를 개선하게 되었고, 학술지 자체도 편집과 구성을 새롭게 하여 국제적인 학술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학술지명과 출판사 변경에 대한 격론이 있었다. KJIM 이름 자체가 너무 구식이고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학술지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과학술지라는 의견을 존중하여 학술지명을 고수하기로 하였다. 출판사의 경우 SCIE등재 경험이 있는 국제적인 출판사를 고려하였으나 이미 상당부분이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KJIM이 외국출판사를 통하여 얻는 장점이 크게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국내 출판사를 통하여 출판하기로 결정하였다.

SCIE등재 두 번째 도전

3년간의 준비작업을 통하여 간행위원들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IF가 0.4에서 1.3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 발행하는 다른 SCIE 학술지와 대비하여 경쟁력을 확인하였으며, 학회지 발간, 홈페이지 및 출판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다시 한번 SCIE 도전을 계획하게 되었다.

우선 Thomson Reuters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학술지 선정기준 (Journal publishing standards, Editorial content, International diversity, Citation analysis)에 대한 KJIM의 장단점을 보완하였으며 등재 시점을 2013년 9월로 정하고 평가대상 학술지인 9월호, 11월호, 2014년 1월호 원고를 점검하였고 일차 등재신청과는 달리 전자신청을 계획하였다.

전자신청 시 가장 어려운 문제는 'KJIM의 unique feature를 어떻게 쓸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우선 몇 가지로 정리하여 큰 줄거리를 만들었다. 첫째, KJIM은 한국을 대표하는 내과 분야의 영문잡지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둘째, 내과 영역의 광범위한 지식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셋째, 양과 질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넷째, 3년 전 등재신청 시 지적된 낮은 citation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KJIM이 지난 3년간 노력했던 일들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물론 이미 SCIE에 등재된 다른 학술지의 SCIE등재 신청 편지를 참조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일련의 준비작업을 통하여 KJIM의 SCIE 2차 등재신청은 2013년 8월 시행되었다. 등재신청은 전자신청으로 진행되었으며 등재 신청 6개월 후 Thomson Reuters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Journal Evaluation Status Request를 통하여 KJIM의 SCIE등재 확인여부 편지를 보냈으며 3일 후 Thomson Reuters사로부터 SCIE등재 확인 편지를 받게 되었다.

결론

KJIM의 SCIE등재신청 시 각가지 소문이 많았다. 특히 학술지 이름에 Korea가 들어가면 어렵다, 해외출판사와 손잡아야 가능성이 높다, 한번 떨어지면 5년 이내에는 어렵다, 적어도 impact factor가 2 이상 되어야 한다는 등 모두가 KJIM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소문들이었다. 그러나 KJIM이 SCIE에 등재됨으로써 이러한 소문들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KJIM의 SCIE등재 요인은 완성도 높은 학회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IF 상승과 일치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회 비전과 지원, 간행위원들의 의지가 합쳐져서 가능했던 일로 생각된다. KJIM 창간 후 28년 만에, SCIE등재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지 7년 만에 SCIE에 등재되었다. 길고도 힘든 여정이었다.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김태일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편집장 / 대한치주과학회 편집이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부원장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

| 252

대한치주과학회는 1960년 10월 7일 우리나라 치주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창립되었으며, 반세기가 넘는 시기를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 치의학계의 대표적인 학회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왔다. 학술적인 면에서 능동적인 기여를 위해 본 학회는 1971년부터 대한치주과학회지를 창간하여 학술활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대한치주과학회지는 초기에는 연간 1회씩 발간하다가 1988년부터 연간 2회 발행으로 늘렸고, 1993년부터 연간 3회 발행, 1996년부터는 연간 4회를 발행했으며 2005년도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07년부터는 연간 5회로 증보 발간하던 중,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심사에서 제기된 학술지 국제화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2010년부터는 학술지 제호를 기존의 대한치주과학회지에서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로 변경하고 전문영문으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로 탈바꿈시키는 동시에 격월간 발행간기를 가지는 학술지 발행 체제로 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운영하는 KoreaMed와 Synapse 등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양 색인에 모두 등재된 바, 궁극적으로는 학술지 국제화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음이 향후 저명 국제학술색인 등재판정 결과로 밝혀졌다.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는, 2010년에 국내 치의학 분야 학술지로서는 최초로 미국국립의학도서관과 미국국립보건원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의학학술색인인 PubMed 및 PubMed Central (PMC)에 등재되었고, 2011년에는 Elsevier사가 운영하는 국제학술색인인 SCOPUS에 등재되었다. 한편, 이러한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의

수준을 높이 평가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11년도에 다년도 국가 과제인 ‘학술지 국제화 지원사업’에 국내 치의학학술지 중에서는 처음으로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를 선정하여 3년간 안정적인 국고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아 더욱 내실 있는 국제학술지로 만들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는 2014년에 Thomson Reuters사의 국제학술색인인 Web of Scienc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되었고 2015년에는 SCI 학술지들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평가에서 1.145의 IF 수치를 받는 등 국제학술지로서 순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국내학술지로서의 위치에 머무를 수도 있었던 대한치주과학회의 학술지를 세계 과학계에 기여하는 국제학술지로서 위상 정립을 가능하게 해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바탕으로 대한치주과학회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그동안 입증된 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Korean Journal of Urology(KJU)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박광성

Korean Journal of Urology 편집위원장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의편협은 국내 의학학술지가 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지난 20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국내 의학학술지의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Korean Journal of Urology(KJU)도 국제학술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의편협으로부터 많은 협력과 도움을 받아왔다. 이에 의편협과의 교류를 통해 KJU가 얻었던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 254

KJU는 대한비뇨기과학회 공식 학술지로서, 1960년 “대한비뇨기과학회잡지”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었다. 1979년 “대한비뇨기과학회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99년 KCI 등재 후보지, 2002년 KCI 등재지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비뇨기과학 분야의 종합 학술지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이 후, 국제학술지로 도약을 준비하면서 2005년 SCOPUS와 2009년 EMBASE에 등재되었고, 2009년 현재의 “Korean Journal of Urology”라는 영문명으로 학술지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0년 학술지의 완전 영문화를 시행하였고, 그 해에 PubMed Central(PMC)와 PubMed에 등재되고, 2014년 MEDLINE에 등재되면서 국제학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4년 SCImago Journal Rank(SJR)에서 비뇨기과학 분야에서 상위 50%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SCI(E)에 진입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또한 2014년부터는 비뇨기과 세부 분과학회인 대한내비뇨기과학회,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의 공식 학술지로 공동 편집을 하고 있다.

KJU의 발전 과정에 의편협의 협력과 도움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첫째, 의편협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술지 발전을 위한 워크숍, 심포지엄, 편집인 아카데미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지 교육 프로그램은 편집인뿐만 아니라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학술지의 질적인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둘째, 의편협의 학술지 조사 및 평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술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해 주어 학술지의 국제화에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의편협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활동이다. 의편협은 영문초록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2006년 Google Scholar에서 KoreaMed 논문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KJU의 논문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창구가 되었다. 아울러 Synapse를 통해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전세계 어디에서든 논문 전문을 검색할 수 있다. 아직 SCOPUS나 PubMed 등에 등재되지 못한 학술지라면, 해외에 학술지를 알릴 수 있는 이보다 좋은 창구는 없을 것이다.

넷째, 전자저널(e-journal) 및 학술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도움이다. 이 사업은 주로 의편협과 관련이 있는 XMLink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KJU e-Journal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술지 편집진과 독자 사이에 상호교류가 가능하다. KJU의 경우, YouTube를 이용하여 동영상에 있는 논문을 게재하는 등 인쇄본에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시도로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달 1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Video Interview with Author를 통해 저자가 직접 논문을 독자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논문에 대한 흥미를 끌게 하고 SNS를 통해 연구결과를 홍보할 수 있게 하였다. Facebook이나 Twitter를 통해 독자와의 쌍방향 교류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이 PubMed를 통해 얼마나 읽혀지고 인용되었는지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55 |

마지막으로, 학술지 실무에 대한 빠른 조언이다. 의편협 정보위원회에서는 학술지 실무상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신속하게 조언해 주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린다.

의편협은 오늘의 KJU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학학술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동안 의편협이 KJU의 발전에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의편협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개인회원

자랑스러운 우리 학술지

허 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정보관리위원회 간사와 위원장(1996-2011년)

2015년 9월 11일 오후 런던에 있는 The Lancet 출판부를 방문하여 Product Head인 Dan Lewsley 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XML 제작을 발행 과정에서 어느 순서에서 제작하는지와 자학회지를 어느 수준에서 확장할지 질의 응답하면서,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인쇄본, 온라인판을 보여주고 전문가로서 조언을 부탁하였다. 하나하나 살피고는 특별히 추가할 의견이 없이 훌륭하다고 하였다. 적어도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The Lancet에 비하여 영향력지표, 명성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어도 type-setting, 온라인판에서 국제 표준을 잘 따라서 비견할 만함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당연히 학술지 편집인과 편집위원, 학회 집행부가 학술지 중요성을 잘 알고 적극 투자하고 헌신한 결과이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집)의 역할은 더 언급하지 않아도 지대함을 모두 알고 있다. 학술지 평가를 통하여 다양한 학술지의 기본 양식과 형식(style and format)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끊임없이 편집인과 원고편집인 그 외 출판 관계자를 위한 훈련과정을 개최하여 국제적인 학술지 표준을 제시하고 전문 편집인으로 역량을 키우도록 도왔다.

2008년 발행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과 함께 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0년'에 초창기부터 의편집 정보관리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이룩한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PubMed Central에 등재되면서 이룬 내용을 정리하려고 한다.

2015년 9월 9일-11일 런던에서 열린 Association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 (ALPSP) Conference 2015에 참석하고 The Lancet에 들러 대화 나누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어떻게 국제상업출판사와 경쟁을 하면서 명성을 유지하고 인류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돌이켜 보았다. 이미 국제 학술지 시장은 Springer-Nature, Elsevier, Wiley-Blackwell을 비롯한 대형 상업출판사가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학술지를 추가 발행하고 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워나가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 The Lancet만 하여

도 The Lancet Oncology, The Lancet Neurology, The Lancet Psychiatry 등 자학술지를 계속 발행하고 앞으로도 매년 2-3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PLoS One과 같은 Mega Journal 성공 사례를 보고 SpringerPlus, eBioMedicine, Nature Communication과 같은 학술지를 발행한다. 이런 학술지 출판사에서는 독창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성만 갖추면 자신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같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위와 같은 Mega Journal 또는 종합학술지에 가도록 유도한다. 이런 전략으로 대형 상업출판사에서 더 많은 논문을 생산하고, 전 세계 연구자는 이런 곳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끊임없이 더 투고를 하게 된다. 영향력지표가 높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비영리 학회지로 이런 시장에서 경쟁하고, 전 세계에서 투고를 유도하여, 명성을 유지하고 학회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발행할 수 있을까?

우선 2006년으로 되돌아 가보자. 미국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2000년부터 PubMed Central (PMC) 을 만들어, 전문(full text)을 영문으로 발행하는 의학학술지는 PMC XML을 제작하여 기탁하면 PubMed에 등재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우리나라 학술지 가운데 우선 기생충학잡지부터 등재시키고 싶었다. 그때 편집인에게 건의하였으나 경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였다. 계속 해가 지나가도 해결책은 없어서, 2006년 여름방학, 모든 일을 미루고 과거에 보던 XML 교재를 다시 한번 읽고 기억을 되살렸다. 이후 PMC 누리집(homepage)에서 tag 102 항목을 공부하고, 편집을 맡고 있는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논문 한 편으로 예제 파일을 만들어서 PMC XML validation을 하루 만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 XML 파일을 HTML로 변환하여 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변환하는 프로그램으로 Xalan-C나 Xalan-Java를 사용하여야 하였다.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어서 결국 KoreaMed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고향훈씨에게 부탁하여 Xalan-C로 변환을 성공하고, 화면에서 HTML 파일로 잘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닷새 만에 공부하고 코딩 작업하고 점검하고 변환하여 완성한 것이다. 즉, 우리도 PMC XML을 만들어 기탁할 수 있고 그러면 MEDLINE 등재지가 아니라도 PubMed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학술지 발전에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자도 PubMed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인용하지 않던 행태에 비추어, PubMed에서 검색된다는 것은 전 세계 학자에게 노출시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후 의편협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대상으로 PMC XML 제작에 대한 워크숍을 2006년 8월 11일 열고 지속하여 PMC XML을 다루었다. 이때 김수녕 교수께 부탁하여 DrXML이라는 PMC XML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PMC XML 제작하면서 CrossRef XML 변환 프로그램도 고향훈 씨가 개발하여 쉽게 생성할 수 있었다. 그러므

로 2007년 8월 안과학회 국문지인 Journal of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에 최초로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를 붙여서 CrossRef에 기탁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학술지가 DOI를 부여하여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학술지 가운데 해외 상업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제외하고는 안과학회지가 처음 DOI를 붙여 발행하여 우리나라 학술지 발전에 새 획을 그었다. DOI는 학술지 국제 표준으로 이미 2000년부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입이 늦기는 하였지만 모든 학회가 같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PMC에 XML 파일을 보내어 기술적인 수정을 계속하면서 의편집에서 본격적인 작업 시작한지 1년 반 만에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가 2008년 11월 20일 PMC에 등재되었고,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가 11월 26일,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가 12월 19일 등재되었다. 이후 매년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PMC 등재되어 2015년 9월에는 무려 114종이 등재되었고, 심사 중인 종수가 6편이다. 114종에는 7종 제호 변경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107종이다. 이 종수는 전 세계 국가 별로 3위에 해당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는 영문으로 open access로 발행하는데 가장 앞서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이런 과정에서 초창기 PMC XML을 제작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분은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이춘실 교수이다. 정보관

2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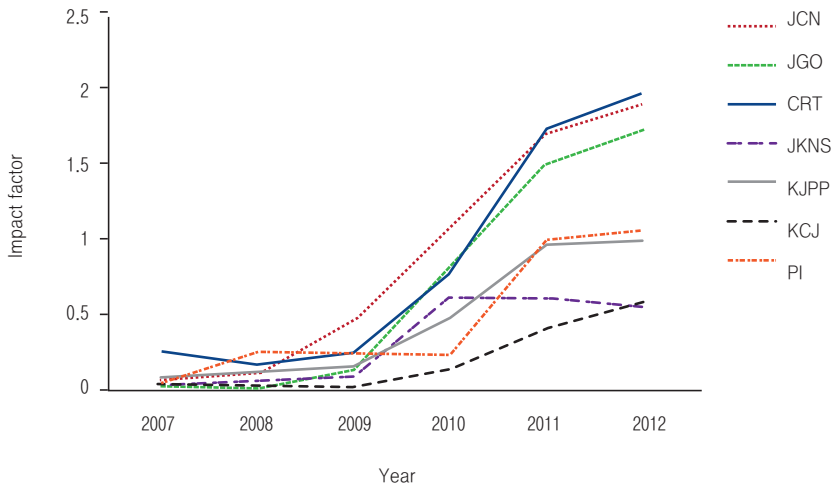


그림 1. Chronological change in the impact factor of 5 MEDLINE journals from Korea indexed in PubMed Central from 2007 to 2012. EMM,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KJR, Korean Journal of Radiology; YMJ, Yonsei Medical Journal; JVS,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JKM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Available from: Sci Ed 2014; 1(1): 24-26. <http://dx.doi.org/10.6087/kcse.2014.1.24>.

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부 교육과정에서 PMC XML을 집중하여 다루어 많은 제자를 훈련시켰다. 그중에 관심 있는 졸업생이 XML 제작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이 PMC XML을 여러 회사에서 다룰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즉, 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PMC 담당자와 수많은 질의 응답이 필요하였다. 마침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tagging 하는 학술지 가운데 하나라는 인정을 받아 PMC 책임자 Kathy Kwan 씨가 직접 방문하여 작업하는 직원을 만나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은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왔고, 이춘실 교수는 그 외 여러 공로로 지난 3월 제2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을 수상하였다.

PMC 등재 효과는 무엇일까?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향력지표 상승이다. 지금 생각하여도 2006년도에 PMC XML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학술지가 PMC 통하여 PubMed 가는 길은 몇 년이 늦었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놀랍게 높은 영향력지표를 유지하면서 여러 학술지들이 SCIE나 SCOPUS 학술지로 갈 수 있었을지 돌이켜 볼 때, 2006년 공부는 필수이었고 오히려 조금 늦은 것이다. 2002년 미국에서 연수 마치고 PMC를 알고 귀국하자마자 시작하였으면 조금 더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이 빨라졌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PMC에서 학술지의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개별 논문으로 평가를 받아서 당당히 전 세계 의학 논문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PMC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2006년만 하여도 MEDLINE 통하여 PubMed에서 검색 가능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는 생물학분야를 포함하여도 15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9월에도 생물학 분야를 포함하여 26종에 불과하다. 일본 MEDLINE 등재 학술지가 현재 159종임에 비하여 우리 의학학술지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MEDLINE 등재가 10년 동안 11종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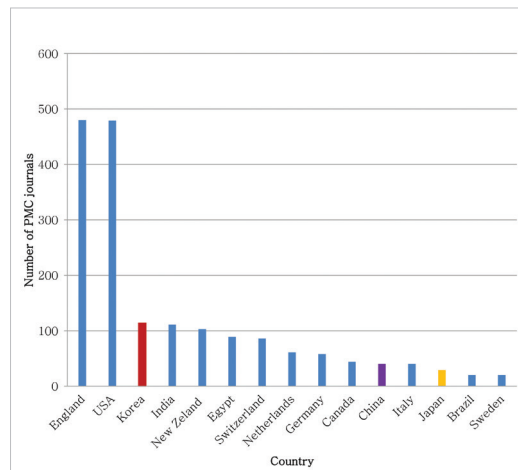


그림 2. Number of PubMed Central journals according to country [Internet]. 2015 [Cited 2015 Sep 19]. Available from: <http://www.ncbi.nlm.nih.gov/nlmcatalog>.

한 하늘의 별따기 같은 상황에서 PMC 등재야말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희망이며 살 길이다. 그런 면에서 PMC를 주창하고 운영한 미국 National Center for Biological Information의 David Lipman 소장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국제 경쟁력을 키워준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부터 PMC XML을 전파하고 각 학회에 그 필요성을 알려 많은 학회가 영문으로 전환하였다. PMC 등재 후 영향력지표를 올려 SCIE, SCOPUS 등재라는 쾌거를 이루고 지금도 많은 학술지가 SCIE 등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있다. 2011년 3월 의편협 임원에서 떠난 뒤 의편협 소속 여러 특별회원단체에도 PMC XML 제작을 지도하여 속속 PMC XML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과거보다 더 저렴한 경비로 많은 학회가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PMC XML은 Journal Article Tag Suite (JATS) XML로 진화하여 학술지 웹에서 미국 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 표준이 되어 대부분의 학술지가 이 XML을 바탕으로 누리집을 제공한다. JATS XML을 한 번 제작하면 공개된 변환 프로그램으로 CrossRef XML 자동 생성이 가능하고, 이 외에도 CrossMark, FundRef, Text and Data Mining, ORCID, Cited-by DOI, Referenc hyperlink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간단하고 쉽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2006년 공부할 때 국문 논문도 XML 작업이 가능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아직 언어 코드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JATS XML에서는 전 세계 모든 문자언어를 구현이 가능하여 국문지도 전문을 JATS XML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뒤 여러 국문지가 전문 XML을 제작하여 누리집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ScienceCentral (<http://e-sc.org>)에서 보면 국문 학술지 전문이 잘 보이고 영문과 차이 없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국문지 전문을 JATS XML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며, 전 세계 인류에게 우리나라 의학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제공하고, 독자들이 PubReader나 ePub 3.0과 같은 ebook 형태로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국문지도 앞으로는 전문 JATS XML 작업이 필수이다.

PMC XML 제작 이외에도 혼신을 다하여 준비한 내용을 추가한다면 단연 '편집인아카데미'이다. 제1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를 2008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여는 데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호응이 있어서 결국 A, B 반으로 나누어서 같은 내용을 두 장소에서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즉, 그동안 편집인이 이런 집중적인 훈련과정에 목말라하였다는 뜻이었다. 동시에 제1회 의학학술지 Manuscript Editor 교육과정을 2008년 2월 18-22일 닷새 동안 열었는데 이 역시 예상치 못

한 많은 참석자가 있어서 이런 과정이 얼마나 필요하였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이 과정 이후 국내 원고편집인의 전문성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이후 시장요구에 따라 원고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2009년 우리나라에도 설립되어 이 회사는 현재 약 70여 종의 학술지 원고편집을 다루고 있다. 이 두 종류 아카데미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임원과 위원이 모임을 갖고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지금 보아도 훈련과정이 편집인에게 필수적인 내용으로 손색이 없다.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기 위하여 당시 설날 연휴 동안 6편의 원고를 완성하느라 어깨 힘줄의 손상을 무릅쓰고 작업하여 이후 치료받느라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하였다. 이 <편집인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원고편집인을 위한 교육과정은 2 회 개최 이후 명맥이 끊겨 지금은 그때 참여하였던 조혜민 선생이 주도하여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http://kcse.org>)에서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수준 높게 유지하고 있다. 힘들게 준비하였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편집인을 위한 교재도 하나 작성하는 계기가 되어 open access book으로 공개하여 모든 편집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다 (<http://www.e-sc.org/books/SCBK1000014>).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PMC라는 플랫폼에서 경쟁 가능하나, 국제 학술지 시장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여 우리도 이런 추세를 잘 관찰하여 뒤처지지 않게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JCR 순위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술지가 여러 학문 범주에서 나와야 국가 의학 수준에 걸맞는다. 또한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도 우리나라 내과분야 학회지 편집인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부 지원, 학회지원, 게재료, 광고료 등으로 운영하는 open access journal인 국내지의 특성을 잘 살려 개발도상국이나 비서구권 의학학술지의 모형으로 운영가능한 길을 보여 주어야 한다. 현 ICMJE 회원 11종 학술지 가운데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Ethiopian Journal of Health Sciences 두 종이 PMC 등재지이다.

국제 학술지 시장은 어떻게 발전할까? Wiley사 Product Manager인 Becky Degler 씨의 언급을 빌면 다음과 같다 (<http://exchanges.wiley.com/blog/2014/08/15/5-key-trends-in-professional-publishing/>). 1. 인쇄본 발행 이후 디지털로 내용을 제공하고 social media를 활용하여 활발한 토의를 유도한다. 2. 편집위원으로 여러 나라 학자를 초빙하고 다국어 초록을 제공한다. 3. open access가 대세이다. 4. 다양한 전문가 심사에서 진화 방향을 주목한다. 5. 인쇄본과 온라인판에서 광고가 계속 증가한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우리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선 다국적 편집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소 15개국에서 편집인을 초빙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네트워크에

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 심사가 가장 어려운 일이므로 이 심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학술지가 협력하여 심사 결과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예 심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을 창설하여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적절한 보수를 주고 깊이 있는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CrossRef나 JATS-Con에서 최근 학술지 기술 발달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이런 모임에 참석하여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International Congress on Peer Review and Biomedical Publication, Association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 (ALPSP),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Council of Science Editors 등 다양한 국제 학술지 출판인과 편집인 모임에 우리나라에서 최소 한 명 이상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국제적인 추세를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편집은 이미 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를 주도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앞으로 과학이나 의학의 국제 중심은 차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이동할 것이고 이 지역에서 학술 논문 생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주위 국가 편집인과 교류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모형을 제공하고 서구 대형 상업출판사가 장악하는 학술지 시장에서 대부분 비영리인 학회지가 생존하는 모형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해결책일지 여러 국가 편집인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여야 할 것이다.

263 |

젊은 시절을 꼬박 의편집 업무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에 헌신하였다고 자부하며 전공 분야 학회지뿐 아니라 다양한 동료 학회지가 PMC, SCIE, SCOPUS, MEDLINE에 등재되는 것을 지켜보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앞으로 다시 10년이나 20년 뒤 의편집이 어떻게 발전할지 가늠하지 어렵지만, 적어도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회원 단체 편집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진심으로 우리 편집인과 학회지에 헌신하는 초기 정신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최근 연 40-50종 학술지 자문을 하고 있다. 자문하는 학술지 가운데 상당수는 속속 SCIE, SCOPUS 등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편집인을 도울 수 있어 기쁘기 그지없다. 또한 2011년 9월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여 의학학술지 편집인이 주도한 내용을 과학 학술지에도 적용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4년도 아시아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ouncil of Asian Science Editors, <http://asianeditor.org>) 조직에 executive board member로 참여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도 8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280명 이상이 참가하는 성대한 편집인 모임을 열 수 있었다. 이런 모임에서 의편집 임원 경험

이 업무를 어려움 없이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올해부터 ALPSP에서 발행하는 학술 문헌 편집과 출판 분야에서 저명 학술지인 Learned Publishing에 편집인 Pippa Smart 씨의 초대로 associate editor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한국인 최초로 편집위원회에 참여하여 국내에서 모든 편집인이 구현하는 정보기술을 제안하는 기회도 누렸다. 개인을 초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편집 수준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여긴다. 이런 다양한 역할이 가능한 것은 1996년 의편집 초창기부터 15년 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의 모임에 보내어 공부하도록 하고 또한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구상한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 의편집의 선후배 동료 편집인 덕분이다. 또한 정보관리위원의 적극 협조와 지원이 없었다면 구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학술지는 편집인 혼자 힘이 아니라 원고편집, type-setting, 인쇄, XML 제작, 누리집 제작, 영문 교열, illustration, managemen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여야 한다. 즉, 학술지 편집과 발행은 내용 전문가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종의 종합 예술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협조한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지금의 화려한 결과를 가능하게 하여 도와준 모든 분에게 감사한다.

나아가서 2015년 7월 한국연구재단 Web of Science 저널추천위원으로 임명되어 더욱더 열심히 많은 국내지가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될 수 있도록 편집 자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나라 편집인이 얼마나 학회지를 사랑하고 자신의 일처럼, 또한 환자 보듯이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편집인이 행복하도록 힘당은 데까지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가 의학학술지 분야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빠르게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특별회원



회원 및 회원사가 공지를 갖게 해주는 터전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집)가 창립 20주년을 맞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해 온 점에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의편집 출범 전의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분야는 항해지도 없이 운항하는 선박과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논문을 철저히 심사하여 게재하는 학술지, 발행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학술지 등의 부족이 아쉬웠으며 국제적인 색인지에의 등재도 미미하여 국내 의학 논문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편집인이나 편집 관련자들은 편집권의 부재, 학술지에 관한 발행인의 인식 부족 그리고 국내 학술지에 대한 저자의 왜곡된 인식 등을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제작을 담당한 출판사 또한 조판 및 인쇄 품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출범 후 의편집은 논문 작성과 논문 심사에 관한 정기적인 연수교육 및 워크숍 실시, 논문 평가 지침 마련, 논문 심사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편집인들의 교류 추진 등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출판계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쇄 및 출판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가독성과 미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조판이 가능하게 되었고 효율적이고 향상된 인쇄 과정을 거친 양질의 학술지를 빠르게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형은 국제적 추세인 레터 크기로, 용지는 미 국립도서관이 권고한 보존용지를 사용하게 되어 외형적인 통일화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분야의 인쇄 및 출판 기술은 세계적인 유명 학술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의편집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 논문이 게재되는 학술지들의 편집인 협의회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 회원 및 회원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각자의 업무를 꾸준히 수행한다면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사 또한 창립부터 함께한 특별회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KAMJE 1995- 2015/ 의학 역사의 새로운 장에 도전하는 KAMJE 50년을 바라며

인권애편파트너스

지난 20년동안 대한민국 의학학술지는 혁신과 도약의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최근 10년, 의편집 격변과 발전의 중심에서 놀라운 성과를 지켜 볼 수 있는 축복과 영광스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68

2009년 의편집 가족들이 일본에 학술지 편집에 관한 배움의 기회를 찾고자 잠시 방문하시는 것을 지켜 본 희미한 기억이 있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웃나라 일본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의편집의 성취와 노력, 헌신을 배우려고 한다는 사실이 저희를 몹시 기쁘고 가슴 뛰게 합니다.

의편집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도 전에, 인류는 다시 미지의 행보를 딛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 빨리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며 그 발전의 규모나 속도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0대 청년으로 자라 잠깐 자축과 기념의 자리에 서 있는 의편집에게 세계와 아시아의 의학계가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학술지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지혜의 전달에 앞장서고, 글로벌 수준의 플랫폼을 실험하고 제안하며, 이를 단순한 비즈니스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지혜를 축적하고 생명을 살려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숭고한 목적의 최전선에서 있다고 말합니다.

만행으로서 뒤를 따르는 아시아의 수많은 의학학술지들에게 총체적인 체험으로서의 지혜

를 전달하고, 이웃나라 중국의 중화사상을 넘어 인류애에 부합하는 가치를 제안하며, 회원들과의 연합을 도모해서 보다 규모가 큰 도전과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학회, 출판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술지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R&D와 리브랜딩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학술지들의 연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의편협이 지금까지의 성취에 만족하지 마시고, 인류의 미래를 향한 아시아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며, 내외의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이 지혜의 나무를 심고 가꿔서 찬란한 빛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의편협의 미래와 새로운 도전, 끊임없는 혁신에 진심어린 기대를 걸며,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의편협 50년에도 저희가 덕담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최선을 다해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는 인권엔파트너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발전하였고 서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파트너’

진기희

<http://www.kamje.or.kr/>

흔히 ‘깜제’라 부르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회(이하 의편집)의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의학학술지 편집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오랫동안 찾았을 법한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의 또 다른 ‘거주지’인 셈입니다.

이 웹 사이트 초기 화면 좌측 상단에는 크림슨 색의 KAMJE라는 ‘문패’가 있고 그 아래는 의편집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라는 제호 아래 배너에는 Synapse, KoreaMed, KoMCI, KAMJE PRESS...ORCID, fund ref, cross check 등이 고유의 아이콘으로 각자 ‘폼은 업적’을 뽐내고 있습니다.

| 270

장황하게 적어본 이유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간단한 아이콘 형식으로 진열되어 있어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곧 의편집의 20년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의편집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함께 오랫동안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일 터라 더욱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일 것입니다. 이는 세계 의학학술지 편집의 발달 상황과 궤를 같이 하여 국내의 의학학술지 편집인이나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민한 흔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의 의학학술지들은 창간은 물론 편집디자인 측면에서도 더욱 세련되고 정교하게 발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게재 논문의 Impact Factor(인용지수)가 높아져서 국내 유수의 학회지들이 국제적 색인인 PubMed 등재뿐만 아니라 SCOPUS, SCI(E)에 등재하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학술지를 편집·제작해오고 있는 저희 진기희(현 ㈜제이피앤씨)은 의편집 창립 초창기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 여러모로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

습니다. 30여 년 동안 의학학술지를 편집 제작해오고 있으니 의편집의 역사보다도 훨씬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세 번의 강산이 변하였기에 의편집은 물론 국내 의학학술지 편집의 역사와 늘 함께 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매월 출간되는 학회지를 비롯하여 간기를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학회지를 발간함은 물론 학회사, 교실사 그리고 백서 등의 단행본도 편집·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편집에서 주관하는 실무관련 Workshop이나 심포지엄에 꾸준히 참석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쌓았고 그에 따라 ME(원고편집인)나 편집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에 참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편집이 발족하고 10여 년이 지나 본격적으로 주제별 Workshop을 개최한 첫 번째 행사로서 의학학술지 관련 인사들을 만나고 상호 정보를 교류했던 장이었습니다.

성년이 된 의편집이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더욱 발전하여 앞서가는 세계의 의학학술지 편집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점차 리드해나가는 단체가 될 수 있기를 좀더 ‘특별한’ 회원의 자격으로 아낌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부록

1996-201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사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회칙

제 정 1996. 3. 28

개정 1998. 3. 31 2000. 3. 28 2003. 3. 25 2004. 3. 30 2006. 3. 28
 2007. 3. 27 2008. 3. 25 2011. 3. 30 2013. 3. 28 2014. 4. 15
 2015. 5. 1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협회회의 명칭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 이하 의편집으로 약칭함)라 칭한다.

| 274

제2조 (목적) 의편집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산하의 협회로서,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의편집의 사무실은 회장이 지정한 기관에 둔다.

제4조 (사업)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의학학술지 편집인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2. 의학학술지에 관한 조사사업
3. 의학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학술지 평가 등에 관한 사업
4. 의학학술 논문의 작성 및 심사와 학술지 편집에 관한 교육
5. 의학학술 논문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사항
6. 의학학술지 편집 및 평가와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국제교류 사업
7. 의학학술 논문과 학술지의 윤리에 관한 사업
8. 기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 (회원) 의편협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정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단체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한 의학학술지를 의미하며 학술지의 편집인(editor)이 단체회원을 대표하여 의편협 활동에 참여한다.
2. 개인회원이란 의편협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특별회원이란 의편협의 취지에 찬동하고 사업지원을 통하여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6조 (회원 가입)

1. 단체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입한다. 단체회원의 신규가입 및 자격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2. 개인회원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임원회의의 승인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가입하며, 5년마다 회원자격을 갱신한다.
3. 특별회원은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으로 가입한다.

275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정회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특별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3. 2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유 등을 검토하여 회원 자격 유지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제8조 (임원) 의편협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감사 2명
4. 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
5. 무임소 임원 3명 이내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천

- 을 받는다.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정회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원의 임기는 유효하다.
 4.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명예회장과 자문위원)

1. 의편협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역대 의편협 회장 중에서 임원회의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2. 의편협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의학학술지 편집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위원회)

1. 의편협은 기획평가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출판윤리위원회, 운영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제위원회의 위원장은 5~10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 3 장 총회 및 임원회의

제12조 (개최)

1. 의편협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의장) 의편협의 회장은 총회와 임원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아래의 각 항을 심의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 결의할 수 있다.

1. 회칙 변경
2. 사업 계획

3. 예산 및 결산
4. 임원 선출 및 인준
5. 회원 인준
6. 기타

제15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과반수 회원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위임장이 제출되었을 때에도 출석으로 간주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6조 (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회의를 두며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장 및 재워원회 간사로 구성한다.
2. 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상임위원회

제17조 (위원장)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상임위원회의 업무)

1. 기획평가위원회는 학술지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개발 을 비롯한 평가사업을 수행한다.
2. 정보관리위원회는 코리아메드 등재, 의학학술지에 관한 조사 등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제반사업을 수행한다.
3. 교육연구위원회는 의학학술 논문작성, 논문심사, 학술지 편집 등에 관한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4. 출판윤리위원회는 의학논문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를 비롯하여, 출판 및 연구 윤리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5. 운영위원회는 재무, 회원자격 심사,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 그밖에 다른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 등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6. 국제협력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APAME), 서태평양지역인덱스메디쿠스(WPRIM) 등과 같이 학술지의 국제협력과 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 5 장 회 계

제19조 (수입) 의편협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는 총회에서 정한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의 연회비, 의학 관련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계년도) 의편협의 회계년도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해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1. 이 회칙의 효력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2.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단체회원 신규가입 및 자격에 관한 세칙

제 정: 1996. 9. 18.

개 정: 2004. 12. 16.

개 정: 2012. 3. 9.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이하 ‘의편협’으로 약칭)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회원의 범위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단체회원의 요건) 의편협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회원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부설 연구소 또는 그밖의 의학 관련 학술단체
2. 학술잡지를 발행하는 단체
3. 의편협 가입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한 단체

제 3 조 (가입신청 서식 및 절차) 의편협에 가입하려는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의편

협 운영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친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단체회원 가입신청서(의편협 서식) 1부
2. 기존 단체회원 또는 개인회원의 추천서 2종(의편협 및 의학회 미가입 회원에 한함.)
3.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투고규정 1부
4. 해당 단체가 최근 발행한 학술지 2호 이상 각 1부
5. 해당 단체의 회칙, 임원 명단 및 회원 명부(직종별 분석자료) 각 1부

제 4 조 (자격 심사) 의편협 단체회원 자격인증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심사한다.

1. 해당 단체의 성격
2. 해당 단체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성격
3. 현대 과학에 근거하여 학술적인 논리에 따라 학술지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여부
4. 학술지의 전문가심사 체계(Peer Review System) 운용 상태
5. 학술지의 의편협이 제안하는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
6. 학술지에 연간 실리는 논문(종설, 원저) 편수가 8편 이상이며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는지 여부
7. 기타 의편협 단체회원 자격인증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편협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특별 조치) 의편협 및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고 신청과 함께 단체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단, 전문가심사 체계를 준수하며, 연간 종설과 원저 발행 편수가 8편 이상이어야 함).

역대회장, 임원, 위원회 명단

제1기 구성원 (1996.2. ~ 1999.3.31)

직위		성명	소속
회장		박찬규	연세의대 산부인과학
감사		오양호	부산의대 미생물학
감사		조경삼	경희의대 내과학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조승열	가톨릭의대 기생충학
	간사	서정옥	서울의대 병리학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안윤옥	서울의대 예방의학
	간사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간사	송경순	연세의대 임상병리학

기획평가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조승열	가톨릭의대 기생충학
간사	서정옥	서울의대 병리학
위원	강대영	충남의대 병리학
위원	김성권	서울의대 내과학
위원	김성덕	서울의대 마취과학
위원	이홍균	인제의대 산부인과학
위원	정사준	경희의대 소아과학
위원	조경삼	경희의대 내과학
위원	함창곡	한양의대 방사선과학
위원	홍원표	연세의대 이비인후과학

정보관리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안윤옥	서울의대 예방의학
간사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위원	구범환	고려의대 외과학
위원	김수녕	건국의대 산부인과학
위원	김용식	서울의대 약리학
위원	김원옥	연세의대 마취과학

위원	문대혁	울산의대 핵의학
위원	이수정	가톨릭의대 신경정신과학

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간사	송경순	연세의대 임상병리학
위원	김의중	서울의대 임상병리학
위원	김형래	이화의대 생화학
위원	백영홍	전남의대 약리학
위원	서창옥	연세의대 치료방사선학
위원	원남희	고려의대 병리학
위원	이철현	한림의대 피부과학
위원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제2기 구성원 (1999.4.1 ~ 2002.3.31)

직 위		성 명	소 속
회 장		함 창 곡	한양의대 방사선과학
부 회 장		조 승 열	성균관의대 기생충학
감 사		오 양 호	부산의대 미생물학
감 사		조 경 삼	경희의대 내과학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임 정 기	서울의대 방사선과학
	간 사	서 정 욱	서울의대 병리학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수 념	건국의대 산부인과학
	간 사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민 양 기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간 사	이 철 희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 경 순	연세의대 임상병리학
	간 사	서 창 욱	연세의대 치료방사선학

기획평가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임정기	서울의대 방사선과학
간 사	서정욱	서울의대 병리학
위 원	조승열	성균관의대 기생충학
위 원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위 원	이봉화	한림의대 외과학
위 원	이동호	경희의대 방사선과학
위 원	백구현	서울의대 정형외과학
위 원	이동화	순천향의대 병리학
위 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정보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김수념	건국의대 산부인과학
간 사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위 원	안윤옥	서울의대 예방의학
위 원	김원옥	연세의대 마취과학

위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원	정문현	인하의대 내과학
위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교육연수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민양기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간사	이철희	서울의대 이비인후과학
위원	이광선	울산의대 이비인후과학
위원	김상준	서울의대 외과학
위원	김주한	한양의대 신경과학
위원	최명식	서울의대 미생물학
위원	박해심	아주의대 알레르기내과학
위원	동현종	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학
위원	박재황	원광의대 응급의학
위원	윤덕미	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

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송경순	연세의대 임상병리학
간사	서창욱	연세의대 치료방사선학
위원	손정원	고려의대 분자생물학
위원	홍창권	중앙의대 피부과학
위원	김훈교	가톨릭의대 내과학
위원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위원	마상열	연세의대 비뇨기과학
위원	조수현	서울의대 예방의학

제3기 구성원 (2002.4.1 ~ 2005.3.31)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조승열	성균관의대 기생충학
부회장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감사		조수현	서울의대 예방의학
감사		송경순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간사	김암	울산의대 산부인과학
정보위원회	위원장	김수녕	건국의대 산부인과학
	간사	허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김훈교	가톨릭의대 내과학
	간사	이경수	성균관의대 방사선과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창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간사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기획평가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간사	김암	울산의대 산부인과학
위원	송경순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
위원	서연림	성균관의대 병리학
위원	이성구	울산의대 내과학
위원	김주한	한양의대 신경과학
위원	김진우	가톨릭의대 피부과학
위원	배중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정보관리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김수녕	건국의대 산부인과학
간사	허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위원	함창곡	한양의대 방사선과학
위원	박영주	고려대 간호대학
위원	이병두	인제의대 내과학
위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원	정문현	인하의대 내과학
위원	이준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교육연수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김훈교	가톨릭의대 내과학
간사	이경수	성균관의대 방사선과학
위원	정영복	중앙의대 정형외과학
위원	김학제	고려의대 흉부외과학
위원	박성학	가톨릭의대 내과학
위원	김상윤	울산의대 이비인후과학
위원	류경남	경희의대 방사선과학
위원	문동연	가톨릭의대 마취통증의학

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서창욱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간사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위원	오병훈	연세의대 정신과학
위원	한원곤	성균관의대 외과학
위원	강명서	포천중문의대 진단검사의학
위원	김영수	아주의대 비뇨기과학
위원	김동규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위원	곽형우	경희의대 안과학

제4기 구성원(2005.4.1 ~ 2008.3.31)

직 위		성 명	소 속
회장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부 회장		임정기	서울의대 영상의학
감사		조수헌	서울의대 예방의학
감사		김수녕	건국대의 산부인과학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간사	이성구	울산의대 내과학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허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간사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서연림	성균관의대 병리학
	간사	정희진	고려의대 내과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창욱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간사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함창곡	한양의대 영상의학
	간사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기획평가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간사	이성구	울산의대 내과학
위원	송경순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
위원	김주한	한양의대 신경과학
위원	이경수	성균관의대 영상의학
위원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위원	박영주	고려대 간호대학

정보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허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간사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원	함창곡	한양의대 영상의학
위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위원	박영주	고려대 간호대학
위원	정소나	가톨릭의대 도서관

교육연수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서연림	성균관의대 병리학
간 사	정희진	고려의대 내과학
위 원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위 원	이순남	이화의대 내과학
위 원	배중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위 원	이중원	가톨릭의대 성형외과학
위 원	한동수	한양의대 내과학
위 원	유은실	울산의대 병리학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서창욱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간 사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위 원	오병훈	연세의대 신경정신의학
위 원	최금자	이화의대 외과학
위 원	한상원	연세의대 비뇨기과학
위 원	김동규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위 원	이주화	인제의대 안과학
위 원	최민호	서울의대 기생충학

출판윤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함창곡	한양의대 영상의학
간 사	배중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위 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 원	김훈교	가톨릭의대 혈액종양내과
위 원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위 원	서연림	성균관의대 병리학
위 원	임정기	서울의대 영상의학
위 원	조승열	성균관의대 기생충학
위 원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제5기 구성원(2008.4.1 ~ 2011.3.31)

직 위		성 명	소 속
회 장		임 정 기	서울의대 영상의학
부 회 장		서 창 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감 사		조 수 헌	서울의대 예방의학
감 사		김 수 념	건국외대 산부인과학
무임소 임원		나 은 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홍 성 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간 사	오 세 정	가톨릭의대 외과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간 사	이 령 아	이화외대 외과학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한 동 수	한양의대 내과학
	간 사	명 승 재	울산외대 내과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동 규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간 사	김 재 용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함 창 곡	한양의대 영상의학
	간 사	배 종 우	경희외대 소아과학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 정 옥	서울의대 병리학
	간 사	정 해 관	성균관외대 사회의학

기획평가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간 사	오세정	가톨릭의대 외과학
위 원	김지수	서울의대 신경과학
위 원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위 원	박종원	연세의대 내과학
위 원	이령아	이화외대 외과학
위 원	이성구	울산외대 내과학
위 원	이춘기	서울의대 정형외과학
위 원	조동숙	을지대 간호학

정보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간 사	이 령 아	이화외대 외과학
위 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 원	박명재	경희외대 내과학
위 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위 원	정소나	가톨릭의대 도서관
위 원	조혜민	Manuscript Editor

교육연수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한동수	한양의대 내과학
간 사	명승재	울산의대 내과학
위 원	구자욱	인제의대 소아과학
위 원	박명재	경희의대 내과학
위 원	이상오	울산의대 감염내과학
위 원	조혜민	Manuscript Editor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김동규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간 사	김재용	서울의대 신경외과학
위 원	김병호	경희의대 내과
위 원	서태석	카톨릭의대 의학물리
위 원	오병훈	연세의대 정신과학
위 원	이경수	성균관의대 영상의학과
위 원	채성원	고려의대 이비인후과
위 원	최민호	서울의대 기생충학

출판윤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함창곡	한양의대 영상의학
간 사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학
위 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 원	김옥주	서울의대 의료윤리
위 원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
위 원	서창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위 원	임정기	서울의대 영상의학
위 원	조승열	성균관의대 기생충학
위 원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
위 원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국제협력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서정욱	서울의대 병리학
간 사	정해관	성균관의대 사회의학
위 원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위 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
위 원	윤호중	가톨릭의대 내과학
위 원	함창곡	한양의대 영상의학

제6기 구성원(2011.4.1 ~ 2014.3.31)

직 위		성 명	소 속
회장		서창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부회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감사		조수현	서울의대 예방의학
감사		오병훈	연세의대 정신과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오세정	가톨릭의대 외과
	간사	이령아	이화의대 외과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오훈	한솔병원 내과
	간사	김상현	서울의대 내과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최인홍	연세의대 미생물학
	간사	김정호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
	간사	박종원	연세의대 내과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함창곡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
	간사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정옥	서울의대 병리학
	간사	김혜원	관동의대 간호학

기획평가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오세정	가톨릭의대 외과학교실
간사	이령아	이화의대 외과
위원	김나영	서울의대 내과
위원	김재원	서울의대 산부인과
위원	김태일	서울치대 치주과
위원	김찬윤	연세의대 안과
위원	양희진	서울의대 신경외과
위원	정제훈	순천향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위원	김윤택	이화의대 안과학교실
위원	유원준	서울의대 정형외과
위원	조동숙	을지대 간호학과
위원	채성원	고려의대 이비인후과

정보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권오훈	한솔병원 내과
간사	김상현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위원	김태일	서울치대 치주과

위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위원	정소나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도서실
위원	정정인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위원	홍순준	고려의대 내과

교육연수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최인홍	연세의대 미생물학과
간 사	김정호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위원	이경수	성균관의대 영상의학과
위원	이은소	아주의대 피부과
위원	이상암	울산의대 신경과
위원	김정목	한양의대 미생물학과
위원	홍순준	고려의대 내과

운영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과
간 사	박중원	연세의대 내과
위원	홍 정	아주의대 소아외과
위원	방문석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위원	김은경	연세의대 영상의학과
위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위원	윤호주	한양의대 내과학교실
위원	이종은	연세의대 해부학과

출판윤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함창곡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
간 사	배중우	경희의대 소아청소년과
위원	권오훈	한솔병원 내과
위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위원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위원	박영주	고려의대 간호학과
위원	박찬일	연세의대 병리학과

위원	서창욱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위원	오병훈	연세의대 정신과
위원	한동수	한양의대 내과
위원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과

국제협력위원회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서정욱	서울의대 병리학교실
간 사	김혜원	관동의대 간호학과
위원	김성훈	서울지대 치과보철학교실
위원	조구영	서울의대 내과
위원	주대명	가톨릭의대 생화학과

제7기 구성원(2014.4.1 ~ 2017.3.31)

직위		성명	소속
회장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부 회장		권오훈	한솔병원 내과
		김병호	경희의대 내과학교실
감사		최인홍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무임소 임원		나은우	아주의대 재활의학교실
		이순혁	고려의대 정형외과학교실
		이헌정	고려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	최연현	성균관의대 영상의학교실
	간사	오세정	가톨릭의대 외과학교실
정보관리위원회	위원장	양희진	서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간사	권오훈	한솔병원 내과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간사	이은소	아주의대 피부과학교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중원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간사	김재원	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출판윤리 위원회	위원장	김혜원	서울대 간호대학
	간사	김혜원	서울대 간호대학
국제협력 위원회	위원장	배종우	경희의대 소아과학교실
	간사	한동수	한양의대 내과학교실
국제협력 위원회	위원장	서정욱	서울의대 병리학교실
	간사	박성혜	서울의대 병리학교실

기획평가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오세정	가톨릭의대 외과학교실
간사	양희진	서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위원	권오훈	가톨릭의대 생화학교실
위원	김나영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위원	김태일	서울치대 치주과학교실
위원	서동훈	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위원	은영	경상대 간호대학
위원	이동건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
위원	이령아	이화의대 외과학교실
위원	이헌정	고려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위원	정제훈	순천향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위원	조동숙	울지대 간호대학
위원	조유숙	울산의대 내과학교실
위원	최민호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정보관리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권오훈	한슬병원 내과
간사	김상현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위원	김태일	서울치대 치주과
위원	박종원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위원	이종은	연세의대 해부학교실
위원	이춘실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위원	임지영	차의과대 간호대학
위원	정소나	기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도서관
위원	최연현	성균관대 영상의학교실
위원	홍순준	고려의대 내과학교실

교육연수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이은소	아주의대 피부과학교실
간사	박종원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위원	김재원	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위원	박광성	전남의대 비뇨기과학교실
위원	윤상웅	서울의대 피부과학교실
위원	이선영	건국의대 내과학교실
위원	정용식	아주의대 외과학교실
위원	홍순원	연세의대 병리학교실

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김재원	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간사	김혜원	서울대 간호대학
위원	류은정	중앙대 간호대학
위원	박종완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위원	윤호주	한양의대 내과학교실
위원	허민석	서울치대 영상치의학교실
위원	홍정	아주의대 외과학교실

출판윤리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배중우	경희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간사	한동수	한양의대 내과학교실

위원	권오훈	한솔병원 내과
위원	김수영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위원	김재원	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위원	김혜원	서울대 간호대학
위원	박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위원	이헌정	고려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위원	진보형	서울치대 예방치학교실
위원	홍정	아주의대 외과학교실
위원	홍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국제협력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위원장	서정욱	서울의대 병리학교실
간사	박성혜	서울의대 병리학교실
위원	김성훈	서울치대 치과보철학교실
위원	고진강	서울대 간호대학
위원	박성호	울산의대 영상의학교실

활동일지

날짜	제목	비고
1996.2.22	창립총회(제1대 박찬규회장 취임)	
1996.3	코리아메드 구축에 대한 첫 토론회	
1996.3.28	1996년도 정기총회	
1996.6.11	1996년도 제1차 임원회의 개최	1. 상임위원회 구성 2. 1996년도 사업범위 및 예산 3. 단체회원 연회비 4. 기타(sponsor, logo)
1996.7.15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기준 초안	
1996.8.7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의견협 로고 마련, 싱가포르의 참가자 선정
1996.8.12 - 08.14	국내 의학학술지 HOMPAGE 제작 WORKSHOP 실시	- 누리집 만들기 언어인 글연결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 이해 - 뛰어넘기 연결(hyperlink)과 그림 넣기 - 학술지 누리집 만들기 실습 - 각 학술지 누리집 평가 - 평가 및 수수료증 전달
1996.9.16	제2차 기획평가위원회 개최	1.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 기준(96. 9 수정안) 토의 2. 96년 12월 워크숍(국내 의학 학술지 평가기준) 준비 3. 국내 의학학술지 현황 조사 사업 계획 토의
1996.9.18	단체회원 자격에 관한 세칙 제정	
1996.10.11~13	5th Workshop on Medical Writing & Editing	장소:싱가폴
1996.12.18	제3차 임원회의 개최	1. 전회 회의록 검토 2. 상임위원회 보고 3. 토의사항 가. 1997년 3월 총회 개최 나. WAME(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등 다. EASE(European Ass. Of Science Editors) 학회 라. 국내 Korean Index Medicus에 관한 사항 마. 소식지 3호 발행
1997.3.7	보건복지부 지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비에 사업 신청서 제출	누리그룹에서 한국의학학술문헌 검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1997.3.12	제4차 임원회의 개최	1997년도 총회 준비 및 체코 프라하 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n Biomedical Peer Review and Global Communications 9/17) 참가자 선정
1997.3.15	의학학술지 현황조사	1차 설문마감: 3.15 2차 설문마감: 4.10
1997.3.26	의견협 홈페이지 개통	http://sun.hallym.ac.kr/~shuh/editor
1997.3.26	1997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	1.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김성권) 2. 국내의학학술지 현황조사 결과(서정욱) 3. 학술지 누리집 운용시범학회 발표(하선)
1997.8.27	국내 의학학술지 시범 평가회 및 한국 메드라인 사업 설명회 개최	1. 의학학술지 평가사업의 배경 및 취지 (조승열), 2. 시범 평가 및 결과 발표 (서정욱), 3. 한국메드라인 사업추진 방향 (하선), 4. 퍼브메드 가입추진 방향 (하선)
1997.9.23	제2차 임원회의 개최	1. Korea Medline 사업 구체화 2. 8월 27일 워크숍 평가 3. 소식지 게재 사항 4. 향후 교육프로그램(투고요령, 상호심사, 논문작성 등) 5. 예산 확보 방안 6. 잡지 발행 기관에 홍보 방안

날짜	제목	비고
1997.9.23	의학학술지 평가항목 개정(1차)	
1997.11.5	1차 학술지 평가회	12개 학술지
1997.12.4	제3차 임원회의 개최	1. 서버 구입 2. 한국메드라인 등재 잡지 선정 3. 의학회 보조금 증액 요청 4. 연회비 인상(98년부터) 5. 심사제도 교육 프로그램
1997.12.12	KoreaMed 누리집 제작위한 실무회의 (01월정보 통신)	학회자료 제공방식 및 검색방식, 필드
1997.12	KoreaMed 구축 계약서 마련	
1997.12	KoreaMed 등재 규정 마련	KoreaMed 정보제공 양식 포함
1997.12.31	KoreaMed 최초 서비스 개시(http://koreamed.kams.or.kr)	내용은 PubMed에 실린 국내 학술지 논문 2,000 편
1998.2.7	학술논문 심사에 관한 panel 토의	1. 논문심사 제도 및 운영 (조승열), 2. 심사위원 및 편집인의 역할 (함창곡), 3. 논문심사의 원칙 (민양기), 4. 통계 심사 (김동기), 5. 게재 거부된 논문의 특징 (임정기), 6. 심사위원으로서의 경험 (6-1) 전문의학 학술지 (홍성태), (6-2) 종합의학 학술지 (이민길) 7. 편집인으로서의 경험 (7-1) 전문의학 학술지 (조경삼), (7-2) 종합의학 학술지 (지제근)
1998.3.31	1998년도 정기총회	
1998.5.27	제2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1998.9.2	제3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1998.11.4	의학학술지 제4차 평가회 개최	
1999.3.30	1999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제2대 함창곡 회장 취임)	- 학술지 편집인의 역할-조승열(성균관대의) - 학술지 평가 결과 분석-임정기(서울대의) - 논문심사위원의 역할-이광선(울산대의) - 논문심사 사례분석-동현중(성균관대의) - 우리글 논문 바로 쓰기-김희진(국립국어연구원) - 논문출판의 윤리적 문제-이철희(서울대의) - 의학논문의 심사평가-민양기(서울대의)
1999.4.7	제2기 의협협 운영을 위한 간담회	
1999.5.7	한국학술정보 방문	KoreaMed 관리 업체 현장 방문 평가
1999.7.5	의학학술지 평가항목 개정(2차)	
1999.9.1	의학학술지 제5차 평가회 개최	
1999.10.6	의학학술지 제6차 평가회 개최	
1999.11.17	의학학술지 제7차 평가회 개최	
1999.11.19	1999년도 정기Workshop 개최	
2000.2.17	코리아메드 등재 양식과 메쉬를 위한 Workshop	- 잡지의 기본 구성-함창곡(한양의대) - MeSH 이용의 필요성-김수녕(건국대의) -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논문의 저자선정 주제어와 MeSH 용어의 비교분석-이춘실(숙명여대) - MeSH의 구조와 MeSH 색인-김수영(한림대의) - 실습-허선(한림대의)
2000.3.28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0년도 정기총회	-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 현황(의학분야를 중심으로) - 김용성(학술진흥재단 학술평가지원부장) - 서지 정보를 이용한 한국의학 학술지 평가-이춘실(숙명여대) - 국내 의학학술지 발행 및 편집실무 현황-허선(한림대의)

날짜	제목	비고
2000.5.16	의학학술지 평가개선 워크숍	<현행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 - 자체평가항목-최명식, 실물평가항목-이동호, 협의회 조사항목-이춘실 <평가 행정 및 학술지 조사사업 계획> - 평가 결과분석 및 활용-임정기 - 평가 행정 및 학술지 조사사업-서정욱
2000.6.14	의학학술지 제8차 평가회 개최	
2000.11.22	제9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개최	
2001.2.23	KoreaMed 활성화 방안 Workshop 개최	- KoreaMed 사업의 문제점 - 허선 - 학회에서 바라보는 KoreaMed - 정문현, 감염학회 - 출판사의 학술지 파일관리- 최윤배, 아카데미아 - 의학학술지 원문정보 및 초록정보의 효율적 관리 -JKMS의 경우를 중심으로 - 이춘실(숙명여대) - MedRIC의 국내 의학학술 DB 개발사업 - 이영성(충북의대)
2001.3.27	2001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	1. 좋은 의학학술지 만들기 (함창국), 2. 국제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 등재하기 (이춘실), 3. SCI 등재 경험 (조승열), 4. 심사위원의 기능과 한계(홍성태), 5. 의학논문 심사(민양기), 학술지 간행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김수녕)
2001.7.6	2001년도 정기워크숍	
2001.7.6	10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2001.9.14	KoreaMed 검색 시작	
2001.11.14	의학학술지 제11차 평가회 개최	
2001.12	KoreaMed 20,000건 입력	
2002.3.26	2002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제3대 조승열 회장 취임)	- KoreaMed 구축과 학회의 역할 - 이춘실(숙명여대) - KoreaMed XML 파일만들기 - 이남영, 이윤혜(숙명여대) ① XML Tag와 데이터 입력방법론 ② 특수문자 처리와 입력파일 점검방법 - MeSH 활용법 - 김수영 (한림의대)
2002.9	KoreaMed Linkout 서비스 시작	
2002.9.25	의학학술지 제12차 평가회 개최	
2002.10.16	KoreaMed 전문연결 설명회	
2002.11.27	2002년 정기 워크숍	- 국제색인지가 요구하는 좋은 학술지 - 함창국 (명예회장, 한양의대) - 논문심사의 기본 원칙 - 민양기 (서울의대) - 이중게재(double publication)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 임정기 (서울의대) - Authorship에 대한 분석 - 황성수(가톨릭의대) - 의학학술지 평가현황-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평가사업 - 홍성태 (평가위원장, 서울의대) - 의학학술지 평가현황-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평가사업 - 권길화(연구기반조성부, 학술진)
2003.2.12	KoreaMed XML Workshop	- XML이란 무엇인가? - 허선 (정보위 간사) - XML작성 - 이남영 (KoreaMed 정보관리) - XML 파일점검 및 특수문자 처리 - 이윤혜 (KoreaMed 정보관리)
2003.2.21	의학학술지 제13차 평가회 개최	

날짜	제목	비고
2003.3.25	2003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 대한간학회지 메드라인 등재 경험유 권(간학회지 편집인) - KoreaMed 소개 - 김수영(의편협 정보위원장) - KoreaMed 자료입력 절차 - 이남영(KoreaMed 정보관리) - 학회가 KoreaMed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이춘실(의편협 정보관리위원)
2003.4.11	의학학술정보 공동 구축을 위한 협의건	(발신: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지정 의학연구정보센터)
2003.4.30	코리아메드 논문편수 45,000건 돌파 기념연	
2003.7.8	2003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Workshop	- 편집인의 역할 - 김훈교(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 저자의 자격 - 이순남(의편협 교육연수위원) - 윤리적 문제 - 이경수(의편협 교육연수위원) - 올바른 논문 작성법 - 배종우(의편협 교육연수위원) - 심사위원의 역할
2003.9.18	제1차 KoreaMed MeSH Workshop 개최(한양의대)	- MeSH사업 안내 - 이춘실(의편협 정보위원) - MeSH의 개념 - 허 선(의편협 정보위원) - MeSH 색인 - 김수영(의편협 정보위원) - 국내 논문에 MeSH 부여하기 - 1) JKMS - 조승열(의편협 회장) - 2) 소아과 색인분석 - 정소나(의편협 개인회원) - 국내논문 MeSH부여와 퍼브메드 MeSH와의 비교
2003.9.19	의학학술지 제14차 평가회 개최	
2003.10.2	제2차 KoreaMed MeSH Workshop(한양의대)	- MeSH 입력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토의하여 추후 MeSH 입력 실무 지침 작업에 되먹이기로 반영.
2004.2.2-6	PHP 실무 워크숍(한림의대, 춘천)	
2004.2.19	제15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2004.3.30	2004년도 정기총회 및 Workshop 개최	- KoreaMed 현황 및 사업 계획 - 이윤혜(KoreaMed 관리자) - 대한소화기학회지 MEDLINE 등재경험 - 김병호(대한소화기학회) - KJR의 SCI 등재 경험 - 임정기(대한영상의학회) - KoMCI Web 소개 - 이선희(인용색인개발사업단 관리자) - KoreaMed와 KoMCI Web 데이터베이스 통합 - 조승열 (의편협 회장, 인용색인개발사업단장)
2004.5.19	2004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Workshop	- 의학연구에서의 비뮴림 - 안 윤옥(서울의대 예방의학) - 의사연구자들의 연구과제 선정 방법 - 정 우경(가천의대 내과학) - 지역사회 유행률 조사의 수행사례-최 보울(한양의대 예방의학) - 환자-대조군 연구의 설계와 수행 - 윤 병우(서울의대 신경과학) - 코호트 연구의 설계와 수행-김 순덕(고려의대 예방의학)-비교 임상시험의 설계와 수행 - 박 병주(서울의대 예방의학)
2004.6.22	의학학술지 제16차 평가회 개최	
2004.9.23	의학학술지 제1차 재평가회	
2004.10.28	논문심사위원을 위한 Workshop	
2004.11.25	의학학술지 제17차 평가회 개최	
2004.12.8	Thomson ISI사 방문(허신)	
2005.3.29	2005년 정기총회 및 워크숍 (제4대 박찬일 회장 취임)	

날짜	제목	비고
2005.5.10	제18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TI 학회 정보화 사업 소개 - 강무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회정보화 사업실장) - KISTI-ACOMS(Ver. 1.5) 시연 - 박재원 팀장 - 전자논문투고 프로그램 소개 - 한동석 (M2 Community 이사) - (주)메드랑-인포랑 시연 - 김차중 (전략기획부 과장) - 대한의료정보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 김주한 (서울의대)
2005.6.24	제2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05.10.14	2005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Workshop	
2005.11.30	제19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집인의 역할: 조 승열 (JKMS 편집인, 성균관의대) - 심사위원의 역할: 한 동수 (한양의대, 내과학) - 의학학술지 평가 기준: 홍 성태 (서울의대, 기생충학) - 우리말 논문 바로 쓰기: 송 영빈 (이화의대, 인문과학부) - 우리말 의학용어의 기본 원칙: 황 건 (의협용어위원장, 인하의대) - 편집인이 알아야 할 통계적 개념: 박 병주 (서울의대, 예방의학)
2006.2.14	3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06.2.28	2006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	
2006.3.28	WHO에서 파견한 실무자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WPRO의 Regional Index Medicus 사업: 서정욱(서울의대 병리학,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장) - PubMed 등재 전 준비경험: 박 병주(서울의대 예방의학) - PubMed 등재 후 학술지 변화: 조동숙(서울보건대학) - Open Access와 Open Archives: 이춘실(숙명여대) - 중복출판과 이차출판: 홍성태(서울의대 기생충학)
2006.6.25-7.7	제 20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방문자: Mark Bendo, Wilfred Nael, N. Villaruz
2006.6.27	PubMed Central 워크숍	
2006.8.11	KoMCI Journal Web 개통	PubMed central xml 및 xslt processor 이해
2006.9	2006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Workshop	
2006.9.6	4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게재와 이중게재:홍성태(의편협 평가위원장) - Authorship:황성수(가톨릭의대) - IRB와 출판윤리:김옥주(서울의대) - 이중게재-국내외현황:김수영(한림의대) - 이중게재의 사례:함창곡 (한양의대) - PubMed와 KoreaMed의 취소논문 레코드 처리: 이춘실(숙명여대)
2006.10.19	4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07.3.27	2007년도 정기총회 및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WPRO의 Regional Index Medicus 사업: 서정욱(서울의대 병리학,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회장) - Korea PubMed Central Project : 허선(한림의대기생충학,의편협 정보관리위원장) - DOI CrossRef : 이춘실(숙명여대문헌정보학,의편협정보관리위원)
2007.6.27	제 22차 의학학술지 평가회	
2007.7.25	DOI/CrossRef, PMC XML Worksh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C작업 Prossessing에 대하여- 허선 - PMC XML 작성 설명 -이선희 - PMC XML coding 및 validation 실습 - KoreaMed Synapse XML - 공효순 - DOL/CrossRef XML 실습

날짜	제목	비고
2007.8	CrossRef 가입과 DOI deposit	
2007.10.31	제 6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07.11	KoreaMed Synapse 구축	
2008	200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윤리활동지원 사업 최종선정	
2008.2.18-20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의학논문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호원숙 - Non-native speaker of English를 위한 영문의학논문 작성요령 - 민양기 -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따른 편집인의 역할- 조승열 - 의학학술지에 볼 수 있는 통계 오류 - 김수녕 - 보존용지의 이해 - 윤혜정 - 판형, 종이의 종류, 레이아웃, 그림파일, PDF파일 전자출판- 최윤배 - 전자투고체계 - 허선, 박재원 - 의학 학술 논문 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 KoreaMed, Synapse, KoMCI, PubMed, PMC, Web of Science, LinkOut, DOI, CrossRef - 이춘실 - 여러 색인 데이터 베이스 Indexing 절차- 정소나
2008.2.18-22	의학학술지 Manuscript Editor 교육 지원	
2008.3.25	2008년도 의편집 정기총회 및 세미나 (제5대 임정기 회장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MedSynapse:The digital archive and referencelinking platform of Korean medical journals : Prof LEE Choon-Shil,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Guardianship of a journal from inception onwards : Dr Samuel KWOK, ex-President, College of Surgeons of Hong Kong & ex-Editor-in-Chief, Surgical Practice * Medical Journals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 Mark ROBERTSON, Publishing Director, Wiley-Blackwell, Asia Pacific * Extending the reach : Marketing Journals Globally : Ms Nobuko MIYIARI, Senior Information Analyst, Thomson Scientific * Journals and Citations: How Citation Analysis can Help your Publishing Strategy * Strategic Journal Development (Wrapup) : Neil CHRISTENSEN, Medical Editorial Director, Wiley-Blackwell, Asia-Pacific
2008.4	XMLink 회사 설립	
2008.5.4-5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APAME) 창립	
2008.7.17	제 23차 의학 학술지 평가회	
2008.10.21	의학학술지 온라인 개방에 대한 심포지엄 -Synapse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Med Synapse의 유용성 - 함창국 - XMLink 설립 배경 및 의편집과의 관계 - 서창욱 - 온라인학술지 개방에서 XML 파일 변환의 중요성 - 공효순 - KoreaMed Synapse 작성 - 이남영
2008.10.23	제 7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08.11.18-21	2008년 APAME/WPRIM 베이징, 중국 회의	

날짜	제목	비고
2009. 03. 27	2009년도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 특강: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SCOPUS심사과정- 김형순 - 연구출판윤리의중요성,중복출판 - 함창곡 - 연구부정행위:날조,변조,표절 - 김수영 - 생명윤리와동의 - 김옥주 - 자료의분석과표현 - 박병주 - 저자됨과이해관계 - 홍성태 - 심사와편집과정에서의윤리 - 조승열 - 연구와출판윤리위반에대한처리 -이춘실
2009.4	소식지 모음집(참간호~2009.4) 발간	
2009.5.19	Synapse 참여 그룹 워크숍	
2009.6.25	제 24차 의학학술지 신규 평가회	
2009.9.29	임상시험 국가 등록 워크숍	
2009.12.18	제 8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10	KoreaMed, Synapse 통합 DB 구축	
2010.3.30	2010년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 임상시험등록과논문게재 - 박현영 - 회원자격과범위 - 김동규 - 학술지평가의방향 - 홍성태 - KoreaMedSynapse의새로운기능 - 이춘실 - KoreaMed와국제색인기관등재 - 허선 - 편집인을위한교육 - 한동수 - 출판윤리의최신경향 - 함창곡 - 국제협력(WPRIM/APAME) - 서정욱
2010.5.12	제 25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2010.8	KoreaMed, KoreaMed Synapse의 Mobile service	
2010.10.20	제 9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10.11.12	제 26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2011.3.30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제6대 서창욱 회장 취임)	- 의편협15년과국내의학학술지발전 - 서창욱 - 학술지편집인의역할 - 김동규 - 의편협의국제협력사업(WPRIM&APAME) - 서정욱 - KoreaMedSynapse의새로운발전 - 이춘실 - 학술지국제화의최신경향 - 허선 - 국제색인DB등재를위한노력과정과 - 이춘기 - 영문학술지로의전환과학술지변화 - 김태일
2011.6.23	제 27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2011.8.28	Sample Cases of Duplicate Publication (중복출판사례집) 발간	
2011.10.20	제 10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11.11.23	KAMJE Workshop	
2011.12.8	제 28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12.3.27	2012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 저자(author),저자됨(authorship) - 배중우 - 공동연구의저자됨 - 홍성태 - 이해관계,이해상충 - 김수영 - ConflictofInterest(COI)제출과표기 - 한동수
2012.6.14	제29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2012.9.1	APAMED Central launching	

날짜	제목	비고
2012.10.18	제 11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12.11.22	제 30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2012.12.7	제 6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2013.3.28	2013년도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학술지에서 편집인의 역할 - 홍성태 -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SCIE) 잡지의 Final Editing 경험 - 박명희 - 최근 약진하는 KAMJE 학술지- Cancer Research & Treatment - 김일한 - 최근 약진하는 KAMJE 학술지-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 Motility - 김나영 - CrossMark Initiative: and introducing FundRef - carol Anne Meyer - PubReader & CrossMark in Synapse - 권오훈
2013.5.9	제1차 KoreaMed 등재 14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13.6.13	제31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2013.11.8	제 12차 KoreaMed 등재 7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13.12.12	제 32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2014.3.27	2014년도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제7대 홍성태 회장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er Reviewer 제도 - 김재원 - YMJ의 Peer Review 경험 - 박중원 - CascadeReview - 홍성태 - Korean Journal of Urology 경험 - 박광성 - CrossMark&ORCID적용 - 권오훈 - 효율적인 논문투고 시스템 ScholarOne - 임애리
2014.3.27	코리아메드 레코드 20만건, 코리아메드 시넵스 5만건 돌파	
2014.5.29	제2차 KoreaMed 등재 14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14.6.9	KAMJE 전현직 회장단 간담회	
2014.6.9	WHO 인턴 파견	권현지, 유혜린
2014.7.10	제 33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2014.11.13	제13차 KoreaMed 등재 14년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2014.11.25	대한소아과학회 간담회	
2014.12	소식지 53호 발행	
2014.12-2015.2	WHO 인턴 파견	백유미
2015.1.30	KAMJE Journals 2015 발간	
2015.1.31	제4회 논문작성 워크숍	충남대병원에서 개최
2015.3.26	2015년도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에 대한 편집인들의 인식 - 양희진 - 의학학술지 평가기준의 개선방향-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 오세정 - Creative commons의 철학, 의미와 적용 방법, 우리나라 저작권 법과의 관계 - 서정욱 - 편집인과 심사자가 알아야 할 의학연구윤리 - 김옥주 - Clinical Trials와 보고지침/임상시험등록과 논문게재- 박현영

날짜	제목	비고
2015.3.26	코리아메드 레코드 22만 건 돌파	
2015.5.14	제3차 코리아메드 등재 14년차 학술지 평가회	
2015.6.25	제34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2015.8.29	제5회 논문작성 워크숍	
2015.11.12	제35차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2015.12.4-5	제9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2015.12.10	제14차 코리아메드 등재 7년차 학술지 평가회	
2016.1.30	제6회 논문작성 워크숍	

단체회원 명단

회원가입년도	의학	의대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영양학, 생명과학
1996년 (100종)	가정의학회지	고신의대지	
	노인병	동국의학(2011년 탈퇴)	
	농촌의학 지역보건	순천향의대지	
	대한감염학회지	연세의대지	
	대한화학요법학회지	영남의대지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원광의대지(2010년 탈퇴)	
	대한골절학회지	전남의대지	
	대한기관식도학회지	조선의대지	
	대한남성과학회지	중앙의대지	
	대한내과학회지(내과국문)	충북의대지	
	대한내분비학회지		
	대한대장항문학회지		
	대한두경부종양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지		
	대한마취과학회지		
	대한미생물학회지		
	대한바이러스학회지		
	대한미세수술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법의학회지		
	대한불임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비만학회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대한세포병리학회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대한슬관절학회지		
	대한신경과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대한신장학회지		
	대한안과학회지(안과국문)		
대한영상의학회지(영상국문)			
대한외과학회지			

회원가입년도	의학	의대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영양학, 생명과학
	대한외상학회지		
	대한음성언어의학회지		
	대한응급의학회지		
	대한의료정보학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대한이식학회지		
	대한재활의학회지		
	대한정신약물학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대한주산의학회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대한척추외과학회지		
	대한초음파학회지		
	대한통증학회지		
	대한피부과학회지		
	대한피부연구학회지		
	대한핵의학회지		
	대한혈관외과학회지		
	대한흉부외과학회지		
	보험의학회지(한국생명보험의학회)		
	부인종양		
	생물정신의학		
	소아과		
	소아알레르기및호흡기학회지		
	소아외과		
	수면정신생리		
	신경정신의학		
	예방의학회지		
	임상소아혈액종양		
	의사학		
	정신병리학		
	정신분석(한국정신분석학회)		
	정신신체의학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한국심초음파학회지		
	한국역학회지		
	한국의학교육		
	한국정신치료학회지		

회원가입년도	의학	의대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영양학, 생명과학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한국BRM학회지		
	한국혈전지혈학회지		
	항공우주의학회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Korean Circulation Journal		
	The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The Korean Journal of Hematology (통합, 2005.3)		
	The Korean Journal of Hepatology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1998년 (8종)	Exp Mol Med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대한소아신장학회지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2010년 탈퇴)		
	Cancer Res Treat		
	대한면역학회지		
	당뇨병		
	천식및알레르기		
1999년 (14종)	대한자기공명외과학회지		대한간호학회지
	대한산업의학회지		대한여성건강간호학회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대한해부학회지		
	Journal of Rhinology		
	대한고혈압학회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대한스포츠의학회지		
	Experimental Neurobiology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대한수혈학회지			
2001년 (3종)	Korean Journal of Radiology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지		
	대한의진균학회지		
2002년 (6종)	대한간질학회지		대한치과보철학회지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회원가입년도	의학	의대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영양학, 생명과학
2002년 (6종)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임상약리학회지		
	한국유방암학회지		
2003년 (5종)	대한배뇨장애및요실금학회		성인간호학회지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족부외과)		기본간호학회지
2004년 (11종)	노인정신의학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소아심장		재활간호학회지
	대한뇌혈관외과학회지		중앙간호학회지
	Genomics & Informatics(유전체)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지		
	대한위암학회지		
대한인상미생물학회지			
2005년 (10종)	대한의사협회지	계명의대학술지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Hanyang Medical Reviews(한양의대 학술지)	대한치과교정학회지
	대한골대사학회지		대한치주과학회지
	Korean Journal of Spine		한국영양학회지
2006년 (10종)	대한나학회지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의학물리		
	보건의료교육평가		
	대한수부외과학회지		
	대한견주관절학회지		
	병원간염관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임상검사외정도관리		
J Lung Cancer			
2007년 (2종)	Intestinal Research		
	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		
2008년 (19종)	Asian Spine Journal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대한의학유전의학회지		
	대한임상독성학회지		
	대한평형의학회지		
	J Toxicol Public Health		
	대한고관절학회지		
	대한폐경학회지		
	Psychiatry Investigation		
	대한전해질협압학회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회원가입년도	의학	의대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영양학, 생명과학
2008년 (19종)	대한화상학회지		
	소아감염		
	Annals of Dermatology		
	Gut and Liver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지		
2009년 (5종)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Biology
			간호행정학회지
			Asian Nursing Research
			The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
2010년 (10종)	Journal of Stroke		Mycology
	Laboratory Animal Research		
	Brain & NeuroRehabilita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Korean Journal of Audiology		
	환경독성보건학회지		
	임상당뇨병		
	대한골다공증학회지		
신경중재치료의학			
2011년 (12종)	대한감상선학회지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
	Safety and Health at Work		대한치과보존학회지
	Laboratory Medicine Online		대한수의학회지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구강생물학연구
	The Korean J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		대한구강보건학회지
	Dementia and Neurocognitive Disorders		
	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		
2012년 (17종)	대한관절경학회지	The Ewha Medical Journal	구강회복응용과학지
	대한뇌종양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대한임상신경생리학학회지		Clinical and Experimental Vaccine Research
	대한조현병학회지		Journal of Biomedical Research
	한국임상약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tem Cells
	Asia Pacific Allergy		

회원가입년도	의학	의대	치의학, 수의학, 간호학, 영양학, 생명과학
2012년	Journal of Reproductive Endocrinology		
	(17종)		
	Osong Public Health and Research Perspectives		
2013년 (18종)	노인간호학회지		기초간호자연과학지
	대한내분비외과학회지		중환자간호학회지
	대한비뇨기종양학술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대한체담도학회지		Biomolecules & Therapeutics
	보건행정학회지		Clinical Nutrition Research
	생물치료정신의학		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수면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의료커뮤니케이션		
	임상이비인후과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Natural Product Sciences			
2014년 (9종)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한국학교보건학회지
	Journal of Metabolic and Bariatric Surgery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Journal of Breast Disease		
	Journal of Movement Disorders		
	Journal of Liver Cancer		
	Korean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Clinical and Experimental Emergency Medicine			
2015년 (15종)	부정맥		치위생과학회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지		대한치과재료학회지
	*Gastrointestinal Intervention		계명간호과학
	대한불안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지		
	대한연하장애학회지		
	Journal of Acute Care Surgery		
	한국조직공학재생학회		
	Biomedical Engineering Letters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지			
Osteoporosis and Sarcopenia			

통합 · 폐간 · 탈회 학술지

2001년	대한미생물학회지와 대한바이러스학회가 J Bacteriol Virol로 통합
2001년	대한면역학회지와 한국BRM학회가 Immune Network로 통합됨.
2003년	대한감염학회지와 대한화학요법학회가 감염과학요법으로 통합
2005년	대한혈액학회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지, 한국혈전지혈학회지가 The Korean Journal of Hematology로 통합
2008년	대한세포병리학회지가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에 통합
2008년	소아심장이 Korean Circulation Journal에 통합
2009년	대한피부연구학회지가 Annals of Dermatology와 통합
2009년	대한세포병리학회지가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에 통합
2009년	대한소아심장학회 Journal of the Korean Pediatric Cardiology Society가 Korean Circulation Journal에 통합
2010년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 탈퇴
2011년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가 Korean Circulation Journal에 통합
2012년	Pediatric Allergy and Respiratory Disease 폐간
2012년	Journal of Lung Cancer 폐간
2012년	Korean Journal of Gynecologic Endoscopy and Minimally Invasive Surgery 폐간
2012년	Journal of Korean Arthroscopy Society 폐간
2013년	대한뇌전증학회지 폐간
2013년	Journal of Reproductive Endocrinology 폐간
2013년	Journal of Korean Arthroscopy Society 폐간
2014년	대한기관식도과학회 Korean Journal of Bronchoesophagology가 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로 통합
2014년	한국독성학회 Toxicological Research 탈퇴

개인회원 명단

이름	소속	승인년도	갱신(5년)	임기(5년)	탈퇴
권오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2015		2015. 04-2020. 03	
권오훈	한솔병원 내과	2013		2013. 04-2018. 03	
김각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미생물학교실	2007	2012	2012. 04-2017. 03	
김동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2004	2009, 2014	2014. 04-2019. 03	
김병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014		2014. 04-2018. 03	
김상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013		2013. 04-2018. 03	
김성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김수녕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학교실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김수영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2005	2010, 2015	2010. 04-2015. 03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학교실	2008	2013	2013. 04-2018. 03	
김정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2013		2013. 04-2018. 03	
김종성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2011		2011. 04-2016. 03	
김중임	순천향대학교 간호과학	2007	2012	2012. 04-2017. 03	
김태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	2015		2015. 04-2020. 03	
김혜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013		2013. 04-2018. 03	
나은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2005	2010, 2015	2010. 04-2015. 03	
민양기	국립중앙의료원 이비인후과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박병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07	2012	2012. 04-2017. 03	
박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013		2013. 04-2018. 03	
배종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2007	2012	2012. 04-2017. 03	
서정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서창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송경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퇴직)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오세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2013		2013. 04-2018. 03	
오양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이령아	이화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2013		2013.04-2018.03	
이성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007	2012	2012. 04-2017. 03	
이은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2011		2011. 04-2016. 03	
이철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이준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2011		2011. 04-2016. 03	
이춘실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이흥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2007	2012	2012. 04-2017. 03	
임정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1999	2004, 2009, 2014	2014. 04-2019. 03	
정소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1998	2003, 2008, 2013	2013. 04-2018. 03	
조경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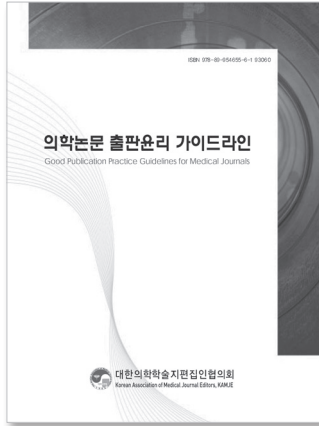
이름	소속	승인년도	갱신(5년)	임기(5년)	탈퇴
조동숙	울지대학교 간호대학	2007	2012	2012. 04-2017. 03	
조승열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최민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2005	2010, 2015	2010. 04-2015. 03	
최인홍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2013		2013. 04-2018.03	
한동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007	2012	2012. 04-2017. 03	
함창국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허 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1996	2001, 2006, 2011	2011. 04-2016. 03	
홍성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1999	2004, 2009, 2014	2014. 04-2019. 03	
김호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1998	2003, 2008	2008. 04-2013. 03	2013
박영주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2004	2009	2009. 04-2014. 03	2014
박찬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1999	2004, 2009	2009. 04-2014. 03	2014
서연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2004	2009	2009. 04-2014. 03	2014
오병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학교실	2004	2009	2009. 04-2014. 03	2014
김훈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2005	2010	2010. 04-2015. 03	2015
이경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교실	2005	2010	2010. 04-2015. 03	2015
조수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005	2010	2010. 04-2015. 03	2015

개인회원(43명)

특별회원 명단

회원가입년도	가입	기타	탈퇴
1996(3종)	메드랑(의학문화사)		
	아카데미아		
	중앙문화사		
2002(1종)	진기획		
2003(2종)	최신의학사		
	광문출판사		
2005(2종)	엠투커뮤니티		
	Proquest한국지사		Proquest한국지사(2007년)
2006(2종)	NHN(주)		
	JOY DESIGN		
2007(3종)	Google Inc.		Google Inc.(201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14년)
	(주)누리미디어		
2008(2종)	우리의학사		
	(주)XMLink		
2009(2종)	아이비기획		
	XMLARCHIVE		XMLARCHIVE(2013년)
2010(4종)	갑우문화사		
	(주)InfoLumi		
	서형디자인		서형디자인(2012년)
	주)산원데이터넷		주)산원데이터넷(2013년)
2012(2종)	Editage		
	인권앤파트너스		
2014(1종)	메드소프트		
2015(1종)	크림슨인터렉티브코리아(주)		

발간 간행물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저 자 | 함창곡, 권오훈, 김수영, 김옥주,
박영주, 박현영, 배종우, 서창욱,

발행처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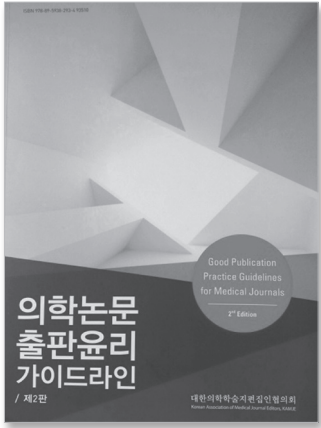
발행일 | 2008년 1월 31일

ISBN | 978-89-954655-6-1

| 316

본 협의회에서는 출판윤리위원회(위원장 함창곡)가 중심이 되어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개념에서부터 위반행위의 원인과 위반에 대한 처리까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 연구, 출판윤리의 확립과 저널의 질적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의편협 홈페이지(kamje.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개정판)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2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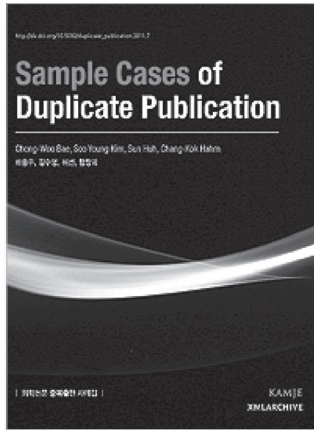
저 자 | 함창곡, 권오훈, 김수영, 김옥주,
박영주, 박현영, 배종우, 서창욱,
발행처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행일 | 2013년 3월 28일
ISBN | 978-89-5938-293-4 93060

317 |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주도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이 발간되었다. 본 도서는 2008년 1월에 발표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의 개정판으로, 2006년 본 협의회에 출판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을 모아 발간된 책이다. 서창욱 회장은 제2판 발간사에서 '국내 학술지들이 급속히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출판윤리에 관한 의편협의 활동이 학술지의 격을 높이고 국제무대에 진입하는 데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본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자문한 사안들이 보강된 본 도서를 단체회원 학술지 발행 학회와 전국 의과대학 학장실,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실, 언론사로 발송하였다. 동시에 출판윤리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각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 연구출판윤리 및 올바른 의학논문 작성법을 다루는 공통필수과목을 개설하고, 의과대학 과정에 최소 1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포함시켜 연구자들이 출판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도서는 의편협 홈페이지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메뉴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중복출판 사례집

Sample Cases of Duplicate Publication

서적명 | DOI Sample Cases of Duplicate Publication (중복출판 사례집)

저 자 | 배종우, 김수영, 허선, 함창곡

발행처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XMLARCHIVE

발행일 | 2011년 8월 28일

ISBN | 978-89-97020-08-9 93510

http://dx.doi.org/10.5082/duplicate_publication.2011.7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아래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중복출판 관련 국내 전문가가 작업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에서 중복출판 사례를 분류해 편집인과 편집위원·투고자·전문가심사자·원고편집인·발행인·의학 분야 대학원생 및 전공의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안내서로 국내·외에서 이런 종류의 교재는 처음이다.

이 작업은 국내 의학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미 잘 알려진 중복출판의 세 가지 유형 즉, 복제(copy)·분절 출판(salami)·덧붙이기 출판(imalas)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했고 각각 경우에 해당하는 논문을 찾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사례 형식으로 만들어 정리했다. 이때 논문은 주제나 날짜를 모두 변경하고 문장을 바꾸어 해당 논문이 어느 것인지 찾는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폐암이면 간암으로, 고혈압이면 당뇨병으로 사례를 변경했다.

또 이 사례들을 분석해 저자와 소속·가설·대상·방법·결과·새로운 정보·투고일·원 논문 인용 여부·표·그림·참고문헌·연구비 등을 정리한 뒤 중복 출판으로 판정한 이유와 유형 그리고 중복출판 이외의 다른 출판윤리 문제를 기술해 일목요연하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록에 중복 출판관련 선언문과 발생할 때 처치 흐름도를 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마지막에 용어 정리를 통해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재는 Open Access이며 의편협 누리집(<http://kamje.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KAMJE JOURNALS

KAMJE JOURNALS 2009

- Preface
- User Guide
- 184 Korean Biomedical & Life Science Journals
- Subject Indexes
 - by SCI Subject Category (SC)
 - by Medical Subject Heading (MeSH)

<http://dx.doi.org/10.3335/KAMJE.Journals.2009>

ISBN | 978-89-963367-0-9

pISSN | 2092-8254

eISSN | 2092-8262

319 |

KAMJE JOURNALS 2012

- Preface
- User Guide
- 206 Korean Biomedical & Life Science Journals
- Subject Indexes
 - by Broad Subject Terms (MeSH)
 - by Medical Subject Heading (MeSH)
 - by SCI Subject Category (SC)

Journal information listed in this directory is searchable
in the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

<http://dx.doi.org/10.3335/KAMJE.Journals.2012>

ISBN | 978-89-963367-1-6

pISSN | 2092-8254

eISSN | 2092-8262



KAMJE JOURNALS 2015

- Preface
- User Guide
- 241 Korean Biomedical & Life Science Journals
- Subject Indexes
 - by Broad Subject Terms (MeSH)
 - by Medical Subject Heading (MeSH)
 - by SCI Subject Category (SC)

Journal information listed in this directory

is searchable in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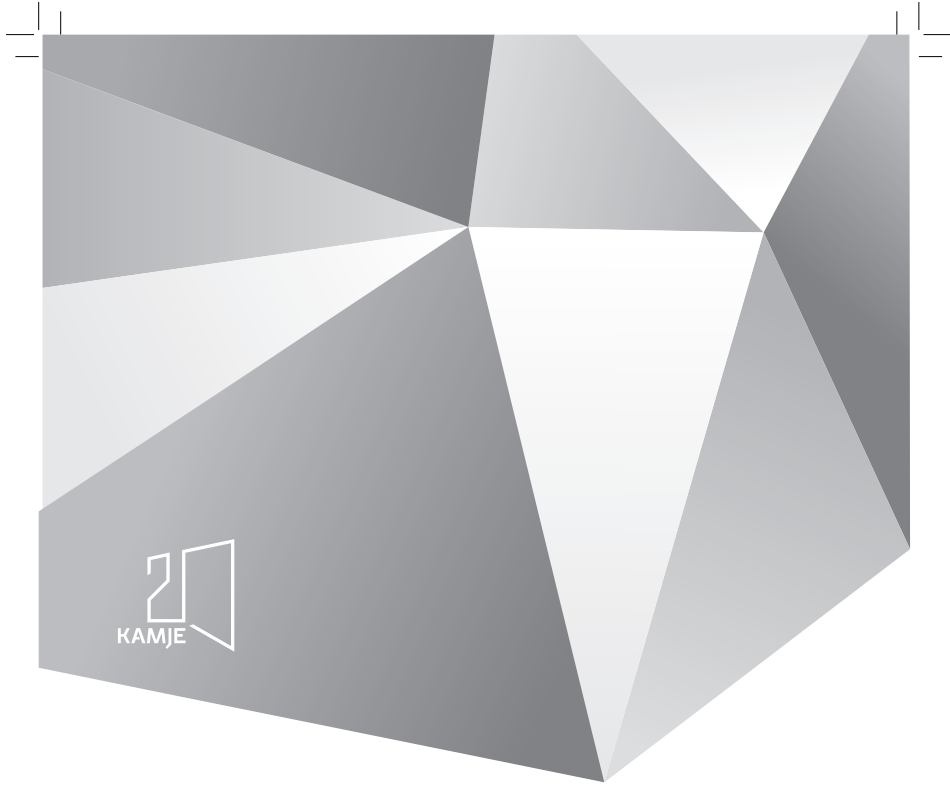
Korean Medical Journal Information.

<http://dx.doi.org/10.3335/KAMJE.Journals.2015>

ISBN | 978-89-963367-2-3

pISSN | 2092-8254

eISSN | 2092-8262



20
KAMJE

서부



1996-201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2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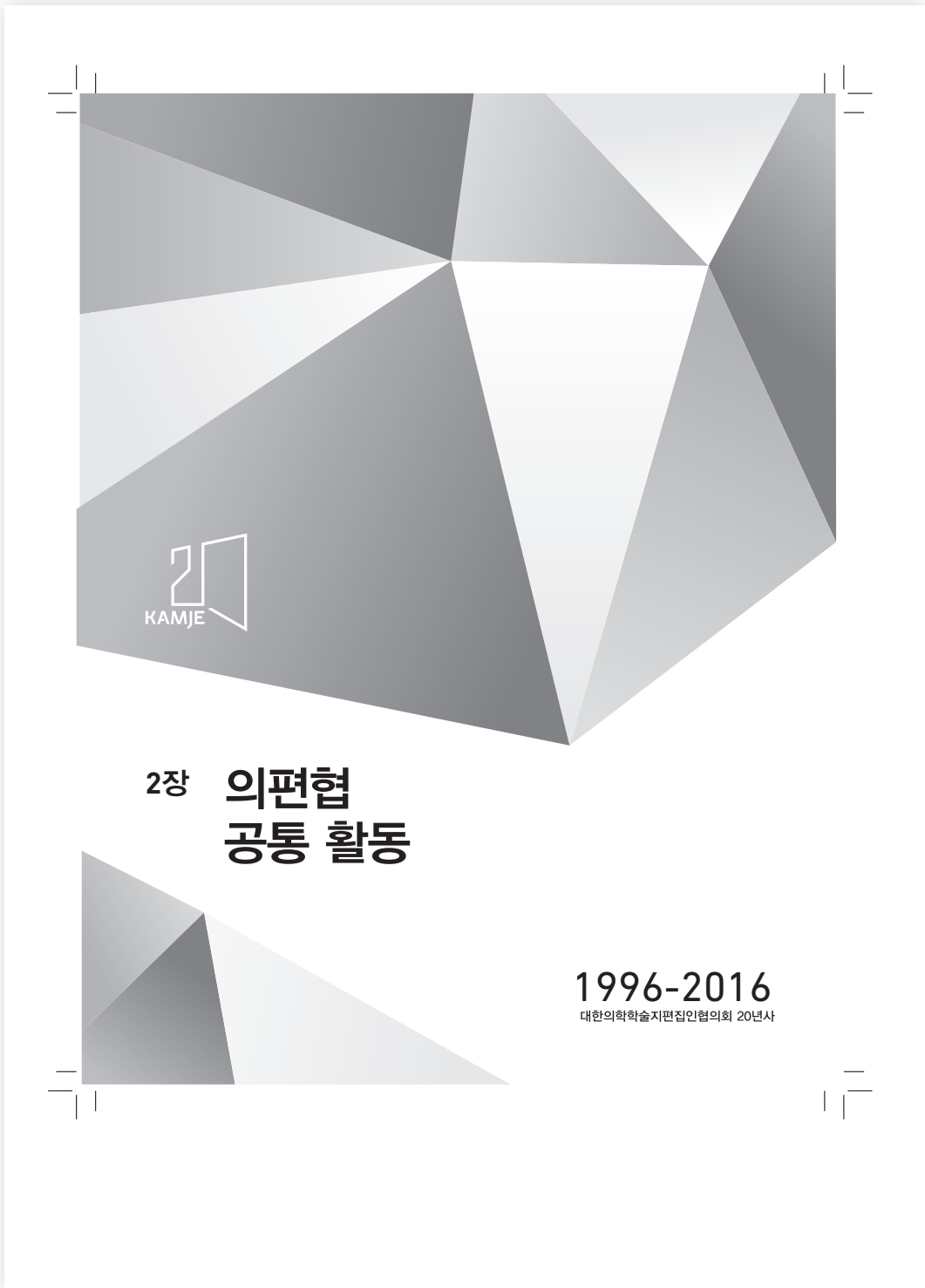




1장 **의편집의 시작, 현재, 미래**

1996-2016

대한의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사



2장 **의편협
공동 활동**

1996-201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사

학술지 평가항목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의학학술지 평가항목

제정 1997. 8. 18.

8차 개정 2015. 5. 14.

※ 학술지 발간의 정기성과 논문심사(전문가심사, Peer Review)제도는 평가 전(前) 필수 점검항목.

1. 자체평가 항목

| 324

註. 해당학술지 편집인이 관리하는 기록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답해야 하는 평가항목(실무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9개 항목)

1-1 최근 15년간 편집장(editor in chief) 교체 횟수

- () 1점 : 9회 이상
- () 2점 : 7-8회
- () 3점 : 5-6회
- () 4점 : 3-4회
- () 5점 : 3회 미만
- () +1점 : 편집인 전임제(full-time editor)를 운영하는 경우 1점 가산.

註. 1) 지령 15년 미만의 학술지인 경우에는 15년으로 환산하여 횟수를 계산.

2) 편집인 전임제(full-time editor)는 편집인이 학술지 편집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해당 학술지 발행기관이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1-2 편집위원회(또는 간행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정책회의의 빈도

- () 1점 : 구성은 되어 있으나 편집정책회의 실적이 없다.
- () 2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의 회의 실적은 부정기적이고 3회 이내이다.
- () 4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다.
- () 5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 소속원이외의 편집관련 전문인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의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다.

註.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의 개정, 편집방침의 결정, 논문 게재 상 발생하는 분쟁사례의 해결 등을 위한 모임임. 논문심사 편의상 모이는 회의는 위에 포함되지 않음.

1-3 편집업무 지원관련 사항

- (1) 1점 : 웹기반 투고관리 시스템을 운용한다.
- (2) 1점 : 편집업무 담당 사무직원이 있다.
- (3) 1점 : 영문교정자를 별도로 두고 있다.
- (4) 1점 : 원고의 체제 및 문장수정을 담당하는 원고편집인(manuscript editor)을 별도로 두고 있다
- (5) 1점 : 편집사무실을 운영한다.
- () : (1)-(5) 해당 점수의 합

325 |

1-4 1차 전문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최근 1년간) : 자료 제출 필요

- () 0점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0% 보다 많다.
- () 1점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0% 이내이다.
- () 3점 :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10%-20%이다.
- () 5점 :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10% 이내이다.

註. 1) 심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편집인이 기간 단축을 독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2) 게재여부를 빨리 결정함으로써 저자가 수정 또는 다른 학술지에 접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1-5 전문가심사 1차 심사 결과 (최근 1년간) : 자료 제출 필요

- () 1점 : 게재논문의 10% 미만이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 2점 : 게재논문의 10%-2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 3점 : 게재논문의 20%-4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 4점 : 게재논문의 40%-60%가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 () 5점 : 게재논문의 60% 이상이 수정 및 보완한 원고이다.

註. 오류 또는 자구 수정요구는 수정요구에 포함되지 않음.

1-6 전문가심사 최종 결과 배척(rejection) 또는 저자회수(withdraw)율 (최근 1년간) : 자료 제출 필요

- () 0점 : 전혀 없다.
- () 2점 : 10% 미만
- () 3점 : 10% 이상 30% 미만
- () 4점 : 30% 이상 50% 미만
- () 5점 : 50% 이상

| 326

註. 1)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뒤 재심 결과 또는 편집인의 최종 결정을 기준으로 함.
2) 저자수정을 의뢰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으면 저자회수로 간주함.

1-7 기타 전문가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1점 : 심사위원이 재심, 3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 1점 : 전문가심사 내역서, 저자수정 내역서 등을 보관한다.
- () 1점 : 전문가심사 지침서 또는 전문가심사 업무편람을 갖추고 있다.
- () 2점 : 2점 : 논문 전문가심사 위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 (1)-(4) 해당 점수의 합

1-8 저작권 보호(중복출판 방지) 조치

- () 0점 : 투고규정에 저작권 보호관련 조항이 없다.
- () 2점 : 관련 규정에 중복투고와 출판에 관한 금지 조항이 있다.
- () 3점 : 관련 규정은 있으나 저자에게 저작권 이관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 () 4점 : 책임저자에게 저작권 이관 동의서를 받는다.
- () 5점 : 저자 모두의 저작권 이관 동의서를 받는다.

1-9 발송처 범위 : 자료 제출 필요

- (1) 1점 : 해당 학회(또는 대학)의 회원(또는 교원)에 기관별로 일괄 발송한다.
- (2) 1점 : 국내 유관기관(도서관,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
- (3) 1점 : 국외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 (4) 1점 : 판매실적이 있다.
- (5) 1점 : PubMed, SCI, Excerpta Medica, Biological Abstracts, Chemical Abstracts 등 의학 관련 국제 전문색인지나 DB를 주관하는 기관에 발송한다.
- () : (1)-(5) 해당 점수의 합

2. 실물평가 항목

註. 평가단 모든 위원이 평가대상 학술지의 최근호를 보고 평가하는 항목(13개 항목)

2-1 표지도안 상태와 오류 유무 (※전자출판 학술지는 웹 사이트로 대체)

- () 0점 : 표지 지지(紙誌)사항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지면배치(layout)나 도안에 개선할 사항이 많다.
- () 1점 : 표지의 지지사항에서 오류가 발견된다.
- () 2점 : 표지의 지지사항에 오류는 없으나 지면배치와 도안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
- () 3점 : 오류가 없고, 표지도안은 보통이다.
- () 4점 : 오류가 없고, 표지도안은 우수하다.
- () 5점 : 오류가 없으며 매우 우수하다.

2-2 투고규정, 판권관리란, 게재논문목록 등 편집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문의 오류유무 및 인쇄상태 (※전자출판 학술지는 웹 사이트로 대체)

- () 0점 : 오류가 있다.
- () 2점 : 오류는 없으나 편집의 개선이 필요하다.
- () 3점 : 오류는 없으나 인쇄상태가 좋지 않다.
- () 4점 : 오류는 없으며 인쇄상태는 보통이다.
- () 5점 : 오류도 없고 인쇄상태도 좋다.

2-3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I) : 학술지의 기본적인 사항

- (1) 1점 : 취급논문의 범위 및 간기
- (2) 1점 : 논문의 종류별 논문 구성요소 및 논문 작성 기본요령
- (3) 1점 : 이해관계 관련 규정
- (4) 1점 : 기관연구윤리 및 동물실험 IRB 관련규정
- (5) 1점 : 출판윤리 관련 규정
- () : (1)-(5) 해당 점수의 합

2-4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II) : 투고원고 작성에 관한 사항

- (1) 1점 : 제목 작성 요령
- (2) 1점 : 초록 작성 요령
- (3) 1점 : 중심단어(key word) 작성 요령
- (4) 1점 : 본문의 용어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
- (5) 1점 : 그림, 사진, 도표 작성 요령 및 규격 사항
- () : (1)-(5) 해당 점수의 합

2-5 투고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III) : 원고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1) 1점 : 저자의 원고제출 전 점검사항 표
- (2) 1점 : 참고문헌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
- (3) 1점 : 원고의 표지 작성 요령
- (4) 1점 : 책임저자에 관한 사항
- (5) 1점 : 저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authorship)
- () : (1)-(5) 해당 점수의 합

2-6 논문(국문 또는 영문)제목, 저자 이름 및 소속 사항의 인쇄 체재와 오류 유무

- () 0점: 논문제목에서 1군데 이상의 오자가 발견된다.
- () 1점: 논문 상호간 체재상의 차이가 있다.
- () 3점: 일정한 체재를 유지하고 오류도 없지만 고유명사 표기의 오류와 부호를 잘못 표기한 경우가 있다.
- () 4점: 논문 첫 장 레이아웃에서 구성과 배치가 부적절한 논문이 있다.
- () 5점: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註. 체재상의 차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1) 영문 또는 영문초록의 저자이름 표기에 차이
- 2) 영문 또는 영문초록의 저자이름 뒤에 학위 표기 여부의 차이
- 3) 같은 사항 간 활자크기의 차이
- 4) 소속 표기와 관련하여 도시명, 우편번호, 국가명 표기의 차이
- 5) 투고규정을 위반한 제목표기(단어수 제한, 용어 제한)

2-7 영문(또는 국문)초록의 체재와 오류 유무

- () 0점: 체재가 일정치 않다.
- () 1점: 체재는 일정하지만 오류가 발견된다.
- () 3점: 영문법에 틀린 문장이 있고 투고규정에서 정한 단어수를 초과하는 초록이 있다.
- () 4점: 중심단어 선정에 주의를 요하는 논문이 있다.
- () 5점: 완벽하다.

註 1. 일정치 않은 체재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1) 정형초록(structured abstract)과 비정형초록(nonstructured abstract)의 혼용
- 2) 초록 내 결과에 번호를 붙여 기술한 논문이 있는 경우(요약형식)
- 3) 투고규정과 다르게 여러 개의 문단(paragraph)으로 나눈 초록이 있는 경우
- 4) 줄간격이 초록마다 다른 경우 등

註 2. 중심단어의 부적절한 기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1) 투고규정과 다른 기술이 있다.
- 2) 단어가 아닌 서술형이 있다.
- 3) 약어로 기술되어 있다.

2-8 본문(참고문헌 인용 및 문헌 나열 관련 사항 제외)의 체재와 오자(띄어쓰기 제외) 유무

- () 0점 : 체재에 일관성이 없거나 논문구성요소 중 일부요소가 누락된 논문이 게재된 경우
- () 1점 : 어색한 문장과 오류가 자주 발견되거나 오류가 많은 논문 (해당 논문에서 페이지당 2개 이상)이 게재된 경우
- () 2점 :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류의 수가 페이지당 평균 1-2개
- () 3점 :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류의 수가 페이지당 평균 1개 미만
- () 5점 : 무작위로 택한 3쪽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

2-9 참고문헌 인용과 나열 방식

| 330

- () 0점 : 투고규정에 참고문헌 인용 및 나열 방식에 대한 안내가 없다.
- () 1점 :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쓴 논문이 있다.
- () 2점 : 모든 논문을 투고규정이 정한 방식에 맞추었으나 참고문헌의 약자표기에 오류가있다.
- () 3점 : 이상의 문제는 없으나 저자이름, 또는 연도-권-호-페이지 표기방식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된다.
- () 4점 : 체재상 완벽하나 오류가 발견된다.
- () 5점 : 무작위로 택한 2편의 논문에서 전혀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

註. 방식이란 Harvard style, Vancouver style 또는 기타 변형 style을 말한다.

2-10 표(table)의 설명문안과 배치

- (1) 1점 : 표의 내부 중간에 가로줄, 세로줄이 없다.
- (2) 1점 : 표의 내부에 정렬의 일관성이 있다.
- (3) 1점 : 각주 설명(약어해설, 표식설명 등)이 올바르다.
- (4) 1점 : 표의 크기 및 배치가 적절하다.

- (5) 1점 : 오타자가 없다.
- (6) -3점 : 원본 표가 아니거나 남의 표를 사용하면서 원저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
- () : (1)-(6) 해당 점수의 합

2-11 사진의 선명도, 설명 및 배치

- (1) 1점 : 사진이 선명하다.
- (2) 1점 : 설명체재(약어해설, 배율, 염색명 등 포함)에 일관성이 있다.
- (3) 1점 : 설명이 정확하고(사진에 각주, 화살표 등 표시) 상세하다.
- (4) 1점 : 사진과 사진 내 글씨의 크기와 배치가 적절하다.
- (5) 1점 : 사진설명에 오타자가 없다.
- (6)-3점 : 원본 사진이 아니거나 남의 사진을 사용하면서 원저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
(3점을 감점함)
- () : (1)-(6) 해당 점수의 합

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사진을 포함한 논문이 없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2-12 도형그림(line drawing)의 작성 방법, 글씨 크기 및 배치

- (1) 1점: 도형그림이 선명하다.
- (2) 1점: 설명체재(약어해설, 표식설명 등)에 일관성이 있다.
- (3) 1점: 설명이 정확하고(도형에 각주, 화살표 등 표시) 상세하다.
- (4) 1점: 도형과 글씨의 크기와 배치가 적절하다.
- (5) 1점: 그림설명(제목, 약어)에 오타자가 없다.
- (6) -3점: 타인의 도형그림을 사용하면서 원저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3점을 감점함).
- () : (1)-(6) 해당 점수의 합

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도형그림을 포함한 논문이 없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2-13 학술지의 판권과 홈페이지, 연락처에 관한 별 쪽의 안내

- (1) 1점 : 발행인이 명기되어 있다.
- (2) 1점 : 편집인이 명기되어 있다.
- (3) 1점: 학술지 홈페이지가 명기되어 있다.
- (4) 1점 : 연락처 (주소, 전화, 이메일, Fax)가 명기되어 있다.
- (5) 1점 : 발행처가 명기되어 있다.
- () : (1)-(5) 해당 점수의 합

3. 협의회 조사 항목

註.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평가하는 항목(신규평가 6개, 재평가 및 14년차 재평가 7개 항목)

3-1 발행 일자 준수 여부

- () 0점 : 연간 발행 횟수의 40% 이상에서 지연되었다.
- () 1점 : 연간 발행 횟수의 40% 미만에서 지연되었다.
- () 2점 : 연간 발행 횟수의 30% 미만에서 지연되었다.
- () 3점 : 연간 발행 횟수의 20% 미만에서 지연되었다.
- () 4점 : 연간 발행 횟수의 10% 미만에서 지연되었다.
- () 5점 : 정해진 발간일을 지키지 못한 일이 없다.

註. 최근 1년간 의편집 파일 서버로의 PDF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1주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하였을 경우는 최종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E-journal이면서 비정기 발행인 경우는 1년 간의 steady state를 보고 결정한다. PDF 제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거 기준(인쇄본 납본, e-TOC)을 함께 적용한다. 학술지 정시성 평가와 별도로 인쇄본을 납본하여야 하며 이는 코리아메드 및 코리아메드 시넵스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른다.

참고(코리아메드 및 코리아메드 시넵스 운영 규정)

제 8 조 (코리아메드 및 코리아메드 시넵스 등재학술지 편집인의 역할)

- ① 학술지 PDF를 의편협 서버에 정시에 업로드 하고, 인쇄본을 의편협으로 발송한다.
- ② 학술지 출력본(인쇄본) 및 기타 필요한 디지털 파일을 의편협 자회사에 제공한다.
- ③ 코리아메드 검색 화면에서 해당 학술지에서 제공하는 전문으로 연결을 원하는 경우, 의편협 정 보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전문연결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코리아메드 시넵스에 제출할 영문 참고문헌의 오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2 게재논문의 국내학술지 인용 비율(Korean Journal Citation Rate)

- () 0점 : 전혀 없다.
- () 1점 : 3% 미만
- () 2점 : 3% 이상 5% 미만
- () 3점 : 5% 이상 10% 미만
- () 4점 : 10% 이상 20% 미만
- () 5점 : 20% 이상

*자체 학술지 인용비율이 30% 이상이면 4점 감점

註. 평가대상 학술지에 인용된 참고문헌 전체 중 국내 학술지를 인용한 문헌 수의 백분율.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평균값(KoMCI data 사용). 신규평가 학술지는 지난 1년간의 평균값.

3-3 주요 의학 관련 국제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 (SCI, PubMed, SCOPUS/EMBASE, Biosis Preview, CA Search) 등재 여부

- () 0점 : 등재 안됨
- () 1점 : 1곳에 등재
- () 3점 : 2곳에 등재
- () 5점 : 3곳에 등재

3-4 SCI impact factor

- () 0점 : 없음
- () 1점 : 0.1 미만

- () 2점 : 0.1 이상 0.2 미만
- () 3점 : 0.2 이상 0.3 미만
- () 4점 : 0.3 이상 0.5 미만
- () 5점 : 0.5 이상

註. SCI JCR의 impact factor 산출방식과 동일.

3-5 참고문헌의 오류

- () 0점 : 10% 이상
- () 1점 : 8% 이상 10% 미만
- () 2점 : 5% 이상 8% 미만
- () 3점 : 3% 이상 5% 미만
- () 4점 : 3% 미만
- () 5점 : 전혀 없다

註.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발행분을 평가한다. 단, Non-Synapse 학술지인 경우와 신규평가의 경우는 평가대상인 한 호를 평가한다. 문헌의 오류란 투고규정상의 참고문헌 기재 방식의 오류가 아니라, (학술지명, 연도, 권호수, 쪽수, 논문명, 저자명 등) 내용상의 인용 오류를 말한다. 참고문헌 오류율 = 오류 참고문헌수 / 한국학술지 참고문헌수.

3-6 학술지 논문의 온라인 이용 가능성

- () 1점 : 학술지 관련 Website가 있다.*
- () 1점 : KoreaMed LinkOut에 참여하고 있다.
- () 1점 :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사용하고 있다.
- () 1점 :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초록검색이 가능하다 (무료, 회원제 또는 유료).
- () 1점 :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다 (무료, 회원제 또는 유료).
- () : (1)-(5) 해당 점수의 합

*신규평가 학술지는 1점을 자동 부여한다.

註. KoreaMed를 제외한 국내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조사한다.

3-X 보너스 항목

- (1) 1점 : Cited by CrossRef의 5년 h-index가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 (2) 2점 : Cited by CrossRef의 5년 h-index가 10 이상인 경우
 - (3) 1점 : 1년간의 DOI Resolution rate가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4) 2점 : 1년간의 DOI Resolution rate가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5) 3점 : 1년간의 DOI Resolution rate가 50 이상인 경우
- () : (1)-(5) 해당 점수의 합

註. 이 항목의 점수는 다른 항목(3-1부터 3-6까지)의 누계 점수에 추가되어 합산되며, 공개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만 포함시킨다. DOI Resolution rate=DOI Resolution No. / DOI 부여 논문수.

편집 후기

의편집은 1996년 2월 22일 창립하여 올해로 꼭 20주년이 되는데, 작년 5월 임원회의에서 의편집 발전을 회고하는 역사 기록을 한권의 책에 담기로 하였습니다. 부회장단과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20년사 발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기념책자는 의편집의 시작,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하여 20주년 기념행사가 예정된 총회에 맞춰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사 부분은 국내외 의학 또는 학술지 편집 관련 단체의 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국외 단체에 대해서 이춘실 교수가 많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의편집 주요 활동 부분은 국내 DB 현황 및 국제 DB 등재 현황과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회원들과의 교류, 협력, 소통을 통한 학술지 발전에 대해서도 각 회원 단체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20년사 원고를 정리해나가면서 느낀 점은 이처럼 짧은 시간에 의편협이 발전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임원진의 열정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국제 DB 등재 발전상은 이러한 결과를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으로 SCI 및 PMC 등재 현황,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 수 및 증가율 등 모든 지수에 있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 DB 구축에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들의 노력과 각 회원 학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념책자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어 가던 중 의편협 Brand Identity (BI) 개편 작업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BI가 본 책자에 반영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20년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BI가 뜻하는 바와 같이 갓 스무살 넘은 젊은 의편협이 모든 회원의 꿈을 하나로 모으는 미래의 창문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끝으로 짧은 시간에 본 책자를 성공적으로 발간할 수 있게끔 옥고를 보내주신 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원고를 검토해준 김재원 운영위원장과 허민석 위원, 기록 사진과 부록을 정리하느라 수고한 사무국 직원 및 기한에 맞춰 교정을 완료한 출판사 관계자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2016년 3월 봄날에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년사 발간 특별위원회

